*** 목 숨 건 고 백 ***

육가장에는 다시 연석이 펼쳐지고 술좌석이 정돈되었다. 양과는 이제껏 억눌려 살아오면서 수많은 모욕과 천시를 받아 오다가 오늘에서야 울분을 마음껏 터뜨리고 중원 무림에 큰 공을 세운 것이다. 그러는 그를 크게 뜨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양과의 득의양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세상 일을 잘 알지 못하여 양과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 까닭을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매우 신이 났다. 황용은 그녀에게 매우 친밀한 호의를 가지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녀의 옆자리에 앉도록 했다. 소용녀는 양과가 곽정과 점창어은의 사이에 앉아서 그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손짓하여 부르며 말했다.

"과아야, 내 옆으로 와서 앉아라."

양과는 남녀가 유별함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 기쁜 나머지 갑자기 그녀에게 진정을 표시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눈이 모두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녀와 눈에 띄게 친숙함을 보이자니 매우 거북스러웠다. 그녀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듣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서 살며시 한 번 웃고는 가지 않았다.

소용녀가 다시 불렀다.

"과아야, 왜 오지 않는 거냐 ?"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곽백부께서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

소용녀는 눈썹을 찌푸르며 말했다.

"나는 네가 내 옆에 앉는 것이 좋은데......"

양과는 그녀가 화내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 살짝 화를 내는 소용녀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왔다. 그러한 모습은 그녀를

위하여 분골쇄신(粉骨碎身)도 기꺼이 하게 만들었다. 이전에 그는 육무쌍의 화내는 모습이 소용녀와 다소 닮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육무쌍을 위하여 몸을 바쳐 적을 물리치고 천 리를 보호하며 다녔는데, 이제는 정작 그녀가 나타났으니 어찌 조금이라도 거역할 수 있을 것인가! 양과는 곧장 일어나서 그녀의 자리 앞으로 갔다.

황용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슬그머니 의심이 들어 즉시 자리를 물었다.

"과아야, 너는 이 무공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양과는 소용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분이 나의 사부님이에요. 곽백모는 잘 믿어지지 않으세요?"

황용은 평소에 그가 잔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소용녀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니 설마 속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물었다.

"동생, 그의 무공을 네가 가르친 거란 말이야?"

소용녀는 의기양양하여 말했다.

"그래요. 어때요? 잘 가르친 것 같으세요?"

황용은 그제서야 믿으며 말했다.

"아주 훌륭해! 동생, 너의 사부는 누구지?"

"저의 사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말을 하면서 눈가가 붉어지며 소용녀는 몹시 당황해 했다. 그녀의 사부는 본래 그녀에게 칠정육욕(七情六欲)을 움직이지 말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는 양과에대한 애정이 일어나자 가슴에 깊이 감춰졌던 정들이 천천히 모두 일어나는 것이었다.

황용이 다시 물었다.

"존사의 존함은 어떻게 되시는지?"

소용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요. 사부는 그냥 사부죠, 뭘."

황용은 그녀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무림의 사람

들이 사문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려 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어서 황용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사실 소용녀의 사부는 임조영(林朝英)이 몸종으로 부릴 때 사용하던 명칭만 있을 뿐이어서, 그녀 자신도 사부의 성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이때 각로의 무림 군중들은 분분히 곽정, 황용, 소용녀, 양과 네 사람에게 술잔을 올리며 서로가 금륜법왕 같은 강적을 물리친 것을 축하했다. 곽부는 본래 부모와 함께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왔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다만 무씨 형제가 곁에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화가 나서 말했다.

"큰오빠, 작은오빠, 우리 술 마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놀아요."

무돈유와 무수문은 일제히 이에 응했다. 세 사람이 일어나서 막 대청을 나가려고 하는데갑자기 곽정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부야, 어딜 가는 거냐 ?"

곽부가 고개를 돌려 보니 아버지가 이미 어머니의 자리로 옮겨 앉아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아버지, 엄마 !"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서 황용에게 몸을 기댔다.

곽정이 황용에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처음에는 과아가 인품이 바르지 못하고 무공이 부에게 미치지 못할까 봐 걱정했지 ? 이제 다시 무슨 할 말이 있겠소 ? 그는 전혀 과실이나 경거망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원의 영웅들에게 이토록 큰 공을 세웠으니 이 정도 공에 비하면 모두 별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오."

황용은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며 말했다.

"이번만은 제가 실수를 했군요. 과아는 인품과 무공이 모두 훌륭해요. 저도 무척 좋아하고 있어요."

곽정은 부인이 딸의 혼사에 응답하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소용

녀에게 말했다.

"용아가씨, 제자의 돌아가신 부친과 과아의 할아버지는 예전에 결의 형제를 맺은 친분이 있습니다. 양, 곽 두 집안은 누세토록 좋은 관계를 맺어 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어 인물과 무공도 모두 출중한데......"

그는 성격이 곧아서 머릿속의 생각을 곧 그대로 말해 버리곤 했다. 그러자 황용이 끼여들어 웃으며 말했다.

"아이, 그렇게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니 용아가씨가 들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곽정은 시원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 내 딸자식을 현도(賢徒)와 짝을 맺게 하고 싶습니다. 이미 그의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 이 일을 용아가씨께서 주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군웅이 모두 모였으니 기쁨에 기쁨을 더하여 나이도 많으시고 덕도 훌륭하신 영웅께 매파를 청하오니 친사(親事)를 결정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당시의 혼인은 부모의 명과 매파의 말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남녀 본인들은 아무런 간섭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년에 곽정의 부친 곽소천과 양과의 조부 양철심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지고 혼사를 결정했던 것이다.

곽정은 이 말을 하고 나서 희희낙락 웃으며 양과와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소용녀가 반드시 이 일을 훌륭히 성사시키리라고 생각했다. 곽부는 벌써 부끄러워서 얼굴이 온통 붉어져 얼굴을 어머니의 가슴에 파묻고는 안절부절 못하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안색이 약간변하더니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양과가 이미 몸을 일으켜 곽정과 황용을 향하여 깊숙이 읍을 하고는 말했다.

"곽백부,곽백모께서 키워 주신 은혜와 사랑해 주신 정은 소질(小姪) 백골난망이옵니다. 하지만 소질은 가세가 한미(寒微)하고 인품도 모자라니 댁의 천금 같은 아가씨와 짝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곽정은 본래 자기 부부의 명성이 천하에 가득하고, 딸은 품위와 무공도 손색이 없는 인재여서 이제 자기 입으로 배필을 허락하면 그가 당연히 좋아 어쩔 줄 모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그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순진하여 사양 하는 것이겠거니 여겨 하하 웃으며 말했다.

"과아야, 너와 나는 외인도 아니요, 이것은 종신대사(終身大事)이니 너무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 없다."

양과는 다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읍을 하며 말했다.

"곽백부, 제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소질 뜨거운 물에 뛰어들어가고, 물 위를 걸어가라고 해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혼인의 명만은 감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곽정은 그의 표정이 정중한 것을 보고 너무도 뜻밖이어서 부인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 주기를 바랐다.

황용은 남편이 먼저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이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곧이곧대로 이 문제를 꺼냈다가 거절을 당하자 이상하게 생각했다. 황용은 양과와 소용녀의 표정에서 분명히 그들이 서로 무엇인가 애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스스로 사제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설마 두 사람이 그릇된 행동을 하여 인륜을 거역하는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 점 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양과를 반드시 정인군자(正人君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토록 그릇된 일을 멋대로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송나라 사람들은 예법을 가장 중시했다. 사제의 관계에서도 그 높고 낮음은 군신(君臣), 부자(父子)와 마찬가지여서 절대로 문란한 관계가 일어날 수 없었다. 황용은 설마하면서도 이 일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라 그대로 믿을 수만도 없어서 양과에게 다시 물었다.

"과아야, 용아가씨가 정말 너의 사부란 말이냐 ?"

"예, 그렇습니다 !"

"너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부로 모시는 대례(大禮)를 행했느냐 ?"

"예."

그는 입으로는 계속하여 황용에게 대답을 하면서도 눈으로는 시종 소용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얼굴 가득히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희열에 찬,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이 나타나, 황용처럼 남달리 총명한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결코 보통 사제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

곽정은 아직 부인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가 없어 혼자 생각했다.

(그가 이미 용아가씨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사람의 무공도 과연 같은 계파의 것인데 설마 무슨 거짓이 있을려구 ? 나는 그에게 딸과의 혼사를 꺼냈는데 왜 용이는 다시 그들의 사문파에 대해 물업보는 거지 ? 흠, 그가 처음에는 전진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다른 사부를 섭겼지만 그것이 비록 무림의 법규에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화해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

황용은 양과와 소용녀의 표정을 보고 은근히 놀라며 남편에게 눈짓을 하면서 말했다.

"부는 나이가 아직 어린데 혼사를 왜 그리 서두르십니까 ? 오늘은 각처의 영웅 호걸들이 모두 모여들었으니 국가의 요긴한 대사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애의 사사로운 문제는 잠시 접어 둡시다."

곽정은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서둘러 말했다.

"맞아요 맞아. 내가 공연히 사사로운 자식 문제를 가지고 공사를 그르칠 뻔했구료. 용아가씨, 과와 딸애와의 혼사는 며칠 후에 다시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소용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바로 제가 과의 부인이 될 거예요. 그는 당신의 딸을 맞아들일 수 없어요."

이 말은 너무도 맑고 분명하게 울려퍼져 대청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도 모두 알아들었다. 곽정은 너무나 놀라 벌떡 일어나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양과의 손을 잡고 매우 은밀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그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소용녀는 오랫동안 햇빛이 없는 지하의 고묘에 살아서 얼굴에 혈색이라곤 없이 언제나 백설처럼 하야말쑥했다. 그러나 지금은 양과를 만난 일로 상기되어 그 안색이 마치 금방 피어난 꽃과 같았다. 소용녀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 나는 이전에는 그에게 무공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의 무공은 나와 마찬가지로 강해요. 그는 마음속으로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매우 좋아해요. 이전에는......"

여기까지 말하자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녀는 비록 천진순박했지만 여자의 부끄러움은 타고난 듯 천천히 부드럽게 말했다.

"이전에는......,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줄로만 알아서 그의 부인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나......,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죽으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에서야 그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 나는......,"

대청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가 심정을 털어놓는 것을 귀기울여 듣고 있었다. 한 소녀가 가슴 가득히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 또한 어떻게 곽정이나 황용처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 그러나 그녀는 어떤 예법이나 인정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이 말만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다.

양과는 그녀가 진심을 털어놓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모두가 놀라는 표정과 한편으로는 괴이쩍게 여기는 듯,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양과는 소용녀가 세상일에 대해 너무 아는 것이 없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런 말을 하지는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곧 그녀의 손을 이끌고 일

어나서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씨, 우리 가요 !"

소용녀가 대답했다.

"좋아 !"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청 밖으로 걸아갔다. 이때 대청에는 많은 영웅들이 모여 있었지만 소용녀의 눈에는 오직 양과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다.

곽정과 황용은 입을 딱 벌린 채 서로 바라보았다. 그들 부부는 일생동안 수도 없이 많은 기괴한 일과 놀랍고 어려웠던 일을 겪었지만, 이처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소용녀와 양과가 막 대청을 나서려고 하는데 황용이 불렀다.

"동생, 너는 천하무림의 매주로 뭇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처지아니넵세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해."

소용녀는 고개를 돌리고 어여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맹주인가 뭔가 하는 것은 하지 않을래요. 만약 좋다면 언니가 대신 양보해야 될 거야."

무림 맹주는 무예를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영예로운 명칭이였지만, 소용녀는 그것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어차피 나는 상관없는 일인걸요."

양과의 손을 잡고 다시 밖으로 걸어갔다.

돌연 붉은 촛불이 흔들리더니 소매에 바람을 일으키며 좌중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왔다. 몸에는 도포를 걸치고 손에는 장검을 들고 있었다. 바로 전진도사 조지경이었다. 그는 검을 비껴 들고 대청 입구를 막으며 소리쳤다.

"양과, 너는 사부를 속이고 사조를 업신여겼으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자리를 할 수도 없거늘 오늘 다시 이토록 금수와 같은 짓을 저지르

니 어찌 천지간에 설 면목이 있단 말이냐 ? 이 몸이 마지막 한 가닥 숨이 남을 때까지라도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양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와 투닥투닥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아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혀서 말했다.

"비켜라 !"

조지경이 큰소리로 말했다.

"윤사제, 이리 와서 말 좀 해 보시오. 그날 저녁 우리가 종남산에서 두 눈으로 똑똑시 보았지 않소 ? 이 두 사람이 벌거벗은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소 ?"

윤지펴은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 왼손을 높이 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새끼손가락과 무명지가 잘려 나간 것과 비록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온몸을 떨며 괴상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여기에는 필경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양과는 그날 밤 소용녀와 꽃이 만발한 가운데서 옥녀심경을 연마하다가 조, 윤 두 사람에게 발각이 되었다. 양과가 조지경을 협박하여 맹세를 하게 하여, 그들 외에 다섯번째 사람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마침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멋대로 우롱을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호통을 쳤다.

"네가 다섯번재 사람에게 말하지않기로 굳게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조지경은 하하, 웃더니 큰소리로 말했다.

"물론 나는 다섯번째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로 맹세를 했지. 그러나 지금 이 앞에는 여섯번째 사람 일곱번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다섯번째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행했던 지저분한 일들도 나는 다 말할 것이다."

두 뻗

어 그의 가슴을 가볍게 움켜쥐며 말했다.

"또 한번 멋대로 지껄여 보시지."

이 순간 그녀는 옥녀심경을 이미 다 수련하였으므로 이 일장을 소리도 없이 내뻗었다. 옥녀심경은 전진파 무공의 상극이었다. 조지경이 손을 뻗어 급히 막았지만 소용녀의 수장은 어느 사이에 그의 팔을 끼고 돌아서 그의 가슴에 닿았다.

조지경이 일격을 허고에 내려치고 깜짝 놀라는데 상대방의 수장은 이미 그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일이어서 냉소를 날리며 말했다.

"왜 나를 더듬으려고 하는 거냐 ? 내가 또......"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돌연 두 눈을 크게 뜨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나가떨어져 마침내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다.

손불이와 학대통은 사질이 중상을 입은 것을 보고 급히 달려들어 부축했다. 그는 혈기가 위로 솟구쳐 얼굴이 온통 불그스름한게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았다. 손불이가 냉소하며 말했다.

"좋다. 너희들 고묘파야말로 정말 우리 전진파와 상대가 되겠구나."

장검을 뽑아 들고 소용녀와 결투를 벌이려고 했다.

곽정이 급히 자리에서 뛰어나와 쌍방의 사이를 막아서며 만류했다.

"우리 서로 싸우는 것은 이제 그만둡시다."

곽정이 양과에게 말했다.

"과아야, 쌍방은 모두 너의 사존이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시도록 권해라. 천천히 시비를 따져도 늦지 않을 게다."

소용녀는 세간에서 이토록 배신을 저지르는 말을 함부로 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터여서, 마음속으로 군웅호걸이고 무림맹주고 전진파고 매우 싫증을 느끼고 있었다. 양과의 손을 끌며 눈썹을 찌푸리고 말했다.

"과아야, 이제 우리는 가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영원히 만나지 않겠다 !"

양과는 그녀를 따라서 두 걸음을 걸었다.

손불이의 장검이 재빨리 움직이더니 호통소리가 들렸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치려고 하느냐 ?"

곽정은 쌍방이 다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과아야, 어서 뒤로 물러서라. 사람은 훌륭한 행동을 해서 몸과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너의 이름은 내가 지은 것이다. 너는 이 <과(過)>자를 쓴 의미를 알고 있느냐 ?"

양과는 이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다. 돌연 어린 시절의 무수한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모두가 상심하고 치욕을 당한 일들뿐이었다.

(왜 곽백부는 내게 이런 이름을 지으셨을까 ?)

곽정은 양과를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사랑하여, 가혹하게 요구하고 심하게 꾸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늘 그가 군웅들 앞에서 크게 능력을 보이게 되어 흔쾌함이 끝이 없었는데, 돌연 그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마음이 급하여 말소리까지도 자연히 엄격해졌다.

"너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분명히 네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너의 이름은 <과> 한 자로 하고, 자(字)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느냐 ?"

양과도 어머니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기억났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어려서 이제껏 자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도 거의 잊고 있을 지경이었다.

"개지(改之)라고 했습니다."

곽정은 꾸짖듯 말했다.

"그래, 그것이 무슨 뜻이냐 ?"

양과는 생각을 해 보다가 황용이 가르친 적이 있는 경서(經書)를 기억해 내고 말했다.

"곽백부는 제게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고 하셨어요."

곽정은 말투가 점차 누그러져서 말했다.

"과아야, 사람이라면 누군들 잘못이 없을 수 있겠느냐 ! 다만 잘못이 있을 때 고칠 수가 있다면 선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고 예로부터 말했다. 이것은 선성선현(先聖先賢)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너는 사존

께 불경한 일을 저질렀으니 이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만약 제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하지만 그는......"

손가락으로 조지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나를 때리고 욕하고 속이고 미워했는데 내가 어떠헤 사부로 모실 수가 있어요 ? 나와 아가씨의 결백함은 저 태양도 알아요. 나는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잘못인가요 ?"

그는 의연하고 떳떳하게 말했다. 곽정의 기지와 말재주는 그에게 훨씬 미치지를 못하니 어떻게 그의 잘못을 시시콜콜히 말할 수가 있겠는가 ? 하지만 그의 행위는 천만 번을 생각해도 잘못했음에 틀림없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어떻게 분명하게 말해야 할지를 몰라 곽정은 더듬거렸다.

"이......, 이것은, 네가 잘못한......"

황용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과아야, 곽백부는 모두 네가 잘 되도록 하려고 그러시는 거란다. 너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

양과는 그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역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곽백부가 저를 줄곧 잘 대해 주신 것을 저는 잘 알아요."

양과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떨어지려고 했다.

"그분이 네게 늘 좋게만 얘기하신다고 해서 네가 잘못을 저지르려는 생각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내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씀이세요 ?"

황용의 표정이 누그러지더니 말했다.

"네가 정말로 분명히 알지 못하겠단 말이렷다 !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못된 짓을 저지르겠단 얘기가 아니야 ?"

양과는 답답한 가운데 생각했다.

(당신들이 나를 좋게좋게 대해 주어서 난도 좋게좋게 대답을 했더니, 이제 와서 또 날 보고 어쩌란 말이죠 ?)

입술을 굳게 다물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황용이 말했다.

"좋다. 네가 이미 내게 곧은 말 르 했으니 나도 이리저리 돌리지 않겠다. 용아가씨는 이미 너의 사부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너의 존장(尊長)이 되므로 남녀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법규에 대해서 양과는 소용녀처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쉽게 굴복할 수가 없었다. 용아가씨가 자신에게 무공을 가르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왜 그의 부인이 될 수 없단 말인가 ? 왜 자신과 아가씨는 절대로 불륜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곽백부조차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 ?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가슴에서 노기가 솟구쳐올랐다. 그는 본래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자 더욱 아무것도 안중에 두지 않고 큰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일을 방해했단 말이오 ? 내가 또 누구를 해쳤단 말이오 ? 아가씨는 내게 무공을 가르친 적이 있지만 나는 그녀가 오직 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나를 천 번 만 번 칼로 벤다고 해도 나는 그녀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사방의 좌석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을 소스라치도록 놀라게 했다. 당시송나라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예법에 얽매여 있었다. 그런 그들이 어찌 이토록 마음대로 꺼리는 것 없이 해 대는 반역의 말을 일찌기 들은 적이 있었겠는가 ? 곽정은 일생 동안 사부를 가장 공경하고 존중해 온 터라 이 말을 듣자 노기가 치밀어올라 한 걸음 나서서 손을 뻗어 그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소용녀는 깜짝 놀라 손을 뻗어 가로막았다. 곽정의 무공은 그녀보다 훨씬 뛰어난데다가 지금은 너무나 화가 나서 더욱 전력을 다하여 잡고 휘둘러서 소용녀를 한 장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어서 손바닥으로

더듬어 양과의 가슴에 있는 천돌혈(天 穴)을 움켜쥐고 좌장을 높이 들며 호통을 쳤다.

"짐승 같은 놈, 네가 감히 이런 대역부도(大逆不道)한 말을 꺼내다니 !"

양과는 그에게 한번 잡히자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도리어 담대해져 또렷또렷하게 말했다.

"아가씨는 전심전력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가씨에 대한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곽백부, 나를 죽이려면 어서 내려치십시오. 나의 이 마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나의 친자식과 다름없이 여기기 때문에, 못된 일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양과는 소리 높여 외쳤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 나는 못된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 나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단 말예요 !"

이 말은 못을 자르듯 쇠를 가르듯 울려퍼졌다.

대청에 있는 군웅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마음이 섬 하여 그의 말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음을 느꼈다. 만약 그들 두 사람이 한 마디 말도 없이 세상 밖의 도원(桃源)이나 궁향황도(窮鄉荒島)에서 부부 관계를 맺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손실이 없는 것이었다. 다만 공연히 이토록 아무 거리낌이 없이 멋대로 지껄이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 도리어 세도인심(世道人心)을 어지럽히고 무림의 패류(敗類)가 된것일 뿐이었다.

곽정은 손을 치켜 들고 처참하게 말했다.

"과아야, 내 마음이 몹시 아프다. 너는 알겠느냐 ? 내가 차라리 너를 죽게 할지언정 네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알겠느냐 ?"

여기까지 말하면서 말투에는 이미 오열을 감추고 있었다.

양과는 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만약 고쳐 말하지

않으면 곽백부가 일장을 내리쳐서 자기를 죽이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평소에는 뛰어난 계책이 무궁무진하게 나왔지만 지금은 곽정이 더할 수 없이 완강하여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그리하여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저를 때려서 죽여도 좋습니다."

곽정이 좌장을 높이 쳐들고 있으니 이 일장으로 그의 천령개를 내려치기만 하면 그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다. 군웅들은 숨을 죽이고 아무 말도 없었다. 수백 개의 눈빛이 오직 그의 손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곽정은 공중에서 좌상을 잠시 멈추고 양과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두 눈썹을 지그시 움츠리고 있는 것이, 그의 아버지 양강의 옛모습과 너무도 닮아서 마음이 쓰라렸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 그의 목덜미를 잡았던 오른손을 풀며 말했다.

"네 마음대로 생각하거라."

몸을 돌려 자리로 돌아와 앉아서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비통한 심사로 인하여 곽정의 표정은 이미 극도로 어두워져 있었다.

소용녀가 손짓하며 말했다.

"과아야, 이 사람들의 만행이 너무 심하다. 우리 가자."

그녀는 양과가 마침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양과는 <만행>이라는 그녀의 표현이 매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성큼성큼 대청 입구로 가서 소용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장원 밖으로 나가 비쩍 마른 말을 끌고 총총 가 버렸다.

군웅들은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혹은 저속함은, 혹은 애석함을, 혹은 놀라움을 저마다 느끼고 있었다.

양과와 소용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얼마쯤 걸었을까. 밤이 이미 깊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고 이젠 사람들의 소란에서 멀어지자, 방금 있었던 악전고투는 언제 있었냐는 양임 깨끗이 잊어버렸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

운 순간이며, 과거의 생애는 모두가 무미건조하고 미래의 시간도 더 이상 필요없을 것 같았다. 둘은 마음으로 이미 서로 통하여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이윽고 그들은 한 그루 수양버들 아래에 이르러 나무 그늘 아래의 가지에 몸을 기대자, 쌓였던 피로가 갑자기 몰려와 그들은 깊이 잠이 들었다. 수척한 말은 멀리서 푸른 풀을 뜯다가가끔씩 낮게 히힝거렸다.

잠이 깨자 날은 이미 밝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양과가 말했다.

"아가씨, 우리 이제 어디로 가죠 ?"

소용녀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다시 고묘로 돌아가야지."

그녀는 산에서 내려온 이래로 세상이 연홍빛의 꽃으로 끝없이 화려하게 펼쳐진 듯했지만 고묘에서의 유유자적했던 생활만은 못했다. 양과는 생각했다.

(아가씨와 고묘에서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전에는 밖의 세계를 항상 동경하고 있어서, 자기를 묘에서 나가도록해 달라고 그녀를 졸랐지만, 밖에서 그토록 숱한 곤경을 치르고 나자 도리어 고묘에서의 맑고 깨끗한 생활이 그리워졌다. 즉시 두 사람은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천천히 나아갔다. 한 사람은 오직 그를 <과아야> 하고 부르고, 한 사람은 오직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서로 부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웠다.

한낮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금륜법왕의 무공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의 무공은 만만치 않아 대적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소용녀가 갑자기 말했다.

"과아야, 옥녀심경에서의 마지막 일장을 우리가 아직 완전히 수련하지 못했다. 기억하고 있냐 ?"

"기억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둘이 별의별 수단을 다 써봐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나도 그 생각을 해 내지 못했었어. 하지만 어제 그 늙은 여도사가 보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 !"

양과는 손불이가 어제 사용하던 검초(劍招)를 생각하고는 즉시 깨닫는 것이 있어 외쳤다.

"맞아요, 맞아. 전진파 무학과 옥녀심경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건데 그것을 몰랐으니, 우리가 줄곧 제대로 수련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 고묘파의 조사 임조영이 혼자 고묘에 기거하면서 옥녀심경을 창작할 때, 비록 전진파의 무공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왕중양에 대한 정이 끝내 사라지지 않아서 마지막 일장을 쓸 때는 시종 의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적을 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창작했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이 일장의 무술은 하나는 옥녀심경을 사용하고, 하나는 전진무공을 사용하여 둘이 서로 응원을 하면서 분진합격(分進合擊)해야 했다. 임조영은 그때, 부드럽게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깊은 정이 끝이 없어, 한없이 왕중양을 그리워하면서 그 모든 감정을 이 무경(武經)에 쏟아넣은 것이다. 쌍검을 종횡으로 휘두르는 것은 빈(賓)이요, 손을 맞잡고 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주(主)된 뜻이었다. 그러나 남겨진 석각(石刻)에는 이 심사를 분명하게 주의시키지 않은 것이다. 소용녀와 양과는 처음에 수련할 때는 서로의 감정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조사 할머니의 깊은 뜻을 체득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본문의 심법에서 그 안에 있는 오묘한 뜻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것이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깨닫게 되자, 즉시 각자가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씩 꺾어서 일초 일초를 맞서 보았다. 소용녀는 천천히 옥녀검법을 사용했고, 양과는 전진검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몇 초를 겨루어 보아도 서로 융합되기가 어려웠다. 두 사람은 임조영이 당년에 이 검법을 창시할 때 마음속으로 왕중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적을 방어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일초 일식을 모두 상호 배합한 것임을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양과와 소용녀 두 사람은 도리어 서로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여 서로 찌르고 서로 치면서 죽이고 베려고 대적하고 있으니, 자연히 어울리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임조영과 왕중양은 모두가 당시 천하의 일등고수로서 오직 한 사람만으로도 감히 대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 이렇게 연합하여 적에 대항하는 일은 실제로는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단지 임조영 스스로가 마음대로 상상을 하여 그 꽂다운 마음을 기탁하였을 뿐이었다. 그녀가 이 검법을 창시할 때만 해도 무공은 이미 우뚝한 봉우리에 이르렀고, 초식도 강하여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었으므로, 양과와 소용녀는 그 안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잠깐 동안 수련한 뒤, 맞지 않음을 느꼈다. 소용녀가 말했다.

"혹시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묘 안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수련하자."

양과가 마악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돌연 멀리서 말울음 소리가 들리며 한 필의 말이 나는 듯 달려왔다. 그 말은 온몸에 붉은 털이 나고 말에 탄 사람은 자색 장삼을 입고 있었는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말과 사람이 바람처럼 몸을 날려 오고 있었다. 말 위에 탄 사람은 바로 황용이고 그 말은 소홍마(小紅馬)였다.

양과는 다시 그녀의 집안 사람들과 만나서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용녀와 상의하여 작은 길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녀와 마주치는 것을 치하기로 했다. 소용녀는 비록 그의 사부였지만, 무공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양과가 작은 길로 바꾸어 가자고 말하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한 조그만 객점에 투숙했다. 양과는 침상 위에서 자고 소용녀는 여전히 줄 하나늘 방에 매어 놓고 줄 위에서 잠을 잤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 부부가 되기로 결심을 한터였다. 고묘에서

도 수 년 동안 언제나 이렇게 편안히 잠들었는데, 이제 다시 만나자 여전히 자연스럽게 잠이들었다. 예전 대로 무공을 연마하면서 오직 그리고 그리던 사람의 곁에 있으니, 둘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고 뿌듯했다. 그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이날 점심때쯤에 두 사람은 한 커다란 진(鎭)에 이르렀다. 진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고 수레와 말이 오고가서 몹시 소란스러웠다. 양과는 소용녀를 데리고 술과 함께 밥도 파는 어떤 주루(酒樓)에 이르렀다. 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황용과 무씨 형제가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양과는 이미 마주쳤으니 못 본 체하는 것도 어색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하며 불렀다.

"곽백모 !"

황용은 두 눈썹을 깊이 찡그리며 얼굴에는 근심하는 빛을 가득 띠고 물었다.

"내 딸을 본 적이 있느냐 ?"

"아뇨. 부는 백모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

황용이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이었다. 계단에서 소리가 나며 몇 사람이 올라왔다. 한 사람은 키가 몹시 컸다. 바로 금륜법왕이었다. 양과는 급히 고개를 돌려 황용과의 이야기를 끊고 조용히 소용녀의 곁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얼굴을 돌려요. 그들을 보지 마세요."

그러나 금륜법왕의 눈빛은 예리했다. 일단 계단을 올라오자 누(樓)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미 훑어보고는 후후, 차갑게 웃으며 한쪽 탁자에 털썩 앉았다. 양과는 그때 이미 고개를 돌렸었는데, 돌연 황용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양과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보니 곽부가 금륜법왕과 함께 한 탁자에 앉아서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원래 금륜법왕은 육가장에서 굴욕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이
패배를 돌이켜 승리를 얻을 계책을 생각했다. 게다가 곽도가 몸에 옥
봉침(玉蜂針)을 맞고 독성이 발작하였기 때문에 갖은 방법으로 다 풀
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어, 다시 해약을 빼앗을 방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떠나가지 않고 육가장 근처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역시 곽부도 마침 심경이 어지러워 새벽에 소홍마를 타고 달리다가
이 원수를 만나서 그에 의해 말에서 던져졌던 것이다. 소홍마는 매우
영리하여 날듯 달려 육가장으로 돌아와서 계속 슬프게 울었다. 곽정
등은 딸에게 위험이 닥친 것을 알고 크게 놀라 즉시 사람을 나누어 곽
부를 찾기 시작했다. 황용은 비록 아기를 가진 몸이었지만, 그녀도 역
시 무씨 형제를 데리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이날 진에서 우연히 양
과와 소용녀를 만났는데 뜻 밖에도 금륜법왕이 곽부를 끌고 역시 이
주루에 들어온 것이다.

황용은 딸을 보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그러나 그녀가 대적수
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른 뒤에는 다시 입을 열지 않고 젓
가락 한쌍을 가지고 탁자 위를 끄적거리며 딸을 구할 계책을 생각했
다.

한참 고심을 하고 있는데 홀연 금륜법왕의 말소리가 들렸다.

"황방주, 이분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따님이오 ? 지난번에 그녀
가 당신 품에 안겨 있는 痼밨보고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여 재미
있게 보았었소."

황용은 흥, 하고 코방귀를 뀌고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무수문이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다.

"너는 일파의 종사라는 자가 무예를 겨루어 이기지 못했다고해서 어
린 아가씨를 모욕하다니 부끄럽지도 없단 말이냐 ?"

금륜법왕은 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황방주, 지난번의 시합은 당신이 분명히 이겼소만 곁에서 날뛰던

자들은 그다지 호한은 못 되더군요. 우선 독침의 해약을 내게 준 뒤에, 우리 다시 날을 정해서 공평하게 일장의 무예를 겨루어서 무림의 맹주가 과연 누구인지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황용은 여전히 차갑게 코방귀만 뀔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무수문이 큰소리로 외쳤다.

"우선 곽아가씨를 놓아 주면 우리가 즉시 해약을 보내겠다. 무예를 겨루는 것은 천천히 상의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왕용은 양과와 소용녀를 비스듬히 쳐다보고 생각했다.

(해약은 바로 이들 두 사람의 품에 있는데, 그들이 줄지 안 줄지도 모르면서 너는 너무 경솔하게 대답을 해 버렸구나.)

금륜법왕이 말했다.

"천하에 암기로 독을 사용하는 자들이 너희들만 있는 줄 알았더냐? 너희들이 독침으로 내 제자를 다치게 했으니 나도 너의 딸의 몸에 독바늘로 몇 군데를 찔러 놓았을 수도 있는 일이지. 너희들이 해약을 주면 우리도 이 애를 치료해 주겠다. 놓아 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후훗!"

황용이 급히 딸의 안색을 살펴보니 보통때와 같아서 전혀 상처를 입은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녀의 정은 깊고도 깊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지나친 관심은 일을 망친다>라는 말대로, 그녀의 기지가 비록 변화무쌍했지만 지금은 전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점원이 술과 안주를 계속 금륜법왕의 탁자 위에 날라다 놓자 그들은 마음껏 마시고 씹으며 방자하게 큰소리로 떠들며 웃었다. 곽부는 멍하니 앉아서 오직 어머니만을 쳐다보며 시종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황용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하여 숨을 몰아쉬자, 돌연 배에서 다시 은근히 통증이 밀려왔다.

금륜법왕은 술과 밥을 다 먹고 나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황방주, 우리와 함께 가시죠."

황용은 깜짝 놀라 즉시 깨달았다. 그는 딸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까지도 납치해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 주위에 겨우 무씨 형제 둘밖에 없으니 결코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황용은 저도 모르게 안색이 크게 변했다. 금륜법왕이 다시 말했다.

"황방주, 두려워할 것 없소. 당신은 중원 무림의 대단한 인물이어서 우리가 예의로써 대접하는 것이오. 무림 맹주의 자리가 정해지면 즉시 남쪽으로 돌려보내겠소."

그는 누에 올라와 황용을 보자 즉시 좋은 꾀가 떠올랐다. 그녀를 사로잡기만 한다면 중원의 무사들이 모두 팔짱을 끼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곽부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 백 배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거래가 어디 있단 말인가? 황용은 오직 딸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무씨 형제는 사랑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적수가 되지 못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나서지 않을 수도 없어서 장검을 빼어 들고 곽부의 앞으로 나서서 호위했다. 황용이 낮게 말했다.

"빨리 창문으로 달아나 사부께 구원을 요청해라."

무씨 형제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곽부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즉시 창문으로 뛰어갔다.

황용이 속으로 욕을 했다.

(바보 같으니, 이 지경에서도 어찌 그리 꾸물거린단 말이냐?)

과연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었다. 금륜법왕은 팔을 길게 앞으로 뻗어 한 손에 하나씩 두 사람의 등을 움켜잡았다. 마치 매가 병아리를 나꿔채는 형세였다. 무씨 형제는 검을 돌려 급히 찔렀다. 금륜법왕은 피하지도 않고 두 손을 약간움직이자 무수문의장검이 형을 향하여 찌르고 무돈유의 장검이 동생을 향해 찌르게 되었다. 두 사람은 크게 놀라 급히 손을 풀어 검을 던지자 챙그렁 챙그렁, 소리와 함께 두 자루 장검이 동시에 땅에 떨어졌다. 다행히 형제가 서로 다치지는 않았다.

금륜법왕은 두 팔을 흔들어 두 사람을 일장 밖으로 집어던지며 차갑

게 말했다.

"부처님 곁으로나 가거라 ! 애송이들은."

다시 고개를 돌려 양과와 소용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둘은 황방주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가도 좋다. 이후로는 절대로 내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둘의 무공이 훌륭하니 이후로 잘 보존하여 다시 한 1,20 년만 수련한다면 천하에 적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두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금륜법왕은 황용, 소용녀, 양과 세 사람의 무공이 모두 자기에게 못 미치지만, 서로 힘을 합하여 덤빈다면 그들을 이기기도 힘들 뿐더러 황용을 사로잡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일부러 서로 떼어 놓으려고 하는 짓이니, 곧 줄기를 얻기 위해서 곁가지를 치는 격이었다. 그는 황용이 아기를 가져서 손을 쓰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그녀의 타구봉법은 극히 신묘하여 실로 강적이라고만 생각했다.

소용녀가 말했다.

"과야, 우리 가자 ! 이 늙은 화상은 몹시 무서우니 그를 건드렸다간 귀찮게 된다 !"

그녀의 마음은 오직 어서 빨리 고묘로 돌아가서 양과와 오랫동안 함께하기만을 바랐으며, 세간의 은혜와 원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금륜법왕을 보자 다시 무서운 생각이 들어 숨김없이 말한 것이다. 양과는 대답을 하고 일어나 입구 쪽으로 가다가 이번에 고묘로 돌아가면 아마도 황용과는 영원토록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녀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옥 같은 얼굴이 참담해지고 왼손으로 배를 쓰다듬는 것이, 분명히 몰래 통증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양과는 생각했다.

(곽백부, 곽백모가 나와 아가씨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 나에게 나쁜

뜻을 품은 것은 아니었어. 지금 곽백모께서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냥 가 버릴 수 있단 말인가 ? 하지만 적은 사실 너무나 강하단 말야. 나와 아가씨가 함께 달려든다 해도 결코 이 티벳중의 적수는 안 될 거야. 곽백모를 구하기는커녕 자칫하면 나와 아가씨의 목숨만 버리게 될지도 모르지. 차라리 즉시 곽백부께 알려 그엷彭殷와서 구하도록 求잔것이 낫겠군.)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는 황용에게 눈짓을 보냈다. 황용은 그가 이 소식을 곽정에게 알려 구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약간 마음이 누그러지며,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양과가 소용녀의 손을 끌고 걸음을 옮겨 주루를 내려오자 한 몽고 무사가 성큼성큼 황용의 앞으로 나아가 거칠게 말했다.

"빨리 가자 !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
하는 말과 함께 손을 뻗어 그녀의 팔뚝을 잡으니 그녀는 꼭 죄인처럼 축 처져 있는 거였다.

황용은 10여 년 동안 개방의 방주를 지내고 무림에서의 지위도 이토록 높은데, 아무리 이날 위험을 만났지만 어찌 이런 하수에게 치욕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 시커먼 털이 숭숭 난 그의 커다란 손이 뻗어오는 것을 보자 즉시 소매를 뿌려 그의 팔목을 덮으며 움켜쥐고 휘두르니 휙 !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몽고 무사의 비대한 몸체가 주루의 창 밖으로 날아가 거리에 나가떨어져서 반은 죽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황용은 원래 깨끗한 것을 좋아하여 손이 그의 팔목에 닿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소매로 덮은 뒤 그를 내던지 것이다.

주루의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이 말로 다투는 것을 듣고는 관심도 없다가 돌연 황용이 손을 쓰는 것을 보자 즉시 큰 혼란이 일어났다.

금륜법왕은 냉소하며 말했다.

"황방주는 과연 무공이 뛰어나군요."

하며 몽고 무사가 하던 대로 성큼성큼 걸어가 똑같이 손을 뻗어 잡으려고 했다. 황용은 그가 일부러 무공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

다. 비록 그가 똑같은 모습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렇다고 자기도 아까처럼 뿌리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눈치채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양과는 계단을 몇 걸음 내려가다가 돌연 싸움이 일어날 기미를 보고 황용이 막 굴욕을 당하려고 하자, 저도 모르게 의협심 이 일어났다. 양과는 생사안위(生死安)고 뭐고 돌볼 겨를이 없이 몸을 날려 무돈유가 떨어뜨렸던 장검을 집어 고 청룡출해(青龍出海) 일초를 날려 번개같이 금륜법왕의 등을 찌르며 호통을 쳤다.

"황방주께서는 몸에 병이 나셨다. 너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려고 하니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냐 ?"

금륜법왕은 등뒤에서 갑자기 검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듣자, 고개를 돌리지도 않殷손가락을 뒤집어 그의 칼날을 한 번 쳤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양과의 오른팔이 시큰하며 시려 왔다. 자연히 검의 끝이 아래로 늘어져 양과는 급히 몸을 날렸다.

금륜법왕은 몸을 돌리며 말했다.

"애야, 어서 가거라 ! 너는 나이도 어리고 무공도 그리 약하지 않으니 장래에는 나보다 더 뛰어나게 되겠지만 지금은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왜 일부러 머리를 내밀어 내 손에 목숨을 잃으려고 발버둥친단 말이냐 ?"

이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어 양과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되었다. 그의 금륜이 야오가와 소용녀의 공격에 떨어져 이미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무림 맹주의 지위를 허공에 날려 버렸으니 마음속으로는 두 사람에 대하여 이를 갈며 한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황용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어서 그는 많은 사람에게 적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양과와 소용녀가 이 상황에서 물러나기만을 바랐다. 이후에 다시 이 두 조그만 녀석들을 찾아서 분풀이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서장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모략이 자못 풍부하여 무공만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 몇 마디 말은 부추기는 것도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사람을 속이려고 큰소리치는 것도 분명히 아니었다. 양과는 소년의 심정으로 자신이 장차 그를 이길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저절로 흐뭇하여 웃으며 말했다.

"대화상, 너무 겸손해 하지 마시오. 당신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공을 닦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오.이분 황방주께 나를 키워 주셨으니 그분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분이 오늘 만약 몸
이 불편하지만 않았다면 당신의 무공으로도 쉽게 그분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오. 만약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분이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가 당신과 일장을 겨루어 보는 것이 어떻겠소 ?"

그는 금륜법왕이 대단한 무공을 익혔다고 자부하고는 있지만, 자기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다시는 황용을 괴롭히자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륜법왕은 본래 황용, 소용녀, 양과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여 양과에게부드럽게 대한 것이었다. 지금 양과의 이 몇 마디 말을 듣고 황용을 쳐다보니, 과연 그녀의 안색이 초췌하고 병세가 가볍지 않게 보였다. 그렇다면 이 두 조그만 애들밖에 힘을 쓰지 못하니 나 금륜법왕이 무엇이 두려우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시 냉소를 날리고 계단 입구로 나서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도 남아라 !"

소용녀는 계단의 중간에 서서 금륜법왕이 그녀와 양과 사이를 가로막자 매우 불쾌해서 한마디를 했다.

"화상, 비켜 서요 ! 그가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

금륜법왕은 두 눈썹을 곤두세우고 단장개(單掌開) 일초를 재빠르게 내리쳤다. 그는 팔 힘이 워낙 센데다가 이 일초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치자 사납기 짝이 없었다. 소용녀가 어찌 감히 맞설 수 있겠는가 ? 그녀는 양과가 주루 위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단 아래

로 뛰어내리지 않고, 두 발을 솟구쳐올려서 절정의 경공으로 적의 몸을 스치고 올라가 양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다. 금륜법왕은 그녀가 왼쪽으로 스쳐 지나갈 때 팔꿈치를 돌려 반격했지만 맞추지를 못하자, 그녀의 몸놀림이 가볍고 재빠른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양과는 다시 무수문이 떨어뜨린 장검을 그녀의 손에 건네 주며 말했다.

"아가씨, 이 화상이 무례하게 구니 우리 그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금륜법왕이 소매에서 바퀴 하나를 꺼냈다. 이 바퀴는 그가 전에 사용한 금륜(金輪)과 같은 크기였는데, 색깔은 검은색이었으며 정련된 철로 주조한 것으로 위에는 밀종(宗)의 진언(眞言)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금, 은, 구리, 철, 납으로 된 5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강적을 만났을 때는 오륜(五輪)을 모두 사용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금륜하나만을 사용해서도 이미 무수한 강적을 물리쳤기 때문에 금륜법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이었다. 그 나머지 은, 구리, 철, 납으로 된 사륜(四輪)은 아직 사용한 적이 없었다. 사실 그의 무예수련으로 따진다면 원래는 오륜법왕(五輪法王)이라고 해야만 옳았다. 육가장에서 무예를 겨룰 때 금륜이 양과의 금강저에 의해 부서졌기 때문에 이제 철륜을 꺼낸 것이었다.

"황방주, 당신도 함께 덤비겠소 ?"

그는 비록 황용의 얼굴에 병색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의 무공이 상당함을 여전히 두려워했다. 그가 황용에게 <황방주>라고 부른 것은 그녀가 일 방의 방주로서 다른 사람과 힘을 합하여 한 사람과 싸운다면, 방주의 체통을 떨어뜨리는 것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일깨우려고 한 말이었다.

양과가 외쳤다.

"황방주는 돌아가야 한다. 그녀는 너와 토닥거릴 여유가 없다."

그리고 황용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곽백모, 부를 데리고 어서 가세요."

그는 이미 작정을 했다. 자기와 소용녀가 힘을 합하여 적과 대적한다고 해도 이기기는 힘들 것이었다. 그러나 온힘을 다해 힘껏 대항하면서 달아날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지금 당장은 무예를 겨루어도 전혀 승산이 없으니 오직 이 마수(魔手)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어떤 꼴로 도망을 치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 즉시 검을 들어 법왕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소용녀는 그가 사용하는 것이 옥녀심경의 무공임을 보고 함께 검을 휘두르며 옆에서 공격했다. 그녀는 별다른 생각도 없이 다만 양과가 이 화상과 다투는 것을 보고 도와 주는 것뿐이었다.

금륜법왕은 바퀴를 춤추듯 휘두르며 2 개의 검과 맞섰다. 그는 주루에 탁자와 의자가 너무 많아서 손과 발을 제대로 뻗을 수가 없어 한편으로는 바퀴를 휘두르며 한편으로는 발을 날려 탁자와 의자를 차 버렸다. 양과는 생각했다.

(너와 힘으로만 맞선다면 우리가 당연히 질 것이다. 너 같은 놈에게는 꾀로 맞서야만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으렷다 !)

양과는 그가 의자와 탁자를 차 버리는 것을 보고 즉시 의자와 탁자를 밀어붙여서 적과 자기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와 소용녀는 모두가 경신의 무공이 뛰어나서 동서로 요리조리 빠지며 정식으로 적과 대결하지를 않았다. 게다가 갑자기 술동이를 던지기도 하고 음식그릇을 뒤엎기도 하여 주루 바닥에는 술과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렇게 소동을 피우자 황용은 이 기회를 틈타 곽부를 나꿔챘다. 달이파(達爾巴)는 양과의 이혼대법(移魂大法)에 얻어맞은 뒤 지금 까지도 정신이 혼미해 있었고, 곽도는 독에 맞아 중상을 입은데다가 나머지 몽고 무사는 무공이 썩 뛰어나질 못하니 어떻게 황용을 당해 내겠는가 ? 양과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곽백모, 어서 가세요 !"

그러나 황용이 보니 금륜법왕의 초수가 무시무시하여, 양 용 두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맞서도 당해 내기가 힘들 것 같았다. 이 순간은

이렇게 혼란을 피우며 그럭저럭 견뎌 내기는 하겠지만 만약 잘못되어 독수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이 두 젊은 남녀의 목숨이 온전히 붙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황용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목숨을 버리고 나를 구해 주려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만을 위하여 그를 버리고 가겠는가 ?)

황용은 누대 꼭대기에 서서 초조하게 싸움을 지켜보았다.

무씨 형제는 계속 재촉을 했다.

"사랑, 저희는 먼저 가겠어요. 몸이 불편하시니 조심스럽게 운신하셔야 합니다."

황용은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다가 그들이 계속 재촉하는 소리를 듣고 노하여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협의(俠義)>라는 말을 따지지 않는다면 무예는 연마하여 어디에 쓰겠느냐 ? 그러고도 이 세상을 살아간들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 저 양과가 너희들보다 백 배는 훌륭하다. 흥, 너희들 형제는 멋대로들 해라."

***** 넓 은 천 하, 끝 없 는 영 웅 *****

무씨 형제는 호의로 얘기를 꺼냈다가 도리어 사모에게 한차례 무안을 당하자 슬금슬금 입을 다물며 우물쩍거렸다.

곽부는 바닥에서 부러진 탁자 다리 하나를 집어들고 외쳤다.

"오빠들, 우리도 합세해요."

황용이 제지하며 말했다.

"너희 정도 무공을 가지고 헛되이 목숨만 버리려고 하느냐 ?"

곽부는 입을 삐죽거리기만 했다. 황용은 곽부와 무씨 형제가 공격하는 것이 특이하지도 오묘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때로 자세가 묘한 것이 있기는 했지만 검술은 조금도 대단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금륜법왕은 매번 추격하여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바닥에 엎어진 탁자와 의자 때문에 길이 막혔다. 양, 용 두 사람은 영리하게 움직이며 이

리저리 왔다갔다 하며 골탕을 먹였다. 그가 무슨 작정을 했는지 발에 돌연 힘을 주자, 우지직우지직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엎어졌던 탁자와 의자가 하나하나 그의 발밑에서 부서져 나갔다. 그는 손으로는 철륜을 춤추듯 휘두르며 상대방을 공격하고, 발로는 천근추(千斤墜)의 무공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발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탁자와 의자가 부서져 나갔다. 다시 몇 차례를 싸우자 누에는 부서진 나무조각들이 한 층 쌓여서 세 사람은 결국 부서진 나무더미 위에서 싸우는 형국이 되었다. 더 이상 탁자와 의자가 손발을 방해하고 앞길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 금륜법왕은 큰 걸음으로 왔다갔다 하며 요란하게 철륜을 휘둘렀다. 그는 두 팔을 크게 벌렸다. 오므리며 급하게 두 사람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양과와 소용녀는 탁자와 의자 등 장애물이 없어지자 진짜 무공으로 대적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금륜법왕이 연속으로 3초를 공격하자 양과는 팔로 그 공격을 막았다. 서서히 통증이 몰려왔다. 금륜법왕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듯 즉시 제 4초를 무섭게 내지르자, 철륜이 아직 이르기도 전에 한 줄기 질풍이 엄습해 와 그 위력은 실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쌍검을 나란히 하여 검끝으로 철륜을 막고 쌍검의 힘을 합하여 이 일초를 막아 냈다. 그러나 두 자루의 검은 이미 압력을 받아 구부러질 정도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힘을 가해 철륜을 튕겨 내어 양과의 장검은 곧장 적의 상체를 공격했고, 소용녀는 검을 옆으로 세워급히 적의 왼쪽 다리를 베었다. 금륜법왕은 발을 날려 소용녀의 팔을 차버리고 철륜을 비스듬히 내리쳐 양과의 목덜미를 공격했다. 양과는 고개를 낮추고 다리를 구부려 번개같이 철륜을 피했다. 바로 이때 금륜법왕의 오른손이 풀리더니 철륜이 양과의 정수리로 떨어져 내렸다. 그는 두 손이 비게 되자 동시에 소용녀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순식간에 두 사람이 위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야압 !"

황용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그들을 구출하려는 순간, 양과는 몸을 바닥에 찰싹 붙였다가 비스듬히 날렸다.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장검은 이미 금륜법왕의 등을 찌르고 있었다. 이 일초도 역시 일거양득의 공수를 겸비한 것으로 이미 자신 위험을 벗어나 다시 위위구조(圍魏救趙)의 계책으로 금륜법왕에게 감히 더 이상 소용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일초는 안행사격(雁行斜擊)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로 전진파의 검법이었다.

금륜법왕이 <이크 !> 하는 소리와 함께 철륜이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 오른발로 철륜의 위를 한번 걷어올렸다. 바퀴는 다시 솟아올라 철그렁, 소리를 내며 양과의 머리로 덤벼들었다. 양과는 위급한 중에 전진파의 검법을 일초 사용하여 효과를 발휘하자, 다시 전진파의 백홍경청(白紅經天)의 초식으로 검을 수평으로 하여 철륜을 쳐냈다. 바퀴는 무겁고 검은 가벼워 이렇게 검을 수평으로 하여 공격하는 것은 본디 별 다른 효과가 없었지만, 이 일초는 마침 좋은 위치에 적중해서 바로 무학에서 말하는 사량발천근(四兩撥千斤)의 이치대로 철륜이 방향을 돌려 반대로 금륜법왕의 머리를 향하여 날아갔다. 곽부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도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금륜법왕이 대담하게 병인탈수(兵刃脫手) 비륜격적(飛輪擊敵)을 쓴 것은 적이 철륜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 만약 날아가는 철륜을 검으로 치면 아무리 무거운 강편(鋼鞭) 대도(大刀)라고 하더라도 손에서 놓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양과가 철륜을 쳐내는 무공을 지녔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금륜법왕은 손을 뻗어 철륜을 잡고는 몰래 힘을 더하여 다시 철륜을 날려보냈다. 이때는 힘이 더욱 가해져 바퀴는 고요하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도 속도는 오히려 더욱 빨라서 바퀴에 매달린 조그만 방울이부딪칠 여유조차도 없었다. 양과가 처음에 바퀴를 쳐낸 것은 무의식중에 구음진경의 무공을 사용한 것이었다. 이번에 다시 검을 뻗어 치자 땅, 하

는 소리와 함께 장검이 떨리며 손에서 빠져나갔다. 금륜법왕은 즉시 대솔비수(大솔碑手)로 계속 공격했다. 원래 양과는 구음진경을 완전히 숙달되게 수련하지도 않았거니와 이번에 사용한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

소용녀는 양과가 위험에 직면한 것을 보고 가느다란 허리를 약간 떨며 장검을 급히 찔렀다. 이 일초는 정말로 무시무시하면서도 바람처럼 날래서 사뿐하기짝이 없었으니 바로 <옥녀심경> 중 최후의 일장인 무공이었다. 황용 모녀는 이를 보고 매우 만족한 듯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훌륭해, 정말 !"

금륜법왕은 손을 거두어 황급히 뛰어서는 바퀴를 잡아 검을 막았다. 양과도 이틈을 타서 장검을 다시 집었다. 이는 정말로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위급한 때를 당하면 머리가 더욱 빨리 돌아가는 법이다. 양과는 문득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

(나와 아가씨 두 사람이 동시에 옥녀검법을 사용하면 당해 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내가 전진검법을 사용하고 그녀가 옥녀검법을 사용하면 도리어 이 위험을 벗어날지도 모른다. 혹시 옥녀심경의 마지막 일장이 이렇게 하여 완성되는 것이나 아닐까 ?)

양과는 즉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가씨, 낭적천애(浪迹天涯)예요 !"

말을 하고는 검을 비껴서 찔렀다. 소용녀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의 말대로 심경에 실려 있는 낭적천애를 사용하여 검을 휘둘러 곧장 찔렀다. 두 초(招)가 이름은 서로 같지만 초식은 도리어 크게 달라서 한 초는 전진검법의 무시무시한 검초요, 하나는 옥녀검법의 험악한 가수(家數)였다. 쌍검이 합해지자 그 위력은 즉시 놀랄 만한 것으로 변했다. 금륜법왕은 쌍검의 공격을 막을 도리가 없어 급히 뒤로 물러났지만 쉭쉭, 하는 소리와 함께 몸에 2개의 검이 공격해 들어온다. 다행히도 그는 재빨리 몸을 피하여 검봉이 두 겨드랑이를 스치고 지나

가 옷을 찢었을 뿐이지만 너무도 놀라 식은 땀이 흐를 정도였다.

금륜법왕은 너무도 급한 나머지 황급히 뒤로 두 걸음 물러서 검끝을 피했다.

"화전월하(花煎月下) !"

양과의 외치는 소리와 함께 일초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것이 얼음덩어리가 하늘을 갈라 맑은 빛이 땅에 펼쳐지는 듯한 광경이었다. 소용녀의 단검(單劍)이 손에서 떨리며 마치 한창 핀 꽃이 바람에 흔들리듯 이리저리 움직였다. 금륜법왕은 눈앞에서 꽃잎이 날리듯 그녀의 검이 이리저리 춤을 추자 어느 곳에서부터 공격해 올지 도저히 알 수 없어 다시 뒤로 뛰어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음소작(淸飮小酌) !"

양과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양과는 칼자루를 치켜들고 칼끝은 아래를 가리키고 있어 마치 술병을 들고 술을 따르는 것 같았다. 소용녀는 칼끝을 되돌려자기의 입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완전히 술잔을 들어 술을 마시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검초는 갈수록 괴이해지면서도 서로 짝을 이루었다. 서로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검초가 다른 한편의 결점을 보완해 주어 무시무시하면서도 한 단계 한 단계 끝없이 계속되었다. 금륜법왕은 싸우면 싸울수록 놀라며 생각했다.

(천하는 과연 끝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구나.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검법을 내가 서장에서 어찌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는가 ? 아 ! 나는 우물 안 개구리였어. 천하의 영웅을 내 너무도 얕잡아 보았구나.)

형세가 한번 기울어지자 더욱 패색이 짙어 갔다.

양과와 소용녀는 바로 이 검법을 시전하는데 당장 위험에 직면해 있어, 서로의 심정이 너무도 절실하게 일치하였고 모두가 자신의 안위(安危)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구해 주려고 했으므로 그대로 검법의 뜻과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이 로(路)의 검법은 모든 초

가 하나씩 운을 지니고 있어서, <무금안소(撫琴按簫)면 소설팽차(掃雪烹茶)요, 송하대혁(松下對奕)이면 지변조학(池邊調鶴)이라> 등으로, 모두가 남녀가 함께 함으로써 어여쁘고도 부드러웠다.

임조영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실의에 바져 고묘에서 우울하게 생애를 마쳤다. 그녀는 문무의 재주를 겸비하였고 비파, 바둑, 글씨, 그림에도 능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최후에 그녀가 평생토록 배운 것을 이 무공에 모두 집어넣은 것이었다. 그녀가 처음에 만들 때에는 단지 자신의 회포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 뒤에 어찌 한쌍의 연인이 강적을 이기고 방어하는 데 이토록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효과를 거둘 줄을 알았으랴 !

양과와 소용녀가 처음 이 검법을 사용할 때에는 아직 이 검법의 오묘함을 다 알 수가 없었지만 뒤로 갈수록 더욱 완전히 체득하여 응수했다. 이 검법을 사용하는 남녀 두 사람이 만약 연인 사이가 아니라면 많은 정묘한 곳들을 실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뻔했다. 서로간에 검이 합해질 때, 친구 사이라면 지나치게 겸손을 부릴 것이요, 존장(尊長)과 소배(小輩)라면 본받고 의지하려고만 할 것이요, 부부가 이 검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하기는 묘하겠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품고 어여쁜 듯 부끄러운 듯 모일 듯 헤어질 듯 걱정해 주는 모든 심정들이 아무래도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것이었다. 이 순간 양과와 소용녀는 서로 끝없이 사모하면서도 아직은 확실하게 맺어진 것도 아니어서 내심으로는 은근히 앞길에 수없이 기다리고 있을 곤궁을 걱정하기도 해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쓰라림과 달콤한 심정들이 서로 뒤엉켜 임조영이 <옥녀소심검(玉女素心劍)>을 창안할 당시의 심정과 점점 가까와지고 있었다.

황용은 옆에서 싸움을 지켜보았고, 소용녀는 어쩔 줄 몰라 뺨이 온통 빨개지고, 양과는 때때로 그녀와 살짝 눈이 마주치면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곤 했다. 비록 강적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지만 남녀가 서로 기뻐하고깊이 사랑하는 표정이 드러나서 저도 모르게 놀랐다. 두

사람에게서 감염이 된 듯 황용은 곽정과 처음 사랑할 때의 정경들이 떠올랐다. 주루에는 한바탕 살벌한 싸움 소리 가운데에도 무한한 유정밀의(柔情密意)가 함께 흐르고 있었다.

양과와 소용녀가 마음으로 서로 통하여 기이하고도 무서운 공격을 펼치자 금륜법왕은 방어하기가 더욱 힘들어서 탁자와 의자를 아까 모두 부수어 버린 것을 몹시 후회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탁자와 의자가 막아 주어 적의 공세가 이토록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다시 한번 공격을 한다면 목숨을 버리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으로 물러서 다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기 시작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하게 되자, 그를 쫓아보낼 수 있음을 함께 느꼈다. 황용이 외쳤다.

"악인은 끝까지 없애 버려라. 과아야, 그자를 놓아 주지 말아라."

그녀는 양과와 소용녀가 금륜법왕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이 기묘한 검법에 의지해서였음을 알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오늘 그를 놓아 주면 이자의 무학이 높고도 깊어서 돌아가 생각에 생각을 다 하고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이 검법을 격파할 법문을 생각해 낸다면, 이후에 다시 제거를 하려고 해도 한없이 어려울 일이었다.

양과는 대답을 하고 맹렬하게 살수를 내리쳤다. 소원예국(小園藝菊) 서창야화(서창夜話) 유음연구(柳蔭聯句) 죽렴임지(竹簾臨池) 일초 일초를 펴내자 금륜법왕은 반격은커녕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양과는 본래 황용의 부탁대로 기회를 보아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임조영이 당년에 이 검법을 창시할 때는 본디 자신의 회포를 풀어 스스로 즐기려고 한 것으로, 적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당시의 심중에는 또한 부드러운 감정이 가득 차 있어 검법이 비록 무시무시하기는 했지만 적의 목숨을 빼앗을 만한 일초는 없었다. 이때 양, 용 두 사람은 비록 금륜법왕을 위협하여 손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금륜법왕은 검법의 내력을 잘 알지 못하여 상대방의 기초(奇招)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죽이려는 살수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두 사람이 만약 살수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목숨은 끝나는 것으로만 알았다. 위급한 가운데 계책이 떠올라, 발 아래에 힘을 주며 매번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한 계단씩 부러뜨려 버렸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계단 중간을 가로막고 있어서 양, 용 두 사람은 달려들 방법이 없었다. 계단 세 개가 부러져 나가자 장검은 이미 그의 몸에 닿지 않았다. 금륜법왕은 철륜을 한번 쳐들고 말했다.

"오늘 중원의 무공을 보고 어르신네 정말로 탄복했다. 너희들의 이 검법은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 ?"

양과는 정색하며 말했다.

"중원의 무공은 타구봉법(打狗棒法)과 자로검술(刺로劍術)이 최고이다. 이 검법이 바로 자로검술이다 !"

금륜법왕은 깜짝 놀라 말했다.

"자로검술이라구 ?"

"그렇다. 말하자면 늙은 나귀를 찌르는 검술이지."

금륜법왕은 그제서야 그가 이리저리 돌려서 욕하는 것임을 알고 대로하여 소리쳤다.

"무례한 녀석 같으니...... ! 끝내 이 금륜법왕의 실력을 보여 주고야 말겠다 !"

금륜법왕은 철그렁, 하고 철륜을 휘두르며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모습은 마치 나는 듯 순식간에 사라져, 잠깐 사이에 이미 담장 모퉁이를 돌아 자취를 감추었다. 양과는 쫓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몸을 돌리니, 달이파가 곽도를 부축하고 참담한 얼굴로 땅에 서서 말했다.

"대사형, 저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

양과는 두 사람을 보고 가련한 생각이 들어 황용에게 말했다.

"곽백모, 이자들을 놓아 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양과는 또 곽도가 정신이 혼미하고 너무나 초췌한 것을 보고 품에서 조그만 옥밀봉(玉密蜂)이 든 병을 꺼내어 곽도를 가리키며 약을 먹는 시늉을 하고 달이파에게 건네 주었다. 달이파는 크게 기뻐하며 곽도와 이러쿵저러쿵 한차례 말을 주고받았다. 곽도는 약 한 봉지를 꺼내어 양과에게 주며 말했다.

"그 글을 쓰던 선배가 내 독바늘에 맞았는데, 이것이 그 해약이오."

달이파는 양과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말했다.

"대사형, 정말 고맙습니다."

양과도 같이 인사를 하며 즐거운 표정으로 그의 서장어를 따라 말했다.

"대사형, 정말 고맙습니다."

달이파는 너무나 기이했다.

(대사형이 왜 날 보고 대사형이라고 부를까 ?)

달이파는 한 차례 깊이 생각을 하더니 비로소 알아차렸다.

(그는 과연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는 인물이어서 나에게 윗자리를 양보하여, 나와 대사형의 지위를 다투려고 하지 않는구나.)

달이파는 더욱 감격하여 양과에게 깊이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왼팔을 뻗어 곽도를 부축하고는 여러 몽고 무사들과 함께 돌아섰다.

양과는 해약을 황용에게 건네 주고 몸을 굽혀 인사를 하며 말했다.

"곽백모, 소질 이제 작별을 고할까 합니다. 백모님과 백부님도 소중하신 몸 잘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별을 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너무도 울적했다.

"어디로 가느냐 ?"

"저와 아가씨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 은거하면서 영원히 나오지 않아, 곽백부와 곽백모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은 생각했다.

(그는 오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와 부를 구해 주었으니 은덕이 결코 얕은 것이 아니다. 그가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을 보고 내가 어찌 그를 구해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

그래서 양과에게 말했다.

"이 시각에 그렇게 서두를 것 없지 않겠냐 ! 오늘은 모두들 너무 피곤하니 우리 어디 객점을 찾아 하룻밤 쉬고 내일 작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양과는 그녀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보고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대답했다.

황용은 은량을 꺼내어 주루의 파손을 보상하고, 진에서 객점을 하나 찾아 편안히 휴식을 취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황용은 무씨와 함께 이야기하라고 곽부를 내보내고 소용녀를 불러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동생, 내가 꼭 하나 줄 게 있어."

"뭘 준다는 거예요 ?"

황용은 그녀를 앞으로 끌어당겨 빗을 꺼내어 그녀의 머리를 빗겨 주었다. 그녀의 칠흑 같은 머릿결이 어깨까지 내려와 가볍고 부드럽게 윤기가 났다.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황용은 갑자기 부드럽고 자상한 마음이 뭉클 일어나 자기의 머리에서 머리를 묶는 금비녀를 빼서 말했다.

"동생, 내가 이것을 줄께."

그 금비녀는 너무도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온 몸체가 매괴화 꽃가지였다. 꽃가지가 구불구불 구부러지고 서로 이어져서 아직 피지 않은 매괴화였다. 황약사가 천하의 진기한 보물을 모을 때, 그녀는 오직 이 금비녀만을 좋아했으니 그 뛰어난 세공솜씨와 아름다움은 가히 상상할 수 있겠다. 소용녀는 그 동안 아마런 장신구를 몸에 지니지 않아서 머리를 묶는 것도 형차(刑金叉)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금비녀의 정교함을 보고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고맙다고만 했다. 황용은

금비녀를 그녀의 머리에 꽂아 주고 그녀와 한담을 나누었다.

한참을 애기하자 그녀가 천진난만하여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용모가 빼어나도록 아름답고 청려함을 보고, 황용은 양과와 사제의 관계만 아니라면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어울리는 한쌍이라는 생각이 들어 물었다.

"동생, 너는 마음속으로 양과를 무척 좋아하지, 그렇지 ?"

소용녀는 예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들은 왜 내가 그와 친해지는 것을 허락하지않지요 ?"

황용은 깜짝 놀랐다. 자기가 어렸을 때 부친이 곽정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강남칠괴도 자기를 욕하여 <조그만 요녀>라고 하여,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비로소 곽정과 짝이 되었던 일을 떠올렸다. 양과와 소용녀가 이렇듯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감히 누가 무슨 이유로 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 ? 하지만 그들 두 사람은 사도의 명분이 이미 정해졌으니 만약 남녀의 사사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면 무슨 면목으로 천하의 영웅들을 대할 것인가 ? 황용은 즉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동생, 세상에는 네가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단다. 만약에 너와 양과가 부부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소용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

황용은 또다시 놀랐다. 그녀의 이 말은 바로 부친 황약사가 <제 하고 싶은 대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안중에도 없었던 것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황용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같이 세속을 초월한 인물은 원래 세속의 견해에 구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이 양과를 매우 사랑하고 아끼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생각하여 그가 자기의 사위가 되든 말든, 온전한 품덕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다.

"그럼 과는 ? 다른 사람들은 그도 거들떠보지 않을 텐데......"

"그와 나는 어느 누구도 알아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함께 즐겁게 살 텐데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란 말예요 ?"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이 어디란 말이냐 ?"

"아주 큰 고묘예요. 나는 줄곧 그 안에 있었어요."

황용은 흠칫 놀라며 말했다.

"설마 너희들이 그 고묘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

소용녀는 마음을 다 열어 놓고 일어나 방안을 여기저기 거닐며 말했다.

"그래요. 나와서 뭘 해요 ? 밖의 사람들은 모두가 못됐어요."

"과는 어려서부터 밖에서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는데 줄곧 무덤안에 갇혀 있으면 싫증내지 않을까 ?"

소용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와 함께 있는데 왜 싫증이 나요 ?"

"처음에는 물론 싫증이 나지 않겠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는 밖의 화려한 세계가 생각날 텐데, 그가 만약 계속 나오지 못한다면 고민할 것이 아니겠느냐 ?"

소용녀는 이제껏 기분이 매우 좋았는데 이 말을 듣자 곧 마음이 울적해져서 말했다.

"내가 과에게 가서 물어 보겠어요.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황용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한 줄기 어두운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방금 한 말이 실로 천진난만한 한 소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되자 곧 후회가 되었다. 돌이켜 보건대 그 동안 경험한 세상 일이라는 것이 젊디젊은 두 남녀의 한결같은 심정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바른말을 했는데 도리어 그들의 귀에 거슬리게 됐으니 몹시고심에 빠졌다.

(과아는 어떻게 말할까 ?)

이런 생각이 든 황용은 조용히 양과의 창가로 가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엿들었다.

소용녀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과야, 너는 이후로 나와 함께 가는데 근심 걱정이 생길 것 같냐 ? 싫증이 날 것 같으냐 ?"

"뭘 물어 보는 거예요 ? 나는 기쁨이 끝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두 사람은 늙을 때까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이가 모두 바질 때까지 여전히 좋아하며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양과의 이 몇 마디 말은 너무도 진지하고 간절했다. 소용녀는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저도 모르게 멍하니 있다가 그제서야 말했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주머니에서 줄을 꺼내 벽 이쪽과 저쪽에 걸며 말했다.

"자자 !"

"곽백모께서 오늘밤은 아가씨가 그녀 모녀와 같은 방에서 자고 나는 무씨 형제와 같이 자도록 하셨는데......"

"아니야, 왜 그 두 남자가 너와 함께 자니 ? 나는 너와 같이 자고 싶단 말이야."

말을 하고는 손을 휘둘러 등불을 껐다.

황용은 창 밖에서 이 몇 마디 말을 듣고 놀랐다.

(그들 사제는 과연 이미 그짓을 했구나. 그 도사 조지경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구나 !)

그녀는 두 남녀가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면 밖에서 엿듣기가 거북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돌연 방 안에서 흰 그림자가 번적 하더니 한 사람이 공중에 가로누워 몇 번 흔들리더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였다. 황용은 너무도 기이하여 방으로 새어들어가는 달빛을 이용하여 가만히 살펴보니, 소용녀는 줄 위에 누워서 자고 있고 양과는 온돌 위에서 자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비록 같은 방에서 잠

을 자지만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 황용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은 보통 사람과 너무도 달라서 실로 말로 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꼈다.

그녀가 마당에서 한참을 조용히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곽부와 무씨 형제가 밖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황용이 말했다.

"유야, 문아, 너희 둘은 다른 방에서 자라. 양형과 한방에서 자지 말아라."

무씨 형제는 이에 응했다. 곽부가 도리어 물었다.

"엄마, 왜요 ?"

"네가 상관할 게 아니다."

무수문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왜 그런지 알아. 그들 두 사람은 사부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야. 개 같은 연놈들이 한방에서 자니까 그렇지 !"

황용의 얼굴이 굳어지며 꾸짖었다.

"문아, 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냐 ?"

무돈유가 말했다.

"사랑도 그냥 놔두세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뭐해요 ? 나도 절대로 그와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곽부가 말했다.

"오늘 그는 우리를 구해 줬어. 그것도 큰 은혜야."

무수문이 말했다.

"흥, 내가 차라리 금륜법왕에 죽는 것이,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의 은혜를 입는 것보다 낫겠다 !"

황용이 발끈하여 말했다.

"여러 말 하지 말고 어서 가서 자거라."

창 밖의 이 말을 양과와 소용녀는 똑똑히 들었다. 양과는 어렸을 때부터 무씨 형제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말들을 일소에 붙일 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소용녀가 도리어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왜 과와 내가 좋아하는데 그들은 짐승이다 개 같은 연놈이다 하는 것일까 ?)

이리저리 생각을 해 보아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 한밤중에 양과를 깨워 물었다.

"과야, 내게 진심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 나와 함께 고묘에 살면서 몇 년이 지나면 바깥의 화려한 세계가 틀림없이 생각나겠지 ?"

양과는 깜짝 놀라 잠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용녀가 다시 물었다.

"만약 밖에 나올 수 없으면 고민하게 되겠지 ? 비록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묘에서 오랜 시일이 지나면 짜증이 날 거야 ! 그렇지 ?"

이 몇 마디 말에는 양과도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죽을 때까지 소용녀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신선이 되는 일보다도 나을 것이다. 하지만 차디차고 어두침침한 고묘에서 가령 10 년, 20 년은 싫증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 년을 산다면 ? 40 년을 산다면 ? 되는 대로 <절대로 짜증내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소용녀에게 일편단심 지성으로 대하여 조금도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가씨, 만약 짜증이 나고 싫증이 나면 함께 나오면 돼요."

소용녀는 <음>하는 신음 소리와 함께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생각했다.

(곽부인의 말이 결코 나를 속인 것이 아니야. 장래 그가 마침내 짜증이 나서 묘를 나오면 그때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테니 그가 무슨 재미가 있을까 ? 나와 그가 서로 좋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를 경시하고 천시하는지 모르겠어. 아마 내가 좋지 않

은 사람이기 때문이겠지. 나는 그를 좋아하고 가슴이 아프도록 사랑하니 내 목숨을 바쳐도 괜찮아. 하지만 그에 대한 사랑이 도리어 그가 즐겁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가 나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나아. 그날 밤 종남산 꼭대기에서 그가 내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분명히 이 때문일 거야.)

한참을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소용녀는 양과가 고르게 숨을 몰아쉬며 깊이 단잠에 빠진 것을 알고 가볍게 땅으로 내려와 온돌 곁으로 갔다. 그의 수려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니 가슴이 떨리고 애간장이 끊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어뜨렸다.

다음날 아침 양과가 잠을 깨니, 어깨가 축축한 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더니 지난밤 함께 잠들었던 소용녀가 보이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탁자 위에 금침(金針)으로 작게 새긴 글씨가 보였다.

<몸 잘 돌보고, 내 걱정은 하지 말아.>

양과는 즉시 머리가 어지러워져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탁자 위에는 눈물 자국이 흥건하여 아직 채 마르지 않았고, 자기 어깨에 축축하게 배어 있는 것도 그녀의 눈물이었다. 그는 혼란한 정신으로 급히 찬문을 밀고 뛰어나가 크게 소리쳤다.

"아가씨, 아가씨 !"

점원이 올라와 시중을 들었다. 양과는 그에게 그 흰 옷을 입은 여자 손님이 언제 나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물었다. 점원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아무런 대답도 못 했다. 만약 오늘 그녀를 찾지 못하면 이후로는 다시 만나기가 힘들까 봐 그는 마굿간으로 달려가 수척한 말 한 필을 끌어내고 단숨에 올라탔다. 곽부가 방에서 나와 외쳤다.

"어딜 가는 거야 ?"

양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큰길을 따라 북쪽으로 급히 말을 몰아 얼마 되지 않아 수십 리를 달렸다.

"아가씨, 용아가씨 !"

그는 줄곧 큰소리로 외쳐 댔다. 하지만 어디에도 소용녀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참을 달리자 금륜법왕 일행이 말을 타고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그가 혼자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 금륜법왕이 고삐를 들어 말을 재촉하여 그를 향하여 달려왔다.

양과는 무기도 지니지 않고 대적과 마주쳐 대단히 위험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소용녀가 어디로 갔는가 하는 생각뿐이었고, 자신의 안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금륜법왕이 말을 달려오는 것을 보고 도리어 말머리를 들고 그를 맞으며 물었다.

"저희 사부를 못 보셨나요 ?"

금륜법왕은 그가 전혀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미 이상한 느낌을 가졌는데, 그의 이 말을 듣자 더욱 깜짝 놀라서 그대로 대답했다.

"못 보았다. 그녀는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

두 사람은 일문일답을 했지만 모두가 창졸간이라서 무엇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아주 잠깐 사이에 양과는 혼자이고 그들은 여럿이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게 되었다. 양과는 금륜법왕의 적수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한번 마주치더니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양과는 두 다리를 끼고 잇었고 금륜법왕은 이미 손을 뻗어 잡으려 했다. 그러나 수척한 말은 다행히 비범하게 빨라서 질풍처럼 재빨리 금륜법왕을 스치고 지나갔다. 금륜법왕이 말을 재촉하여 급히 달렸지만 양과와 말은 이미 멀리, 1리 밖에 있게 되어 더 이상 쫓기는 어려웠다. 금륜법왕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말고삐를 당겨 뒤쫓기를 중단했다.

(그들 사도가 서로 떨어졌는데 내가 더 이상 뭘 두려워하랴 ! 황방주가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면, 후후훗...... !)

금륜법왕은 즉시 무리를 거느리고 오던 길로 말을 달렸다.

양과는 미친 듯이 달렸어도 수십 리 안에서는 도저히 소용녀의 종적을 찾을수가 없었다. 가슴에는 뜨거운 피가 용솟음쳤다. 양과는 혼미

한 정신으로 말등에 엎어졌다.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고 했다.

(아가씨가 왜 나를 버리고 가 버렸을까 ?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또 그녀에게 죄를 지었지 ? 그녀는 떠나갈 때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나는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니...... !)

그러다가 홀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 그래. 내가 고묘에서 오래 있으면 싫증이 날 거라고 해서 그녀는 분명히 내가 그녀와 오랫동안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 줄로 알았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미치자 눈앞에 밝은 빛이 퍼뜩 스쳤다.

(그녀는 틀림없이 고묘로 돌아갔다. 나는 그녀와 함께 가야 한다.)

양과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어 말등에서 몇 번을 계속 아혀 이리저리 굴렀다.

말을 몰아 달리려고 하는데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양과는 급히 정신을 차려 방향을 알아 보고는 말머리를 돌려 종남산으로 향했다. 생각할수록 간단한 일이어서 기분이 좋았다. 조금 전까지 아팠던 마음은 거의 사라져서 그는 목청을 돋우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후가 지나서 길가의 한 조그만 객정 에잠시 머물러 국수를 사 먹었는데, 나올 때 서두르느라 은량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양과는 주인이 방심한 틈을 타 말등에 뛰어올라 급히 달아났다. 객점의 주인이 멀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어떻게 그를 따라오겠는가 ? 양과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신(申)시 정도 되었을가. 눈앞에 어두컴컴한 큰 수풀이 나칭소리치고 욕求잔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그는 저으기
놀라 귀를 기울여 들어 보니 바로 금륜법왕과 곽부의 목소리였다.

그는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조용히말등에서 뛰어내려 고삐를 쥐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겨, 소리를 따라 살펴가며 살금살금 걸음을 옮겼다. 10여 장쯤 걸었을까. 숲의 깊은 곳에 돌들이 어지러이 쌓여 있는데, 황용 모녀, 무씨 형제 네 사람이 마침 금륜법왕 일행과

다투고 있었다. 그러나 무씨 형제는 얼굴과 옷에 온통 핏자국이 나 있었고, 황용, 곽부는 머리가 흐트러진 채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 금륜법왕이 활로를 열어 주지 않았다면 네 사람은 이미 그의 철륜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었다.

양과는 잠시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이 순간 아가씨가 없으니 내가 가서 도와 주다간 공연히 목숨만 버린다. 아아, 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 곽백모를 구출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

돌연 금륜법왕이 바퀴를 휘둘러 공격하자 황용은 대적할 힘이 없는 듯 돌더미 뒤에 몸을 움츠렸다. 금륜법왕은 돌더미를 이리저리 맴돌며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했다. 양과는 매우 이상했다. 곽부와 무씨 형제 세 사람도 돌에 의지하여 피하고 있었다. 싸우다가도 위급한 중에 돌 뒤에 몸을 숨기자, 달이파 등은 멀리서 맴을 돌며 쫓아가 다가서려고 했지만 곽부 등은 이미 다른 돌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양과는 너무도 이상했다. 이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돌더미가 이토록 묘하게 쓰인다는 것이 불가사의했다. 황용 등은 비록 위태로왔지만 사실은 안전한데 다만 돌더미에서 빠져 달아날 방법만이 없을 뿐이었다.

금륜법왕은 오랫동안 공격해도 이겨 내지 못했다. 비록 무씨 형제를 다치게는 했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도리어 한 명의 무사가 곽부에게 질려서 죽었다. 황용이 쌓아 놓은 많은 난석(亂石)들은 매우 괴이했다. 그 오묘함을 알아내야만 네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다. 금륜법왕은 재주와 지략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늘 자부하고 있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들은 자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여 난석진(亂石陣)을 통과할 방법을 세우며 성큼 진 안으로 다가서서 손을 내뻗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왼손을 휘두르며 다른 사람들을 물러서게 하고 자기도 1장 밖으로 물러서서 난석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대개 병법에서 포진을 할 때에는 태극(太極)의 양의(兩儀)와 오행팔괘(五行八卦)의 변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금륜

법왕은 기문묘술에 정통하여 이 난석진이 비록 괴이하지만 결국은 오행상극의 이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나절을 보고 있어도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裏 한 가지 단서가 나타날 듯하여 대략 따져 보면, 전체가 맞지 않았다. 좌익이 맞으면 우익에 변화가 있었고, 진법의 선봉에 통할 듯하면 그 후미가 또한 풀기가 어려워, 멍하니 땅에서서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문무의 재주를 모두 지니고 있어서 실로 당세의 걸출한 인물이었다. 눈앞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자 자기의 재지(才智)로 풀려고 무진 애를 썼다.

양과는 금륜법왕이 눈썹을 찌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돌연 그의 두 눈에 뭔가를 알아 챈 듯한 기미가 보이더니 몸을 재빨리 움직여 난석진으로 들어가서 곽부의 팔을 잡고 급히 물러서 나왔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생기자 황용은 세 사람은 대경실색하여 즉시 손발을 어떻게 놀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진을 빠져나가 구하려 한다면 그의 독수에 맞을 것이 뻔했다.

원래 곽부는 적이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한순간 마음을 놓아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서 있지 않고 진법의 울타리를 잠시 이탈했던 것이다. 금륜법왕은 틈이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손을 뻗어 그녀를 사로잡아서 손가락을 펴 그녀의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혈도를 눌렀다. 그는 일부러 아혈(啞穴)을 누르지 않아 그녀로 하여금 애절한 소리로 구원을 요청하게 하여 황용이 분격하여 진을 나오도록 꾀했다. 곽부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고 참지 못하여 신음을 토했다. 황용이 어찌 그러한 적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했을까마는 딸의 슬픈 소리를 듣고 분노가 끓어올랐으나 입을 악물고 억지로 참고 있었다.

양과는 나무 뒤에서 그러한 광경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황용이 죽봉을 휘두르며 난석을 밀고 뛰쳐나와 사랑하는 딸을 구하려고 하는 것

을 보자, 이것은 너무도 위험한 짓이라 급한 너머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양과는 급히 뛰어나가 곽부의 등을 잡고 난석더미로 밀었다. 금륜법왕의 철륜이 날아 그의 등을 쳤다. 양과는 몸이 공중에 떠 있어 재빨리 피하기가 어려워서 곽부를 황용에게 힘껏 떠밀고 동시에 천근추(千斤墜)를 사용하니, 몸이 곧장 아래로 떨어지며 펄썩, 하는 소리와 함께 돌더미 위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철륜이 머리 위에서 질풍같이 날아 원을 한바퀴 그리고는 다시 법왕의 손으로 날아갔다.

황용은 사랑하는 딸을 안고 희비가 교차했다. 양과가 돌더미에서 몸을 돌려 일으키는데 눈과 코가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을 보고 급히 죽봉을 뻗어 가리키며 석진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금륜법왕은 공격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또 양과라는 조그만 놈이 끼여들자 노기가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며 말했다.

"좋다. 네가 제 발로 그물에 걸려들었으니 이후에 다시 너를 찾아가는 수고를 덜게 되었구나."

양과가 이렇게 몸을 던져 사람을 구한 것은 순전히 의분에 의한 것이었다. 석진에 들어간 뒤에 양과는 생각했다. 이번에 이 일에 끼여든 것은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다시는 살아서 소용녀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자 은근히 후회가 되었다. 황용이 물었다.

"너의 사부는 ?"

양과는 암담한 듯 말했다.

"그녀는 간밤에 갑자기 가 버렸어요.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황용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과아야, 너는 왜 하필 이 일에 끼여들었느냐 ?"

양과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고 말했다.

"곽백모, 나는 바보고 어리석어서 가슴에 피가 솟구쳐올라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좋은 아이로구나. 너는 마음이 착하여, 너의 아버지와는......"

반쯤 말하다가 돌연 말을 멈추었다. 양과의 목소리가 떨렸다.

"곽백모, 우리 아버지는 못된 사람이었군요. 그렇죠 ?"

황용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그걸 알아서 뭐하려느냐 ?"

그러다가 돌연 외쳤다.

"조심해, 이쪽으로 와라 !"

황용은 그를 붙잡고 두 더미의 난석을 뛰어넘어 금륜법왕의 기습을 피했다.

양과는 난석더미를 앞뒤로 살펴보고 탄복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곽백모, 당신처럼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다시는 없을 거예요."

황용은 딸의 혈도를 풀고 안마를 하면서 미소를 띄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곽부가 말했다.

"양오빠가 뭘 안다고 그래 ? 우리 엄마의 재주는 모두가 외할아버지 거야. 외할아버지야말로 정말 무서운 분이셔."

양과는 도화도에서 황약사가 손수 가꾼 여러 가지의 연못을 본 적이 있었다. 다만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러한 묘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곽부의 말을 듣고 양과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듯 감탄하며 말했다.

"언젠가 그분을 한번 찾아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

눈 깜짝할 사이에 금륜법왕이 2개의 돌더미를 뛰어넘어 다시 공격해 왔다. 양과는 수중에 병기가 없어 급히 황용이 땅에 놓은 죽봉을 집어 들고 나아가 맞섰다. 휙휙 소리를 내며 양과는 타구봉법을 사용했다. 법왕은 그의 봉법이 정묘한 것을 보고 정신을 모아 접전을 했다. 수초를 싸우자 돌연 두 사람의 발이 동시에 돌에서 미끄러지며 함께 넘어졌다. 법왕은 계략에 말려들까 봐 즉시 진을 뛰어서 나갔다.

황용은 양과를 끌어들이고 무씨 형제와 딸을 보내 돌을 옮겨 날라서 진법을 변화시키도록 한 뒤 양과에게 물었다.

"너는 이 타구봉법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

양과는 이미 사실대로, 어찌어찌하다가 공교롭게도 화산에서 홍칠공을 만났고, 북개와 서독이 어떻게 무예를 겨루었고, 홍칠공이 어떻게 하여 봉법을 전수해 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는 황용의 감정을 격하게 할까 봐 홍칠공이 세상을 떠난 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황용은 감탄하며 말했다.

"네가 그토록 기이한 인연으로 홍방주를 만난 일은 정말로 드문일이다."

문득 생각을 돌려 말했다.

"과아야, 너는 매우 총명하니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아라. 오늘의 이 난국을 벗어날 방법을 말이다."

양과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이미 계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모른체하며 말했다.

"만약 백모님이 건강하시다면 나와 함께 법왕과 싸우면 저 녀석 르 이길 수 있을 텐데...... 사부를 오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몸이 어떻게 금방 나을 수 있겠느냐 ? 네 사부도 어디로 갔는지 통 알 수가 없어. 나의 다른 계책은 여기밖에 없어. 이 난석더미를 이용해야 하는 거야. 이 석진은 나의 아버님께서 전수하신 거야. 이 안에는 변화가 끝이 없어 지금까지는 오분의 일 밖에 사용하지 않았어."

양과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황약사의 무공과 실력을 생각하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황용이 말했다.

"나의 사부께서 너에게 전수하신 타구봉법은 겨우 초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네가 나무 위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은 구결의 대의에

불과해. 이제 내가 너에게 봉법 중의 정미한 변화 하나를 전수해 주마!"

양과는 크게 기뻐하면서도 도리어 물러서며 말했다.

"이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타구봉법은 개방의 방주를 제외하고는 역대로 다릉 사람에게 전해 준 적이 없잖아요 ?"

황용은 눈을 흘기며 말했다.

"내 앞에서 또 무슨 잔꾀를 부리려고 하느냐 ? 이 봉법은 나의 사부께서 너에게 열 중의 셋을 전수해 주셨고, 너 자신이 둘을 엿들었고, 오늘 내가 다시 너에게 둘을 전수해 주마. 나머지 셋은 너 자신의 재주와 지혜로 익혀 깨달아라. 다른 사람에게는 전수해 줄 수가 없다. 이는 첫째, 결코 너에게 모든 것을 전수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둘째는 오늘 사정이 너무 급하니 이 수를 따르는 방법밖에 없어서이다."

양과는 땅에 무릎을 꿇고 몇 번이나 절을 하고 웃으며 말했다.

"곽백모, 제가 어렸을 때 당신은 제게 무공을 전수해 주겠다고 대답을 한 적이 있으셨죠 ! 오늘 전해 주시더라도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황용이 살며시 미소를 날리며 말했다.

"너는 마음속으로 그 일을 계속 한스러워했구나, 그렇지 ?"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

이에 황용은 조용조용히 봉법의 오묘한 곳을 하나하나 그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다.

금륜법왕이 난석 밖에서 보니, 양과가 황용을 향하여 고개를 조아리고 두 사람이 애기하면서 킥킥거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해괴한 일을 꾸미는지 알 수가 없었다. 뭔가 단단히 믿고 있는 것이 자기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비록 화는 치밀어올랐지만 그는 본래 신중했다. 눈앞의 이 두 사람의 무공이 비록 자기를 당해 내지는 못하지만 이들에게서는 실로 귀신 같은 꾀가 수없이 나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금륜법왕은 그들의 의도를 안뒤에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다행히도 그가 공격을 늦추어서 황용과 양과가 적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되자, 반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황용은 말을 다 끝마쳤다.

양과는 총명하고 영리하여 노유각(魯有脚)보다는 백 배 나았다. 그야말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정도였다. 게다가 그는 이 봉법을 이미 많은 심혈을 기울여 상세히 따져보았고, 지난번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오늘 황용이 대략 허두만 끄집어 내면 즉시 훤하게 풀리는 것이었다. 금륜법왕은 그런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황용의 표정은 엄숙하고 편안하며 입술이 약간 움직이고, 양과는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들으며 기뻐 어쩔 줄을 모른다. 금륜법왕은 두 사람이 이 와중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일은 어쨌든 자기에게는 불리한 것이어서 그들의 말을 끊어야만 했다.

양과는 요결(要訣)을 다 듣고 10여 가지 어려운 점을 묻자 황용은 일일이 설명을 해 주고는 말했다.

"됐다. 네가 이 정도 어려운 것을 묻는 것을 보니 이제 충분히 깨달은 것 같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화상을 유혹하여 진으로 끌어들여 사로잡아 보자."

양과는 깜짝 놀라 말했다.

"그를 사로잡아요 ?"

"그게 뭐 어려울 것이 있겠느냐 ? 이제 너와 내가 손을 맞袖만芮 지혜도 저자보다 뛰어나고 힘도 더 나을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석진의 오묘한 것을 설명해 주마. 너는 일시에 이해하기는 물론 어려울 것이니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아. 36개의 변화는 죽을 때까지 기억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여 청룡(青龍)이 어떻게 변화하여 백호(白虎)가 되는지, 현무(玄武)가 또 어떻게 변화하여 주작(朱雀)이 되는지를 말해 주었다. 원래 이난석진은 제갈량(諸葛亮)의 팔진도(八陣圖)

에서 변화해 나온 것이다. 당년에 제갈량은 장강(長江)가에서 돌덩어리로 진법을 펼쳐서 동오대장(東吳大將) 육손(陸遜)이 진에 들어온 이후에 빠져나가기가 힘들도록 했다. 지금 황용이 펼쳐놓은 것은 곧 제갈무후의 유의(遺意)를 따라 한 것인데, 다만 일이 창졸간에 일어나서 모두 펼치기도 전에 대적이 이르는 바람에 대략의 모습만 갖추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해 놓았어도 역시 금륜법왕을 깜짝 놀라게 하여 눈만 둥그렇게 뜨고 앞의 다섯 사람의 바라보기만 할 뿐 감히 손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진도의 36 가지 변화는 실로 복잡하고 오묘하여 양과같이 총명한 사람도 일시에 제대로 기억하는 것은 겨우 10 여 가지 변화였다. 하늘이 어두워지려 하고 금륜법왕이 서서히 움직이려고 하자 황용이 말했다.

"이 십여가지 변화만 있어도 그자를 충분히 해치우고도 남는다. 네가 나가서 그를 진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내가 진법을 변화시켜 그를 곤경에 빠뜨리겠다. 알겠느냐 ?"

양과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곽백모, 다음에 만약 제가 다시 도화도에 가면 이 학문을 모두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

황용은 입술을 내밀고 서늘한 바람에 머리를 날리니 석양빛에 그 아름다움이 더 빛났다.

"네가 온다면 내가 왜 가르쳐 주지 않겠니 ? 너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와 부를 두 번이나 구해 주었는데. 내가 이전에 이토록 너를 잘 대해 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양과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며 이 순간 황용이 그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간에 백 번을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즉시 죽봉을 집어들고 석진을 돌아 나서서 외쳤다.

"겁장이 철륜법왕. 네가 조금이라도 배짱이 있거든 나와 300 합을 겨류어 보자 !"

금륜법왕은 그들이 석진 안에서 무슨 계책을 꾸미나 조심하고 있다가 그가 진에서 나와 당돌하게 도전을 하자, 전혀 뜻밖이어서 쨍그랑, 철륜 소리를 울리며 비스듬히 공격했다. 그는 양과가 싸우다 이기지 못하면 다시 진 안으로 달아날까 봐 2초를 공격한 후, 그의 후로를 차단하여 그가 석진에서 멀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양과는 타구봉법의 정수를 새로 배워서 반, 벽, 전, 절, 도, 인, 봉, 전의 팔자결(八字訣)을 사용하니, 과연 그 변화가 정미하여 신출귀몰한 것이었다. 법왕은 대충 공격을 하다가 약간 허점을 보여서 그에게 대퇴부를 얻어맞았다. 비록 위급한 중에도 급히 혈도를 막아서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한참 동안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한번 당하자 다시는 감히 만만히 대할 수 없어 철륜을 들어 정신을 집중하여 대항했다. 눈앞의 상대는 비록 20세 미만의 소년이었지만 그는 공격할 때에도 도리어 대적과 싸우듯 신중하게, 수비할 때에도 엄하게, 마치 일파의 대종사와 겨루듯 했다. 이렇게 되자 양과는 버티지 못함을 느꼈다. 타구봉법이 비록 오묘하지만 금방 배워서 즉시 사용하니 그 묘수를 다하기가 힘들었다. 즉시 <봉(封)>자 결로 철륜의 공격에 맞서서 걸음을 움직이며 좌충우돌했다. 금륜법왕은 그의 죽봉의 공수 변초에 맞추어서 밖으로 공격을 하며 계속해서 물러서면서 그를 석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했다. 10여 걸음 정도 물러섰을까, 돌연 오른발이 한 거대한 돌에 부딪쳤다. 원래 그는 부지불식간에 석진으로 유인되어 들어온 것이다.

그는 뭔가 불안을 느꼈는데 황용이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다.

"주작(朱雀)에서 청룡(靑龍)으로 옮겨라. 손(巽)에서 리(離)로 바꾸어라. 을목(乙木)에서 계수(癸水)로 변화시켜라."

무씨 형제와 곽부가 암석을 나르자 석진이 갑자기 변했다. 금륜법왕은 대경실색하여 철륜을 멈추고 주위의 정세를 살피려고 하는데 양과의 죽봉이 감싸 왔다. 이 타구봉법은 그와 정면으로 대적을 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정신을 혼란시키는 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법왕은 발

길이 여러 번 계속 채이자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석전은 극히 무시무시하여 깊이 빠져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어지러워진다는 것을 알고, 그는 위급한 중에 대갈일성을 지르고 난석으로 뛰어올랐다. 본래 돌더미 위로 올라 가면 석진의 곤혹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 그는 곧장 달려나가면 진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동서로 남북으로 아무리 달려도 사방 불과 10여 장의 둘레에서 맴돌기만 하는 것이었다. 정력이 다 소모되어, 앉아서 죽음을 기다려야 할 판이었다. 그때 금륜법왕이 마악 돌더미로 올라오자 양과가 이미 봉을 휘둘러 발을 쳤다. 그의 철륜은 짧은 무기여서 몸을 굽혀 공격을 막을 수 없어서 평지로 뛰어 내려 반격해야만 했다.

따시 10여 초를 겨루자 어둠이 서서히 깃들고 있었다. 사방에 난석이 우뚝우뚝 솟아 있고 석진 안에는 귀기가 뿜어나오는 듯하여 그가 아무리 무예가 높고 담이 크다고 해도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은근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돌연 뭔가 묘책이 스치고 지나가 왼발을 들자 20여 근이 되는 커다란 돌이 그에게 들려 하늘을 날았다. 이어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올리자 또다시 커다란 돌덩이가 높이 날아올랐다. 그가 몸을 번개같이 움직이며 두 다리로 계속하여 차자 큰 돌이 평평 메아리를 울리며 서로 부딪쳐 불꽃과 돌가루가 날리며 난석진이 순식간에 부서졌다. 황용 등 다섯 사람은 크게 놀라 계속하여 공중에서 날아 떨어지는 돌을 피했다.

이때 금륜법왕이 만약 진을 나오려고만 했다면 손바닥 뒤집듯 쉬웠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수비를 공격으로 바꾸어 좌장을 더듬어서 마침내 황용을 사로잡았다. 양과의 봉이 그의 등을 찔렀지만 법왕은 철륜을 휘둘러 막으며 좌장은 이미 황용의 어깨를 움켜잡고 있었다. 그녀가 만약 뒤로 뛰어 피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거센 바람소리가 들리며 공중에서 커다란 돌이 몸 바로 뒤로 떨어져 내려 급히 대금나수(大擒拿手)로 반격하여 법왕의 팔꿈치를 잡았다.

"좋다 !"

법왕은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 팔꿈치를 잡힌 채 그녀가 힘을 쓰기를 기다렸다가 신력을 움직여 품으로 재빨리 나꿔챘다.

보통때라면 황용도 힘을 써서 벗어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힘이 부족하여 <아아> 소리를 지르며 넘어지고 말았다. 양과는 크게 놀라 즉시 생사안위를 돌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들어 법왕의 두 다리를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쓰러졌다.

금륜법왕의 무공은 과연 그보다 훨씬 높았다. 땅에 닿기도 전에 우장을 휘둘러 양과의 오른쪽 가슴을 쳤다. 양과가 급히 왼팔을 뻗어 막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손과 팔이 교차하더니 양과는 가슴에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몸이 지푸라기처럼 날아 떨어졌다. 바로 이때 공중에서 마지막으로 거대한 돌이 무섭게 떨어져내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 법왕의 등을 쳤다. 이 충격은 너무나 거세어서 그가 내공을 다시 강하게 했지만 견딜 수가 없었다. 공력을 움직여 다소 돌을 튕겨내기는 했지만 몸이 휘청거리더니 마침내 금륜법왕은 앞으로 고꾸라졌다.

순식간에 돌이 떨어져 진은 파괴되고 황용, 양과, 금륜법왕 세 사람은 동시에 상처를 입고 땅에 쓰러졌다.

*** 거 문 고 소 리 ***

석진 밖에 있던 달이파와 몽고 무사, 석진 안에 있던 곽부와 무씨 형제는 모두들 놀라서 일제히 자기 쪽 사람들을 구하려고 달려들었다. 달이파의 신력(神力)은 본래 대단했고, 몽고 무사 가운데에도 여러 명의 고수가 있었다. 곽부와 무씨 형제에게는 대적하기가 쉽지 않은 상대였다. 그때 금륜법왕이 비틀비틀 일어나며 철륜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곽부와 무씨 형제들은 정신이 혼란해지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금륜법왕은 하늘을 쳐다보며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 속에는 처량한 기운이 충만해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고 놀라면서도 감

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금륜법왕이 쉰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지금까지 숱한 싸움을 겪었지만 한 번도 상처를 입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네가 나를 다치게 하다니......"

그는 손을 뻗어서 황용의 등을 잡으려고 했다.

양과는 그의 장력에 가슴을 맞고서 땅을 기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황용의 위급을 보고는, 오히려 봉을 휘두르며 그와 싸우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였다. 갑자기 힘을 쓰자 입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과아야, 우리가 참자 ! 이젠 목숨을 걸지 말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라고 황용이 말했다.

곽부는 장검을 손에 쥐고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으며 금륜법왕을 노려보았다.

"부야 ! 빨리 도망가서 네 아버지에게 알려 드려라 !"

곽부는 양과의 말을 듣고 비록 자기의 무예가 보잘것없지만 어찌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무척 괴로와했다. 그때 금륜법왕이 철륜을 휘둘러 곽부의 장검을 쳤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번쩍이며 장검은 멀리 숲속으로 날아갔다.

금륜법왕이 곽부를 밀어 젖히고 황용을 잡으려는데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

난데없이 숲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뛰어올랐다. 그 사람은 손을 뻗어 떨어지는 장검을 잡으며 공중에서 돌더니, 어느덧 난석의 무더기 가운데에 이르렀다. 금륜법왕은 사람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한,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얼굴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다.

"누구냐 ?"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몸을 숙여 큰 돌을 밀어서 그와 황

용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당신은 이름도 드높은 금륜법왕이 아니신가 ?"

그녀의 얼굴은 비록 추했어도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렇다 ! 그렇게 묻는 넌 누구냐 ?"

"나는 이름 없는 어린 계집이니, 얘기를 해도 모르실 게요."

라고 말하며 그녀는 다른 큰 돌을 세 척 정도 움직였다. 그때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서 숲속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금륜법왕은 덜컥 겁이 났다.

"도대체 뭘 하는 거냐 ?"

그녀가 다시 돌을 움직이려고 하자 금륜법왕이 이를 막으려고 했다.

"각목교변항금룡(角木蛟變亢金龍) !"

그녀의 이 말을 듣고서 곽부와 무씨 형제는 매우 놀랐다.

(그녀가 어떻게 석진의 변화를 알고 있단 말인가 !)

그러나 그들은 그녀의 말 속에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음을 느끼고 즉시 그녀를 따라 돌을 움직였다. 네다섯 개의 돌이 움직이자 흐트러진 진법이 다시 변화되었다.

금륜법왕은 그것을 보고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이 조그만 계집애가 감히 끼여들어 함부로 소란을 피우다니...... !"

"심월호전방일토(心月狐轉房日兎) ! 필월오이규목랑(畢月烏移奎木狼) ! 여토복진실화저(女土복進室火豬)...... !"

그녀가 외친 것은 모두 28숙의 방위였다. 곽부와 무씨 형제는 그녀가 외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황용이 진법을 펼쳤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자, 크게 기뻐하며 온힘을 다해 돌을 움직여 금륜법왕을 포위하려 했다.

법왕은 아까 등에 돌의 충격을 받고서 내력을 강하게 사용해 자신을 보호했지만, 사실 몸 속의 상처가 가볍지 않아 돌 가운데에서 다시 뛰어오를 힘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잠시 머뭇거려 석진 속에 빠진다면

달이파가 아무리 용기가 있더라도 진법을 모르니 자기를 구해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직 몸을 세우지 못하는 황용을 사로잡아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즉시 철륜을 휘두르며 무수문의 머리를 향해 공격했다.

금륜법왕은 이미 상처를 입은 후에 팔의 힘이 다 빠져서 철륜도 겨우 들 지경이었다. 무수문이 검을 뽑아 들고 대항했다면 오히려 철륜이 그의 수중에서 날아가 버렸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위풍이 당당해 거짓 동작을 취하더라도 보기에는 아주 위협적이어서 무수문은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몸을 움츠려 진으로 들어갔다.

금륜법왕은 천천히 석진을 나오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지게 되면 다시는 이들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아아, 하늘이 실로 송나라를 도와서 나의 일을 망치려 한단 말인가 ! 중원의 무림 중에 뛰어난 인물이 많지만 이 젊은 남녀들은 문무를 겸비하여 대적할 수 없으니, 오히려 우리 몽고의 뛰어난 무사들이 졸렬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구나 !)

금륜법왕은 가슴을 만지며 긴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그가 10여 걸음쯤 갔을 때 갑자기 철륜이 땅에 떨어지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달이파는 크게 놀랐다.

"사부님 !"

황급히 뛰어들어 그를 부축했다.

"사부님, 어찌 된 일이십니까 ?"

금륜법왕은 눈썹을 찡그리며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깝다, 아까와 ! 어서 가자꾸나 !"

한 명의 몽고 무사가 말을 끌고 왔다. 금륜법왕의 중상은 혼자 말에 오르지도 못할 정도로 깊었다. 달이파는 왼손으로 사부의 허리를 받쳐 그를 말등에 태웠다. 그리고 그들 일행은 동쪽으로 사라졌다.

청의(青衣)의 소녀는 천천히 양과의 곁으로 다가와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렸다. 그의 얼굴이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보려는 몸짓이었다. 이때는 이미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양과가 두 눈을 크게 뜨고, 혼미한 표정으로 호흡이 거친 것을 보고는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았다.

양과는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마치 소용녀가 평소 자기의 모습을 볼 때처럼 온화하고 가련한 듯한 눈길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알고는 손을 벌려 그녀를 자기의 품에 껴안았다.

"용아가씨, 나는 상처를 입었어요.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청의의 소녀는 부끄럽고 당황하여 가볍게 몸부림쳤다. 그녀의 몸부림이 양과의 가슴의 상처에 전달되자 양과는 통증을 느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더 이상 심하게 몸부림칠 수도 없었다.

"저는 당신의 아가씨가 아니에요. 제발 저를 놓아 주세요."

양과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면서 애원했다.

"아가씨,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 나......, 나는 당신의 양과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저는 당신의 아가씨가 아니래두요."

이때는 이미 더욱 어두워져서 그녀의 추한 얼굴이 모두 어둠속에 가려져 있었고, 단지 두 개의 눈동자만이 빛나고 있었다. 양과는 그녀의 손을 잡고서 계속해서 애원했다.

"내 말 들리죠 ? 다시는...... 다시는 나를 버리지 말아요, 네 ?"

양과의 품속에 안긴 그녀는 부끄러움 때문에 온몸에 열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갑자기 양과의 정신이 맑아지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소용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양과는 매우 실망하여 머리가 아득해지며 기절하고 말았다.

그녀는 크게 놀랐다. 곽부와 무씨 형제는 황용을 둘러싸고 그녀를 간호하느라 아무도 양과를 돌보지 않았다. 청의의 소녀는 그의 상처가

대단히 심각해 만약 사부가 비밀리에 만들어 놓은 영약을 먹이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의 뒷 허리를 잡아 끌어 석진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이 천천히 수풀을 빠져나오자 말라빠진 말은 매우 영악해서 얼른 주인을 알아보고 가까이 달려왔다. 그녀는 양과를 말등에 태우고 자기는 말고삐를 끌면서 걸어갔다.

양과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여자가 소용녀라 생각되어 무척 기뻐하다가도 이내 소용녀가 아님을 알고서는 크게 실망했다.

갑자기 입 안이 시원해지며 영약이 가슴속 상처에 이르자 형용할 수 없이 편안해져 양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곧 자기가 얇은 이불을 덮고 어떤 침대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으려 했으나, 가슴의 뼈가 욱신거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양과는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보자 푸른 옷을 입은 소녀가 왼손으로 종이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붓을 잡고 막 글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등이 침대를 향하고 있어서 얼굴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뒷모습과 가는 허리로 보아 매우 예쁠 것 같았다. 양과는 다시 사방을 천천히 둘러보니 보통 초가집의 방에다, 나무탁자와 가구 등이 모두 소박하고, 벽이 또한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했다. 그리고 탁자 옆에는 거문고와 옥으로 만든 퉁소가 하나씩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단지 그가 숲속의 석진에서 금륜법왕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만 기억이 났을 뿐, 그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가 말등에 누워 어떤 사람이 말고삐를 잡고 왔으며, 그 사람이 바로 여자라는 것이 기억났다. 그제서야 양과는 지금 등을 대고 돌아 앉아 있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임을 알았다. 그녀는 지금 손이 가볍고 우아하게 움직이는것 만이 보였다. 실내는 고요하여 얼마 전에 있었던 석진의 고투(苦鬪)를 생각하면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잔것 같았다. 양과는 공연히 소리를

내어 그녀를 방해할 수 없어 다만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는 마치 꿈에서 깬 듯, 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문득 양과는 눈앞에 있는 이 청의의 소녀가 바로 장안(長安)의 길거리에서 그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자기와 함께 힘을 모아 육무쌍을 구해 준 그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와 나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 어째서 내게 이처럼 호의를 베푸는가 ?)

자신도 모르게 양과는 입을 열고 말았다.

"누님께서 다시 나의 생명을 구해 주셨군요."

그녀는 그 말을 듣자 붓을 멈췄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생명을 구해 주다니, 말도 안 돼요. 단지 길을 지나다가 라마승이 매우 난폭한 것을 보고, 또 당신이 많이 다쳤기에......"

라고 말하며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아아, 누......, 누님이......"

양과는 마음속으로 매우 감격해 잠시 목이 메이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훌륭한 마음씨를 갖고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 했어요. 저는 단지 힘을 조금 쓴 것뿐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곽백모는 나를 키워 준 은혜가 있으니 그녀의 위급함을 보고 내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었겠어요 ? 하지만 나와 누님은......"

"나는 당신의 곽백모를 말한 것이 아니고 육무쌍 동생을 말한 것이에요."

<육무쌍>, 이 이름은 양과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튀어나오자 양과는 재빨리 물었다.

"육소저는 안녕하신지요 ? 상처는 다 치료되었는지...... ?"

"걱정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어요. 아직까지

그녀를 잊지 않고 있었다니......"

양과는 그녀의 말투에서 그녀가 육무쌍과 매우 친밀하다는 것을 느꼈다.

"누나와 육소저는 어떤 관계죠 ?"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고 가볍게 웃었다.

"당신은 나를 용아가씨라 부르더니......"

양과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기가 상처를 입어 정신이 혼미했을 때 그녀를 소용녀로 잘못 보고, 계속해서 그녀를 <용아가씨>라 부른 것을 알고는 매우 쑥스러워했다.

"저......, 그렇다고......, 언짢게 생각하진 않지요 ?"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여기서 어서 상처나 치료하세요. 상처가 치유되면 당신의 용아가씨를 찾아가세요.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결국은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의 이 말은 부드럽고 자비로와서 양과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기쁘게 했다. 이 여자는 그가 알았던 모든 여자들과 전연 달랐다.

그녀는 육무쌍처럼 활발하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곽부처럼 말괄량이도 아니었다. 야율연은 쾌활했으며 완안평은 어딘가 불쌍했다. 소용녀는 처음에는 얼음같이 차가와서 조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점차로 달라지면서 나중에는 생사를 걸 정도로 극단적인 성격이 되었다. 이 청의의 소녀는 우아하고 부드럽고, 모든 일에 주도 면밀해 그가 용아가씨를 그리워하며 잊지 못해 하자 상처가 치유된 이후 그녀를 찾아가라고까지 권하고 있다. 그녀를 만난 이호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스러워졌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다시 붓을 들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요 ?"

"이것저것 묻지 말고 조용히 누워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상처가 쉽게, 빨리 치유될 수 있어요."

"좋아요. 나도 쓸데없는 물음이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

신은 얼굴조차 보여 주지 않고 이름조차말하려 하지 않으니...... 답답해서...... 원 !"

"내 얼굴은 너무나 추해서 당신에게 보여 드릴 수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 그것은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오."

"만약 내가 당신의 용아가씨처럼 예쁘다면 내 어찌 가면을 쓰겠어요 ?"

양과는 그녀가 소용녀를 매우 아름답다고 칭찬하자 기뻤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 아가씨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소 ? 그녀를 본 적이 있나요 ?"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니 그녀는 천하 제일의 미녀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내가 그녀를 생각하는 것은 그녀가 아름답기 때문만은 결코 아니랍니다. 설사 그녀가 천하에서 가장 추하다고 해도 나는 변함없이 그녀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만약 그녀를 보게 된다면 반드시 칭찬을 할 것이라고 믿어요."

이 말을 만약에 곽부나 육무쌍이 들었다면 반드시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 말이 맞을 거야. 그녀는 미모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잘 대해 주겠지.)

줌엎드려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양과는 공연히 신이 나서 참지 못하고 물었다.

"지금 뭘 쓰고 있지요 ? 그게 그렇게 급해요 ?"

"나는 지금 글씨를 배우고 있어요."

"묘비문을 쓰고 있는 모양이죠 ?"

"내 글씨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묘비문을 쓸 수 있겠어요 ?"

"너무 겸손하시군요. 내 추측이 아마 맞을 거예요."

"피이, 당신이 어찌 알아맞힐 수 있단 말예요 ?"

"이처럼 단아한 인품이면 서법 또한 반드시 단아하지. 어디 한 번

쓴 것을 내게 좀 보여 주시오."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내 글씨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지 않아요. 당신의 상처가 치유되면 내게 글씨를 좀 가르쳐 주시지요 ?"

양과는 황용이 도화도에서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 준 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 만약 그 당시의 공부가 없었다면 어찌 서법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말할 수 있었겠으며, 옆 사람이 무슨 글자를 쓴들 어찌 알아볼 수 있었으랴.

그는 다시 가슴이 아파 오는 것을 느끼고서 즉시 내공을 이용해 백혈(百穴)에 기를 보냈다. 이윽고 몸이 점점 평온해지자 그는 서서히 잠이 들기 시작했다.

얼마 후 깨어나자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그녀는 조그만 탁자 위에 상을 차려서 양과의 침대로 가져왔다. 저녁밥이었다. 대나무 젓가락, 자기 밥그릇은 지록 조잡했지만 모두 새것으로서 조그만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 아마 매우 신경을 쓴 것 같았다.

반찬들은 평소의 것과 별로 다름이 없었으나 모두 신선하고 맛이 있었다. 양과는 단숨에 밥 세 그릇을 먹고, 음식맛을 계속 칭찬했다. 그녀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맑은 두 눈동자에는 기쁨의 빛이 넘치고 있었다.

다음날 양과의 상처는 상당히 호전되었다. 그녀는 긴 의자 끝에 앉아서 그의 떨어진 장삼을 모두 기워서 손질했다.

그녀는 갑자기 장삼을 쳐들며 말했다.

"마치 당신의 인품처럼 어쩌면 옷이 이리도 남루한가요 ?"

하고 농담을 던진 뒤, 그녀는 방을 나가더니 한 필의 청포를 가져와 양과의 원래 옷모양에 따라 옷감을 잘라 냈다.

그녀의 목소리와 행동거지는 단지 17,8 세 정도였으나 양과에게는 마치 큰누나 같기도 했고, 어머니처럼 자애로왔다. 양과는 어머니를 잃은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어린 시절의 일을 희미하게 떠올리며 감

격했다. 그러나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당신은 왜 이처럼 내게 잘해 주지요 ? 아무래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옷을 한 벌 만드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세요 ?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이 어렵지요."

그날 오전은 이처럼 조용하게 지나갔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다시 탁자 옆에 앉아서 글씨를 썼고, 양과는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쓰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서 몇 번이나 보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녀는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마 후 한 장의 종이에 글씨을 쓰고 난 뒤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찢어 버리고 다시 한 장을 썼다. 시종일관 글씨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쓰고는 찢고 쓰고는 찢는 품이 결코 무슨 무학의 책을 베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고 다시는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양과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무엇이 먹고 싶어요 ? 내가 만들어 줄께요."

"나에게 너무 신경쓸 필요 없어요."

"뭐라구요 ? 자, 찮으니까 어서 말해 봐요."

"나는 사실 송편이 먹고 싶어요."

"나도 마침 그것을 먹고 싶었는데 잘됐근요. 달게 해 먹을까요, 짜게 해 먹을까요 ?"

"아무려면 어때요 ! 먹는다는 게 중요하지요."

그날 저녁 그녀는 과연 송편을 만들어 그에게 간식으로 주었다. 단 것과 짠 것이 모두 비할 데 없이 맛이 있어 양과는 먹으면서 계속 그녀의 솜씨를 칭찬했다.

"당신은 총명하니까 마침내 내 고향을 알아맞히시군요."
하며 그녀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무슨 소리를 ? 내가 어떻게 당신의 고향을 알아 낸단 말인가 !)

"내가 어떻게 당신의 고향을...... ?"

"내 고향은 강남에서 송편으로 유명한 고장인데 당신은 다른 말은 없이 단지 송편만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양과는 수년 전 절서(浙西)에서 곽정 부부를 만났고, 이막수와 다퉜고, 구양봉의 양자가 됐던 일 등을 회상해 보았으나 눈앞에 있는 이 소녀가 누구안지 얼른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가 송편을 먹고 싶다고 한 이유는 다른 데 목적이 있었다. 양과는 송편을 우물거려 씹고 난 뒤, 그녀 모르게 한 개를 숨겨 두었다. 그녀가 그릇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자 양과는 그녀가 옷을 만들기 위해 남겨 둔 옷감을 재빨리 집어서 거기에 송편을 문질러 끈끈하게 했다. 그리고 그 옷감을 집어 던지니 그녀가 찢어 嗤 종이조각이 옷감에 묻은 풀에 붙었다. 곧 종이조각들을 이리저리 맞춘 뒤, 그 내용을 본 양과는 깜짝 놀랐다.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어 있었다.

<기견군자 운호불희(旣見君子 云胡不喜)>

이것은 <<시경(詩經)>>에 있는 귀절이었다. 양과는 이전에 황용으로부터 이 귀절을 배운 바 있었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이미 이러한 남자를 만났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손가 !>

양과는 다시 옷감을 던져서 한 장을 끌어당겨 보니 종이 위에는 여전히 이 8 자가 씌어 있었으며, 첫머리의 <기>자가 반쪽이 찢겨 있었다. 양과는 가슴이 몹시 뛰었고, 계속해서 옷감을 던져 10 여 장의 종이조각을 끌어당겨 보았으나, 외 8 자가 씌어 있었

다. 양과는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음미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멍청해졌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면서 그녀가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양과는 재빨리 종이조각을 감추었다. 그녀는 남아 있는 종이조각을 하나로 뭉쳐서 밖으로 나가더니 곧 불에 태워 버렸다.

(그녀가 쓴 <기견군자>, 이 군자가 설마 나일까 ? 나와 그녀는 불과 몇 마디밖에 하지 않은 사이인데 무슨 이유로 나를 보고 그토록 기

쁘단 말인가 ? 흥, 이같이 못난 놈이 무슨 얼어죽을 군자냐 ! 하지만 만약 내가 아니라면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데......)

이와 같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이윽고 그녀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조금씩 밝아지는 창을 보고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껐다. 달빛이 흐릿하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 방바닥에 깔렸다.

"이봐요 !"

양과가 불렀으나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천천히 걸어 나갔다.

얼마 후 밖에서 퉁소 소리가 창을 통해서 들어왔다. 양과는 일찌기 그녀가 퉁소를 이용해 이막수와 대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녀의 무공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퉁소소리가 이처럼 듣기 좋을 줄은 미처 몰랐다. 그가 고묘에 있을 때 가끔 소용녀가 거문고를 타면 그는 옆에 앉아서 그녀의 노래를 들었으나 음률은 알지 못했었다. 지금 불고 있는 것은 무사상(無射商)의 곡조로 <기오(淇奧)>라 하는데, 우아하고 부드러웠으나 몇 번을 들어 본 양과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앞 부분의 다섯 귀절만을 계속 불고 있었다.

<첨피기오, 녹죽의의, 유비군자, 여절여차, 여탁여마(瞻彼淇奧, 綠竹倚倚, 有匪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

혹은 높아졌다 혹은 낮아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이 다섯 귀절의 변화에온갖 사랑의 마음이 뒤얽혀 있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양과는 이 다섯 귀절이 <<시경>>에서 나온 말로, 다듬은 상아저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옥처럼 빛난다는, 한 남자를 칭찬하는 내용임알 알고 있었다.

양과는 얼마 동안 듣다가 참지 못하도 낮은 소리로 따라서 불렀다.

"첨피기오, 녹죽의의......"

단지 두 귀절을 읊었을 뿐인데 갑자기 퉁소 소리가 멈추었다. 양과는 놀라면서 속으로 당황했다.

(그녀가 퉁소를 부는 것은 그녀의 뜻을 펼치기 위함인데 내가 작게

따라 한다는 것은 그녀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니, 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 !)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침 상을 들고 와서 양과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어머 ! 당신은 어째서 가면을 썼나요 ?"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준 것으로 당신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니 나도 가면을 쓴 것뿐이오."

"참 좋군요."

라고 하며 아침 상을 놓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그날 하루 내내 그와 말을 하지 않았다.

양과는 다소 불안을 느끼며, 그녀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녀가 종일 이곳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저녁때에도 그녀는 양과의 저녁밥을 가지고 들어와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는 막 나가려 했다.

"퉁소 소리가 아주 듣기 좋던데 한 번 더 불어 주지 않겠어요 ?"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그녀는 옥퉁소를 갖고 와서는 양과의 상 앞에 앉아서 천천히 불기 시작했다. 이번에 부는 것은 <영선객(迎仙客)>으로, 주인과 손님이 서로 술을 권하는 곡으로써 곡조는 매우 공손했다.

퉁소 소리가 이어지는 중에 갑자기 먼 곳으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옥퉁소를 놓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육무쌍이다."

한 사람이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는 가쁘게 숨을 헐떡였다.

"언니, 그 마두(魔頭)가 내 뒤를 쫓아와요. 우리 빨리 달아나요 !"

양과는 그것이 육무쌍의 목소리임을 알고는 마음속으로 기뻤으나 쫓아오는 마두가 이막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겁을 먹었다.

(아, 원래 이 여자는 내 색시의 사촌 언니였구나.)

그녀의 말소리가 들렸다.

"여기 상처를 입어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군데 ?"

"네 생명을 구해 준 은인이......"

"바보 ! 그......, 그가 여기 있단 말야 ?"

하며 육무쌍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고였다.

"바보, 바보 ! 어떻게 여기까지 잦아왔지 ? 이번에는 네가 다칠 차례다."

"색시......"

양과는 단지 이 말만 하고는 옆에 우아하고 단정한 청의의 소녀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나서 감히 농담을 하지 못하고는 정색을 하면서 말머리를 돌려 물었다.

"이막수가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온단 말이야 ?"

"그날 주루에서 싸우다 네가 홀연히 도망치자, 우리 언니가 나를 이곳에 데려와 치료해 주었었지. 그래서 내 상처는 곧 나았지. 마음이 답답할 때는 밖에 나가 거닐며 마음을 안정시키곤 했는데, 그날 우연히 두 명의 개방 거지를 만나서 대승관에서 그들이 무슨 영웅 대회를 개최한다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지. 그래서 곧바로 대승관에 가서 떠들썩한 모습을 보려고 했으나 이미 끝나 버리고 말았더군. 그러다가 언니가 걱정되어 황망히 돌아오는데, 앞 마을의 여관 앞에서 우연히 그 마두의 당나귀를 보았지 뭐겠어 ! 그녀는 당나귀는 바꾸었으나 금방울은 아직 바꾸지 않았......"

육무쌍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재수없게도, 만약 정면에서 만났다면 언니나 바보를 다시는 볼 수 없었을 거야."

"이 여자가 너의 사촌 언니냐 ? 그녀가 나를 구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 이름조차 모르고 있단다."

"나......, 나는......"

육무쌍은 돌연 두 손을 뻗어서 양과와 그녀의 얼굴에 달라붙어 있던 가면을 동시에 잡아당겼다.

"그 마두가 잠시 후면 이리로 오는데, 두 사람은 아직 가면을 쓰고 어쩌자는 거야 ?"

양과의 눈앞이 번쩍 하자, 구슬 같은 얼굴에 눈처럼 하얀 피부, 상기된 뺨을 가진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매우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둥근 얼굴은 불그스레한 게, 비록 소용녀처럼 청아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예쁜 아가씨였다.

"내 사촌 언니의 이름은 정영(程英)이며 도화도 황도주의 제자이시지."

양과는 두 손을 모으고 예를 올렸다.

"정소저 !"

정영도 답례를 했다.

"양소협(楊小俠) !"

(이처럼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황도주의 제자란 말인가 ? 곽백모로부터 꼽아본다면 내가 그보다 후배가 아닌가 ?)

정영은 그날 이막수에게 사로잡혀 독수를 맞고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때 마침 도화도주 황약사가 길을 가다가 그녀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황약사는 자기 딸을 시집보낸 후 강호를 유랑하며 천하가 모두 가족이었으나, 늙어 갈수록 더해 오는 적막감을 이기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의탁할 데 없는 정영을 만난 것이었다. 황약사는 정영에게 연민의 정이 솟아올랐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한 다음 줄곧 그녀를 데리고 다녔다. 정영은 황약사를 아주 공손하게 모셨다. 황약사는 교만하고 고집이센 황용보다 정영이 훨씬 낫게 생각되었다. 황약사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알뜰히 키워서 그녀를 제자로 삼았다. 정영은 총명과 기지가 바록 황용에게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매우 세심하게 조그만 부분부터 배우기 시작해 황약사의 무공을 적지 않게 배울 수 있었

다.

1년만에 어느 정도의 무예를 닦자 사부에게 고하고 정영은 북쪽으로 그녀의 사촌 동생을 찾으러 떠났다. 관협의 거리에서 양과와 육무쌍을 만나서 그들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한밤중에 사람을 구했던 것이 모두 그녀의 솜씨였다. 그들이 힘을 합쳐 이막수와싸운 후, 그녀는 육무쌍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상처를 치료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육무쌍이 홀로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정영은 걱정이 되어 그녀를 찾아 나섰다가 우연히 황용이 난석진을 펼쳐서 금륜법왕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기문의 진법은 그녀도 일찌기 황약사에게서 배운 적이 있었으나,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조금은 알고 있었기에 겨우 양과를 구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사태가 이처럼 급박한데 인사만 길게 할 때가 아니에요."

"이막수가 너를 보았니 ?"

"만약 그녀가 보았다면 언니가 나를 다시 구할 필요도 없고, 나 또한 무슨 재주로 그녀의 독수를 피하겠어요 ? 나는 꽃당나귀 목에 걸린 금방울을 보고는 즉시 여관 뒤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않았지요. 나는 숨어 있다가 그녀가 여관 주인에게 하나는 절름발이이고 또 하나는 못생긴 두 계집아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는 것을 들었어요. 언니, 그 마두가 말하는 여자가 바로 언니예요. 이처럼 아름다운 언니를 모르고서......"

정영은 얼굴을 붉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양소협과 농담해서는 안 돼."

"소협은 무슨 소협 ? 그냥 나를 양과라 불러 주시오."

"우리 사촌 언니한테는 이처럼 공손하게 이름까지 말하면서 내게는 감쪽같이 바보짓을 해서 속이다니......"

양과는 그녀를 보며 웃었다.

"너는 나를 <바보>라 부르고, 나는 네가 바보라 부르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 내 어찌 공손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느냐 !"

육무쌍은 입을 삐죽 내밀었다.

"피이 ! 두고 보자 !"

그녀는 고개를 돌려서 정영을 바라보았다.

"언니, 이 가면을 쓰고 마을에 나가서 일용품을 사 왔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언니를 알고 있겠죠. 여관 주인은 그토록 아름답고 우아한 이막수가 설마 나쁜 뜻을 품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서 자연스럽게 우리달의 거처를 말할 거예요. 그 마두는 다시 다른 여관을 물어서 홍사자(洪師姉)를 데리고 이리로 올거예요. 그녀는 사람을 해칠 때에는 항상 해뜰 때를 택하므로 아직 세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날, 그 마두가 너의 집에 도착했을 때도 인시(寅時) 끝인가 묘시(卯時)였지."

세 사람은 그때 이막수가 어떻게 육무쌍의 부모를 해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그들 세 사람이 일찌기 어릴때 가흥에서 만나서, 정영과 육무쌍은 모두 양과가 살고 있는 곳을 가 본 적이 있었음을 알았다.

"이 마두의 무공은 상당하여 설사 내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해도 우리 세 명은 그녀를 상대할 수 없다. 등을 밝혀서 아무래도 여기를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

"아직 세 시간이 남아 있고, 양형의 말 타는 솜씨가 훌륭하니 우리가 즉시 도망친다면 마두가 결코 따라오지 못할 거야."

"바보야, 넌 몸에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말을 탈 수 있겠어 ?"

"말을 탈 수 없으면 결국 마두의 수중에 떨어지고......"

육무쌍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우리는 딱 한 필의 말을 갖고 있어. 언니는 바보를 데리고 서쪽으로 도망가고, 나는 그녀를 유인해 동쪽으로 좇아가도록 하면 어떻겠어 ?"

정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안 돼. 네가 양형과 함께 가. 나와 이막수는 크게 원한을 진 적이

없으므로 그녀에게 사로잡힌다 해도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만약 잡힌다면 크게 화를 당할 거야."

"그녀가 왔을 때 만약 내가 바보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이 바보에게도 틀림없이 화가 미칠 텐데......"

육무쌍과 정소저는 서로 한마디씩주고받으며, 서로 양과와 함께 가라고 양보하고 있었다.

양과는 그녀들의 말을 잠시 듣고 나서 매우 감동했다.

(이 두 소저는 의리가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처럼 서로 다투니, 설사 내가 마두에게 잡혀서 죽는다 해도 내 생명이 결코 헛되이 끝나는 것은 아니겠군.)

육무쌍의 말소리가 들렸다.

"바보야. 말 좀 해 봐라. 언니하고 가고 싶으냐, 나하고 도망가고 싶으냐 ?"

양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는 왜 자꾸 바보라 부르느냐 ? 그러다가 양소협이 화라도 내면 어쩌려구 ?"

육무쌍은 혀를 내밀었다.

"언니가 바보에게 이처럼 공손하니, 언니가 그를 데리고 가세요."

정영의 하얀 얼굴이 곧 부끄러움으로 발그스레해졌다.

"너를 <색시>라고 부르는데, 색시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누가 데리고 간단 말이냐 ?"

이번에는 육무쌍의 얼굴이 붉어졌다. 육무쌍은 손을 뻗어서 정영을 간지럽게 하려 했으나, 정영은 얼른 몸을 피했다. 잠시만에 방안에는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아 마치 눈앞의 근심을 잊어버린 듯했다.

(만약 정소저가 나를 데리고 도망가면 색시의 목숨이 위태롭고, 만약 색시가 나를 데리고 간다면 정소저가 매우 위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양과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소저가 서로 이처럼 대해 주니 매우 감격했습니다. 두 소저는

함께 빨리 피하여 내가 여기에서 그 마두를 상대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부와 그녀는 자매지간이므로 얼마간의 정이 있고, 또한 그녀는 나의 사부를 몹시 두려워하니 감히 그녀가 나에게 어찌하겠......"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육무쌍이 끼여들었다.

"안 돼, 그건 안 돼 !"

양과는 그 순간 그녀들이 결코 그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 세 명이 함께 갑시다. 그 떫寬 쫓아왔을 때에는 모두 힘을 합쳐서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늘에 맡깁시다."

"좋아, 그렇게 하자."

육무쌍의 이 말에 정영은 잠시 생각했다.

(마두가 바람처럼 움직이는데 세 명이 함께 가면 반드시 그녀가 따라잡을 것이다. 그녀와 도중에서 격전을 벌이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수고를 면하는 게 낫겠다.)

"그래요. 정소저는 기문둔갑술(奇門遁甲術)을 할 줄 알아 금륜법왕도 포위당했는데 적련선자가 어찌 그것을 깰 수 있겠어요 ?"

양과의 이 말과 함께 세 사람은 즉시 희망의 빛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그 난석진은 곽부인이 펼쳐 놓은 것이므로 나는 기세를 이용해 변화를 가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내가 스스로 펼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기로 해요. 무쌍아, 자 나를 도와 줘 !"

(곽백모는 나에게 진법의 변화를 가르쳐 주셨지만 경황중에 단지 10여 개만 기억하고도 능히 늙어빠진 금륜법왕을 진 속으로 끌어들였었다. 하물며 불구대천의 원수인 이막수를 막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 이 공부는 매우 복잡해서 정말로 능숙해지려면 1년의 세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소저는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 배운 바가

곽백모를 따르지 못할 것이 틀림없으니 그녀의 말은 결코 겸손의 말이 아니다. 그러나 펼치는 진에 어떠한 허점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사촌 자매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서 초가집을 나와서 흙을 파고 돌을 움직여서 진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1시간 가량 바쁘게 지나자, 멀리서 은은하게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된 정영은 눈앞에 펼쳐진 토진(土陣)과 황용의 난석진이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고는 속으로 난감해졌다.

(곽부인의 재주가 정말로 나를 백 배 이상 능가하는구나. 아아, 이 조잡한 토진으로 적련마두를 막는다는 일은 정말로 힘들겠구나.)

그러나 그녀는 동생과 양과의 사기가 꺾일까 봐 그런 느낌을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육무쌍은 달빛에 비친 사촌 언니의 얼굴이 이상한 것을 보고는, 품속에서 책을 한 권 꺼내 집안으로 양과를 끌어들여 양과에게 건넸다.

"바보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부의 <<오독비전(五毒秘傳)>>이다."

양과는 책의 표지가 피처럼 붉은 것을 보고는 몸이 오싹했다.

"나는 그녀를 속여 이 책을 개방에 강탈당했다고 말했는데, 내가 만약 그녀에게 잡힌다면 분명히 그녀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다. 네가 한 번 잘 읽어 본 후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나서 불태워 버려라."

양과에 대한 그녀의 어투는 이전과 다르게 매우 진실되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알고는 감히 농담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양과는 그녀의 표정이 초연해지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흔들며 책을 받았다.

육무쌍은 다시 품속에서 한조각 비단을 꺼내며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불행하게 마두의 손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이 비단 조각을 꺼내어 그녀에게 보여라."

양과는 그녀가 내미는 비단 조각을 살펴보았다. 비단 조각의 한쪽

면은 모피에서 찢어 낸 듯했는데 수놓아진 붉은 꽃 한 송이가 반쯤 찢겨져 있었다. 양과는 이 비단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몰라 선뜻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게 뭐지 ?"

"그녀에게 보여 주라고 네게 시키는 거다. 이제 알겠어 ?"

양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아서 베개 옆에 놓았다. 육무쌍은 그의 품에 안기면서 속삭였다.

"우리 언니는 모르게 해야 돼."

갑자기 그의 몸에서 나는 남자의 체취를 맡은 육무쌍은 관협도상에서 둘이 함께 옷을 벗고 뼈를 맞대고 자던 일이 생각났다. 잠시 그를 멍청하게 바라보다가 육무쌍은 몸을 돌려서 방을 나갔다.

양과는 그녀의 눈동자에 깊은 애정이 서려 있음을 느끼자 가슴이 요동쳤다. 잠시 후 양과는 <<오독비전>>을 몇 장 펼쳐 보고 오독신장(五毒神掌)과 빙백은침이 갖고 있는 독성의 해독법을 알게 되었다.

(이 두 가지의 해약은 매우 만들기 어렵구나. 만일 오늘죽지 않는다면 이 두 해독법은 후에 크게 쓸모가 있겠구나.)

갑자기 초가집의 방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사람의 머리가 들어왔다. 양 볼이 불그스레한 정영이 양과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는데, 그녀의 이마에는 온통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거렸다.

"양형. 내가 문 밖에 펼쳐 놓은 토진은 너무 졸렬해요. 아무래도 적련선자를 막기에는 힘이 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품속에서 한 조각의 비단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 주었다.

"만약 그녀가 방안으로 들어오면 이 비단 조각을 그녀에게 주세요."

양과는 이 비단 조각의 바탕과 무늬가 조금 전에 육무쌍이 주었던 것과 똑같자,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등불 아래 비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을 보고는 부끄러움과 기쁜 마음에 그 까닭을 막 물어 보려고 하자, 정영

은 갑자기 낯을 붉히며 속삭였다.

"내 동생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표연히 방을 나갔다.

양과는 품속에서 육무쌍이 준 반 조각의 비단을 꺼내서 방금 정영에게 받은 것과 이어서 하나가 되게 했다. 이 2개의 반 조각 비단은 원래 하나였는데 찢어져서 2개가 된 것이었다. 그것들은 매우 오래 되어서 흰색의 비단 바탕은 누렇게 바랬지만 수놓아진 붉은 꽃은 여전히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는 이 낡은 비단 조각을 보고는 여기에 필시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녀들은 어떻게 서로 반 조각씩 갖고 있다가 내게 건네 준 것일까? 왜 둘 다 이막수에게 주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그녀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비단 조각을 넘겨주면서 둘 다 부끄러워 낯을 붉혔었다. 아아, 무슨 곡절일까?

므는 멍청하게 침대에 앉아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고 이어서 은은하게 퉁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정영이 이미 진을 완전히 펼치고, 퉁소로써 자기의 울분을 달래고 있음을 알았다. 불고 있는 것은 <유파(流波)>라는 곡으로, 가늘고 부드러운 퉁소 소리에는 아무런 처량한 기운도 없이 은은하게 마음을 펼쳐서 평화롭게만 들렸다. 양과는 그 소리를 듣다가 자신도 고르게 낮은 소리로 흥얼거렸다.

육무쌍은 흙더미 위에 앉아서 언니와 양과가 퉁소에 맞추어 어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동쪽에서부터 여명이 밝아 오는 것을 느꼈다.

(사부가 순식간에 오겠구나. 나의 생명도 이 시간뿐이구나. 그러나 사부가 비단 조각을 보고는 언니와 그의 목숨만은 살려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둘은......)

육무쌍은 원래 교활하고 욕심이 많아서 사촌 언니와 매우 달랐다. 정영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를 그녀에게 양보했다. 그러나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양과에 대한 깊은 정을 품고 그의 평안과 무사를 빌었

다. 그래서 그가 이 어려움을 피해서 사촌 언니와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만 한다면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문득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자 흙더미 위에 누런 옷을 입고 오른손에 불진을 든 이막수가 보였다. 그녀의 옷소매가 바람에 날렸다.

육무쌍은 크게 놀라서 칼을 뽑아 들었다. 이막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서서 다만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이막수는 통소와 노래가 어울리는 소리를 듣자 젊은 시절 애인인 육전원(陸展元)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한 사람은 피리, 또 한 사람은 생황으로 지금 이 <유파>라는 곡을 그때 그와 함께 연주하였던 것이다. 이미 20여 년 전의 일이었으나 음률은 여전히 옛날과 같았다. 통소와 노래가 화합하는 것을 듣던 이막수는 별안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 울음은, 육무쌍에게는 매우 뜻밖의 일이었다. 그녀는 평소 사부의 준엄하고 잔인한 면만 보아 와서 그녀에게 이런 연약한 면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애절한 통곡 소리를 듣고는 육무쌍도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막수가 이처럼 통곡하자 양과와 정영은 크게 놀라서 노래의 박자가 곧 흐트러졌다. 그러나 돌연 이막수는 마음이 움직여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 음조는 애절하기 이를데 없었다.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름하느뇨?

천지간을 나는 두 마리 새야,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여름과 겨울을 함께 맞이했는가?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고통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인이 있어.

임께서 응답해 주셔야지, 아득한 만리에 구름 가득하고,

온산에 저녁눈 내릴 때,

한 마리 외로운 새가 누구를 찾아 날아갈지를......?

(＊ 漢詩(?) 생략)

통소 소리와 노래는 원래 즐거운 정이 충만했으나 이막수의 이 노래는 오히려 가사가 비감하고 곡조는 더욱 애절해서 박자와 음률이 <유파>와 전혀 달랐다.

노랫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가늘어질수록 높아져 갔다. 정영은 정신이 혼란해지면서 <환락취> 세 자를 불었으나 이막수가 <이별고>로 바꾸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정영은 황급히 곡조를 바꾸었으나 통소 소리는 여전히 청아했다. 그녀의 내력은 매우 약해서 높은 음으로 통소를 불어서는 도저히 이막수의 노랫소리에 대항할 수 없었다. 잠시 주저하던 정영은 안으로 들어가서 옥통소를 놓고, 작은 의자에 앉아서 거문고를 타기 시徘杉裏 양과는 소리 높여 기세를 더했다. 이막수의 노랫소리가 점점 처량해지자 정영의 거문고 줄도 점점 높아지더니 퉁, 하는 소리와 함께 첫번째 줄인 <징현(徵弦)>이 갑자기 끊어지고 말았다.

겁을 먹은 정영의 지법이 흔들리자 거문고의 두번째 줄인 <우현(羽弦)>이 또 끊어졌다. 이막수가 긴 가락으로 통곡을 하자 세번째 줄인 <궁현(宮弦)>마저 끊어졌다.

정영의 거문고와 통소는 모두 황약사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비록 좋은 스승이라도 제자가 어리니 자연 기술이 일천할 수밖에 없었다. 이막수는 원래 상대방의 현이끊어지고 박자가 흐트러져 마음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 집 안으노 진입하려고 했다. 그녀는 초가집 앞의 토진이 비록 조잡하게 보였으나 중간에 비밀스러운 오행의 변화가 숨겨져 있어서 이것을 쉽사리 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더구나 고묘 안에서 다시 몇 차례의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졌으므로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치기는 더욱 힘들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돌연 좌측으로 돈 뒤, 높은 노랫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벽을 뚫고 들어갔다.

정영이 펼쳐 놓은 토진은 동쪽에 한 무더기, 서쪽에 한 무더기 모두 문을 막고 있었다.

그들 세 사람은 이막수가 길을 돌아서 두 손으로 흙벽을 밀치고 공격해 들어올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육무쌍은 크게 놀라며 칼을 빼들고 나섰다. 양과는 몸에 상처가 있어서 몸을 일으켜 대항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정영은 이막수의 동작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는 가슴이 섬뜩했으나 마음을 굳게 먹고 음률을 바꾸어 <도요(桃夭)>라는 곡을 타기 시작했다. 이 곡은 찬란하고 기쁨이 넘쳤다.

(나는 일생 동안 고독하게 살아왔지만 마침내 오늘 양형의 곁에서 죽으니 억울하지 않다.)

정영은 힐끗 양과를 쳐다보았다. 양과는 그녀를 보고 밝게 웃었다. 정영은 가슴 가득히 기쁨이 차올랐다. 그녀가 어느덧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복사꽃은 요염하고, 그 화려함이 빛나도다......"

거문고 소리가 울리는 즐거움 중에 봄기운이 가득했고, 꽃향기는 그윽했다.

그때 이막수의 얼굴이 갑자기 부드럽게 풀리며 육무쌍에게 물었다.

"그 책은 어디 있지 ? 설마 개방에 빼앗긴 것은 아니겠지 ?"

양과는 <<오독비전>>을 그녀에게 내던졌다.

"개방의 황방주, 노방주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처럼 사악한 책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소 ? 일찌기 개방의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단 한 장이라도 이 책의 원래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하셨소."

이막수는 책이 완전무결한 것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평소 개방의 행동이 정의로우며 명령이 준엄하여 정말로 그들이 이 책을 보지 않은 것로 생각했다.

양과는 품속에서 두 조각의 비단을 꺼내 탁가 위에 깔았다.

"이 조각도 함께 가지고 가시지요 !"

이막수는 안색이 크게 변하면서 불진을 휘둘러 두 조각 비단을 휘감아서는 황급히 수중에 넣었다. 이막수는 잠시 여러 생각에 잠기며 어

찔 줄을 몰랐다. 정영과 육무쌍인 서로 쳐다보며 얼굴을 붉혔다. 뜻밖에도 둘 다 양과에게 비단 조각을 주어, 그가 지금 함께 꺼낸 것이었다.

몇 번을 서로 쳐다보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길이 뜨거워져 방에 가득했던 살기는 잠시만에 다정한 분위기로 변했다. 정영은 <도요>의 곡을 더욱더 즐겁게 탔다.

그러자 이막수는 갑자기 두 조각 비단을 네 조각으로 찢었다.

"모두 과거의 일이다 ! 이제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

두 손을 공중에 한번 휘두르자 비단 조각은 마치 배꽃처럼 흩어져 떨어졌다. 정영이 놀라자 팅, 하는 소리를 내며 거문고의 현이 또 하나 끊어졌다.

"자, 또 하나 끊어져라 !"

슬픈 노랫소리 중에서 거문고의 다섯번째 줄인 <각현(角弦)>이 과연 이막수의 말대로 끊어졌다.

"얼마후면 너희 세 명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 어찌 우리 모두 슬프지 않을손가 !"

이때 거문고는 겨우 두 줄이 남아 있었는데, 정영의 거문고 타는 솜씨는 원래 평범하여 두 줄로는 곡을 탈 수가 없었다.

"자, 어서 처량한 곡을 계속 연주해라 ! 세상살이는 고통뿐이니 더 이상 살아 본들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

이막수의 이 말에 정영은 거문고를 연주했으나 곡조가 되지 않고, <복사꽃은 요염하고......> 하는 음률만 반복되었다.

"좋다. 내가 우선 한 놈을 죽여야 네가 비통해질 모양이구나."

이막수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다시 거문고 줄이 끊어졌다. 그녀는 불진을 들고 육무쌍의 정수리를 공격하려 했다.

그때 양과가 말했다.

"우리 세 명은 오늘 함께 죽어도 당신처럼 고독하게 세상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소. 정소저, 색시. 자, 이

쪽으로 와요 !"

정영과 육무쌍이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양과는 왼손으로 정영을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육무쌍을 잡았다.

"자, 우리 세 명은 함께 죽어서 황천길을 웃으면서 걸어가면 이 각독한 여자를 열 배 이상이나 이기는 것이 아니겠소 ?"

"맞다. 바보 말이 한 마디도 틀리지 않아 !"

정영은 아무 말 없이 가볍게 웃었다. 사촌 자매는 양과에게 손이 잡혀 있자 모두 마음이 황홀했다.

(아, 용아가씨가 내 옆에 없는 것이 아쉽구나 !)

그러나 그는 억지로 얼굴에 미소를 띄면서 두 손을 가볍게 끌어서 그녀들을 자기의 몸에 밀착시켰다.

(이 조그만 놈의 말이 틀리지 않아. 그들 세 명이 이처럼 죽는다면 확실히 내가 외롭게 살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세상에 이처럼 편안하게 죽는 일이 또 어디에 있으랴 ! 어쨌든 너희들이 죽음에 임하여 그 애절한 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마.)

이막수는 불진을 가볍게 휘두르며 얼굴을 찡그리고 낮은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름하느뇨 ?"

여전히 그 곡으로서 노랫소리는 끊어질 듯 계속되고 곡조도애저로와, 마치 버림받은 여자의 탄성처럼, 억울한 귀신이 야밤에 통곡하는 것 같았다.

양과 등 세명은 손을 마주잡고 잠시 이 노래를 듣자, 마음속에 슬흔 감정이 일기 시작했다. 양과는 비교적 내력이 깊어서 정신을 잃지 않고 얼굴에 여전히 웃음을 띄고 있었다. 육무쌍 또한 마음이 모질어서 쉽게 동요하지 않았으나, 정영은 참을 수 없어 끝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막수의 노랫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실같이 가느다랗게 이어져 들리는 듯 들리지 않는 듯했다.

적련선자는 세 사람이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때를 기다려 그들을 한

꺼번에 죽이려 했다. 노랫소리가 더욱 처량해져 극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초가집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 절 름 발 이 대 장 장 이 *****

그 노랫소리는 여자의 음성으로, 나이는 적지 않은 것 같았으나 곡조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것이었다.

"자, 외할머니께 가자 ! 외할머니는 나를 귀여워하시니, 사탕 하나 과자 하나, 먹고 나면 또 하나 주신다."

노랫소리는 즐거움이 충만해 이막수의 비절한 가락이 즉시 방해를 받았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점차 다가와서 몇 번 도는가 싶더니 이내 대문으로 들어왔다. 흐트러진 머리에 지저분한 옷을 걸친 중년의 여자였다. 두 눈을 크게 뜨고무엇이 좋은지 히히, 바보처럼 웃고 있는 그녀의 손에는 불쏘시개용 화차(火叉)가 들려 있었다.

이막수는 그녀의 행색을 살피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찌 이처럼 가볍게 토진을 돌아서 대문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 그녀가 이 세 명과 한패가 아니라면 기문둔갑술에 정통한 사람이란 말인가 !)

정영은 그녀를 보고 크게 기빠했다.

"사자(師姉), 이 사람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요. 빨리 우리를 도와줘요."

이 여자가 바로 미친 곡(曲)소저였다. 그녀는 사실 정영보다 후배였으나 나이가 많아서 정영은 그녀를 언니라고 불렀다.

그녀는 박수를 치면서 계속 노래를 불렀다.

때로는 <하늘에는 한 개의 별, 땅에는 고독>, 때로는 <뾰족한 탑이 하늘을 찌른다>...... 한 곡 한 곡씩 부르며, 어떤 때에는 가사도 틀려서 이것저것이 뒤죽박죽되기도 했다. 이막수는 슬픈 곡으로 그녀를 제압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곡소저가 워낙 멍청하여 결코 근심이

없고 그녀의 슬픈 곡이 곡소저의 엉망인 곡과 상대하다 보면 오히려 양과의 패거리조차도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매우 화가 났다.

(우선 이 여자부터 처치해야겠군 !)

노랫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막수는 불진을 휘둘렀다.

그때 황약사는 한때의 실수로 제자 곡령풍(曲靈風)의 목숨을 적에게 잃어버리게 되자, 크게 후회해 곡령풍의 딸인 그녀를 데려다가 온 정성을 다해서 그의 기술울 전수해 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이상해지고 말았다. 황약사는 그녀를 치료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으나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 황약사의 문무를 어느 정도 배우기는 커녕, 그녀는 몇 개의 글자, 얼마간의 낮은 공부도 배우기 어려웠다. 그러나 10여 년 간 이 멍청한 여자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지도를 박아 마침내 장법과, 차법(叉法)은 익혀 놨다. 사실 그것들은 겨우 세 동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황약사는 그녀가 특별히 기묘한 동작은 결코 기억하지 못할것이라 생각하고 머리를 짜서 세 동작의 장법과 차법을 그녀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냈다. 변화가 없는 이 여섯 동작의 위력은 모두 힘이 있었다. 보통 무예를 연습하면 적게는 수십 동작에서 많게는 천의 동작까지 이르는 변화가 있는데 이 멍청한 여자는 단지 여섯 동작만을 연습해, 날로 익숙해져 동작이 비록 적지만 가볍게 볼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때 그녀가 초가 앞에 있는 흙더미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도화도에 살아서 정영이 펼쳐 은 것이 모두 도화도에서 배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녀는 봐도 보지 못하여 자연히 아무것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때 이막수가 불진을 휘두르자 그녀는 화차로 이막수의 가슴을 찔렀다. 이막수는 이 화차가 공기를 가르는 동작이 매우 민첩함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이 여자의 무공이 이처럼 깊다니......)

이막수는 급히 왼쪽으로 돌면서 불진을 곡소저의 목 쪽으로 휘돌렀다. 이 멍청한 여자는 적의 동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화차를 계속 찔렀다. 이막수의 불진이 회전하면서 화차의 머리를 휘감았다. 그녀는 그것을 보지 못한 듯 여전히 화차를 앞으로 찔렀다. 이막수는 급히 힘을 주어 불진을 당겼으나 화차는 꼼짝 하지 않고 순식간에 자기의 가슴을 찌르려 했다. 비록 이막수의 무공이 높다고 하지만, 이때는 너무나 다급해서 도전칠성보(倒轉七星步)를 이용해 일단 벽 사이의 뚫어진 고멍으로 몸을 움직여 이 번개 같은 일격을 피했으나, 그녀는 놀라서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었다.

이막수는 정신을 가다듬고 즉시 안으로 뛰어들어 반공 중에서 불진을 휘두르며 떨어졌다. 멍청한 여자는 수많은 변화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화차를 찔러 댔다. 상대방이 뛰어오르자 이 화차는 적의 아랫배를 겨냥하였다. 이막수는 반격이 매우 맹렬함을 느끼고는 불진을 휘둘러 화차를 막은 뒤, 이 틈을 이용해 도망쳐서 멍청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방금 공격한 세 동작은, 매 동작이 모두 상당한 변화와 기술이 있어서 무림의 어느 고수도 감히 우습게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자루의 화차를 가지고 나의 예순 셋의 변화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아무래도 그녀의 무공은 예측할 수가 없구나. 빨리 달아나는 게 좋겠다.)

이 멍청한 여자는 세 갈래의 화차와 한 가지 동작의 차법으로 마침녀 이 무서운 여마두로 하여금 놀라서 도망치게 했으니 도화도주의 진면목을 충분히 과시해 준 셈이어 다.

이막수가 몸을 돌려 막 벽 사이로 뚫어진 구멍을 통해서 뛰어나가려는 순간, 푸른 옷에 장발을 한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바로 아까 그녀의 수중에서 정영을 구해 낸 도화도주 황약사였다. 그는 탁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작은 탁자에는 정영이 조름전까지 연주하던 거문고가 놓여 있었다. 이막수는 싸움을 할 때 눈으

로 육로(六路)를 보며 귀로는 팔방을 들었으나, 황약사가 방으로 들어와서 거문고를 만지고, 자리에 앉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만약 그가 뒤에서 몰래 공격했다면 그녀의 생명은 어찌 되었겠는가 !

이막수는 멍청한 여자와 싸울 때 양과나 정영 등이 이에 가세할까 봐 두려워서 입으로 슬픈 소리를 계속 중얼거려 그들 세 사람의 정신이 매우 편안하지 못하게 했었다. 그때 황약사가 조용히 앉아서 거문고를 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서 노래가 잠시 멈춰졌다.

황약사는 거문고를 타면서 큰소리로 노래 불렀다.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름하느뇨 ?"

이막수가 부르던 노래와 같은 것이었다. 거문고에는 단지 <우현(羽弦)>만이 남아 있었으나 그는 이것만으로도 궁상각치우(宮商角緻羽) 등 모든 음률을 낼 수 있었으며, 거문고의 비절한 음률은 이막수의 노래를 압도하고 있었다.

이 곡은 이막수가 잘 부르는 것으로, 황약사가 곡조를 바꾸자 그녀는 양과 등에 비하여 열 배 이상이나 감동을 받았다. 황약사는 그녀가 좋지 못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알고는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 그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는 일찌기 옥퉁소로 구양봉의 철쟁(鐵爭)과 홍칠공의 휘파람소리와 대결하여 우열을 가늠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이미 지나갔고, 힘도 없고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졌지만, 내공은 점점 깊어졌으니 감히 이막수가 어찌 당해 낵 수 있겠는가? 그녀는 잠시만에 감동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황약사의 거문고와 노래가 서로 어울리며 돌연 즐거워지고, 돌연 슬퍼지며, 갑자기 격앙되기도 하고, 낮게 가라앉기도 하는 등 순식간에 여러 번을 변하자 이막수도 이에 따라서 흥분하더니 곡이 끝나자 마침내 발광했다.

바로 이때 멍청이 여자가 고개를 돌려서 돌연 양과를 쳐다보자 촛불에 비친 그의 모습이 완전히 그의 아버지인 양강처럼 보였다. 그녀는

귀신을 가장 무서워하였고, 그날 양강이 독에 중독되어 죽는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되어 잊지 못하고 있던 터에 양과를 보모는 묵묵히 앉아 있던 자리를 박차고 갑자기 일어서서는 그를 가리켰다.

"양......, 양형제 나를 해치지 말아요. 나......, 나는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았어요...... 가서......, 다른 사람을 찾아요."

황약사는 그 멍청이 여자가 옆에서 이처럼 소란피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때 마지막 거문고 줄이 끊어졌다. 그녀는 스승의 뒤에 숨었다.

"귀...... 귀......, 할아버지 ! 양형제의 귀신이 나타났어요."

이막수는 이 틈을 이용하여 급히 불진을 휘둘러서 촛불을 끄고 벽 사이의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황약사는이막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녀를 도망치게 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녀를 쫓아갈 수도 없었다. 방안이 어둡자 이 멍청한 여자는 더욱 겁을 먹고 소리쳤다.

"나쁜 귀신이에요. 할아버지 ! 귀신을 혼내 주세요 !"

황약사는 오히려 큰소리로 호통을 쳤다. 정영은 다시 촛불을 밝히고 따에 엎드려 사부에게 예를 올렸다. 그리고 일어나서 양과, 육무쌍 두 사람의 내력을 설명했다.

"내 손녀이고 제자인 멍청한 아이가 너를 너의 아버지로 잘못 알았구나. 너는 과연 너의 아버지와 매우 닮았구나."

황약사의 이 말을 듣고 양과는 침대에서 허리를 구부려 머리를 조아렸다.

"제가 몸에 상처가 있어서 따에 엎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네가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내 딸과 외손녀를 구해 주었다니 참 고마운 소년이로구나."

그는 이미 황용을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정영이 그를 구하여 데리고 갔다는 말을 듣고 이 바보 여자와 함께 찾아온 것이었다.

황약사는 상처를 치료하는 영약을 꺼내 양과에게 먹이고, 내공을 이용하여 그를 이곳저곳 안마해 주었다. 양과는 그의 손이 미치는 곳마

다 불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어느 새 자신도 모르게 몸속에서 항력이 생겨남을 느꼈다. 황약사는 갑자기 그의 근육이 떨리며 이어서 양과의 경맥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손에 더욱 힘을 가해 얼마 동안 계속 눌렀다. 양과는 사지가 편해옴을 느끼면서 천천히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양과가 눈을 떴을 때 황약사가 침대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얼른 일어나서 예를 올렸다.

"너는 내가 강호에서 누구라고 불리는지 알고 있느냐 ?"

"도화도주라 하지 않는지요 !"

"그것 말고는 ?"

양과는 <동사(東邪)>라는 말을 내뱉기 매우 곤란하다고 느꼈으나, 생각을 바꾸어 그의 별명에 이미 <사(邪)>자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대담하게 외쳤다.

"당신은 동사 !"

황약사는 하하, 크게 웃었다.

"맞다 ! 일찌기 너의 무공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생각도 대담하고 너의 행동 또한 괴상하겠구나. 너의 사부를 신부로 삼으려 한다는데, 그 말이 정말이냐 ?"

"네. 어르신네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죽는 한이 있어도 그녀에게 장가들겠어요."

황약사는 이 몇 마디의 말 속에 단하한 결심이 있는 것을 알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며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에 지붕의 볏짚이 들썩 거렸다.

"무엇이 그리도 우습단 말씀입니까 ? 나는 당신의 별명이 동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 보통 사람과 다른 고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처럼 세속의 사람과 조금도 틀리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좋다. 좋아 !"

<좋다>는 말을 몇 번 하고 황약사는 방을 나갔다. 양과는 화가 나서

거친 동작으로 자리에 앉았다.

(내 말이 그분에게 혹시 실례가 되었나 ? 그렇다면 어째서 화난 기색이 없었지 ?)

황약사는 일생 동안 천하를 떠돌며 당시 중요시하던 예교세속(禮敎世俗)에 대해서 항시 증오했으며, 행동이나 말씨는 언제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적이 없어서 <사>자의 별명을 얻게 되었다. 또한 그와 어울리는 사람도 적어 그는 평생 절친한 친구가 없었으며, 비록 딸과 사위가 있었으나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사위인 곽정은 단정하고 예의가 밝아서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말년에 양과를 만난 것이다. 일전 영웅 대연에서 양과의 모든 행동을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며, 황용을 통해서도 이 소년의 사람됨을 들은 서라, 그와 몇 마디 나누지 않았으나 크게 의기가 상통하는 바가 있었다.

이날 저녁 황약사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과야 ! 스승을 때리고 전진교를 뛰쳐나온 것은 나쁜 일이었다. 네가 다시 고묘파를 버리고 나를 사부로 받드는 것만큼이나 그것은 잘못한 일이다."

"어째서요 ?"

"네가 우선 소용녀를 스승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녀를 신부로 맞이한다면 이 어찌 바른 행동이겠느냐 ?"

"스승과 제자가 서로 결혼하지 못한다는 규칙은 도대체 누가 정해놓은 것입니까 ? 그녀는 이미나의 스승이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녀를 신부로 삼겠습니다."

황약사는 박수를 치면서 웃었다.

"좋다 ! 너의 그런 생각은 나보다 한 수가 높구나."

그는 손을 뻗어서 양과의 상처를 안마해 주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원래 나의 기술을 모두 물려주어 속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황노사(黃老邪) 다음에 다시 양소사(楊小邪)가 있음을 알리려했는데 네

가 내 제자가 되지 않으려 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반드시 제자가 아니더라도 능히 당신의 사명(邪名)을 세상에 전해서 떨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리고 무예가 일천해 싫으시다면 우리는 친구로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형제의 결의를 맺는게 어떨지요?"
"이 어린 놈이 대담하기 짝이 없구나. 나는 주백통(周伯通)이 아닌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
"주백통이 누구인데요 ?"
황약사는 즉시 주백통의 사람됨됨이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고, 어떻게 해서 그와 곽정이 금란형제의 결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하다가 크게 의기가 투합해졌다.
"지기(知己)를 만나면 천 잔의 술도 너무 적고, 반 마디의 말도 너무 많은 법 !"
양과는 말 솜씨가 좋고 성질이 황약사와 매우 비슷해서 말이 오고가는 사이에 그들은 마치 오래 된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황약사는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이미 나이를 잊고 양과를 사귀었으며, 마침내 그날 저녁 정영에게 양과의 방에 침대를 하나 더 놓으라고 한 뒤 두 사람은 침대를 나란히 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칠이 지나자 양과의 상처는 거의 치료되었고 그와 황약사는 마치 물과 고기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황약사는 원래 그 멍청이 여자를 데리고 남하하려 했었으나 이제 와서는 남쪽으로 떠나는 일에 대해서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정영과 육무쌍은 그들 늙은이와 어린 소년이 대낮에 술동이를 놓고 함께 마시며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웅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늙은이는 존경할 만한 이유가 없고 어린 소년은 기탄이 없음을 알았다. 원래 학문의 수준으로 말하자면 양과는 황약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황약사가 뭐라고 말을하면 그는 그의 마음에 맞게 찬성을 하고, 다시 몇 마디 은 점을 말하여 황약사로 하여금 그를 평생 제일의 친구로 생갈하게끔 했다.

근래 들어 양과는 황약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항상 그 멍청한 여자가 그날 저녁 자기를 잘못 보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

양과는 그녀가 필시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숨기며 말하지 않는 진상을 이 멍청한 여자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양과가 말했다.

"이봐요.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녀는 그의 모습이 양강을 너무도 닮아서 항상 겁을 내어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와 함께 안 놀아."

"나는 변신술을 할 수 있어. 자, 어디 한번 볼래 ?"

"사람을 속이지 마. 난 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며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 양과는 갑자기 물구나무를 서서 거꾸로 그녀에게 갔다.

"어서 보라니까 !"

그는 구양봉이 전수해 준 무공으로 거꾸로 서서 앞으로 총총 뛰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그 모양을 보고는 기뻐서 박수를 치며 뒤따라갔다.

양과는 계속 앞으로 가서 수풀이 우거진 곳에 도달했다. 이곳은 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문득 양과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말했다.

"우리 술래잡기 안 할래 ? 그래서 진 사람은 벌을 받기로 하자 !"

그녀는 요 몇 년간 황약사를 따라다니느라, 누구도 그녀에게 함께 놀자고 하지 않았었다. 양과가 이 말을 하자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박수를 치며 양과의 마음이 변할까 봐 두려워했다.

"아, 좋아, 좋아 ! 양형제 그 벌이 뭔데 ?"

그녀는 양과의 아버지를 형제라 호칭했으므로, 그에게도 형제라 불렀다.

양과는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두 눈을 가렸다.

"자, 이제 나를 잡아라. 만약 내가 잡히면 네가 무엇을 물어 보든지 조금도 숨기지 않고 모두 대답하는 거다. 그러나 잡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물어 보고, 너는 대답해야 돼."

"좋아 !"

"나 여기 있어. 빨리 나를 잡아 봐 !"

멍청한 여자는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뒤쫓았다. 양과는 고묘파의 경공을 단련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 경공술이 매우 뛰어나서 설사 그녀의 눈이 가리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녀가 결코 그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이리저리 쫓다가 나뭇가지에 부딪쳐 이마에 혹이 생기자 그녀는 통증을 느껴 소리를 질렀다.

양과는 그녀의 흥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일부러 걸음을 늦추고 가볍게 기침을 했다. 그녀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 그의 등을 잡았다.

"야아, 잡았다, 잡았어 !"

눈을 가렸던 수건늘 풀며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자, 내가 졌다. 무엇이든 물어 봐 !"

이것은 그녀에게 꽤 어려운 문제였다. 그녀는 양과늘 쳐다보며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

"음. 밥은 먹었니 ?"

양과는 그녀가 한참이나 생각하는 것을 보았으나 질문이 이처럼 단순하자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으나 꾹 참으면서 정직하게 대답했다.

"이미 먹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너 이제 물어 볼 말이 없니 ?"

"없어. 다시 시작하자."

"자, 이번에는 내가 너를 잡는다."

그녀는 이마의 혹늘 어루만졌다.

"이번에는 네가 나를 잡아."

그녀는 돌연 똑똑하게 말하고는 수건으로 양과의 눈을 가렸다.

그녀가 비록 멍청했으나 경공을 할 수 있었으니 눈을 가린 양과가 어찌 그녀를 잡 수 있겠는가 ! 그는 몇 번을 뛰다가 슬며시 손늘 뻗어 수건의 한 끝을 찢어서 그녀가 오른쪽 나무 뒤에 숨는 것을 보고는 슬그머니 왼쪽을 더듬었다.

"어디 있니 ? 어디 있어 ?"

갑자기 양과는 몸을 돌려서 그녀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수건을 잡아 풀어 재빨리 품속에 넣고 그녀가 수건이 찢어진 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

"이번에는 내가 이겼으니 너에게 묻겠다."

"난 밥 먹었어."

"나는 그걸 묻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를 너는 알지 ?"

이렇게 말하는 양과의 얼굴은 이미 굳어졌다.

"네 아버지가 누군데 ? 나는 몰라."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 ?"

"아, 양형제 !"

"그 양형제가 죽는 모습을 넌 보았지 ?"

"그래. 한밤중에 그 묘에서 많은 까마귀가 울부짖었지 !"

그녀는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흉내냈다. 숲속은 원래 나뭇가지들이 해를 가려서 음침했는데 그녀가 까마귀 소리를 내자 더욱 음산해졌다.

양과는 몸을 떨었다.

"양형제는 어떻게 죽었는데 ?"

"고모는 날 보고 말해라 하고 양형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고모를 한 번 치고 크게 웃기 시작했어. 하하......, 허허 !"

그녀는 힘을 다해 양강이 죽을 당시의 웃음소리를 흉내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져서 갑자기 얼굴에 놀란 빛이 역력했다. 양과는 그 이름이 애매하여 다시 물었다.

"고모가 누구니 ?"

"고모가 고모지, 누구긴 누구야 ?"

양과는 생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 이제서야 풀린다는 것을 알고는 가슴에 뜨거운 피가 용솟음쳤다. 막 다시 물으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너ㅓ희들 여기서 뭘 하는 게냐 ?"

왕약사의 음성이었다.

"여기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나에게 놀자고 했지 내가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나를 욕하지 마세요."

황약사는 가볍게 웃으면서 양과를 바라보고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띄었다. 마치 그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양과는 가슴이 뛰면서 몇 마디 거짓말을 해 속이려 했으나 갑자기 숲속에서 정영이 육무쌍의 손을 잡고 달려왔다.

"사부님 ! 사부님의 예측이 맞았어요. 그녀가 과연 여기에 있어요."

라며 정영이 서쪽 산 뒤를 가리켰다.

"누가 ?"

"이막수 !"

양과는 크게 놀라며 그녀가 어떻게 이처럼 대담한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양과는 황약사를 쳐다보며 그의 분부를 기다렸다. 황약사는 웃었다.

"우리 어디 한번 가서 볼까."

모두들 그와 함께 가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정영은 양과가 석연해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낮게 말했다.

"사부께서, 이막수가 그날 저녁 초가에 볼 일이 있어서 왔으나, 실

패하고는 부끄러워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양과는 사정을 알고는 크게 놀랐다.

"그 때문에 그녀가 겁도 없이 이 부근에서 지키고 있었군. 그러다가 기회를 엿보아서 우리 세 명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군요. 만약 황도주께서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녀가 일찌감치 멀리 가버린 것으로 알고는 방비를 소홀히 하다가 그녀의 독수를 면할 수 없을 뻔했군요."

정영은 가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원래 총명하다고 자부했지만 황도주와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

라며 육무쌍이 끼여들었다.

"나는 바보요 멍청이니 이 멍청한 여자와 잘 어울리지 ?"

말을 하면서 다섯 사람은 이미 산을 돌았다. 과연 큰나무 밑에 아주 조그맣고 초라한 초가가 있었는데, 굳게 닫혀 있는 사립문에 한 장의 백지가 붙어 있었다. 그 백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도화도주는 제제가 많아서 다섯으로 적 하나를 상대하니 강호에 웃음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황약사는 웃으면서 땅에서 2 개의 조그만 돌을 집어서는 모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퉁기자 2 개의 돌은 재빨리 날아가서 10 여 보 앞에 있는 창문에 맞아 문이 열렸다. 양과는 도화도에 있을 때 일찌기 곽부로부터 외할아버지에게 손가락 퉁기는 신통한 기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직접 보니 더욱 훌륭해서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문이 열리자 손에 불진을 쥔 이막수가 두 눈을 조용히 감고 준엄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방안에는 그녀 혼자만 있고 홍릉파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양과가 잠시 생각해 보고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녀는 황도주를 제자가 많다고 비웃고 있으니 필시 그의 제자인 홍릉파를 멀리 보냈을 것이다. 그녀가 믿는 것은 황도주와 싸우는 것

이 아니고, 그녀가 혼자이므로 황도주가 그의 신분으로 어찌 그녀와 싸우겠는가 하는 것일 게다.)

육무쌍은 부모의 원수인데다가 몇 년간의 고생이 생각나서 순간 칼을 뽑았다.

"바보, 황도주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우리 셋이 그녀를 처치하지요."

멍청한 그 여자는 손을 만지작거렸다.

"나도 있어 ?"

이막수는 눈을 뜨고 다섯 사람의 얼굴을 멸시의 눈으로 쳐다폰뒤, 다시 눈을 감으며 마치 눈앞에 아무도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영을 사부를쳐다보며 그의 명령을 기다렸다.

"황노사의 제자가 과연 많구나. 만약 나의 진매곡육(陳梅曲陸) 4대 제자 중 하나만 여기에 있어도 그녀가 이런 소리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며 황약사는 손을 한번 휘저었다.

"자, 돌아가자 !"

네 사람은 그의 속뜻을 몰랐다. 초가로 돌아와서 황약사는 우울하여 저녁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양과는 그의 옆에 누워서 며칠 전 멍청한 여자와의 대화와 이막수의 태도를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우리가 다섯으로 하나를 상대한다고 비웃었다. 이제 내 상처도 다 치유되어 나 혼자의 힘으로도 그녀를 상대할 수 있으니 살며서 나가서 그녀와 일전을 치러 우리 아가씨의 치욕을 씻고, 도주께서 한숨을 쉬지 않도륵 해드려야겠다.)

양과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 즉시 옷을 입었다. 그는 비록 마음대로 생각해도 행동은 매우 신중했다. 이막수가 강적이라 조금이라도 신중하지 않으면 그녀의 손에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호흡을 조절하며 정신을 가다듬어 결전을 준비했다.

이윽고 돌연 눈앞이 밝아지는 것 같더니 온몸에 기가 넘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는 마체 큰 연못에서 용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깊은 산 속에서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처럼 멀리멀리 퍼져갔다. 황약사는 그가 옷을 입자 이미 눈치채고 있었으나 뜻밖에 그의 내공이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고는 희비가 교차했다.

원래 내공의 단련이 어느 경지에 이르면 종종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내지른다. 명나라 때의 대유학자 왕양명(王陽明)이 밤중에 병영에서 기를 단련하다 돌연 긴 휘파람을 불어 모든 병사가 놀랐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다.

이때 양과는 기가 충만해서 억제하지 못하고 몇 리에 걸쳐서 들리도록 엄청난 소리를 냈다. 정영, 육무쌍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으며, 산 뒤의 이막수도 이 소리에 놀랐으나 황약사가 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다. 양과는 한옥상의 도움을 받고, 옥녀심경과 구음진경의 비법을 받아서 내력이 이미 상당히 쌓여서 얼마 전에 황약사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던 내공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심오한 내력이 격동하자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온 것이었다.

이 소리는 얼마간 계속되다가 점차 조용해졌다.

(나는 뛰어난 무공을 자부했는데도 겨우 서른이 되어서야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 소년은 나보다 10년 이상 빠르다니, 그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군 !)

황약사는 양과가 기를 다 토하기를 기다렸다가 물었다.

"이막수의 제일 무서운 무공이 무엇이냐 ?"

양과는 이 말을 듣고 그가 자기의 뜻을 눈치채고 있음을 알았다.

"오독신장과 불진의 동작입니다."

"그렇다. 너의 내공이 이처럼 심오하니 그녀를 이기기는 과히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양과는 크게 기뻐하며 저절로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원래 오만해

비록 황약사가 선배이고, 무공도 뛰어나다고 인정했지만 결코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막수의 뛰어난 무공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어찌 감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즉시 황약사는 그에게 <탄지신통>을 가르쳐 오독신장을 제압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옥소>에서 검법으로 화하여 불진을 격파할 수 있는 무공을 가르쳤다.

양과는 그가 지적하는 비결을 듣고는 어려운 곳을 다시 물어서 잘 기억해 두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무공은 오묘하여 적어도 1년 정도, 완전히 숙달되려면 3년 정도 연습해야 할 것들이었다.

"황도주님, 당장 내가 그녀를 이기기는 힘들겠어요."

"삼년의 세월은 순간에 지나간다. 그때 너는 22세로 이미 이러한 무공에 숙달되어 있을 텐데 무엇이 걱정이냐 ?"

"나......,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황약사는 가볍게 그의어깨를 쳤다.

"너는 3년 후 나를 위해 그녀를 죽여야 돼. 전에 나는 똑똑한 제자를 잃었었지. 설마 오늘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하며 황약사는 긴 한숨을 쉬었다.

양과는 꿇어 앉아 여덟 번 절했다.

"사부님 !"

그가 무공을 전해 주어, 자기를 대신해서 이막수가 그때 집 앞에 붙여 놓은 글을 설욕하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반드시 사제의 관계가 있어야만 하겠다고 양과는 느낀 것이다.

황약사는 그가 고묘하와 사이가 좋아서 결코 다른 사부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다.

"네가 이막수와 싸울 때 너는 나의 제자이고 나의 친구다. 양형제 ! 알겠는가 ?"

"이런 분과 친구가 되다니 정말로 황송한 일입니다."

"너와 내가 만난 것은 삼대의 행복이다."

두 사람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황약사는 <탄지신통>과 <옥소검법>의 중요 부분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했다. 양과는 그가 이저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듣고는 그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만난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헤어져야 하다니......, 이후 언제쯤 만날 수 있겠습니까 ?"

"서로진심으로 사귀었으니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만약 누가 너의 한사를 방해한다면, 만 리 밖에서라도 너를 도우러 달려오마 !"

하고 황약사가 말하자 양과는 웃으면서 말했다.

"혼인할 때 속을 썩힌 사람은 바로 어르신네의 따님이었지요 !"

"하지만 그 애가 제멋대로 곽정을 맞이하긴 했지만 출가종부(出家從夫), 삼종사덕(三從四德)하고 있으니 그 어찌 훌륭하지 않겠는가 !"

황약사는 크게 웃고는 옷을 털고 문 밖으로 나가서 순식간에 신룡처럼 사라져 그 종적이 묘연했다.

양과는 잠시 넋을 잃고 있다가 방금 배운공부의 비결을 생각했다. 이윽고 하늘이 밝아 오더니 정영이 문을 밀고 들어와서 손에 들고 있던 푸른색 장포를 내밀었다.

"자, 한번 입어 봐요. 맞는지 어떤지......"

양과는 매우 감격해서 옷을 받는 두 손이 떨렸다.

그와 정영의 눈이 마주치자 양과는 그녀의 눈에 은은한 정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침대 옆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옷은 몸에 아주 잘 맞았다.

"매......, 매......, 매우 고맙습니다."

정영은 가볍게 웃다가 돌연 한숨을 쉬었다.

"사부님이 떠나셨는데 언제쯤 다시 만날까요 ?"

하며 자리에 앉아서 계속 말하려고 하는데 돌연 창 밖에서 누런 옷이 번쩍였다. 이때 육무쌍은 밖에 있었다.

(그녀가 걱정이 되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지.)

정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나갔다.

양과는 새옷을 자세히 보자 바느질이 매우 촘촘히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가 나에게 이처럼 대하고, 육소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일찍 떠나지 않으면 공연히 두 사람의 마음만 어지럽히게 된다.)

이처럼 반나절을 생각하다 양과는 자기가 가고 난 후 이막수가 돌연히 기습할까 두려워 그녀가 거처하는 산 뒤의 초가에 혼자 가서 정세를 살폈다. 그러나 초가가 있던 땅 위에는 잿더미만 남아 있고, 초가는 이미 불타고 없었다. 이막수는 초가에 불을 지르고 사라진 것이었다.

큰 적이 사라지자 양과는 저녁때 등불 아래에서 편지를 써서 그녀들과 작별을 하려 했다. 두 소녀의 정이 생각나서 슬픔을 이길 수 없었으나, 글 솜씨가 없는데다가 졸렬한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녀들이 비웃을까 두려워 양과는 한 통의 편지를 반쯤 썼다가 찢어 버렸다. 이날 저녁은 오래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육무쌍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바보, 바보야. 빨리 나와 봐 !"

매우 다급한 소리여서 양과는 급히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갔다. 아직 날이 새지 않았으므로 그는 새벽 바람에 한기를 느꼈다. 육무쌍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문을 가리켰다. 양과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문짝에 4개의 혈수인(血手印)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이막수가 어젯밤 이곳을 다녀가며 사부가 이미 떠난 것을 알고는 그들 네 명을 죽이겠다는 표시였다.

이어서 정영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언제 보았니 ?"

"해 뜨기 전에 보았어요."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원래 그녀는 양과를 생각해 일찍부터 그의 창 밖을 배회하고 있었다. 정영은 고의로 모르는 체했다.

"그녀를 만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이미 태양이 떠올랐으니 오늘은 공격해 오지 않을 거다. 천천히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아."

세 사람은 양과의 방으로 들어가 상의했다.

"이막수는 그때 바보 여자의 화차 무공을 맛보았으니 여전히 두려워할 것이오."

"사자(師姉)의 화차 동작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녀가 돌아가서 자세히 생각했다면 능히 그것을 격파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바보가 다 치료되었으니 그들 두 명이 힘을 합친다면 그 위력이 대단할 텐데......"

"바보와 멍청이가 합쳐서 무슨 위력이 있을까? 하하......!"

양과는 이 말을 하며 웃었다.

세 사람은 얼마 동안 이야기했으나 별로 뾰족한 묘책도 없이 단지 네 명이 힘을 모으면 이기지는 못해도 지킥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둘이 정면에서 그녀를 상대할 것이니, 사촌 자매들은 좌우에서 협공하시오. 자, 우리 멍청이 소저를 찾아서 우선 연습부터 하기로 해요."

그녀를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자 향방을 몰라 세 사람은 모두 걱정이 되어 황망히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정영은 얼마를 찾다가 그녀가 난석 가운데 누워서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그녀의 옷을 벗기자 등에 선명한 손자국이 나 있었다. 어느새 이막수의 오독신장을 맞은 것이었다. 정영은 급히 양, 육 두 사람을 불러서 사문의 묘약인 구화옥로환(九花玉露丸)을 먹였다. 양과는 <오독비전>에 씌어 있는독장의 치료법에 따라서 내력을 이용해 그의 혈도를 눌렀다.

그녀는 멍청하게 웃었다.

"나쁜 년. 뒤에서 나를 치다니...... 하지만 내가 그녀를 반격했어."

그녀의 반격은 황약사가 전수해 준 세 가지 동작 중의 하나로, 이막수가 비록 기습을 했지만 팔에 그녀의 반격을 받고 거의 팔뼈가 부러질 뻔하자 놀라고 아포서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해서 그녀는 생명을 건진 것이었다.

세 사람은 그녀를 구했으나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다쳤으니 내일의 결전이 여간 걱정되지 않았다. 양과는 정영과 육무쌍을 번갈아 보면서 반짇고리에서 비단을 꺼낸 뒤 가위를 들고는 한토막 한 토막씩 잘랐다. 멍청한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돌연 소리를 질렀다.

"잘라 버리자. 그녀의 불진을 !"

(마두의 불진은 부드러운 물건이고, 그녀가 신의 경지에 이르면 아무리 훌륭한 칼도 그녀를 상대할 수 없으나, 만약 가위를 무기로 삼아 불진을 두 동강 낸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지.)

양과는 이렇게 생각하고 왼손의 비단 조각을 한들어서 마치 불진이 공격해 오는 것처럼 하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뻗어서 한 번에 두 동강을 내기 위해 가위를쥐고 불진을 따라가는 새로운 동작을 만들었다.

정영과 육무쌍은 이것을 보고 무슨 뜻인지 눈치채고는 모두 기뻐했다.

"여기서 북쪽으로 7-8 리만 가면 대장간이 있는......"

이때 육무쌍이 끼여들었다.

"좋아. 우리 가서 대장장이에게 빨리 큰 가위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잠시만에 이 무기를 잘 이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싸움을 할 때 임기응변하면 쉽게 옥소검법으로 바꿀 수 있으니 한번 해 보는 거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 가서 큰 가위를 만들어 오는 동안에 이막수가 기습을 하면 매우 위험하니 이때 그들 네 명은 잠시도 떨어지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정, 육 두 사람은 말등에 이불을 깔고 멍

청한 여자를 옆으로 뉘여서 함께 대장간으로 갔다.

몽고가 금을 멸한 이후 철기(鐵騎)가 송의 국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일대는 대송의 북쪽 변방으로 대부분의 마을이 몽고에 점령당하여 곳곳이 파괴되었다.

대장간은 매우 쓸쓸했다. 문을 들어서자 큰 다듬이돌이 놓여 있고 곳곳에 석탄 부스러기와 쇠조각이 널려 있고, 벽에는 몇 개의 쟁기와 낫이 걸려 있어 매우 한산했다.

양과는 이러한 모양을 보 그의나이가 많음을

보고 불쌍해서 10 냥의 은을 탁자에 내놓았다.

"풍선생, 이처럼 나이도 많으시고 걸음도 불편하신데 몽고군에 나가면 어찌 생명을 보존하겠소 ? 이 은을 갖고 도망치시오."

"아가씨의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이미 늙어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강남의 천만 동포가 위험에 빠질 것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세 사람은 모두 놀라서 일제히 물었다.

"왜요 ?"

"몽고의 원수가 대장장이를 징집해서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마 몽고문의 무기가 갖추어지면 남송의 강산을 침략할모양입니다."

세 사람은 이 말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는 다시 물으려 했으나 풍대장장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세 분께 무엇을 만들어 드릴까요 ?"

"풍선생이 불편하시므로 폐를 끼치면 안 되겠지만, 너무 급해서 이렇게 왔으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는 큰 가위의 모양과 길이를 말했다. 그 가위는 매우 괴상했으나 대장장이는 다 듣고 난 후 조금도 이상해 하는 기색이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풀무를 잡아당겨 화로에 불을 피웠다. 그리고 쇠조각 2 개를 화로에 넣어 달구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

"소인은 매우 빨리 만듭니다."

풍노인이 힘껏 풀무질을 하자 화로의 석탄이 더욱 붉어졌다.

멍청한 여자는 탁자에 반은 눕고, 반은 앉아 있었다. 양과 등 세 명은 고향이 모두 강남으로 비록 어린 시절에 집을 나왔지만 고향이 장차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근심에 잠겼다. 세 사람은 물끄러미 화로의 불을 쳐다보며 이 같은 난세를 만나서 사람의 목숨이 파리목숨이며, 도처에 참담한 일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내일의 근심은 오히려 엷어졌다.

이극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쇠가 다달구어져 대장장이는 왼손으로 쇠집게를 이용해 붉게 달아오른 쇠막대기를 다듬이돌에 놓고는 오른손으로 큰 쇠망치를 들어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의 나이는 많았지만 팔 힘은 매우 강하여 망치가 춤을 추어도 거의 힘이 드는 것 같지 않았다. 얼마 동안 계속 치자 2개의 쇠막대기는 점차 큰 가위의 모습으로 변해 갔다.

"바보야. 오늘 안에 만들 수 있겠는데."

그때 갑자기 등뒤에서 비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처럼 큰 가위를 만들어 내 불진을 자르려고 ?"

세 사람은 크게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이막수가 문 앞에 불진을 가볍게 휘두르며 서 있는 게 아닌가 !

무기가 만만각을 했느냐 ? 여기에 앉아서 가위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손을 써도 늦지 않겠구나."

라고 말하며 이막수는 판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쳐다보았다.

"좋다. 너의 불진을 반드시 큰 가위로 잘라 낼 것이다."

이막수는 탁자에 멍청한 여자가 등이 솟아오른 채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나에게 일장을 맞고도 아직 살아 있으니 재수가 좋긴 좋구나.)

"황약사는 어디에 있느냐 ?"

풍대장장이는 <황약사>란 말을 듣고 몸을 떨며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서 계속 일을 했다.

정영이 대답했다.

"우리 사부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네가 어찌 다시 묻느냐 ? 만약 우리 사부님이 가시지 않았다면 네가 어찌 이렇게 대담하게 올 수가 있었겠느냐 ?"

이막수는 이 말을 듣고 품속에서 백지 한 장을 꺼냈다.

"황약사는 세상을 속이고 명예를 훔쳐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군림하였다. 흥 ! 그러나 그의 제자 중에 어디 진정으로 쓸 만한 사람이 있더냐 ?"
하며 왼손을 휘저어 백지를 공중에 띄우고 은침을 날려서 백지를 기둥에 박았다.

"이것을 증거로 남겨서 후일 황노사가 돌아오면 이 두 명의 귀여운 제자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게 해야겠다."

이막수는 돌연 고개를 돌려 대장장이를 향해 외쳤다.

"빨리 해라. 나는 오래 참지 못해 !"

풍대장장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백지에 <도화도주는 제자가 많아서 넷으로 적 하나를 상대하니 강호에 웃음거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씌어진 글을 보고는 고개를 들어 쳐다보며 멍청히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빨리 하지 않고 뭘 하는 거냐 ?"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이예 ! 빨리, 빨리 하지요."

하며 왼손으로 철집게를 뻗어서 은침과 종이를 함께 뽑아서는 화로속에 집어넣자 백지는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막수는 크게 화가 나서 불진을 들고 그의 머리를 공격하려 했다.

(이러한 조그만 동네에 있는 늙은이가 이처럼 대담하니 보통인물이

아니겠구나 !)

그녀는 그 앞에 섰다가 천천히 앉았다.

"너는 누구냐 ?"

"보면 모르겠소 ? 나는 다만 늙은 대장장이요."

"그런데 왜 종이를 태웠지 ?"

"틀린 말이 씌어 있어서 여기에 붙이면 안 되기 때문이오."

"무엇이 틀린 말이란 게냐 ?"

"도화도주는 무공이 매우 뛰어나 그의 제자는 단지 그의 한가지 무공만 배워도 천하를 주름잡을 수 있습니다. 그의 대제자 진현풍(陳玄風)은 온몸이 철같이 튼튼해서 칼이나 징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말을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

그는 말을 하면서도 망치질을 계속해 큰 망치 소리는 말소리를 압도했다.

그가 진현풍을 언급하자 이막수는 놀랐으며, 양과 등도 이 외진 시골의 늙은 대장장이가 강호의 인물을 언급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저으기 놀랐다.

"흥 ! 철 같은 진현풍 ? 조그만 아이한테 한칼에 찔려 죽었다는데 무엇이 대단한가 ? 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허튼 소리는 하지도 마라 !"

"으음...... 도화도주의 두번째 제자인 매초풍(梅超風)은 바람과 같이 움직여 비할 데 없이 민첩한데......"

"그렇지. 그 여자는 매우 빠른데도 강남칠괴에게 장님이 되고 서독 구양봉에게 크게 당했지."

대장장이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처량하게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 ? 나는 몰랐는데...... 도화도주의 세째 제자인 곡령풍은 경공이 신묘하고 벽공장(劈空掌)도 매서운데......"

"강호에 이런 말이 떠돌았지. 누군가 황궁에 침입해 보물을 훔치려 하다가 어전의 시위에게 맞아 죽었는데ㅔ 그가 바로 벽공장이 매서운

곡령풍이라고."

풍대장장이가 고개를 숙이자 칙칙, 하는 소리에 2개의 땀방울이 달아오른 쇠에 떨어져 순식간에 연기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육무쌍은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고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는 쇠망치를 점점 높이 들어 내리치는 소리도 점차 커졌다.

얼마 후 대장장이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도화도 문하에는 진매곡육의 4대 제자가 있었지요. 네번째 제자인 육승풍(陸乘風)은 무술에 정통할 뿐 아니라 마음대로 기문둔갑을 부려서 만약 당신이 그를 만나면 감히 비웃지를 곳할 것이오."

"기문둔갑이 무슨 소용이냐? 그는 태호(太湖)변에 귀운장(歸雲莊)을 만들어 강호에 많은 호한들이 오묘하다 말했으나 누군가 불을 질러서 태워 버렸지. 그리고는 그의 종적이 모호한데 아마도 거기에서 죽었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요? 도화도주의제자는 모두 무예에 능통한데 어찌하여 모두 해를 입었단 말이오? 시골사람이 세상을 모른다고 그렇게 마구 속이려 들면 못써요!"

"이 세 명의 애들에게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물어 보아라."

풍대장장이는 고개를 돌려 정영을 쳐다보며 구언가 물어 보려는 눈치였다.

정영이 일어서며 처량하게 말했다.

"우리 사부님은 불행하셔서 인재를 모두 잃으셨어요. 후배들이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고 공부도 미미하여 사부님을 위해서 말다툼도 하지 못하니 참으로 부끄럽군요. 노인장께서는 우리 사부님과 아시는 사이인지요?"

대장장이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녀를 아래위로 살피고는 의심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도화도주가 만년에 제자를 다시 받으셨나?"

정영은 대장장이가 왼발을 저는 것을 보고는 무엇인가 떠오르는 게 있었다.

"사부님께선 노년에 적막하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다니셨지요. 우리들은 이렇게 어리고 배운 것이 없어 감히 도화도주의 제자라 할 수도 없고, 더우기 오늘까지 도화도를 한 발자국도 밟아 보지 못했답니다."

그녀의 이 말은 그들이 도화도주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대장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온화하고 다정한 눈빛을 띠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쇠를 치면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정영은 그의 쇠망치가 공중에서 반원을 그리며 다듬이돌에 떨어지는 한 동작 한 동작이 본문의 낙영신검(落英神劍)의 장법과 매우 비스한 것을 보고는 무언가 어렴풋이 알아챘다.

"사부님은 한가할 때 우리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섬에서 제자를 내쫓는 것은 진,매 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곡,육,무,풍 네 제자는 아무 죄도 없이 화를 입었는데 특히 성이 풍이라 하는 풍묵풍(馮默風) 사형은 나이도 가장 어리고, 사정도 딱했는데...... 사부님은 그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애석해 하셨지요."

사실 황약사는 성질이 괴팍해서 속으로는 이 같은 생각이 있어도 입으로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영은 공손하고 사람 어떻게 대해 주었든 결코 원한을 가질 수는 없었다. 이때 풍묵풍은 정영의 말을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만감이 교차했다.

***** 아 버 지 의 원 수 *****

양과와 육무쌍은 풍대장장이가 정영의 사형(師兄)이란 소리를 듣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황약사의 제자라면 무공도 결코 약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뜻하지 않게 위기 중에 강력한 원조자를 만나자 그들은 기쁨을 금치 못했다.

이막수가 차갑게 말했다.

"너는 이미 사부에게 축출되었는데도 여전히 연연해 하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다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내가 어린 놈들 세 녀석과 바보 여자 하나를 처치할 것이니 너는 곁에서 구경이나 하여라."

풍묵풍이 느릿느릿 말했다.

"내 비록 무공을 익혔지만 평생토록 남들과 겨루어 본 적이 없소. 하물며 다리까지 잘린 이상 싸울래야 싸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 그것 참 잘된 일이군."

풍묵풍이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내 사매(師妹)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오. 게다가 아분들은 사매의 친구들이니 당신이 함부로 대해선 안 되오."

이막수는 살기가 일어났다.

"너희 네 명이 함께 덤벼들어야 재미있겠는걸."

말하면서 몸을 일으켰다. 풍대장장이는 전혀 음색의 변화가 없이 쇠를 내리치곤 몇 마디 하는 식으로 느긋하게 말했다.

"내 이미 사문을 떠난 지 삼십여 년이 지나 무예가 생소해졌으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생각이 나긴 하지."

이막수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반생 동안 강호를 유람하였지만, 너처럼 싸움에 임해 창을 갈다가 급해지면 부처님을 찾는 사람은 일찌기 보지 했다. 풍묵풍! 그대는 정말 일생 동안 남과 대결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여태 남에게 죄를 짓지 않아 나를 괴롭히는 자가 없었으니 자연 싸울 수가 없었지."

이막수가 차갑게 말했다.

"후훗, 황영감이 밥통을 제자로 거둬들여 세상의 웃음거리를 하나 만들었구나."

풍묵풍이 말했다.

"내 은사님께 욕된 말을 하지 마라."

"남들이 너를 그의 제자로 여기질 않는데 여전히 은사님을 찾다니.

사람들의 배꼽이 빠질까 두렵군."

풍묵풍이 여전히 철을 담금질해 대며 느릿느릿 말했다.

"내 일생은 혈혈단신으로, 이 세상에 은사님만이 나의 육친과 다름 없다. 그런데 내가 그를 존경치 않고 누구를 생각하겠는가 ? 사매, 은사님댁네 모두 안녕하시겠지 ?"

정영이 말했다.

"물론 안녕들 하세요."

풍묵풍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다.

"이막수는 그가 진정으로 그러는 것을 보자 속으로 생각했다.

(황영감은 일대의 종사답게 과연 놀라운 점이 있군. 제자가 이렇게 충 성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다니......)

이때 그 철조각이 점점 식어가 화로 속에 넣고 달구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화로 속에다 오른손에 들었던 철추를 집어넣었다. 이막수가 웃으며 말했다.

"대장장이 영감, 사부가 가르쳐 주신 무공을 좀 천천히 생각하시지. 그렇게 허둥거릴 필요가 없잖아."

풍묵풍은 묵묵히 시뻘건 화롯불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참 있다가 왼쪽 어깻줄지를 지탱하고 있던 지팡이를 화로 속에다 집어넣었다. 양과와 육무쌍이 동시에 소리쳤다.

"어어. 그건 지팡이잖아요?"

정영도 고함을 질렀다.

"사형 !"

풍묵풍은 아랑곳없이 묵묵히 화롯불만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화롯불에도 타 버리지 않고 점점 붉게 변해 갔다. 알고보니 바로 철장이었다. 얼마가 더 지나자 철추도 빨갛게 달구어졌다. 그가 철추 손잡이와 지팡이를 움켜쥐었는데도 손이 멀쩡했다.

이막수는 경멸하는 마음에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눈앞의 이 늙은 대장장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갑자기 공격을 해 와 그의 암습에 당할까 겁이 나 이막수는 즉시 불진을 들어 전신요혈을 보호하며 말했다.

"풍다장장이, 어서 나서라 !"

풍묵풍이 대답하며 나섰다. 재빠른 몸놀림이 전혀 불구자의 몸같지 않았다. 그는 빨갛게 달아오른 지팡이를 땅에 짚으며 말했다.

"이보시오. 제발 더 이상 은사님을 욕하지 말고 내 사매와 다투지 말아 주시오. 이 불쌍한 늙은 대장장이를 용서하시구랴 !"

이막수는 대단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째서 싸움에 임박해서 용서해 달라는 것일까 ?)

"내가 너만은 용서해 주지. 만약 내가 두렵다면 깨끗하게 물러나 이 일에 끼여들지 마라."

풍묵풍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디 나부터 처치해 봐라 !"

매우 흥분한 듯이 그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이막수가 불진을 쳐들어 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풍묵풍은 교묘하게 급히 피해 냈다. 팔을 흔들었으나 감히 반격하지는 않았다. 이말수가 연달아 3초를 공격했다. 그는 교묘한 신법으로 피했지만 끝내 반격하지 않았다.

양과 등 세 사람은 옆에 서서 보면서 여차하면 뛰어들려고 했다. 보아하니 이막수의 초식이 점점 조여져 왔으나 풍묵풍은 정말 남과 대결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게다가 심성이 온화해 벌겋게 달아오른 철추를 끝내 쳐내려가지 않았다. 양과가 생각해 보니 이 무림 이인(異人)은 비록 고강한 무공을 지녔으나 싸우려는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를 자극시켜 화를 돋우기 위해 큰소리로 외쳤다.

"이막수, 너는 왜 도화도주를 불충불호하며 불의불인(不義不仁)하다고 욕하는가 ?"

이막수가 생각했다.

(내가 언제 욕을 했담 ?)

그녀는 양과의 말을 묵살하고 묵묵히 계속 공격을 하려 했다. 양과과 다시 외쳐 댔다.

"도화도주가 음탕하기 짝이 없으며 어린애들을 잡아갔다고 말하였는데 네가 직접 보기라도 했느냐 ? 또 그가 친구를 사기치고 은인을 몰라 봤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 너는 무슨 이유로 강호에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녀 황도주의 청렴한 이름에 먹칠을 한단 말이냐 ?"

정영은 깜짝 놀랐다. 풍묵풍도 이미 화가 치밀어올라 철추와 쇠지팡이를 동시에 휘두르기 시작했다. 왼발로 서 있는 품이 금계독립(金鷄獨立)식으로 마치 따에다 못을 박아 놓은 것허럼 안정되었다. 지팡이와 추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이막수에게 달려들었다.

이막수는 그가 맹렬한 기세로 덤벼들자 감히 정면에서 맞서지를 못하고 재빨리 피하며 반격을 하려 했다. 양과가 또 소리쳤다.

"이막수. 당신은 도화도주가 순사기꾼인 몰염치라고 욕을 해댔는데 지금 보니 너야말로 염치가 없구나 !"

풍묵풍은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뻗쳤다. 철추와 지팡이를 휘두르며 찔러 대는 기세가 사뭇 험악해졌다. 처음에는 그의 초식이 다소 어색했으나 한바탕 겨루고 나자 점점 익숙해졌다.

두 사람의 공력은 본래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막수는 강호를 떠돌며 크고 작은 접전을 2 백여 차례나 치러 견식이 그보다 백배는 많았다. 이 30 초가 지나자 이막수는 그의 무공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경험이 너무 부족하였고 게다가 외발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 그가 패할 것이었다. 과연 또 10 여 합을 겨루고 나자 풍묵풍은 노기가 사라지며 투지도 점차 없어졌다. 점점 힘들어 하는 것 같자 이막수는 좋아라 하며 불진을 들어 그의 가슴팍을 향해 휘둘렀다.

풍축풍이 철추로 막아 냈다. 불진이 이미 스쳐 지나며 철추 끝을 감아 쥐었다. 이것은 이막수가 남의 병기를 빼앗는 절묘한 초식으로, 한

번 잡아당기기만 하면 풍묵풍의 철추는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치지직, 하는 소리가 나러니 푸른 연기가 일어났다. 불진이 타는 고약한 냄새가 나더니 불진의 꼬리 부분이 완전히 타 버렸다.

이렇게 되가 이막수는 상대방의 병기를 빼앗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병기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막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불진을 내던지고서는 오독신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장법은 비록 강한 것이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선시전하기가 불편했다. 이때 풍묵풍은 오른손에는 철추를, 왼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휙휙 춤추듯 대항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 사이에 파란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다. 이막수가 걸친 도포자락이 벌겋게 달아오른 쇠지팡이에 닿아 조금씩조금씩 타 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났다. 분명히 승리를 얻을 수 있으련만 이 대장장이가 무기에서 우세하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풍묵풍은 처음 대결하는 것이라 만약 계속 공격을 받았다면 곧 위축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유리한 입장에 서서 무기를 더욱 정교하게 격출시켰다. 이막수가 그에게 일장을 가하려 했지만 하마터면 몇번이나 쇠지방이와 철추에 닿아 손바닥을 모두 델 뻔했다.

별안간 풍묵풍이 소리쳤다.

"아이고 맙소사. 이토록 체통이 없다니......"

하더니 외발로 펄쩍 뒤로 물러났다. 이막수는 순간 멍해졌다. 찬바람이 불어오자 몸에 걸쳤던 의복 조각들이 날려갔다. 이막수의 팔, 어깻죽지, 가슴, 허벅다리 등등 여러 군데의 피부가 노출되어 버렸다.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부끄러움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선 몸을 돌려 도망치려는 순간, 등뒤에서부터 도포 한 벌이 걸쳐졌다.

양과가 그녀의 꼴이 말이 아닌 것을 보고 즉시 외투를 벗어 내력을 심어 그녀의 등뒤로 던져 버린 것이다. 이 옷은 마치 사람처럼 그녀를 감싸안았다. 이막수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평생 힘든 대전이 몇번 있었으나 지금처럼 놀랍고 부끄러운 적은 일찌기 없었다.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지며 공격을 해야 할지 어떨지를 몰랐다. 순간 생각하

길,

(만약 재대결을 하여 이 옷마저 타 버리게 된다면 정말 낭패중의 낭패지. 이번에는 그냥 꾹 참는 수 밖에......)

이막수는 고개를 끄덕여 양과에게 고마움을 표한 뒤, 고개를 돌려 풍묵풍에게 말했다.

"네가 이처럼 괴이한 무기를 사용하다니 과연 황영감의 제자답구나. 솔직히 말해서 네가 무공으로 나를 이길 성싶으냐 ? 황영감의 제자가 만약 정정당당히 나와 일대 일로 덤빈다면 이길 수 있단 말이냐 ?"

풍묵풍이 담담히 말했다.

"만약 그대가 무기를 잃지 않고 시간이 좀더 지났다면 나를 이길 수 있었겠지."

이막수가 오만스럽게 말했다.

"알기는 아는구나. 그럼 종이에다 도화도 문하생이 내게 패배를 인정했다고 적어라."

풍묵풍이 고개를 숙여 한참을 생각하더니말했다.

"그렇게는 안 돼 ! 만약 진매곡육(陳梅曲陸) 네 분 사형이 이곳에 있었다면 어느 분이든 너보다는 강하다. 진사형,곡사형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무공이 탁월하며, 매사자(梅師姉)도 여자이긴 해도 너 따위가 결코 그녀를 이겨 내진 못할 것이다."

이막수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증명해 낼 수 없는데 그걸 말해 무엇하랴 ? 황영감의 무공도 마찬가지지. 본래 그의 친딸인 곽부인의 신기를 좀 보려 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젠 됐다."

말을 마친 이막수는 몸을 돌려서 가려고 했다.

양과가 돌연 그녀를 불렀다.

"잠깐 !"

이막수가 수려한 눈을 올려보며 말했다.

"왜 !"

"도화도주의 무공이 이처럼 형편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다. 그는 내게 옥소검법(玉簫劍法)을 일러 주어 당신의 불진무공을 파괴시켜 버리도록 하셨으니까."

양과는 철사를 들어 땅에다 그림을 그려 가며 해설을 했다.

"자, 당신이 이렇게 앞에서 공격해 들어온다. 신속하고도 매섭게. 그러나 그가 장검을 이쪽에서 휘두르며 막아 낸다. 만약 당신이 정면에서 혈맥을 찍으려 한다면 그는 호랑이 기세로 검자루를 돌려 당신의 견정혈(肩貞穴)을 찍어 버릴 것이다. 이 일초를 어떻게 보느냐 ?"

이 일초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정교했다. 정면불혈(正面拂穴)은 이막수의 불진무공 중 절초의 하나인데, 양과가 말한 이 일초는 그녀를 제압하여 반격의 여지를 찾을 수 없게 해, 불진을 떨구곤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식이었다.

양과가 또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당신의 오독신장에 대해서도 도화도주는 방비책을 남겨 놓으셨지. 이렇게 일장을 펼쳐 올 때는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탄지공(彈指功)을 전개해 손톱을 당신 손바닥의 중앙에 튕겨 버리면 당신 손바닥은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게 되지. 그는 단지 손톱을 튕겼을 뿐이므로 당신 장법의 독물은 그의 몸에 조금도 닿지 않게 되는 것이지."

이어서 양과는 그녀의 무공을 제압할 수 있는 10여 초의 초식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듣자 이막수의 얼굴빛이 흑색이 되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모두 이치에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방법 또한 교묘하기 이를 데 없어 확실히 자기가 당해 낼 수가 없다는 양과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과가 또 말했다.

"도화도주는 방약무도한 당신을 걱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종의 신분이니 친히 너와 대결할 필요가 없어 이러한 방법들을 내게 전수하여 그를 대신해서 너를 수습하도록 명하셨지. 그러나 당신과 나의 사부와

의 동문의 정을 생각해서 당신께 이렇게 얘기하여 줌으로써 이후로는 그의 문하생을 보면 멀리 달아나 주길 바랄 따름이다 !"

이막수는 묵묵히 한참을 있다가 말했다.

"됐다. 이제 그만 해라 !"

하는 말을 마친 뒤 획, 하고 달려가더니 잠시 후에 그녀의 신형은 이미 산기슭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녀의 신법은 확실히 강호에서 보기 드물게 빨랐다.

사실 이러한 초식을 황약사가 양과에게 전수해 주긴 하였으나 적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연마하려면 빨라도 5,6 년은 걸리는 것이었다. 양과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직접 대결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겁을 집어먹게 만들어 이후로는 가볍게 황약사를 모욕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 셈이었다.

육무쌍은 이막수의 위세에 눌려 그녀의 말만 들어도 가슴이 쿵쿵 마구 뛰었었다. 그녀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자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바보야 ! 넌 정말 입심이 좋구나. 내 사부까지도 놀라 달아나게 만들다니."

전영은 자기가 짠 두루마기를 양과가 이막수에게 주어 버린 것을 보았을 때, 그때는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양과는 속에 여전히 그 낡아빠진 옛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소용녀가 짠 것으로, 그가 결코 그녀를 잊지 않고 있음이 역력했다. 정영은 가슴이 다소 아려 왔으나 전혀 내색은 하지 않았다. 곧바로 네 사람은 멍청이 여자를 보러 안으로 들어갔다.

막 문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산기슭에서 인마 소리가 벼락처럼들려와 네 사람이 동시에 뒤돌아보았다.

양과가 말했다.

"내 자세히 보고 오지."

말등에 뛰어올라 잽싸게 수 리를 달려 어느새 큰 길에 다달았다. 주

위를 살펴보니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깃발들이 창공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몽고병 대대가 파도 같은 기세로 남하하고 있었던 것이다. 양과는 지금껏 대군이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놀랄 만한 장관을 보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넋이 빠졌다.

두 군관이 장검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야, 이 멍청한 놈아 ! 뭘 보고 있느냐 ?"

이들이 달려들자 양과는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두 소군관은 화살을 재어 휘익, 하고 양과의 등을 쏘았다. 양과는 가볍게 손을 돌려 화살을 잡아 쥐었다. 화살의 기세가 대단히 힘이 있고 빨라 만약 무공을 지니지 못하였다면 가슴이 뚫리며 즉사했을 일이었다. 두 소군관은 양과의 무공이 대단한 것을 보자 말을 멈추고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양과는 대장간에 돌아와 방금 본 일들을 이야기했다. 풍묵풍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몽고 대군이 과연 남하했구나. 아아, 이제부터 우리 중국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

양과가 말했다.

"몽고인들은 기마술과 궁술이 뛰어나 송나라 병사들이 당해 내기 어렵겠어요. 이번 재난은 정말 매우 심각해요."

"양공자는 한참 나이인데 어째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군에 들어가 외적을 막지 않는가 ?"

양과가 잠시 주춤하다 말했다.

"나는 북상하여 내 사부를 찾아야 해요. 몽고군의 기세가 이처럼 대단한데 내 한 사람의 힘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

풍묵풍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한 사람의 힘은 비록 미약하나 여럿의 힘은 강한 것이지. 사람들이 모두 다 공자 같은 생각을 한다면 어느 누가 나서서 이민족의 침입에 대항할 것인가 ?"

양과는 그의 말이 옳다고 느꼈으나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소용녀를

찾는 일보다 더 긴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강호를 전전하면서 관리들에게 굴욕을 당해 왔었다. 비록 몽고인들이 흉폭스럽다고는 느꼈지만 송나라 황제 또한 결코 좋은 사람이라 여기지를 않았다. 양과는 그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여겨 가볍게 웃기만 할 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풍묵풍은 철추, 집게, 풍로 등을 한데 묶어 등에 짊어지고는 정영에게 말했다.

"사매, 이후로 사부님을만나거든 제자 풍묵풍은 결코 사부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해 줘. 나는 오늘 몽고군에 투항해, 우리 강산을 침략해 온 한두 명의 몽고 대장을 어떻게든 척살하겠다. 사매, 부디 몸조심해야 돼 !"

말을 마친 풍묵풍은 쇠지팡이를 짚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 버렸다. 물론 양과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양과는 육무쌍과 정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뜻하지 않게 이곳에서 저런 이상한 사람을 알게 되다니......"

육무쌍도 양과와 같은 생각이었다.

"언니, 언니네 사부 문하생은 언니만 빼놓고모두 바보가 아니면 미친 사람 같아요."

정영이 웃으며 담담히 말했다.

"사람이란 개성이 있으니 그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겠지. 너는 그가 미치광이 같다고 말하지만 그도 우리를 보고 무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니 ? 다시 말해 우리들 자신들도 어리석고 미치광이 같은 점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 !"

양과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를 보니 평소와 같은 표정이어서 그녀가 말한 저의를 짐작해 낼 수가 없었다.

돌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멍청이 여자가 의자에서 넘어져 떨어졌다. 세 사람 모두 놀라 황급히 그녀를 바닥에 눕혔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이 벌써 벌겋게 달아올랐으며 두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오독신장

의 독성이 또 발작되는 것이었다. 즉시 그녀에게 약을 먹인 뒤, 양과는 그녀의 혈도를 짚어 주었다. 그녀는 두려운 듯 그를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공포의 빛이 역력했다.

"양형(兄), 나를 해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해......"

정영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언니, 두려워 말아요. 그는......"

양과는 돌연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지금 그녀는 정신이 희미한 상태이다. 이때 모든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어야겠다.)

양과는 두 손을 뒤집어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했지 ?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일 테다."

"나, 나는 아니야 !"

"말을 안 해 ! 좋다, 죽여 줄 테다."

양과는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녀가 놀라 비명을 질렀다.

정영과 육무쌍은 양과의 저의를 몰라 일제히 소리쳐 말렸다.

"양대협 !"

"바보야 !"

"그녀를 해치지 말아요 !"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

양과는 그녀들의 말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손에다 조금씩 힘을 주며, 흉악스런 표정으로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나는 양형(兄)의 원혼이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너는 아느냐 ?"

"알아요. 당신이 죽은 후, 까마귀들이 당신의 살을 파 먹었어요."

양과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는 아버지가 비명에 돌아간 것만 알았지 죽은 후에 시신이 어떻게 매장되었는지조차 몰랐었다. 까마귀밥이 되었다고 하자 고함을 내질렀다.

"누가 나를 죽였느냐 ? 어서 말해라. 어서 !"

그녀의 음성이 점차 쉬어 갔다.

"당신 자신이 고모를 치자 고모의 몸에 독침이 있어 당신이 죽은 것이지요."

양과가 고함을 질렀다.

"고모가 누구냐 ?"

그녀는 목이 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곧 기절해 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중얼댔다.

"고모가 고모지요."

"고모의 이름이 뭐냔 말이다 ?"

"나......, 난 몰라요. 제발 놔 줘요 !"

육무쌍은 사태가 험악해지자 양과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양과는 이미 거의 미쳐 버릴 것 같은 상황인지라 육무쌍을 힘껏 밀쳐 버렸다. 육무쌍은 그만 밀려나가 꽝, 하고 벽에 부딪쳤다. 정영은 이 광경을 보고는 크게 놀라서 손발에 맥이 탁 풀려 버렸다.

양과가 생각했다.

(오늘 만약 부친을 죽인 자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내 즉시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다.)

잇달아 물어 댔다.

"고모의 성이 곡씨냐 ? 아니면 매씨냐 ?"

그는 그녀의 성이 곡씨라 생각해 그녀의 고모도 아마 곡씨라 여겼다. 그렇다고 매초풍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발버둥을 쳤다. 그녀는 양과보다 훨씬 오래 무공을 수련하였지만 무공이 그를 따라가지 못했다. 게다가 손목의 혈도가 잡힌 몸이라 단지 더듬더듬 말할 뿐이었다.

"고모를 찾아 따지세요. 나를......, 나를 괴롭히지 말고."

"고모는 어디에 사느냐 ?"

"나와 할아버지는 나왔어요 ! 그녀와 남편은 섬에 살아요."

양과는 이 말을 듣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떨리는 음성으로 다시 물었다.

"고모가 네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부르느냐 ?"

"아빠라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

양과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일을 그르치게 될까 봐 얼른 다시 물었다.

"고모의 남편 이름이 곽정이 아니더냐, 그렇지 ?"

"난 잘 몰라요. 고모가 예전에 <곽오빠, 곽오빠> 하고 불렀어요."

그녀는 황용이 곽정을 부르는 소리를 흉내내었다. 돌연 그녀는 돼지 멱 따는 사리를 지르며 두 발을 마구 차 댔다.

"살려 줘, 살려 줘요. 제......"

이때 양과에게 더 이상 어떤 의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 자신이 어려서부터 홀로 되어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했던 지난 일들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만약 아버지가 화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도 애통해 하며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토록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도화도에 있을 당시 곽정 내외가 나를 자연스럽게 대하지 않았어. 어떤 때는 친절하게, 어떤 때는 피하려 들었다. 결코 무씨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때는 말하고 혼을 낼 때는 혼을 내지 않았어. 그러나 당시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지. 그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비밀을 지니고 있는지 내가 어찌 알 수가 있었겠는가. 그들이 내게 무공을 전수해 주지 않고 전진교로 보내 그런 굴욕을 당하게 한 것들도 이제 보니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야.)

그는 너무나 흥분해 손발의 맥이 탁 풀렸다. 멍청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정영은 양과 옆으로 다가와 살며시 말하였다.

"바보 언니가 당신께 바보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지요

? 그녀가 상처를 입은 후 더욱 횡설수설하는 것이니 절대로 그녀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도 속으로는 멍청이 언니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권고가 쓸데없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양과를 살펴보니 격동과 비분이 뒤엉켜 좀처럼 참아 내기 힘든 모양이었다.

정영의 몇 마디 말을 양과는 전혀 듣지 못했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는 고함을 지르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몸을 날려 말에 올라타고 두 다리에 힘을 가하자 말은 질풍같이 내달았다. 양과를 태운 말은 순식간에 10 여 장 밖으로 달려나갔다. 등뒤에서 <바보야 !>, <양대형 !>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생각하기를,

(복수를 하겠다 ! 복수를...... !)

한바탕 정신없이 내달려 양과는 한 시간여만에 수십리를 달렸다. 갑자기 입술에 통증이 느껴져 손을 대어 보니 선혈이 낭자했다. 비분감에 젖어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다 보니 입술이 터져 버린 것이었다.

(곽백모는 원래 내게 잘 대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내게 잘해 준 것은 모두 거짓이었어. 그러나 백부는, 곽백부는...... !)

그는 마음속으로 곽정을 줄곧 존경해 왔었다. 곽정의 덕행과 무공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한다고 느꼈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스럽기가 황용보다 더하다고 느낄 뿐이었다. 그의 가슴이 온통 찢어질 것만 같았다.

상심한 나머지 양과는 말에서 내려 큰길 가운데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처럼 구슬피 우는 소리에는 세상사의 온갖 슬픔과 괴로움들이 뒤엉켜 있었고 하늘과 땅도 따라서 슬퍼할 것

같았다.

그는 부친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 어머니마저 절대로 말을 못 꺼내게 하곤 했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양과는 아버지야말로 팔방미인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왔다. 이렇게 훌륭한 영웅호걸이 곽정과 황용의 간계에 빠져 죽게 되었다니......

그가 한바탕 울고 났을 때 갑자기 말발굽소리가 들리더니 북쪽에서 4필의 말이 달려왔다. 말 위에는 모두 몽고 무사가 타고 있었고 맨 앞의 사람은 긴 창을 잡고 있었다. 창끝에는 두세 살 난 어린아이를 매달고서 신나게 웃으며 달려왔다. 그 어린아이는 아진 죽지 않았는지 약하게 울음 소리를 내곤 했다.

네 명의 몽고 무사들은 양과가 길에 앉아 통곡을 하는 것을 보자 조금은 이상스레 여겼다. 그러나 이렇게 다 떨어진 옷을 입은 한민족 소년은 도저에 흔해 바진 일이라 조금도 유념하지 않았다.

"길을 비켜라."

한 명이 외치면서 창으로 그를 찌르려 했다.

양과는 마침 화가 나 있던 참이라 창끝을 잡아당겨 그 무사를 잡아끌어 휙 돌려 버렸다. 그 무사는 수장 밖으로 날아가 머리가 부서지며 즉사했다. 나머지 세 명은 그만 겁을 집어먹고는 일제히 말을 돌려 도망쳤다.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어린아이가 길 위에 떨어졌다.

양과가 끌어안아 보니 한민족의 아이였다.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 무척 귀여웠다. 긴 창끝에 배를 찔려 금방 죽지는 않겠으나 치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 조그마한 입술에서 아아아, 소리와 함께 <엄마>하고 가느다랗게 울부짖었다. 양과는 상심한 나머지 더욱 비통에 젖었다. 다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끌어 안고 양과는 또 눈물을 흘렸다. 아이가 고통을 견뎌 내지 못하는 것을 본 양과는 가볍게 일장을 내려쳐 즉사시켜 버렸다. 양과는 비통한 심정으로 몽고병의 긴 창으로 땅을 파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 주려 했다.

10여 차례 파내려 갔을 때, 말발굽소리가 벼락치듯 들려오며 호각소리와 함께 몽고병 대대가 몰려왔다. 양과는 왼손으로는 죽은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는 창을 잡고서 말에 올라탔다. 이 여윈 말은 원래 오랫동안 전쟁통을 누비고 다녔던 전마로, 진영을 보자 길게 울음을 터뜨리며 몽고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양과는 창을 휘두르며 잇달아 네 놈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적병들이 계속 새까맣게 몰려들자 그는 즉시 말머리를 돌려 황망히 달아났다. 등뒤에서 화살이 불나방들처럼 날아들었다. 그는 총을 휘둘러 화살들을 하나하나 모두 떨어뜨렸다. 야윈 말은 발걸음이 기이하게 빨라 순식간에 추격병들을 멀리 떨구었다. 그러나 잠시도 안심할 수 없어 계속 채찍을 휘둘러 황야를 내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사방을 둘러보니 잡초만 무성했다. 길이 끊긴 것이다. 피처럼 붉고 창망한 저녁 노을 속에 고요한 정적만 있을 뿐 까마귀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말에서 내렸다. 손에는 여전히 죽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기의 얼굴이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의 부모는 자기 생명처럼 이 애를 사랑했을 텐데. 아기가 죽은 것도 모르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고 있을까. 이 흉악무도한 몽고병들이 대거 남하하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을까 ?)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감해졌다. 양과는 즉시 큰 나무 옆에 구덩이를 파고 어린아이를 묻어 주었다. 다시 멍청이 여자의 말이 생각났다.

(이 아이는 죽었어도 내가 이렇듯 묻어 주었건만 나의 아버지는 까마귀밥이 되었다니...... 아아, 너희들은 그를 죽여 놓고는 어째서 묻어 주지도 않았단 말이냐. 악랄한 놈들 같으니 ! 아, 복수를 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그날 밤 양과는 큰 나뭇가지 위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말에 올라타 여윈 말이 가는 대로 산과 들판을 마구 헤댔다. 때로는 고묘로 돌아가 소용녀를 볼까 하는 생각도 했고 때로는 어쨌든 곽정,황용을 먼저 죽여 부친의 복수를 해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배가 고파 오자 과일을 따서 허기를 채웠다.

나흘째 되는 날, 멀리서 어떤 사람이 나무에 뛰어올라 과일을 따는 모습이 보였다. 양과가 말을 달려 가까이 가 보니 금륜법왕의 제자 달이파였다. 그는 뛰어오를 때마다 단지 1개의 과일만 따 낼 뿐이었다. 나중에는 귀찮아져서 팔을 뻗어 냅다 몇 차례 갈기자 그 과일나무는 치이직 소리를 내며 부러져 버렸다. 그는 과일을 잔뜩 품안에 집어넣었다.

양과는 주위를 살피며 생각했다.

(금륜법왕이 설마 이 근처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 ?)

그와 금륜법왕은 원래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었다. 이제 곽정,황용을 부친을 죽인 원수로 알게 되자, 양과는 당시 곽정,황용을 도와서 금륜법왕과 상대했던 일이 후회되었다. 양과는 살금살금 달이파의 몸 뒤로 가서 그가 어떻게 하나 살펴보려 했다. 달이파는 나는 듯이 내달려 산 아래로 가 버렸다. 양과는 말에서 내려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달이파는 산림 속으로 들어가 점점 높이 올라갔다. 양과도 그를 따라 산봉우리에 올랐다.

산정에는 조그마한 모옥이 세워져 있었다. 사면이 확 트인 모옥 가운데 금륜법왕이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과실을 내려놓고 몸을 돌리는 순간 달이파는 양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얼굴색이 확 변했다.

"대사형 ! 사부를 해치러 왔소 ?"

하고 말하면서 달이파는 양과에게 달려들어 양과의 옷소매를 움켜잡았다. 그의 무공은 양과보다 위에 있으나 지금 사부가 위험한 지경에 놓여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즉시 생명을 잃게 되므로 황망한 가운데 서둘렀기 때문에 달이파의 이 일초는 엉강이 되어 버렸다. 양과에

게 오히려 팔을 잡혀 서로 밀치고 당기다가 끝내는 양과를 넘어뜨리게 되었다.

달이파는 마음속으로 양과를 대사형의 전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넘어져 땅에 구르게 되자, 달이파는 곧바로 양과의 앞에 다가섰다. 양과는 그가 또 공격을 하려는 줄 알고 얼른 몸을 일으켜 뒤로 1보 물러섰다. 그가 돌연 무릎을 꿇더니 절을 하며 말했다.

"대사형 ! 전생의 은사님의 정을 생각하십시오. 사부님께서는 중상을 입고 스스로 치료를 하는 중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를 놀라게 한다면, 그럼......, 그럼......"

달이파는 말을 채 끝내지도못하고 목이 막히는지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다.

양과는 비록 티벳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격동하는 표정과 금륜법왕의 초췌한 얼굴을 보자 이내 사태를 짐작했다. 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나는 결코 그를 해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해도 좋아요."

"달이포는 양과의 얼굴색이 부드러운 것을 보자 매우 기뻐했다. 비록 그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미 적의가 사라져 버린 것만은 사실이었다.

바로 이때 금륜법왕이 눈을 떴다. 양과를 보더니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방금 운기조식을 하였기 때문에 양과와 달이파의 대화를 듣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강적이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자 길게 탄식을 하며 느릿느릿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헛되이 수련을 하였구나. 도를 얻지도 못하고 오늘 죽게 되다니......"

그는 원래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 내장에 중상을 입었던 것이다. 이며칠간 이곳의 모옥에서 조용히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던 것인데, 뜻하지 않게 양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금은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어 달이파에게 명하여, 양과를 쫓아 버리게 할 수밖에 없었다. 싸운다 해도

그 싸움으로 그의 심신에 자극을 주게 되어 상처를 치유하기가 점점 힘들게 될 판이었다.

그런데 양과가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온 것은 대사와 대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오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왕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무엇인가 말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는 급히 눈을 감고 운기를 시작했다. 양과가 모옥 안으로 들어가 우장을 뻗어 그의 등뒤에 있는 지양혈(至陽穴)에 갖다 댔다. 이 혈도는 일곱째 척추뼈 밑에 있는 것으로 전신의 맥을 지휘하는 대혈이었다.

달이포가 대경실색을 하며 양과를 제지하려 했다. 양과는 좌장을 흔들어 그에게 눈짓을 했다. 달이파는 사부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자 얼굴에 안도의 웃음을 띠었다.

양과의 수련은 그리 깊지 않은데다가 서장파 내공에 대해선 더욱 몰랐다. 손바닥에 은근히 그의 체내에 흐르는 기가 느껴졌다. 하나의 열기가 위로는 영대(靈臺), 신도(神道), 신주(身柱), 도도(陶道) 각 혈로 통하고 있었고, 아래로는 중추(中樞), 척중(脊中), 현추(懸樞) 각 혈로 통하고 있어 그의 맥을 유지해 주고 있었다.

달이파는 비록 고강한 무공을 지녔으나 수련한 것은 모두 외공뿐이라 사부를 치료해 줄 수가 없었다. 이 며칠간 단지 옆에서 애를 태울 뿐이었다. 금륜법왕은 등뒤의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임맥에 기를 주입시켜 전력으로 가슴과 배의 상처를 치료해갔다. 한 시간 남짓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들고, 얼굴에는 붉은 빛이 돌기 시작했다. 금륜법왕은 눈을 떠 양과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양거사(居士), 어째서 나를 구해 주신 게지요 ?"

양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최근에 알게 된 부친의 원수와 무의식중에 달이파를 따라 산에 오르게 된 정황을 말했다.

금륜법왕은 비록 이 소년이 매우 교활해 십중팔구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오늘은 오히려 자신을 도와 주지 않았는가. 상대방에게 적의가 없음을 알고 말했다.

"원래 거사에게 이줌있는 줄 몰랐구료. 그러나 곽정
부부의 무학은 너무 깊어서 양거사가 복수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 걱정이오."

양과가 얼마간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부자 이대가 그들의 손에 죽으면 그만이지요 !"

금륜법왕이 말했다.

"나도 처음엔 천하에 적이 없다고 자부하였지. 한 사람의 힘으로 중원 군웅들을 압도해 무림 맹주의 자리를 얻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중원 무사들이 단독으로 겨루는 규칙을 어기고 무리를 지어 몰려들어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요. 이 몸은 상처가 치유된 후 많은 고수들의 도움을 얻을 작정이오. 우리 편 세력이 커지면 중원 무사들도 어쩔 수 없게 될 테니 공평하게 승패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소 ? 당신 혹시 우리 편에 참가할 의향이 없는지요 ?"

양과는 대답하려는 순간, 몽고병의 잔악무도한 형상이 생각나 말했다.

"나는 몽고를 도울 순 없소."

법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대 혼자서 곽정 부부를 없애 복수하려고 든다면 그 일은 정말 어렵기 짝이 없소."

양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 소, 내 당신이 무림 맹주를 취하도록 돕겠소. 대신 당신은 나의 복수를 도와 주셔야 합니다 !"

금륜법왕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대장부 일언은 중천금이오. 손바닥을 부딪쳐 맹세합시다."

두 사람은 세 차례 손바닥을 부딪쳐 맹세를 했다. 양과가 말했다.

"나는 단지 무림 맹주 자리에 앉는 것을 도울 뿐이오. 몽고병이 강

남을 침략해 백성을 죽이는 것을 돕는 일이라면 나는 절대로 나서지 않겠소."

금륜법왕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란 누구나 제각기 지조가 있소이다.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양형제, 당신의 무공은 매우 다양해 나의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것과는 사뭇 다르오. 여러 가문의 것을 취하여 교묘한 점은 대단하나 난삽하여 어지러움은 면하기 어렵지요. 당신이 가장 자신 있는 무공은 대체 어느 문하의 무공이오 ? 어느 파의 무공을 사용해 곽정 부부를 대항하려고 하고 있소 ?"

이 몇 마디 말은 양과의 입을 다물게 하기에 족했다. 그는 평범하지 않은 운명에 샘이 많아 전진파, 구양봉, 고묘파, 구음진경, 홍칠공, 황약사의 무공 등을 모두 적지 않게 익히고 있던 터였다. 이들 무공들은 모두 극히 오묘하여 필생의 정력을 다해 정진해 들어가도 그 끝을 보기가 힘든 것인데, 그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기웃거렸기 때문에 진정 최일류의 경계에 이른 무공은 하나도 없었다.

다소 떨어진 상대를 만나 시전하게 되면 매동작이 화려하기 짝이 없어 상대를 혼란케 하지만 그러나 진짜 고수를 만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결점을 보이게 되곤 했다. 금륜법왕의 제자인 달이파나 곽도와 비교해 보아도 양과는 아직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금략법왕의 이 몇 마디는 실로 정곡을 찌른 것으로, 그의 무학의 근본적인 폐단을 지적해 준 것이었다.

(나는 이미 아가씨와 평생을 같이하기로 결의해 놓고 어째서 여기저기에다 정을 주었을까 ? 정영, 육무쌍, 또 완안평. 나는 그녀들에게 진정으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단정치 못하게 행동한 것이나 아닐까. 나라는 놈이 본래 너무 탐욕스러운 거나 아닌지......)

양과의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물론 홍칠공, 황약사, 구양봉, 전진칠자, 금륜법왕...... 모두는 일가를 이룬 분들이다. 모두들 본문의 무공을 정진 수련했다. 다른 파

의 무공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단지 그 이치만을 살필 뿐 연습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무공을 전공으로 연마해야 될 것인가 ?)

아무래도 고묘하의 옥녀심경을 연구함이 옳을 것 같았다. 그러나 홍칠공의 오묘한 타구봉법과 황약사의 정교한 옥소검법을 생각하니 그 어찌 또 아깝지 않으리오 ? 또한 의부의 합마공과 경맥역행, 구음진경의 제반 무공 등 어느 것 하나로도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없었다. 익히기가 어렵다고 해서 어찌 그것들을 유물로 버릴 수가 있겠는가 ?

그는 모옥을 나와 산봉우리에서 뒷짐을 지고서는 고심을 하기 시작했다. 반나절이나 머리를 짜내던 중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각 파의 장점들만 취하여 일가를 이룰 수는 없을까 ? 천하의 무공이란 모두 사람이 창안한 것이다. 남들도 창안해 냈는데 나라고 해서 설마하니 창안해 내지 못하란 법이 없잖은가 ?)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앞에 광명이 서리는 것 같았다.

그는 산봉우리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평생 동안 보았던 여러 정교한 무공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찌기 구양봉과 홍칠공이 구술로 비무 시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그 자신도 말과 그림으로 이막수를 물리친 적이 있었다. 지금 머릿속에 여러 무공들의 장점을 취하자니 말하는 것보다 치열하고 신속했다.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손과 발을 움직여 시전해 보았다. 처음에는 이 일초가 홍칠공에게, 저 일초는 구양봉에게 배운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으나 나중에는 한데 어우러져 그는 더 이상 견뎌 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 넘어졌다.

달이파가 멀리서 보니 양과가 미치광이처럼 손발을 움직이며 괴상한 짓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돌연 그가 넘어지는 것을 보자 달이파는 구하려고 황급히 달려가려 했다. 금륜법왕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심사를 건드리지 말아라. 너의 재능이 평범해 그의 심중을 알아내기가 힘芮것이다."

양과는 한참 자다가 다음날 새벽녘에 일어나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레 동안에 그는 잇달아 다섯 번이나 혼절했었다. 여러 문파를 종합해 일가를 이룬다는 일이 어디 말처럼 쉬운 것인가 ? 이 때의 양과의 능력으로는 절대 성공하기가 힘든 것으로서 반 개월만에 될 성질의 일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며칠간을 계속 생각한 끝에 양과는 깨달은 바가 있었다. 제반 무공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합일시킬 수 없는 것은 강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나중에 적과 마주쳤을 때 사용하면 그만이지 굳이 무공의 출처와 내력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일가를 창설하는 것과도 차이가 몇개 나지 않았다. 이 점을 깨닫자 마음이 상쾌해졌다.

금륜법왕은 이 며칠간 운공조식하여 상세(傷勢)를 거의 다 치유시켰다. 그날 양과가 갑자기 평온한 표정에 성장한 듯한 모습을 드러내자 금륜법왕은 양과가 무학의 길에 진일보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

"양형체, 오늘 내가 당신께 한 사람을 소개해 주지. 그 사람은 통이 크고 웅지를 지닌 자로 보게 되면 반드시 감복하게 될 것이오."

양과가 물었다.

"누구신데요 ?"

"몽고왕자 쿠빌라이[忽必烈]요. 그는 징기스칸의 손자로 황세자 타뢰(拖雷)의 네째 아들이지요."

***** 독 물 마 시 는 노 인 *****

양과는 몽고병들의 포악한 행동을 본 뒤라 몽고인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 양과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는 부친을 죽인 원수를 갚는 일이 급하지, 그 몽고 왕자는 볼 필요가 없소."

법왕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돕겠다고 하였소이다. 어찌 믿음을 저버리겠소 ? 그러나 이 몸은 쿠빌라이 왕자의 초빙을 받았으니 그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만 되오. 그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하루면 닿을 것이오."

양과는 어쩔 수가없었다. 자신은 아직 곽정 부부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금륜법왕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복수하기란 사실 힘든 노릇이었다. 그와 함께 갈 수 에 없었다.

금륜법왕은 몽고 제일 호국대사로 봉해져 있어 몽고병들은 그를 대단히 숭배했다. 그가 온 것을 보자 즉시 왕부에 알렸다. 몽고인들은 자손 대대로 천막에 살았기에 비록 입성을 했어도 여전히 궁실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 못했다. 그 때문에 쿠빌라이도 장막 안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법왕은 양과의 손을 잡고서 왕의 막사로 들어갔다. 그 막사는 보통 몽고병의 막사보다 배는 더 컸다. 장막 안의 시설들은 모두 소박했다. 25,6 세 가량의 청년이 책을 보면서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얼른 일어나 맞이하면서 반갑게 웃었다.

"오랜만이군요, 국사 ! 늘 생각하곤 했습니다."

금륜법왕이 말했다.

"제가 한 소년 영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양형제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대단한 인물입니다."

양과는, 쿠빌라이가 징기스칸의 손자로서 외모가 귀공자형이 아니면 호걸형으로 여겼었다. 그런데 이처럼 중곡어를 할 줄 아는, 부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청년임을 보자 다소 이상한 감이 들었다.

쿠빌라이는 양과를 슬쩍 바라다보고는 왼손으로 법왕을 잡아끌며 시비에게 말했다.

"어서 술을 내오너라. 이 형제와 술 한잔 마셔야겠다 !"

시녀들이 몽고의 마유주(馬乳酒)가 가득 담긴 세 그릇의 대접을 갖고 왔다. 쿠빌라이는 술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마셨다. 법왕도 벌써 마

셔 버렸다. 양과는 평소 그다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주인이 이처럼 격의없이 대하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양과도 곧바로 잔을 들어 쭉 마셔 버렸다. 지독히 독하면서도 신맛이 났다.

쿠빌라이가 웃으며 말했다.

"형제여 ! 술맛이 어떠신지 ?"

"이 술은 독하면서도 시큼털털하고 입이 얼얼한 게, 맛은 향기롭지 않으나 대장부 남아의 기질에는 잘 어울립니다."

쿠빌라이는 대단히 기뻐하며 술을 계속 시켰다. 세 사람이 모두 석 잔씩 마셨다. 양과는 내력의 공력으로 조금도 음색이 변하지 않았다.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했다.

"국사, 어디서 이런 인재를 만나셨소 ? 정말 이는 우리 대몽고의 행운이오."

법왕은 곧 양과의 경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말하는 가운데 그의 신분을 너무 높여 은연중에그를 중원 무림의 대영웅으로 소개했다. 양과는 그가 이처럼 자신을 추켜세우자 자신도 도르게 우쭐해졌다.

쿠빌라이는 대송의 강산을 취하려고 중원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다. 늘 유생들과 어울려 경학을 논하고 무학 고수들을 널리 초빙해 빈객으로 교분을 맺으며, 남하하여 송을 공략할 계획을 세웠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양과가 이처럼 나이가 어린 것을 보고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쿠빌라이는 지모가 뛰어나고 기개가 넓으며, 금륜법왕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있는 터라 대단히 기뻐하여 연회석을 열라고 명했다.

잠시 후 연회석이 준비되었다. 술과 고기가 그득했고, 몽고식과 중국식의 음식이 반반씩 놓여졌다. 쿠빌라이가 시비에게 말했다.

"관사에 머무는 몇 분 영웅들을 모셔오너라."

시비가 대답하며 나갔다. 쿠빌라이가 말했다.

"이 며칠 관사에 빈객들이 몇 분 있는데 모두 특이한 재능을 갖고

있지요. 국사와 양군자의 문무에는 미치질 못하겠지만 정말 국가의 복이지요."

말하는 도중, 손님들이 도착했다고 시비가 알려왔다. 장막 문이 열리며 네 사람이 들어왔다. 맨 앞의 사람은 깡마른 체구에 키가 컸으며 얼굴에 혈색이라곤 없어 마체 강시와 같았다. 쿠빌라이는 법왕과 양과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가 상서명숙(湘西名宿) 소상자(瀟湘子)라고 말했다.

두번째 사람은 매우 작은 키에 시커먼 피부였다. 천축의 고수 니마성(尼摩星)이었다. 맨 나중 두 사람 중 한 명은 8척 장신에 손발이 컸으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두 눈에 표정이라곤 없었다. 나머지 한 명은 긴 코와 푸른 눈에 곱슬머리인 외국인이었다. 옷은 중국옷을 입었으며 목에는 명주를 걸고 손목에는 옥팔찌를 걸어 빛이 번쩍거렸다. 쿠빌라이가 각기 나누어 인사를 시켰다. 그 거한은 신강인으로 이름은 마광좌(馬光佐)였다. 그리고 그 외국인은 페르시아 대상(隊商)으로 조상 3대째 변량(변량 : 북송의 도읍지), 장안(長安), 태원(太原) 등지에서 보석을 파는 상인으로, 중국 성(姓)을 따 이름이 윤극서(尹克西)였다.

니마성과 소상자는 금륜법왕이 <몽고제일국사>란 소리를 듣자 차갑게 아래위를 훑어보더니, 얼굴에 완연히 불복하는 표정을 지었다. 양과가 나이가 어린 것을 보고는 법왕의 제자나 도손쯤으로 여겨 더더구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

술이 세 차례 돌고 나자 니마성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전하, 대몽고의 땅은 넓디넓으니 이 대화상이 제일국사라면 무공 또한 매우 매우 고강할 것이 아닙니까? 한번 그 실력을 보고 싶습니다."

쿠빌라이는 다만 웃을 뿐 아무런 말이 없었다. 소상자가 이어서 말했다.

"이분 니마성 형제는 천축에서 왔습니다. 서장의 무공은 천축에서

온 것인데 설마하니 정말로 청출어람(靑出於藍)의 일이 있을까요 ? 형제들이 그다지 믿지 돗하는 것 같아요."

금륜법왕은, 니마성의 두 눈에 빛이 나며 소상자의 얼굴에 은근히 푸른 빛이 감도는 것이, 이 두 사람의 내공이 모두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윤극서는 그저 히히 웃으며 매우 평범하게 보이려고 가장했다. 이 사람은 무능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 쉽사리 얕잡아볼 수가 없었다. 거한인 마광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이 노구가 국사에 봉해진 것은 모두 대왕과 네째 왕자 전하의 은전이지요. 이 노구가 감당해 내기 부끄러울 뿐입니다."

금륜법왕이 이렇게 말하자 소상자는

"그렇다면 마땅히 자리를 내놓는 것이 현명하겠군요."
하고 말하며 니마성을 힐끗 바라다보았다. 니마성은 입가에 가볍게 냉소를 띠었다.

법왕이 가락을 뻗어 쇠고기를 집으며 말했다.

"이 쇠고기는 여기 접시에 담긴 것 중 가장 큰 것이오. 노구는 원래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젓가락을 뻗어 잡히게 되었으니 이게 다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게지요. 흥미 있는 분께선 어디 한번 집어 보시지요."

말하면서 젓가락을 접시 위에 멈추고는 남들이 집어 가길 조용히 기다렸다.마광좌는 금륜법왕의 저의를 알지 못했다. 몽고 제일국사의 신분으로 큰 쇠고기를 손님들에게 양보하려는 것인 줄로만 알고 얼른 젓가락을 뻗었다. 젓가락 끝이 막 쇠고기에 닿으려는 순간 법왕이 들고 있던 젓가락 하나가 돌연 날아와 그의 젓가락과 가볍게 부딪쳤다. 마광좌는 갑자기 팔이 떨려 잡아내지 못하고 젓가락을 탁자 위에 떨구었다. 법왕의 젓가락은 어느새 원위치로 돌아가 고기를 집고 있었다. 모두들 놀라 서로 바라보았다.

마광좌는 여전히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젓가락을 들고는 다섯 손

가락에 꽉 힘을 주어 잡고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부딪치지 못할걸.)

않게 보았다. 그의 내몽이

심후한 것을 보자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다. 그는 천축국 사람으로,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을 사용치 않고 손가락만 사용할 뿐이었다. 그가 말했다.

"이 쇠고기는 내가 먹어야겠어."

갑자기 다섯 손가락을 뻗어 고기를 잡아 쥐었다. 법왕은 오른쪽 젓가락을 뻗어 번갯불처럼 빠르게 몇 번 털었다. 그 순간 그의 손바닥, 손목, 엄지와 검지 사이, 중지의 다섯 군데 혈도를 찍어 내려갔다. 니마성은 손바닥을 급히 뒤집으며 법왕의 손목을 내리쳤다. 법왕은 팔은 움직이지도 않고 젓가락만 세워서 또 몇 차례 털었다. 니마성은 돌연 젓가락 끝이 자신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닿자 급히 손을 거두어 들였다. 법왕의 젓가락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되돌아와 여전히 고기를 잡아 쥐고 있었다. 그가 젓가락을 뻗어 점혈하는 수법이 쾌속무비하여 쇠고기는 아직 법왕의 젓가락에 붙어 있는 것이었다.

양과 등은 방금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보았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수초를 교환했다. 법왕의 젓가락 출수도 대단히 빨랐지만 니마성이 간발의 차이로 손을 움츠려 피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의 무공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소상자가 음침하게 소리를 질렀다.

"대단한 실력이다 !"

쿠빌라이는 두 사람이 상승의 무공을 사용한 것 정도는 알았으나 무슨 무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마광좌는 동전만한 큰 눈을 이리저리 휘둘러 볼 뿐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윤극서가 헤헤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들 너무 겸손하십니다 ! 서로 양보만 하며 너도 안 먹겠다 나도 안 먹겠다 하면 음식이 모두 식습니다."

하며 천천히 젓가락을 뻗었다. 손목의 비취팔찌와 금테를 두른 옥팔찌

가 서로 부딘쳐 댕그랑댕그랑 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그의 전가락 끝이 아직 쇠고기에 닿지도 않았는데 법왕의 젓가락이 이미 그의 내공에 가볍게 흔들렸다. 원래 그는 기선을 제압해 내력으로 법왕의 젓가락을 뻗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다. 법왕은 지체없이 젓가락을 앞으로 보내 그에게 잡히게 한 뒤, 그의 젓가락에 힘을 가하며 그의 팔을 쳐 갔다. 윤극서가 급히 힘을 가해 반격했다. 그런데 법왕의 내공이 돌연 사라져 버렸다. 쇠고기는 이미 윤극서가 잡고 있다가 그가 이처럼 힘을 가하자 다시 법왕의 젓가락 위로 되돌아갔다. 법왕이 웃으며 말했다.

"윤형이 양보하려 하니 정말 너무 겸손하십니다그려."

이번에는 계교로 이긴 셈이다. 윤극서는 계략에 당하면서도 상대방의 내공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아, 더 이상 추한 꼴을 보이지 않았다. 즉시 미소를 지으며 접시 위에서 조그만 고기를 집고는

"형제가 평생토록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보석뿐이지요. 살찐 고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조그만 것을 먹어도 충분하지요."

하고 말하면서 고기를 입 안에 넣고는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금륜법왕이 생각했다.

(이 페르시아놈의 기개가 비범하군 !)

금륜법왕은 고개를 돌려 소상자에게 말했다.

"노형께서 이처럼 양보하시니 노구가 먹을 수밖에......"

말하면서 천천히 반 척 가량 쇠고기를 앞으로 갖고 왔다. 그는 소상자의 내력이 강하다고 생각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젓가락을 반 척 가량 회수해 오면서도 내공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대방과의 거리도 반척 가량 떨어져 있었다. 소상자가 냉소를 띠며 젓가락을 천천히 집어들고 돌연 내뻗어 쇠고기를 끼어 잡아 반 척 가량을 잡아당겼다.

금륜법왕이 뜻하지 않게 그의 재빠른 수법을 받게 되자 급히 힘을 가해 일 촌 일 촌 잡아당겼다. 소상자는 몸을 일으켜 왼손으로 탁자에 의지했다. 탁자가 덜그럭 소리만 낼 뿐 고기가 법왕 면전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금륜법왕의 표전은 아무 일도 없는 듯했으나 소상자의 이마에선 땀방울이 솟아났다. 강약의 결과는 이미 분명해진 것이다.

돌연 멀리서 사람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곽정, 곽형제 ! 어디 있느냐 ? 어서 나와라. 곽정, 곽형제 !"

처음에는 동쪽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엔 오히려 서쪽에서 들려왔다. 동서의 거리가 상당히멀어 마치 한 사람이 말을 마치면 다른 사람이 따라서 이어받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한 사람이 분명했다. 동에서 서로 계속 이어지니 이 사람의 쾌속한 신법이나 고함소리 중의 심후한 내력은 보기 드문 것이었다.

모두들 놀라 서로 쳐다보는 사이에 소상자는 젓가락을 놓고 맥없이 앉아 버렸다. 금륜법왕이 껄 웃으며 말했다.

"양보하시니 받아들여야지 !"

막 쇠고기를 입에다 넣으려는 순간, 돌연 장막 한 귀퉁이가 젖혀지며 한 사람이 뛰어들어 금륜법왕 젓가락의 고기를 빼앗아 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모두들 놀라서 동시에 일어나 그 사람을 보았다. 얼굴에는 붉은 빛이 감돌고 환하게 웃고 있는 백발의 노인네였다. 그는 장막 안의 양탄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왼손으로 흰 수염을 치켜올리며 오른손으로 고기를 들고 쩝쩝 소리를 내며 먹었다. 금륜법왕은 이 노인이 고기를 낚아채 간 수법을 생각하면서 크게 놀랐다.

장막을 수비하던 무사들은 백발 노인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감으로 일제히 소리쳤다.

"자객이다 !"

어느새 4 개의 긴 창이 일제히 그의 가슴팍을 찔러 왔다. 노인은 왼손을 뻗어 한움큼에 4 개의 창끝을 움켜쥐곤 양과에게 말했다.

"소형제여. 고기를 좀더 갖다 주시게. 내 배가 몹시도 고프다네......"

네 명의 몽고 병사가 있는 힘을 다해 내찔렀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곧이어 창을 거둬들이려 했지만 4개의 창은 마치 한데 붙어 버린 듯 조금도 끌어당길 수가 없었다. 네 명의 얼굴이 온통 빨개졌다.

양과는 재미있을 것 같아 자리에 있던 쇠고기 접시를 들어 그에게 날려보내며 말했다.

"드시지요 !"

그 노인은 오른손으로 재빨리 잡아 가슴 앞에 받쳐들었다. 돌연 접시 위의 고기 한 점이 뛰어올라 입 속으로 쏙 들어갔다. 쿠빌라이는 그가 마술을 하는 줄 알고 재미있어 하며 칭찬을 했다. 금륜법왕 등은 그 노인이 손의 장력을 운공시켜 접시 위의 고기를 튀어오르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보통 사람도 접시를 흔들어 고기를 튀어오르게 할 수 있었으나, 이는 접시의 기가 일제히 움직이는 것이다. 고기를 한 점 한 점 튀어오르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노인의 장력은 이미 자유자재로 시전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여 있었다.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모두들 자신도 모르게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노인은 계속 쇠고기를 씹어 삼켰다. 접시 위의 고기는 한 점 한 점 튀어올라 잠시 후 접시는 깨끗하게 비워졌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접시를 날렸다. 접시는 공중에서 반원을 그리며 양과와 윤극서 사이로 날아갔다. 둘은 혹시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감히 손을 뻗어 접시를 잡아내지 못하고 황망히 옆으로 피했다. 그 접시는 탁자에 붙어 날아오다가 구운 양고기 접시에 정확히 부딪쳤다. 그러자 양고기 접시는 노인에게 다시 날아갔으며, 빈 접시는 탁자 위에서 몇 번 원을 그리더니 멈춰 섰다.

방금 그가 사용한 것은 태극경(太極勁)으로, 그것은 태극도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는 것이다. 만약 넓은 공간에서 던졌다면 그 접시는 원을 그리며 돌았을 것이다. 이것을 시전하는 데는 힘이 그

리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변환술(變幻術)에 능통한 사람은 이 기술을 모두 익히고 있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힘을 아주 적당히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매우 흡족해 껄껄 웃으며 구운 양고기를 한 점 한 점 튀어오르게 하여 몽땅 먹어치웠다. 이때 가장 낭패를 당한 자들은 네 명의 몽고 무사였다. 힘껏 긴 창을 끌어당겨도 꼼짝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손을 놓자니 이는 더더구나 큰일날 일이었다. 몽고 군법은 상당히 엄해 싸움에 임해 병기를 포기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하물며 네 사람은 쿠빌라이 왕자를 호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처지라, 젖 먹던 힘을 다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노인은 그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꼴을 보면 볼수록 즐거워졌다. 돌연 일갈을 터뜨렸다.

"자 자, 두 명은 내게 절을 하고, 두 명은 나가떨어져라 ! 하나, 둘, 셋 !"

<셋 !> 하는 소리가 끝나자 팔을 흔들어 버렸다. 4 개의 긴 창이 동시에 부러졌다. 다섯 손가락에 사용한 힘의 방향을 달리 하여 2 개의 창은 밖으로 밀어 버렸고, 다른 2 개의 창은 안으로 끌어당겼다. 아이쿠, 하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며 과연 두 명의 무사는 절을 하듯 앞으로 고꾸라졌고, 다른 두 명은 밖으로 나가자빠졌다. 노인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예쁜 보석 구슬. 나가떨어졌지만 더 튼튼해지고 더 잘 자라네 !"

그것은 동요였다. 이는 어린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어른들이 그를 달래며 부르는 것이었다.

윤극서가 갑자기 깨달은 듯이 물었다.

"선배님의 성씨가 혹시 주(周)가 아니신가요 ?"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하하. 맞네 ! 어떻게 나를 알아 보지 ?"

윤극서가 일어서서 포권의 예를 취하며 말했다.

"노완동(老頑童) 주백통 노선배님이셨군요."

소상자는 평소에 이 이름을 익히 들어 왔었다. 금륜법왕과 니마성은 주백통이란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무공이 매우 심후하고 또한 손놀림이 익살맞아 정말 <노완동>이란 명칭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모두들 순간 적의가 사라져 얼굴 가득 웃음을 띠었다.

금륜법왕이 말했다.

"무림의 대선배를 알아보지 돗한 노구의 못난 눈을 용서하십시오. 자리에 오르심이 어떠신지요 ? 전하께서는 고명한 분을 찾고 계셨으니 필히 기뻐하실 겝니다."

쿠빌라이가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그렇소이다 ! 주선생께서는 이리로 앉으시지요."

주백통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배불리 먹었으니 더 먹을 필요가 없지. 곽정은 어디 있지 ? 그가 여기 없단 말인가 ?"

양과는 일찌기 황약사로부터 주백통과 곽정과의 관계를 들어 알고 있었다. 양과가 차갑게 말했다.

"그를 찾아 뭐하게요 ?"

주백통은 원래가 천진난만하여 어린아이와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좌석 가운데 양과가 가장 어린 것을 보고 그저 좋아했다. 그가 자신을 <노선배>나 <주선생>이라 부르지 않았어도 주백통은 기뻐했다.

"곽정은 나와 결의형제를 맺은 사이다. 너 혹시 그를 아느냐 ? 그는 어려서부터 몽고인과 함께 생활을 해 왔지. 그래서 나는 몽고인 천막에 숨어 들어 그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양과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지요 ?"

주백통은 곧이곧대로 대답했다.

"그가 내게 사람을 보내 영웅대연회에 참가해 달라고 했지. 가는 도중에 여기저기에서 놀고 있다가 며칠 늦게 도착하였더니 이미 다 끝나

버렸어. 제기랄, 재미없게 되었지."

"그들이 당신에게 전할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나요 ?"

주백통은 흰 눈을 번득이며 말했다.

"넌 왜 자꾸만 꼬치꼬치 물어 보느냐 ? 네가 곽정을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

"내가 왜 그들을 모르겠어요 ! 곽부인은 황용이라 하고, 그들의 딸은 곽부라 하지요."

주백통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틀렸어, 틀렸어 ! 황용 그 조그만 계집애가 무슨 아기를 낳아 !"

양과는 순간 멍청해졌으나 곧 알아차리고는 말했다.

"당신 그들 부부와 헤어진 지 몇 년이나 되었나요 ?"

주백통이 손가락을 꼽아 보며 말했다.

"이십 년이 되었구나."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 이십 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녀가 어린애란 말입니까 ? 이십 년이나 지났으면 아이를 낳다가도 남을 시간이에요."

주백통이 껄껄 웃자 흰 수염이 시원스럽게 움직였다.

"네 말이 맞다 ! 그들 젊은 부부의 딸애도 잘생겼겠지 ?"

"그 딸애는 엄마를 많이 닮고 곽정은 조금밖에 닮지 않았어요."

주백통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잘 되었구나. 계집아이가 짙은 눈썹에 커다란 눈, 그리고 곽정처럼 시커먼 얼굴이라면 예쁘다고 할 수 없지, 헤헤."

양과는 그가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자 계속 말했다.

"황용의 부친 도화도주 약사형과 나는 막역한 교분이 있는데 당신 혹시 그를 알고 있는지요 ?"

주백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너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황노사와 호형호제한단 말이냐 ? 네 놈의 사부가 도대체 누구냐 ?"

"내 사부는 너무 복잡하여 모두 말하면 아마 놀라 자빠질 것이오."

"내 놀라지 않으마 !"

주백통이 오른손을 들어 수중에 있던 빈 접시를 그에게 홱 던졌다. 휘익, 하는 소리가 여간 대단한 기세가 아니었다.

양과는 일찌기 주백통이 마옥,구처기 등의 사숙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손을 들어올릴 때 팔을 굽히지도 않고 지력으로만 내던진 것은 바로 전진파의 무공이었다. 양과는 전진무공에 대해서는 두려운 바가 없었기에 즉각 왼손 식지를 뻗어 접시 밑을 받쳐들자 그 접시는 손가락 위에서 뱅그르르 돌아갔다.

이렇게 되자 주백통은 매우 좋아했다. 그러나 소상자,윤극서,니마성 등은깜짝 놀랐다. 소상자는 처음 양과를 보았을 때 옷도 남루하고 나이도 어려 괘념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다시 생각했다.

(이 접시가 날아온 기세로 보아 나 같으면 손으로도 감히 받지 돗하겠는데, 하물며 손가락 하나로 받아 내다니.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손목이 잘릴 판인데 말야. 대체 저 소년의 내력은 어느 정도일까?)

주백통은 양과가 이처럼 접시를 손가락으로 받아 낸 것이 전진파 무공임을 알아내고는 물었다.

"너는 마옥,구처기를 아느냐 ?"

"그 두 말코들을 내가 어찌 모르겠소 ?"

주백통은 양과의 무례한 말에 매우 기뻐했다. 그는 구처기 등과는 비록 아무런 유감스러운 일이 없었지만, 그들이 너무 규율에 얽매어 지나치게 근엄하게 굴어서 실제로는 그들을 얕보고 있었다. 그가 평생토록 가장 존경하는 사형 왕중양을 제외하고는 바로 구지신개 홍칠공, 황약사의 엉뚱함, 황용의 교활함 등등에 은근히 의기투합되는 감이 있었다. 이때 양과가 마옥,구처기를 일컬어 <말코>라 부르자 귀에 쏙 들어와 다시 물었다.

"학대통, 그들은 어떻냐 ?"

양과는 <학대통> 세 자를 듣자 버럭 화를 내며 욕을 해 댔다.

"그 말코나부랭이 ! 언젠가는 그를 떡을 만들고야 말 작정이오."

주백통은 점점 더 신이 났다.

"어떻게 그를 곯려 주려느냐 ?"

"그의 손발을 묶어서 똥통에 한나절 정도 처넣어야지."

"그를 묶어서 똥통에 집어넣기 전에 내게 먼저 알려주게. 옆에서 몰래 훔쳐 봐야지......"

그는 사실 학대통에 대해 조금도 악의는 없었다. 단지 천성이 장난질을 좋아해서 재미나는 일肝있으면 끼지 않고는 못 견뎠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기억해 두지요. 그런데 왜 몰래 숨어서 봐요 ? 전진교의 말코들이 두렵나요 ?"

주백통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학대통의 사숙이다 ! 그가 나를 본다면 자연 구해 달라고 소리칠 게 아니냐 ? 그리 되면 구해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지. 구해 주게 되면 재미나는 구경거리가 없어지게 되잖아 !"

양과는 속으로 신음했다.

(이 노인네의 무공은 비록 매우 고강하지만 성질은 상당히 순박하구나. 그러나 어쨌든 전진파이며 곽정과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다. 대장부가 마음에 뜻을 품었으니 그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구나.)

주백통은 그가 마음속으로 독기를 품은 줄은 알지도 못하고 또 물었다.

"언제 학대통을 잡으러 갈래 ?"

"난 지금 갈 거요. 구경하고 싶으면 같이 갑시다."

주백통은 좋아서 손뼉을 치며 일어서다가 돌연 무엇이 생각났는지 도로 주저 앉으며 말했다.

"아, 안 되겠어. 난 양양(襄陽)으로 가야 해 !"

"양양에는 뭐 재미있는 일이 있나요 ?"

"곽형제가 육가장에 서신을 남겨 놓았지. 몽고 대군이 남하하면 필히 양양을 공격할 것이라고. 그는 중원 호걸들을 이끌고 가서 도우려는 게야. 나한테도 도와 달라고 하였어. 내 그를 계속 찾지 못했으니 양양으로 가 보는 수밖에......"

쿠빌라이와 금륜법왕이 서로 쳐다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중원의 무림인들이 양양에서 수성(守成)하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구나.)

이때 장막 문에 한 화상이 들어왔다. 약 40세 가량 되었는데 용모가 유유하며 행동거지가 서생 같았다. 그는 쿠빌라이 곁으로 다가가 머리를 숙여 몇 마디 중얼거렸다.

이 화상은 한족으로 법명으 자총(子聰)이며 쿠빌라이의 모사였다. 그의 속가명은 유간(劉侃)이모, 젊었을 때 관리를 지내다가 후에 출가하여 중이 되었다. 학문이 심오하고 일을 꼼꼼히 처리해 쿠빌라이의 대단한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는 쿠빌라이의 장막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각 들어온 것이었다.

주백통이 뱃가죽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화상, 좀 비켜 주시오. 소형제와 할 말이 있소이다. 소형제여,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

"양과라 합니다."

"사부는 누구신가 ?"

"내 사부는 여자라오. 그녀는 용모가 아름답고 무공도 매우 고강하지요. 그러나 그녀의 이름을 남들이 들먹거리는 것을 원치 않소."

주백통은 자신의옛 애인인 영고(瑛姑)를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두

번 해 댔다. 주백통은 매우 즐거워하며 옷소매를더 세차게 흔들더니 돌연 큰소리로 말했다.

"가겠네 !"

왼손을 들어 4개의 부러진 창끝을 소상자,니마성,윤극서,마광좌를

향해 던져 버렸다. 창끝은 쉭, 파공음을 내며 빠르게 날아갔다. 거리도 가까왔기 때문에 창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사람의 눈앞에 다가갔다.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피하는 게 이미 늦어 받아 낼 수밖에 없었다. 일제히 손을 뻗어 잡아내려는 순간 푹, 하는 소리가 나더니 4 개의 창끝이 모두 땅바닥에 꽂혀 버렸다. 그가 아주 교묘하게 던졌던 것이다. 던지자마자 거두어들여 창끝이 네 사람 앞까지 날아가다 돌연 밑으로 떨어져 땅에 꽂힌 것이었다. 마광좌는 우직한 사람이라 재미있다고 느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백발 노인이 재주도 정말 많습니다."

소상자 등 세 사람은 너무나 놀라 얼굴색이 파랗게 변했다. 창끝이 만약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들 배에 꽂혔다면 이미 자신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주백통은 네 명을 곯려 준 일에 성공하자 득의만면해 하며 장막을 나가려 했다. 자총이 말했다.

"주선생 ! 당신처럼 이러한 신통한 재주를 지는 사람은 천하에 드물지요. 소승이 전하를 대신해 한잔 올리지요."

자총이 가득 해운 술 한 잔을 그의 면전에대 내밀었다. 주백통은 단숨에 그것을 마셔 버렸다. 자총이 또 한 잔을 권하며 말했다.

"이것은 소승이 올리는 잔이랍니다 !"

조백통은 또 마셨다. 자총이 3 배를 따르려는 순간 주백통이 돌연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배야. 설사가 나오려 하네."

그는 웅크리고 앉아 허리띠를 풀어 장막 안에서 설사를 하려했다. 법왕 등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그를 말렸다. 주백통이 말했다.

"배가 아픈 것이 왜 잘못이냐 ? 설사하려는 게 아니다. 아이고 배야...... !"

양과는 자총을 쳐다보았다. 양과는 그가 술에 독을 넣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처음에는 주백통을 없애 버릴 생각을 했었다. 왜냐하면 그가 곽정을 도와 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뿐이지 이 노완동과는 아무런 원수진 일도 없으며 또 그가 천진난만해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일었다. 양과는 지금 그가 간계에 넘어가 괴로와하는 것을 보자 그를 일깨워 주어 쿠빌라이를 붙잡아 자총한테 해약을 얻으라고 말하려 했다. 순간 주백통이 소리쳤다.

"제기랄. 원래 독주란 너무 조금 마시면 배가 아프단 말야! 화상, 어서 독주를 더 갖고 오너라. 독하면 독할수록 좋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자총은 그가 죽음에 임박해 발작을 할까 두려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주백통이 성큼성큼 탁자 곁으로 다가갔다. 금륜법왕이 얼른 크빌라이 앞을 가로막았다. 주백통은 왼손으로 고이춤을 치켜올리며 오른손으로 독주가 가득 찬 술병을 들어 꾸룩꾸룩 마셔 대기 시작했다. 주백통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 버렸다.

사람들은 모두 대경실색을 했다. 주백통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됐다. 뱃속에 독물이 그득 찼으니 노완동이 노독물(老毒物)로 변한 것이 아니겠느냐? 독은 독으로 맞서야만 되는 것이야."

돌연 입을 벌려 입 안의 술을 자총에게 토해 뿜었다. 금륜법왕은 위험하다고 여겨 탁자를 잡아 일으켜 막아 냈다. 술은 쫙, 하고 탁자 위에 뿌려졌다.

주백통은 웃음을 그치지 않고 장막 밖으로 나가다가 돌연 동심이 일어났다. 기둥을 잡아 냅다 몇 차례 흔들어 대자, 우지직 소리를 내며 기둥이 부러졌다. 소가죽으로 된 큰 장막이 무너져 내려 쿠빌라이,금륜법왕,양과 등이 모두 안에 갇혀 버렸다. 주백통은 좋아라 하며 몸을 천막 위로 날려 천막 안의 사람들을 마구 짓밟기 시작했다. 금륜법왕이 그의 발바닥을 향해 일장을 격출했다. 주백통은 발밑으로 힘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으나 막아 낼 수가 없어 공중회전을 하여 내려섰다.

"야아, 신난다. 신나 !"

하고 외치면서 멀리 달아났다.

금륜법왕 등은 쿠빌라이를 호위하여 기어나온 후, 후다닥 장막을 일으켜 세워 다. 주백통은 이미 멀리 가 버린 후였다. 법왕과 소상자 등은 일제히 쿠빌라이에게 제대로 호위를 못 하여 욕되게한 점을 빌었다. 쿠빌라이는 조금도 개의치 고 오히려 주백통의 재주를 계속 칭찬했다. 그 같은 사람을 붙잡아 두지 못한 것이 못내 섭섭한 것 같았다. 법왕 등이 모두 얼굴을 들지 못했다.

즉각 다시 자리가 마련되었다. 쿠빌라이가 말했다.

"몽고 대군이 양양을 수차 공략하였지만 끝내 떨어지지 않았소. 지금 중원의 영웅 호걸들이 모여 수성을 할 것이며 또 주백통도 도우러 갔으니, 여러분들인 어떤 묘책을 갖고 있는지요 ?"

윤극서가 말했다.

"그 주백통의 무공이 비록 고강하나 우리들도 그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성을 공략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병졸은 병졸로, 장군은 장군으로 대항하겠습니다. 중원에 영웅이 만다지만 서역에도 영웅 호걸은 많습니다."

쿠빌라이가 말했다.

"말은 비록 그럴 듯하나 진군하기 전에는 필히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하오."

자총이 말했다.

"전하의 견해가 지극히 영명하......"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돌연 장막 밖에서 사람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안 간다고 하면 안 가는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권해도 소용없다."

바로 주백통의 고함소리였다. 그가 언제 돌아왔는지 또 누구와 말하고 있는지 몰똬 일어났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두들

나가 보고 싶었다. 쿠빌라이가 웃으며 말했다.

"자, 나가 봅시다. 그 노완동이 누구와 또 장난치는지 모르겠군."

모두들 장막 밖으로 나섰다. 주백통이 멀리 서쪽 끝의 광야에 서 있었고, 네 사람이 남,서,서북,북쪽 등 네 방향에 서 있었다. 둥글게 그를 에워싸 동쪽 방면만 비어 있었다. 주백통이 손발을 휘두르며 고함을 쳤다.

"안 가, 안 간대두 !"

양과는 이상하게 느꼈다.

(그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억지로 권하는 걸까 ? 왜 저렇게 다투는 것일까 ?)

그 네 사람은 모두 녹색 도포를 입게 있었다. 복장이 당시 복장이 아닌 이상한 옛날풍이었다. 세 명의 남자들은 중년으로 보였으며 모두 높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서북 방향에 서 있는 여자는 허리에 녹색 띠를 매고 있어 바람에 흩날렸다.

북쪽 방향에 서 있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절대로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귀존께서 무슨 짓을 하셔도 우린 모셔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부의 책망을 들을 것이니 이는 제자 된 도리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옵니다."

주백통은 익살스런 얼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네 말인즉, 이 늙은이가 길을 가다가 뜻하지 않게 화를 자초하여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렷다 !"

그 남자가 말했다.

"끝내 안 가시겠다는 겁니까 ?"

주백통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 남자가 손을 뻗어 동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아요, 좋아. 저기 그가 오는구나."

주백통이 고개를 돌려 봤으나 아무도 없었다. 순간 그 남자가 손짓을 하자 세 사람은 수중에서 녹색의 커다란 어망을 꺼내 주백통에게

획 뿌렸다. 이 네 사람의 수법은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으며 또한 상당히 기괴했다. 주백통의 무공이 비록 신출귀몰했지만 그 어망에 갇혀 버리게 되자 어쩔 줄을 몰라 당황했다. 네 사람은 어망을 들어올려 이리저리 단단하게 묶었다. 한 사람이 그를 어깨에 짊어지자 나머지 세 사람이 검을 들어 주위를 호위하며 동쪽으로 나는 듯이 달려갔다.

양과는 주백통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내가 구해 줘야겠구나.)

즉각 쫓아가며 말했다.

"이봐 ! 그를 어디로 잡아가는 것이냐 ?"

금륜법왕 등이 이처럼 괴이한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 곧바로 쿠빌라이에게 인사를 하고는 뒤쫓아갔다.

한참을 달려가자 시냇가가 나타났다. 네 사람은 주백통을 배에 태워 두 명이 노를 저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다. 법왕 등은 시냇가를 따라 한참을 또 쫓아갔다. 중간에서 조그만 배 한척을 발견하고는 즉시 올라탔다. 마광좌가 엄청난 힘으로 노를 저어가자 얼마 후 수장까지 추격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계류(溪流)가 구불구불 몇 차례 휘어져 있어 돌연 앞에 가던 배의 종적이 보이지 않았다.

니마성이 배에서 뛰어내려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원숭이처럼 10여 장을 올라가 사방을 훑어보니 녹색 인영(人影)이 어른거리는 배가 이미 서쪽 끝에 있는 아주 좁은 계류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계류의 입구를 커다란 나무들이 가리고 있어서 높이 올라가 보지 않았다면 이런 심산유곡에 별유천지가 있는 줄 몰랐을 것이다.

그는 배로 되돌아와 방향을 알려주었다. 모두들 황급히 뱃머리를 돌려 온 길을 되돌아가 그 나무 숲속으로 저어 들어갔다. 입구의 구멍이 수면과 세 척 정도 떨어져 있어 모두들 배에 찰싹 엎드려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또 한참을 저었다. 양편의 산봉우리가 우뚝 치솟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누군가 선을 그어 놓은 것 같았다. 산수경관이 매우 그윽했

다. 그러나 사방이 너무나 적막해 은근히 흉험(凶險)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 5리 정도를 저어 갔을 때 돌연 물 가운데에 9개의 바윗덩어리가 병풍처럼 솟아 있어 뱃길이 막혔다.

마광좌가 맨 먼저 소리쳤다.

"젠장,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

소상자가 딱하다는 듯이 말했다.

"네 황소 같은 힘으로 배를 들어올려 지나가야겠구나."

마광좌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겐 그만한 힘이 없어. 네가 요법을 사용해 보시지."

금륜법왕은 두 사람이 다투기 전에 이미 생각에 잠겼다.

(그 조그만 배는 어떻게 이 9개의 바위 병풍을 지나갔을까?)

두 사람의 말을 듣고는 말했다.

"한 사람 힘으로는 누구라도 이 배를 들어올릴 수가 없소. 우리 여섯명이 힘을 모으면 할수 있지. 양형제,윤형 그리고 내가 한쪽을, 니형,소형,마형 세 사람이 또 한쪽을 맡아 여섯 명이 동시에 들어올리는 것이 어떻겠소?"

모두들 그게 좋겠다고 대답했다. 여섯 명이 양편으로 나누어섰다. 모두들 단단히 발 놓을 자리를 찾았다. 마침 그 계곡이 매우 협소해 여섯 명이 양쪽에 서서 배를 잡아 쥐기에 적당했다. 법왕이 소리쳤다.

"들엇!"

여섯 명이 동시에 힘을 주었다. 여섯 명 중 양과와 윤극서만이 힘이 비교적 약했지만 나머지 네 명은 모두 몇 사람 몫의 힘을 냈다. 배는 수면에서 떨어져 이미 9개의 바윗덩어리가 만들어 놓은 병풍을 지나갔다.

모두들 뱃머리로 돌아와 일제히 손을 어루만지며 웃었다. 이 여섯 명은 원래 서로 경쟁심이 있어 약간의 적의는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합심 협력을 하고 나자 서로 친밀감을 느꼈다.

소상자가 말했다.

"우리 여섯 명의 무공이 비록 약한 것은 아니지만 무림계 안에서 일류 고수를 만났을 때 여섯 명이 합심해서 방금 배를 들듯이 한다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오. 그러나......"

니마성이 소상자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녹색 옷을 입은 네 명의 남녀들의 무공이엉터리였다면 배를 들어서 지나갈 수 있었을까 ?"

여섯 명 중 다섯 명은 이미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단지 마광좌만이 <무공이 엉터리라면> 하고 말한 니마성의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했다. 니마성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의 배가 작기는 했지만 사람이......, 네 사람이라면 적은 것이었어. 네 사람이 이렇게 해 냈다면 기운이......, 실로 대단한 것이지."

윤극서가 말했다.

"그 세 남자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한 명 말야. 그러니까 그 열 예닐곱 살 된 처녀는 결토 계산에 넣을 수가 없지. 이 바위 속에 필히 기관이 장치되어 있을 것이야. 우리가 생각지 못했을 뿐이야."

금륜법왕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용모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 여기 양형제를 보시오. 그는 어린 나이에도 절정 고수의 무공을 지니고 있지 않소 ! 만약 우리들이 직접 보지 않았다면 누가 믿겠소 ?"

양과가 겸손하게 말했다.

"소제(小弟) 말학 후배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러나 그 네 명의 녹의인들이 주백통을 묶어 갈 수 있을 정도라면 보통은 아닐 겁니다."

그의 말투는 겸손했으나 말하는 도중 이미 소상자 등일류 고수들과 호형호제하고 있었다. 그가 손가락 하나로 주백통이 날린 접시를 받아낸 것을 보았기에 모두들 그를 가볍게 볼 수가 없었다. 또한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겨 모두들 분분히 추측하기 시작했다.

이 여섯 명 중 양과는 나이가 어리고, 법왕,마광좌,니마성 셋은 서장에서 왔으며, 소상자는 심산에서 홀로 수련해 평소 밖의 사람과 왕래가 없었다. 단지 윤극서만이 중원의 문파, 인물, 무공,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이 네 명의 녹의 남녀의 내력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동안 어느새 시냇물이 끊긴 곳까지 왔다. 여섯 명은 땅으로 올라섰다. 그들은 오솔길을 따라서 계곡 깊숙이 들어갔다.

오솔길은 오직 길이 하나여서 길을 잘못 들 리가 없었다. 그러나 산길은 갈수록 높아지고 험해졌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으나 그 네 명의 녹의인의 종적은 보이지 않았다. 초조감을 느끼기 시작할 즈음 멀리서 몇 개의 불빛이 반짝거렸다. 모두들 매우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런 첩첩산중에 불빔이 있다면 이는 필시 인가일 것이다. 그 녹의인들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이 결코 이런 험준한 곳에 살 리가 없다.)

즉각 발에 힘을 주어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면서 모두들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이미 혼자 몸으로 강호를 돌아다니며 숱한 위험을 겪은 터였다. 지금 여섯 명의 고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입산했는데 천하에 누가 감히 막을 것인가 ? 비록 경계심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얼마 가지 않아 산 정상의 한 평평한 곳에 도달했다. 상당히 커다란 불더미가 활활 타고 있었다. 다시 수십 장을 가까이 가서 보니 불더미 뒤쪽에 분명하게 석실이 보였다.

니마성이 크게 외쳐 댔다.

"여보시오. 손님이 왔소이다 ! 어서 나와 보시오."

석실 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낮에 주백통을 잡아간 네 명의 녹의인이었다. 네 사람이 몸을 숙여 예를 표하였다. 오른쪽에 서 있던 사람이 말했다.

"귀빈들께서 멀리서 오셨는데 마중하지도 못하고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금륜법왕이 말했다.

"천만의 말씀을...... !"

그 사람이 말했다.

"들어오시지요."

금륜법왕 등 여섯 명은 석실 안으로 들어갔다. 석실 안은 텅 비어 있어 개의 의자와 탁자를 제외하고는시설물이라고는 없었다. 네 명의 녹의 남녀도 이어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맨 앞의 사람이 물었다.

"여섯 분 성함을 감히 물어도 될는지요 ?"

윤극서의 말솜씨가 비교적 뛰어나 웃으며 다섯 명을 소개하고 난 뒤, 맨 나중에 말했다.

"이 몸은 윤극서라 하오. 페르시아 대상으로 내 재주는 밥 먹는 것을 제외하곤 보석들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절정의 무예를 지니지는 못했지요."

그 녹의인이 말했다.

"이곳은 너무나 누추하여 외부인이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귀빈들께서 왕림해주셔서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그런데 여섯 분께서는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

윤극서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들은 네 분께서 그 노완동 주백통을 잡아가는 것을 보곤 호기심이 일어나 보러 온 것이지요. 이곳은 경관이 뛰어나 마치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아 과연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오."

첫째 녹의인이 꽤나 원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 소란스런 영감의 성이 주씨입니까 ? 노완동이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하군요."

둘째 녹의인이 말했다.

"여러분은 그와 동료이십니까 ?"

금륜법왕이 말을 이어받았다.

"우리도 그와 오늘이 초면이지요. 그러니까 교류가 깊다고 말 할 수는 없지요."

첫째 녹의인이 말했다.

"그 노완동은 계곡에 들어와 한바탕 크게 소란을 피웠답니다."

금륜법왕이 물었다.

"그가 무슨 소란을 피웠는지요 ?"

"말도 마세요 ! 후배는 사부의 명을 받들어 단로(丹爐)를 지키고 있얼지요. 그런데 그가 돌연 걷어차 단약을 쏟아 버렸지 뭡니까 ! 이 단약의 약초를 다시 전부 따려면, 아......,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하면서 분개하는 표정이 역력히 나타났다.

양과가 웃으며 녹의 소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를 말리지 못했다고 책망받았지요, 그렇죠 ?"

녹의 소녀가 말했다.

"네, 맞아요. 나는 지방(地方)에 있다가 단방(丹房)에서 소리가 들려 일이 생긴 줄 알고 막 일어서려는 순간, 그 영감이 번개같이 뛰어 들어왔어요. 손을 뻗더니 사백여 년 묵은 영지버섯을 날름 잘라 버렸답니다."

그 소녀는 나이가 17,8 세쯤 되어 보였으며 매우 흰 피부에 투명한 눈빛, 그리고 입술 근처에 조그마한 사마귀가 있었다.

"노완동은 정말 지독히 난리를 피웠구나. 영지버섯이 사백여 년 자란 것이라면 대단한 보물일 텐데......"

그 소녀가 탄식하겨 말했다.

"아버지께서 결혼하는 날 나와 계모에게 영지버섯을 나누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노완동이 망가뜨렸으니, 아버지께서 대로하실까 봐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 노완동은 영지를 잘라 품안에 집어넣고선 껄껄 웃기만 할 뿐 아무리 졸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에게 아무런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왜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요."

말하면서 소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매우 억울해 하는 것 같았다. 양과가 생각했다.

(노완동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처녀를 괴롭히는 것은 정말 몹쓸 짓인데......)

윤극서가 말했다.

"우리가 주인의 성명도 모르는 채 찾아들어 매우 예의에 어긋났군요."

그 소녀는 주저주저하며 대답을 안 했다. 첫째 녹의인이 말했다.

"곡주(谷主)의 허락이 없어 대답을 못 하는 것이니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양과가 깊이 생각했다.

(이들은 깊은 산중에 은거하며 이처럼 행적도 신비로와 결코 외부인에게 함부로 신분을 밝히려 하지 않는 게 당연하겠구나.)

"그 노완동이 영지를 빼앗은 후 또 무슨 짓을 했소 ?"

세째 녹의인이 말했다.

"그 영감은 단방, 지방에서 소란을 피우고도 부족했던지 또 서방(書房)에 뛰어들어와 책을 한 권 불쑥 빼더군요. 그곳은 내 담당이어서 부득불 막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는 오히려 <이런 애들 장난 같은 것이 뭐 대단하냐 ?> 하고 외치더니 단숨에 세권의 도서(道書)를 찢어 망가뜨렸답니다. 이때 대사형, 이사형, 그리고 사매가 일제히 들어왔길래 우리 네 명이서 힘을 합쳤지만 그를 막아 내기가 쉽지 않았다오."

둘째 녹의인이 말했다.

"그는 단방, 지방, 서방을 어리접히더니 끝내 검방(劍房)도 그냥지나치지 않았다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화를 버럭 내더군요. 검방에 병기......, 병기가 도대체 너무 많다고 하더니 즉각 불을 질렀답니다. 검방 벽의 그림들이 모조리 타 버렸지요. 우리들이 황급히 불을

끄는 틈을 이용해 그가 도망을 가 버렸답니다. 이 사건은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우리들은 그를 추격해 잡아와 곡주에게 넘겨 처리하려 합니다."

양과가 말했다.

"곡주께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 바라오."

세째 녹의인이 말했다.

"사부의 결혼이 눈앞에 있어 가볍게 사람을 죽일 수야 없지요. 그러나 만약 그 영감이 여전히 헛소리를 계속해 사부에게 화를 부른다면 남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소 ?"

윤극서가 웃으며 말했다.

"그 노완동이 어째서 일부러 존사를 괴롭혔는지 모르겠군요. 내가 볼 때 그는 베록 장난이 심하지만 성격은 그리 나쁜 것 같지 않던데......"

녹의 소녀가 말했다.

"그가 말하길,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그토록 많은데 여자를 얻으......"

대사형이 돌연 말을 받았다.

"그 노완동의 말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뭐 하나라도 맞는 데가 있어야지 ! 여러분들은 멀리서 오시느라 시장할 것이니 곧 식사를 차려 올리지요."

마광좌가 밝은 얼굴로 소리쳤다.

"그거 좋지 !"

네 명의 녹의인은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장만했다. 잠시 후 상이 차려졌다. 커다란 접시 4 개에 푸성귀, 두부, 콩나물, 표고 등으로 채워진 상 위에는 동물성 식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마광좌는 어려서부터 식사를 할 때 고기가 없으면 좋아하지 않았다. 눈앞의 접시에는 푸성귀 투성이여서 기름기라고는 한 방울도 보이지

않자 저으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첫째 녹의인이말했다.

"이 계곡 안에는 동물성 식품일랑 없으니 양해해 주시고 많이 드십시오."

말하면서 큰 병을 들어 사람들 앞에 있는 그릇에다 깨끗한 물을 그득 채워 주었다. 마광좌가 생각했다.

(이왕 고기가 없다면 술이라도 많이 마시는 수밖에 없겠군.)

잔을 들어 꿀꺽꿀꺽 두 모금을 마셨다. 담백하니 아무 맛도 없는 맹물이었다. 냅다 소리를 질러댔다.

"주인장이 얼마나 째째하길래 술도 한 모금 없단 말이오 ?"

첫째 녹의인이 말했裏

"계곡 안에서 술을 들지 않은 것은 수백 년간의 계율이오니 빈객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녹의 소녀가 말했다.

"우리들도 책에서만 <미주(美酒)>라는 두 글자를 보았을 뿐이에요. 대체 미주란 어떤 것이에요 ? 본 적이 있어야 알지...... 책에 말하기는 심성을 어지럽힌다고 했으니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금륜법왕,윤극서 등은 이 네 명의 녹의 남녀는 나이는 비록 많지 않지만 언행은 매우 정중하고 예의바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네 명 중 어느 한 명도 얼굴에 조금이라도 웃음을 띠는 것을 보지 못했다. 비록 얼굴에 싫어하는 기색은없었으나 말은 실제로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조금도 의기투합되는 데가 없어 제각기 모두 더 이상 말을 않고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네 명의 녹의인은 방에서 나간뒤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마광좌는 지금 곧바로 돌아가자고 졸랐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명은 계곡 안의 구석구석이 이상스럽게 여겨져 호기심이 일어나 모두들 조사해 보고 싶어했다. 윤극서가 권유했다.

"마형, 우리들이 기왕 여기까지 온데다가 내일이면 곡주를 만나게 될 텐데 어째서 벌써 돌아가자고 성화요 ?"

마광좌가 말했다.

"술도 없지, 고기도 없지,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 ? 여기서는 반나절도 살 수 없겠다, 젠장 !"

소상자가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다.

"모두들 안 가겠다는데 너 혼자서 왜 그러느냐 ?"

마광좌는 그의 강시 같은 용모를 속으로 두려워해 왔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자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여섯 명은 석실 안에서 자야 했다. 바닥에는 몇 장의 돗자리가 있을 뿐이었다. 이 계곡 안의 모든 것들은 모두 인정과는 거리가 멀어 절간의 사당보다도 더 무료하고 근엄했다. 사당의 화상이 비록 적막함에 익숙해 있다 해도 이처럼 차갑게 사람을 대하며 시종 웃는 얼굴을 나타내지 않기란 힘든 노릇일 것이었다. 오직 양과만이 고묘에서 자라나 얼음같이 차가운 소용녀와 죽음 같은 적막에 습관이 되어 조금도 의외로운 점을 느끼지 않을 뿐이었다.

니마성이 화가 나는 듯 말했다.

"노완동이 소란을 피우고 불을 지른 것은 매우 잘한 짓이야 !"

이 말을 하자 마광좌도 즉각 동감을 하며 칭찬을 해 댔다. 니마성이 말했다.

"금륜 노형, 당신은 우리 여섯 명의 우두머리로서 이 계곡의 곡주는 어떤 위인으로 여겨지는지요 ?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 내일 우리가 그에게 겸손하게 해야 할지, 아니면 박살을 내 버려야 할지요 ? 박살을 낸다면 어떻게 내야 하지요 ?"

금륜법왕이 말했다.

"이 곡주의 실력은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측하기 힘드요. 내일 하는 걸 봐서 적당히 처리하면 될 것이오."

윤극서가 말했다.

"그 녹의를 걸친 네 제자들의 무공이 대단하니 여기에는 반드시 더 높은 고수가 있을 것이오. 모두들 조심해야지,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어 여섯 명 모두 말려들게 된다면 매우 재미없게 될 것 같소."

마광좌는 여전히 반찬을 씹어 삼키기가 힘이 들었다고 투덜거리며 그의 말을 한 마디도 듣지 않았다. 양과가 말했다.

"내일 만약 조심하지 않아 그들에게 잡혀 한평생을 맹물하고 채소만 먹게 된다면 당신 뱃속에 있는 회충까지도 화가 나 죽게 될......"

마광좌는 대경실색하며 급히 말했다.

"알았어, 알았다구...... !"

이날 밤은 모두들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직 마광좌만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간혹 잠꼬대를 하였다.

"자, 자. 건배 ! 이 쇠고기는......"

****** 신 비 의 꽃 , 정 화 (情 花) ******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깬 양과는 석실을 나왔다. 어젯밤에는 깜깜하여 분명히 볼 수가 없었지만, 둘러보니 온통 초목이 무성하고 활짝 핀 꽃들은 비단과 같아서 가는 곳마다 풍물이 매우 아름다왔다. 이런 곳은 그야말로 쉽사리 보기 힘든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곳이었다. 이리저리 거니는데 길 옆으로는 선학(仙鶴)이 둘셋씩 모여 다니고, 흰 사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으며, 다람쥐와 토끼는 사람을 보고서도 놀라는 일이 없었다.

두 굽이를 돌자 그 녹의 소녀가 마침 길가에서 꽃을 꺾고 있다가 그를 보고 말했다.

"일찍 일어나셨군요. 이걸 아침 찬에 쓰세요."

말하면서 나무 위에서 꽃 두 송이를 따서 그에게 주었다.

양과는 꽃을 받아 들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아니, 그럼 꽃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

그녀가 꽃잎을 하나하나 따서 입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양과도 그대

로 따라서 몇 개를 집어먹었다. 입에 넣자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이 마치 꿀 같았으며 게다가 은근한 술기운까지 있어서 심신(心身)이 모두 트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몇 번 씹어 보니 쓰고 껄끄러운 맛이 나서 토해 내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뱃속으로 삼키자니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난처했다. 그가 꽃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 가지와 잎에 조그만 가시가 잔뜩 나 있었다. 꽃잎의 색깔은 교염(嬌艶)하기 짝이 없어 부용(芙蓉) 같으면서도 더욱 향기가 나고 산차(山茶) 같으면서도 더욱 어여뻤다.

"이건 무슨 꽃이지요 ? 나는 지금껏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정화(情花)라고 해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때요 ? 맛이 괜찮아요 ?"

"입에 들어갈 때는 달콤하더니 나중에는 도리어 쓴데...... 이 꽃을 정화라고 한다고 ? 이름도 꽤 재미있군요."

양과는 손을 뻗어 다시 꽃을 땄다. 이때 소녀가 말했다.

"조심하세요 ! 나무에 가시가 있어요. 건드리지 않도록 하세요 !"

양과는 가지에 난 뾰족한 가시를 피하여 조심조심 손을 뻗었다. 그러나 꽃송이 뒤에도 작은 가시가 숨겨져 있어 그만 손가락에 찔리고 말았다. 녹의 소녀가 말했다.

"이 골짜기는 <절정곡(絶情谷)>이라고 해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많은 정화기 피어 있답니다."

"왜 절정곡이라고 부를까 ? 이 이름은 분명히......, 분명히 평범하지가 않은데......"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 이름은 조종(祖宗)이 전해 내려 주신 이름이에요. 아버지께서는 혹시 내력을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코속으로는 물씬 꽃향기가 풍겨 왔고 길가에는 하얀 토끼와 아기 사슴들이 이리저리 뛰놀고 있었다. 양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해져 저

절로 소용녀 생각이 났다.

(만약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가씨라면 나는 정말로 영원히 이곳에서 살면서 다시는 골짜기를 나가지 않을 텐데......)

막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가시에 찔린 손가락에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상처는 아주 미세한데도 통증은 너무나 심하여 마치 누군가에게 커다란 쇠몽둥이로 가슴팍을 세게 얻어 맞은 것 같아서 참지 못하고 아야, 하고 소리를 내지르며 급히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녹의 소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

양과는 그녀에게 심사를 들키자 얼굴이 붉어지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다.

"아니, 소저가 어떻게 그것을 알지요 ?"

"몸 어느 곳을 정화의 조그만 가시에 찔리기만 하면 열 두 시간 안에는 누구를 그리워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이겨 낼 수가 없게 돼요."

양과는 너무도 기이했다.

"세상에 이런 괴이한 일이 어디 있담 !"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정(情)이란 것이 본래 이 꽃과 같아서 입에 들어갈 때는 달콤하지만 그 맛은 쓰고 온몸이 아파온다구요. 절대로 조심해서 그러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라구요. 아마도 이 꽃에 이런 특징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봐요."

"무엇 때문에 열 두 시간 안에는 그리움...... 그리움움...... 가지지 못한단 말인가요 ?"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화의 가시에는 독이 있대요. 무릇 어떤 사람이 정욕(情慾)을 품게 되면 피가 더 빨리 움직일 뿐만 아니라 피 속에도 뭔가 알 수 없는 물질이 생긴대요. 정화의 가시에 있는 독은 평소에는 사람에게 해가 없지만 일단 폐 속에 있는 이물질을 만나

면 즉시 고통을 주어 견디기 힘들어지나 봐요."

양과는 이 말을 듣고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반신반의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서 산의 양지 쪽에 이르렀다. 이곳은 햇빛이 밝게 비추고 기온도 따뜻하여 정화는 일찍 꽃을 피웠다가 지금은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열매를 보니 파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며, 어떤 것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고 무성하게 잔털이 나 있어서 마치 벌레처럼 보였다.

양과가 물었다.

"정화는 그토록 아름다운데 거기서 맺은 열매는 왜 이토록 보기가 흉할까요 ?"

"정화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맵고, 또 더한 것은 도저히 맡지 못할 악취가 나서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꿀처럼 달콤한 것은 없단 말이군요 ?"

녹의 소녀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있기는 있어요. 다만 열매의 겉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는 것 뿐이지요. 아주 추하고 괴상하게 생긴 것이 맛은 오히려 달콤해요. 하지만 보기 쓸은 것이 반드시 달콤한 것은 아니에요. 오직 직접 입으로 맛을 봐야 알 수가 있지요. 열 개 중에 아홉 개는 맛이 써요. 그래서 모두들 그것을 먹지 않지요."

양과는 생각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비록 정화에 대한 것이지만 마치 남녀의 정을 비유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리워하는 정이 처음에는 비록 달콤하지만 나중에 가면 반드시 쓰게 된단 말인가 ? 한쌍의 남녀가 온 마음을 쏟아 서로 사랑하면 추한 것이 많고 아름다운 것은 적단 말인가 ? 내가 이토록 괴롭게 아가씨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설마......)

그가 소용녀를 한번 생각하자 돌연 손가락에 다시 격렬한 통증이 몰려와 저도 모르게 오른팔을 몇 번 크게 흔들어 댔다. 그 녹의 소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양과는 그제서야 알았다. 녹의 소녀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입술을 살짝 움직이며 웃으려고 하는 듯하다가 다시 참았다. 이때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미목이 본래 청아한데다가 온통 하얀 피부에 엷게 붉은 빛이 감돌아 더없이 아름다왔다.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전에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지요. 옛날 어떤 나라에 한 국왕이 있었는데 봉화로 제후들을 희롱하여 천하강산을 잃었다는군요. 그런데 그것이 한 절대가인이 웃는 모습을 보려고 그랬다는 거지 뭐였겠어요! 웃음 한번 얻기가 예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여전하군......"

녹의 소녀는 양과가 그렇게 놀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여 킥킥 소리를 내며 웃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양과는 그녀가 줄곧 얼음처럼 차갑게 대하여 속으로 퍽이나 꺼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밝게 웃자 두 사람 사이에 놓였던 벽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양과가 다시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웃음을 한번 얻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지요. 한번 웃게 하려면 성을 빼앗기고 다시 웃게 하려면 나라를 빼앗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미인에게는 웃음보다도 더 얻기 힘든 것이 있지요."

녹의 소녀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그게 뭐지요?"

"그건 바로 미인의 이름이라오. 미인을 한번 쳐다보는 것도 크나큰 인연이지만 그녀가 어여쁘게 웃는 모습을 한번 보려면 조상대대로 덕을 쌓고 자기도 3세(世)에 걸쳐 행실을 닦아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녹의 소녀는 이미 쿡쿡, 웃기 시작했다. 양과는 여전히 정색을 하고 말했다.

"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 꽃 같은 이름을 털어놓게 하려면 그야말로 조상 대대로 18대 동안 음공(陰功)을 넓게 쌓아야 한다죠 !"

"저는 결코 미인이 아니에요. 이 골짜기에서는 제게 아름답다고 말한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는데......, 왜 자꾸 놀리시는 거예요 ?"

양과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다.

"아아, 이 산골짜기의 이름이 절정곡이라, 하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군요."

"무슨 이름으로 바꾼단 말예요 ?"

"당연히 맹인곡(盲人谷)이라고 해야지."

녹의 소녀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왜요 ?"

"소저가 이토록 아름다운데 그들은 소저를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으니 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장님이 아니고 뭐겠소."

녹의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예쁘게 웃었다. 사실 그녀의 용모는 매우 뛰어나긴 했지만 소용녀와 비교하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정영의 부드러움과 육무쌍의 빼어남에 비해서도 얼마간의 손색이 있는 듯했다. 다만 그녀에게는 수려하고 우아하여 세속을 벗어난 청량한 멋이 있었다. 그녀는 일생 동인 그녀의 미모를 찬미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녀가 익히는 공부는 거의 선문(禪門)에 가까와서 서로 마주 볼 때에도 얼음처럼 차가와 안색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 설사 심중으로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히 입에 담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갑자기 양과를 만났고, 그는 거칠 것 없는 성격으로 그녀가 단정하고 엄숙해서 그렇듯 사람을 천리 밖으로 멀리 하려는 태도를 없애 버린 것이다. 그녀는 양과의 말을 듣고 아주 흡족해 했다.

"당신이 바로 장님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추하기 짝이 없는 여자를 미인이라고 하다니요."

양과는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다.

"내가 잘못 봤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요. 하지만 이 골짜기가 태평무사하려면 소저가 원래 웃으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왜요 ?"

"옛날 사람들은 한번 웃으면 성을 잃고 다시 웃으면 나라를 잃는다고 했지만, 사실 다른 글자를 써야 옳지요. 이 글자는 국토(國土)의 국(國)이 아니라 산곡(山谷)의 곡(谷)으로 써야 할 것이오."

녹의 소녀는 살며시 허리를 굽히고 웃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와요. 하지만 이제 다시는 저를 놀리지 마세요."

양과는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보고 상체가 살며시 떨리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동요했다. 전혀 긴장을 하지 않고 마음이 동요하자 손가락에 다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녹의 소녀는 그가 계속하여 손가락을 흔드는 것을 보고 은근히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 성을 내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도리어 마음속에 있는 사람만을 생각하고 있군요."

"야하 ! 억울하군, 억울해 ! 나는 소저 때문에 손가락이 아파 죽겠는데 소저는 도리어 나를 탓하다니......"

녹의 소녀는 얼굴이 온통 붉어지며 갑자기 발길을 돌려 뛰어갔다.

양과는 이 말을 하자마자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아가씨에게 한마음 한뜻을 다하기로 하고도 이 버릇없고 못된 성질은 왜 끝내 고쳐지지 않는 것일까 ? 양과야, 양과야 ! 이 못된 녀석아. 다시는 그 따위 망언을 하지 말아라.)

그는 천성적으로 아버지의 경박무뢰함을 타고나서 비록 결코 악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매번 소녀와 몇 마디 우스갯소리를 하여 상대방의 정신을 혼란하게 해 놓고는 도리어 자기는 좋아하는 것이었다.

녹의 소녀는 몇 장을 뛰어가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한 그루 정화 나무 아래에 서서 고개를 늘어뜨리고 정신이 달아난 듯한 모습을 지었

다. 잠시 후, 녹의 소녀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만약 한 추한 여자가 이름을 당신에게 말한다면, 분명히 조상 18 대가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자손에게 화를 끼치는 것이 되겠지요 ?"

양과가 가까이 걸어가서 웃으며 말했다.

"소저는 말을 거꾸로 하기를 참 좋아하는군요. 우리 조상 18 대가 이토록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나에게 이르러서는 좋은 보답이 있을 것이오."

이 몇 마디 말은 여전히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당신에게만 말할 테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를 불러서도 안 돼요 !"

양과는 혀를 내밀고 말했다.

"당돌한 미인이시여, 나는 자손이 끊어지는 것이 두렵지도 않은 줄 아시오 !"

그 아가씨는 다시 예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복성으로 공손(公孫)씨......"

그녀는 자기의 이름을 곧바로 말하려고 하지 않고, 이리저리 말끝을 돌렸다. 양과가 말참견을 했다.

"소저의 성만 모르는 게 아니오."

녹의 소녀는 가볍게 입술을 다물고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외동딸의 이름을 녹악(綠악)이라고 지으셨어요."

"과연 이름도 사람처럼 아름답구나."

양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공손녹악(公孫綠악)은 성과이름을 양과에게 말하고 나자 그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만나고자 하셨을 때 절 보고 웃으면 안 돼요.]

"웃는 것이 어때서 ?]

공손녹악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만약 그분이 내가 당신에게 웃은 것을 아시면, 또 내가 당신에게 이름을 말한 것을 아시면 정말 어떻게 벌을 내리실지 몰라요."

"그렇게 엄한 아버지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요. 딸이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웃는 것도 안 되다니...... 이토록 꽃 같고 옥 같은 딸을 설마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

공손녹악은 그가 이와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가가 붉어지며 말했다.

"이전에는 아버지도 나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여섯 살이 되던 그 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나에게 갈수록 사납게 대하셨어요. 그분이 새엄마를 맞으시면 또 어떻게 대할지 알 수가 없어요."

녹의 소녀의 두 뺨에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렸다. 양과는 위로하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결혼하시면 매우 신이 나서 반드시 소저에게 더욱 잘해주실 거요."

녹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차라리 그분이 나에게 더욱 무섭게 대하시더라도 새엄마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과는 부모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이런 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양과는 그녀의 마음을 풀어 주려고 말했다.

"소저의 새엄마는 소저의 반만큼도 아름답지 않을 거야."

녹악이 황급히 말했다.

"틀렸어요. 새엄마야말로 정말 미인인걸요. 아버지는 그녀를 위해서는......, 그녀를 위해서는...... 어제 우리가 그 주가라는 늙은이를 잡아 왔었는데, 만약 아버지께서 혼사를 처리하시느라 바쁘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 노완동을 다시 달아나게 하지는 않았을거예요."

양과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물었다.

"노완동이 또 도망쳤단 말이오 ?"

녹악은 눈썹을 약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럼 안 그랬겠어요 ?"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하는 동안 아침해는 점점 높이 올라갔다. 녹악은 흠칫 놀라 말했다.

"어서 돌아가세요. 사형들이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 알리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녀의 말을 들은 양과는 가련한 생각이 뭉클 일었다. 그는 왼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의 뜻을 보였다. 공손녹악은 매우 감격스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붉게 상기되었다. 양과는 다시 소용녀를 생각하다가 손가락이 다시 아플까 봐 빨리 걸어서 석실로 돌아갔다.

그가 아직 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마광좌가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다. 원망을 품은 말투로 맹물과 푸른 채소만 어떻게 뱃속에 집어넣겠느냐, 또 이런 쓰지도 달지도 않은 꽃이파리까지 먹으라고 하다니 너무하는게 아니냐, 하며 떠들어 대고 있었다. 윤극서가 웃으며 말했다.

"마형, 몸에 무슨 보물이라도 지니고 있으면 단단히 챙기시오. 이 골짜기의 주인이 아무래도 썩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게 틀림없는 듯하오."

마광좌는 그가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옳다고만 했다. 양과가 안으로 들어가자 돌탁자 위에는 정화 꽃잎이 여러 쟁반 쌓여 있었다. 사람마다 모두 꽃잎을 먹고 나서 근심스런 얼굴과 고통스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금륜법왕, 이 화상까지도 정화에 당했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가 물잔을 들어 두 모금 정도 마시고 있을 때였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녹색 도포를 걸친 사람이 들어와 두 손을 모으고 몸을 굽히며 말했다.

"곡주(谷主)께서 여섯 분 귀객을 뵙고자 하십니다."

법왕,니마성 등은 모두가 일 파의 종사로서 어디를 가든지 주인이 언제나 친히 마중을 나왔으며 심지어는 대몽고국의 네째 왕자 쿠빌라이까지도 예와 공경을 다했는데, 이러한 심산유곡에 와서 이토록 뻿뻿하고 무례한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각자 모두 분한 생각이 일어났다.

(이놈의 곡주 자식! 만나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가 본때를 보여 줘야겠군.)

여섯 사람은 그 녹색 도포를 걸친 사람을 따라서 산의 뒤쪽으로 갔다. 1리(里) 남짓 걸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초록색이 널리 펼쳐진 커다란 죽림(竹林)이 하나 나타났다. 북방은 대나무가 극히 적어서 이토록 큰 죽림은 더욱 보기가 힘들었다. 일곱 사람이 푸른 대나무 사이를 뚫고 들어가자 한 줄기 담담한 꽃향기가 나서 세속의 번뇌가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죽림을 뚫고 지나가니 돌연 한 차례 맑은 향기가 솟아올라왔다. 눈앞에는 온통 수선화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원래 땅이 아주 얕은 연못으로 한 자도 채 안 되었는데 온통 수선화를 심은 것이었다.이 꽃도 남방에서나 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관락(관洛) 사이에 있는 산꼭대기에 이처럼 만개해 있는지 금륜법왕은 생각했다.

(분명히 이 산봉우리 아래에 온천 같은 것이 있어서 기온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일 거야.)

연못에는 매 4,5 자 간격으로 나무 말뚝이 하나씩 박혀 있었다. 길을 인도하는 녹색 도포를 입은 사람은 껑충껑충 뛰어서 말뚝을 밟고 건넜다. 여섯 사람은 그대로 따라서 했다. 오직 마광좌만이 몸이 무겁고 경공도 차이가 나서 발걸음은 비록 컸지만 한 번에 4,5자를 뛰어넘지 못하고 뒤편에 처져서 줄곧 발목을 적시며 지나갔다.

푸른 들판을 가로지른 길이 끝나는 곳에서 멀리 산그늘에 커다란 석실이 보였다. 일곱 사람이 가까이 가자 녹삼을 입은 두 명의 어린 시동이 손에 털이개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한 어린 시동은 들어가

서 보고하고 다른 하나는 문을 열고 객을 맞아들였다. 양과는 생각했다.

(곡주가 끝내 문을 나와 영접하지 않는단 말인가 ?)

하는 생각이 해 끝나기도 전에 석실 안에서 몸에 녹포(綠袍)를 걸친 수염이 긴 노인이 나타났다.

이 노인은 몸이 극히 왜소하여 4 자도 되지 않았으며모습도 매우 기이했다. 가장 기이한 것은 한 가닥의 길다란 수염이 땅에까지 내려오고, 몸에는 녹색의 도포를 입고 허리에는 녹색의 풀띠를 매고 있었던 점이었다. 양과는 생각했다.

(이 곡주는 이토록 괴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낳은 딸은 그가 낳았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구나.)

그 노인은 여섯 사람에게 깊이 몸을 굽히고 말했다.

"귀하신 손님들께서 이렇게 와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안으로 드셔서 차를 드시지요."

마광좌는 이 <차>라는 소리를 듣고 눈썹을 찌푸리며 큰소리로말했다.

"차를 마신다구 ? 어디 차를 못 마셔 환장한 놈이 있다더냐 ? 차 한잔 마시러 여기까지 와야 하다니......"

수염이 긴 노인은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를 한번 쳐다 보고 몸을 굽혔다.

니마성은 생각했다.

(나도 작지만 이 곡주는 나보다 더 작구나. 그래 작은 것은 네가 더 작지만 무공은 누가 더 강한지 어디 한번 보자구......)

그는 먼저 앞으로 나서서 손을 내밀고 웃으며 말했다.

"반갑습니다...... 반가와요."

노인의 손을 잡고 즉시 손에 힘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둘이서 손을 내밀고악수를 하는 것을 보고 각자 몇 걸음 물러섰다. 양대 고수가 힘을 겨루려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님을 알았다.

니마성이 손에 힘을 주자 상대방은 반격도 하지 않고 다항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더욱 힘을 가했지만 딱딱한 나무를 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계속해서 힘을 가하자 그 노인의 얼굴에 녹색의 기운이 번쩍 스쳐갈 뿐, 그 손은 여전히 나무처럼 딱딱하기만 했다. 니마성을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감히 마지막 힘까지 다 사용할 수는 없었다. 전력을 다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반격한다면 당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니마성은 즉시 하하 웃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의 손에서 벗어 났다.

금륜법왕은 그들 바로 옆에 있었다. 니마성의 모습을 보고 그는 그 노인의 무공이 깊고 얕음을 시험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았다. 상대의 허와 실이 분명하지 않으니 자기는 함부로 손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즉시 두 손을 합장하고 걸어 들어갔다. 소상자,윤극서 두 사람이 차례로 들어가고 그 다음은 마광좌였다. 그는 그 노인의 긴 수염이 땅에까지 닿는 것을 보고 매우 괴이하게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 정화 꽃잎 몇 개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만 고팠다. 이때 갑자기 배고픔이 성난 불길처럼 치솟아 문 안으로 들어서며 돌연 큰 걸음을 내디뎌 그 노인의 수염 끝을 밟고 말았다. 노인은 전혀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귀객은 조심하십시오."

마광좌가 다른 한쪽 발도 그의 수염을 밟고 말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쩔 테요 ?"

노인이 살며시 고개를 흔들자 마광좌는 꼼짝 않고 서 있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고 쿠당탕 넘어졌다. 이런 거인이 넘어지는 것은 실로 보기 드문 일이었다. 양과는 맨 뒤에 서 있다가 급히 두 걸음 나서서 손바닥을 펴 그의 팔을 잡고 힘을 주어, 그의 거대한 몸집을 있으켰다. 마광좌는 말뚝처럼 서서 두 손으로 자기의 팔을 쓰다듬으며 멍하게 서 있었다.

노인은 못 본 체하고 여섯 사람에게 대청 서쪽 모퉁이에 앉게한 뒤,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귀한 손님들께서 이르셨으니 곡주님께서는 객을 뵈시지요."

양과 등은 모두 깜짝 놀랐다.

(이제 보니 이 난장이는 곡주가 아니었구나.)

후당에서 10여 명의 녹삼을 입은 남녀가 돌아 나와 왼쪽에 일렬로 섰다. 공손녹악도 그 안에 있었다. 다시 얼마간 지나자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돌아 나와 여섯 사람에게 읍을 하고 서서히 동쪽 끝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았다. 긴 수염의 노인은 두 손을 드리우고 그의 옆에서 있었다. 그 사람의 풍채를 보니 과연 곡주였다.

그 사람은 45,6 세 가량의 나이로 얼굴과 눈이 빼어나고 행동거지가 단정하여 대청을 나와 읍을 하고 앉는 동작에 고고한 자태가 있었다. 다만 얼굴이 온통 누렇고 말라서 몸에 절세의 높은 무공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가 자리에 앉자 몇 명의 녹의를 입은 동자가 차를 바쳤다. 대청 안에 늘어놓은 것이 온통 녹색이었는데, 곡주가 걸친 도포는 훌륭한 보람(寶藍)으로 만든 것이어서 모든 녹색 중에서 가장 눈부셨다.

곡주는 소매를 한번 휘둘러 찻잔을 단정하게 들고 말했다.

"귀객께서는 어서 차를 드시지요."

마광좌는 차가 얼음처럼 차갑고 물 위에 두세 조각 찻잎만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고, 싱겁기 그지없다고 생각했다.

"주인장, 당신은 고기도 못 먹고 차도 제대로 못 마시니 그렇게 얼굴이 온통 병색인 게 이상할 것도 없지요."

곡주는 전혀 포정이 없이 차를 한 모금마신 뒤 말했다.

"이 골짜기에서는 수백 년 동안 계속 소식(素食)을 해 왔습니다."

마광좌가 말했다.

"그게 뭐가 좋습니까 ? 그러고도 장생불로할 수 있겠습니까 ?"

곡주가 말했다.

"저희 조상께서 당 현종(玄宗) 때 이 골짜기에 옮기시어 은거하면서

부터 시잔된 소식의 계율을 자손들은 감히 깰 수가 없습니다."

금륜법왕이 손을 모으며 말했다.

"원래 존부(尊府)께서는 천보(天寶)년간에 이쪽으로 옮기셨으니 참으로 세세로 그 은택을 입고 계시군요."

곡주도 팔을 모으며 말했다.

"천만에요."

소상자가 돌연 괴이한 소리로 물었다.

"그러면 당신 조상께서는 양귀비(楊貴妃)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목소리는 너무도 괴이했다. 니마성과 윤글서 등은 그의 목소리가 귀에 익은 사이였지만 갑자기 이상하다고 여겨 모두 고개를 돌리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본래 나면서부터 시체와 같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더욱 괴이해져 있었다. 금륜법왕,니마성 등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두려워하며 생각했다.

(이제 보니 이 사람의 내공이 이토록 무시무시하여 용모까지도 온통 변화시키는구나. 그는 몰래 내공을 움직여서 즉시 소란을 피우려고 곡주에게 안색을 드러내는 것인가 ?)

각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서 바짝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

곡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 이곳으로 옮기신 저희 조상께서는 분명히 당 현종 때 조정에서 관직을 지내셨습니다. 뒤에 양국충(楊國忠)이 조정을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 울분이 치밀어 은거하신 것입니다."

소상자가 킥킥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당신의 조종께서는 당연히 양귀비가 발 씻은 물을 마셨겠군요 ?"

이 말이 나오자 대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은 바로 곡주에게 싸움을 청하는 것으로, 순식간에 손을 쓸 기세였다. 법

왕 등은 모두 괴이한 느낌이 들었다.

(이 소상자는 본래 몹시 음험하구나. 다른 때에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이 나서서 처리하도록 하더니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 먼저 나서는 것일까 ?)

곡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뒤에 서 있는 긴 수염의 노인을 향하여 손을 한번 흔들었다.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곡주께서는 당신들을 손님이라고 공경하시어 예로써 대우하시는데 어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오 ?"

소상자가 다시 킥킥 웃으며 괴이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의 노조종께서는 당년에 양귀비가 발 씻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마시지 않았다면 내 목을 베어 당신께 드리지요."

마광좌는 너무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물어 보았다.

"소상형,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 설마 당신이 그때 같이 마신 것은 아니겠지요 ?"

소상자가 하하, 하고 크게 웃자 목소리가 다시 변했다.

"만약에 발 씻은 물을 마시어 위가 뒤집혀지지 않았다면 왜 육류와 생선을 먹지 못한단 말이오 ?"

마광좌는 손바닥을 치고 크게 웃으며 소리쳤다.

"맞다, 맞아. 분명히 그런 곡절이 있을 것이다."

금륜법왕 등은 심하게 눈썹을 찌푸리며 소상자의 이 말은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음식을 습성대로 먹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비웃을 수 있단 말인가 ? 하물며 여섯 사람은 깊은 골짜기에 들어왔고, 상대방도 이쪽을 결코 좋은 부류가 아님을 알고 손을 써서 겨루려고 하는 판인데, 마땅히 어느 정도의 여지는 남겨 놓아야 할 일이었다.

수염이 긴 노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청 중안으로 걸어와 말했다.

"소상선생, 우리 골짜기에 당신을 누를 사람이없을 것 같습니까 ? 당신이 이미 기량을 겨루기로 하셨다면 한번 나서 보시죠 ?"

소상자가 말했다.

"좋소 !"

그는 기대고 앉았던 의자와 함께 앞에 일는 탁자를 뛰어넘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대청 한가운데에 앉아서 소리쳤다.

"수염 긴 늙은이,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뇨 ? 그대는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이름도 모르고 손을 쓴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소 ! 이렇게 눈앞에서 나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지......"

이 몇 마디 말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통하는 것 같기도 하여 수염 긴 노인을 더욱 화나게 했다. 그는 소상자의 의자와 함께 뛰어 날아가는 무공이 마치 나는 듯 가벼워, 그가 보통이 아님을 알고 경계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곡주가 말했다.

"말로 하거라, 때리지는 말고......"

수염 긴 노인이 말했다.

"좋소. 내 성은 번(樊)이요, 이름은 일옹(一翁)이라고 하오. 일어나서 한 초 가르쳐 주시지요."

소상자가 말했다.

"그대는 무슨 병기를 사용할 작정이오 ? 우선 가지고 와서 내게 보여 주시오."

번일옹이 말했다.

"무기로 겨루자구요 ? 그것도 좋지요."

오른발로 땅을 한 번 차며 외쳤다.

"가지고 와라 !"

두 명의 녹의 동자가 내실로 분주히 뛰어갔다. 이윽고 그들은 어깨에 길이가 1장 1척은 되는 용두강장(龍頭鋼杖)을 메고 나왔다. 양과등은 모두 깜짝 놀랐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무기를 이 난장이가 어떻게 사용한담 ?)

소상자만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장포(長袍)에서 커다란 가위를 하나 꺼내며 말했다.

"그대는 이 가위를 어디에 쓰는지 알고 있소 ?"

뭇사람들은 이 커다란 가위를 보고 저도 모르게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양과는 누구보다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얼른 손을 뻗어 주머니를 더듬어 볼 필요도 없어 ㉧다. 등만 살짝 세워 보아도 주머니의 큰 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큰 가위는 풍철장(馮鐵匠)이 내게 만들어 주어 이막수의 불진을 자르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이 시체 같은 자가 몰래 훔쳐가는 걸 나는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을까 ?)

번일옹은 강장을 받아들고 바닥을 한 번 쳤다. 석실의 대청은 극히 넓게 틔어 있어서 강장을 한번 내려치자 웅웅거리는 소리가 크게 진동하며 사방의 벽에서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겹쳐서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다.

소상자는 오른손으로 가위를 잡고 손가락으로 있는 힘을 다해 지탱해서야 그런대로 가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어이, 난장이 털보. 네가 나의 이 보전(寶剪)의 이름을 보르니 내가 알려줘야겠구나."

번일옹이 노하여 말했다.

"이런 사파(邪派)의 무기에도 무슨 고아(高雅)한 이름이 있단 말이냐 ?"

소상자는 하하, 하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름은 확실히 고아하지 못하구나. 이건 구모전(狗毛剪)이라고 하지."

양과는 몹시 불쾌했다.

(나의 훌륭한 가위에게 네 어찌 이런 듣지 못할 상말을 짓는단 말인가.)

소상자가 다시 말했다.

"내가 일찍부터 이곳에 수염이 긴 괴물이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이 구모전을 만들어서 그대의 수염을 싹 깎아 주려고 하는거다."

마광좌와 니마성은 소리내어 크게 웃고 윤극서와 양과도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금륜법왕만이 단정하고 엄하게 곡주와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 앉아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번일옹이 강장을 치켜들고 약간 흔들자 한 줄기 바람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나도 원래 수염이 너무 긴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가 면도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도 없지. 자, 어디 한번 해 보시지 !"

소상자가 고개를 들고 대청을 가로지른 대들보를 바라보며 얼빠진 표정으로 그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 듯하더니, 갑자기 오른팔을 번개처럼 앞으로 뻗자 키익, 하는 소리와 함께 큰 가위가 그의 수염을 자르려고 했다. 번일옹은 그가 의자에 앉아 있어서 이토록 급작스럽게 공격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위급한 중에 피할 겨를도 없어 강장으로 급히 맞서며 몸이 위로 솟구쳐 한장 남짓한 높이에서 몸을 돌렸다. 강장은 여전히 땅에 버티고 일었다. 소상자의 이번 공격이 예기치 않게 빨랐고 번일옹의 피하는 솜씨도 무척 잽싸서 한번 찌르고 한번 피하면서 두 고수는 순식간에 상승의 무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번일옹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는 했지만 끝내 세 가닥의 수염이 가위 끝에 잘려 나갔다.

소상자는 아주 득의만면하여 왼손으로 수염을 들고 입을 벌려 한 번 불자 세 가닥 수염이 탁자 위에 있는 찻잔으로 날아가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찻잔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다. 양과 등은 모두 소상자가 알부러 허초를 부려 희롱한 것으로서, 찻잔을 밀어 떨어뜨린 것은 그가 분 입김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광좌는 그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직 세 가닥 수염이 그의 이런 입김에 그토록 큰 힘이 생긴 것으로 알고 크게 소리쳤다.

"소형, 당신의 수염은 정말 무시무시하군 !"

소상자는 하하 웃으며 가위를 끼고 외쳤다.

"난장이 털보, 다시 한번 내 구모전을 시험해 보겠나 ?"

사람들은 그가 비록 마음껏 길게 웃으면서도 차가운 얼굴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내공을 상승의 경지에까지 수련하면 원래 희로애락의 감정이 안색에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는 화를 내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웃으며 매우 기뻐하면서도 얼굴은 도리어 음침하여 두렵게 보이는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구나.)

그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보기가 아주 역겨워서 사람들은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번일옹은 계속 희롱을 당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곡주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사부님, 제자 오늘은 더 이상 손님을 공경하는 예로 사람을 대할 수가 없겠습니다."

양과는 몹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난장이는 나이도 곡주보다 훨씬 많을 텐데 어째서 그를 사부라고 부르지 ?)

곡주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왼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번일옹은 강장을 휘두르며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소상자가 앉은 의자를 향해 공격했다. 그는 몸집이 비록 작았지만 신력은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여서, 백 근이 넘는 강장을 휘두르자 바람소리가 매우 요란하게 일어났다.

양과 등은 비록 소상자와 함께 왔지만 그가 어느 정도의 무공을 수련했는가 하는 것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 강장이 의자의 다리와 반 자도 안 되는 거리에 이르자 소상자는 왼팔을 아래로 늘어뜨리더니 마침내 손을 뻗어 강장의 끝을 잡고 동시에 가위를 펼쳐 다시 상대방의 길다란 수염을 잘랐다. 번일옹은 노기충천하여 생각했다.

(네가 끝내 나를 이렇게 가지고 놀겠다는 거냐 ?)

번일옹은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여 길다란 수염을 휘두르며 강장으로 그의 손을 쓸어 가서 곧바로 그의 손바닥을 쳤다. 사람들은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이 일격에 소상자는 손바닥에 크게 중상을 입었으리라고 생각했다. 번일옹은 도리어 강장이 물 속을 친 것같이 부드러워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을 느끼고 어찌 된 일인지 몰라 급히 강장을 거두어들였다. 뜻밖에도 소상자가 팔꿈치를 날려 이미 강장의 끝을 잡고 있었다.

번일옹은 상대방이 즉시 바짝 대들어 강장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강장을 앞으로 밀었다. 이 튕기는 힘이 무척 무시무시하여 소상자가 당장 의자에서 떨어지지 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연인대의(連人帶椅)로 뛰어 왼쪽으로 피했다. 강장은 곧장 허공으로 떨어졌다. 그의 손가락은 강장의 끝을 놓지 않을 수 없었다. 번일옹이 왼손으로 강장의끝을 돌리자 강장은 원을 그리며 적의 머리를 향하여 날아갔다. 소상자는 그 와중에서도 그를 놀리려고 연인대의로 일장 높이만큼 뛰어올라 강장의 위를 뛰어넘었다. 사람들은 이 무공이 특이하기도 했지만, 그 솜씨가 날래고 가벼움에 놀랐다. 그의 몸은 비록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실로 맨몸이나 마찬가지여서 모두들 저도 모르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번일옹은 상대의 무공이 이토록 높고 강한 것을 보고 온 정신을 다하여 싸웠다. 휙휙 바람소리를 내며 강장을 공격해도 그의 몸을 때리기가 매우 어려움을 알았다. 그러나 그가 앉아 있는 의자를 부순다면 그것 또한 우세를 쥐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상자의 무공은 신출귀몰하여 오른손의 가위를 펼쳤다 오므렸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의 긴 수염을 공격했고, 왼손으로는 금나수법으로 틈을 타서 그의 강장을 빼앗으려 했다. 두 사람은 대청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순식간에 수십 합을 싸웠지만 둘의 기세가 서로 맞서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소상자는 의자에서 조금도 몸을 떼지 않았으니, 완전히 상대방을 안중에 두지 않는 태도로 사람들에게 보였다. 금륜법왕 등은 은근히 놀랐다.

(이렇게 시체나 다름없이 생긴 괴물이 이런 고강한 무공을 지녔을 줄이야 ?)

그들은 다시 수합을 싸웠다. 번일옹의 강장은 모두가 땅에 대고 옆으로 휩쓰는 초수였으며, 소상자의 연인대의는 마음대로 이리저리 피하는 것이어서 의자 다리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소리가 딸깍 딸깍 어지럽게 울리며 갈수록 더욱 빨라졌다. 곡주가 갑자기 소리쳤다.

"의자를 공격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기지 못한다."

번일옹은 깜짝 놀라며 즉시 깨달았다.

(그가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그와 동등하게 싸울수가 있구나. 만약 그가 두 발을 땅에 버티고 선다면 몇 초 가지 못해서 내 수염은 모두 그에게 잘려 버릴 것이다.)

돌연 번일옹의 장법이 변하면서 미친 듯 춤을 추며 급히 휘두르자 한 줄기 은광(銀光) 안에는 수염이 긴 녹포의 난장이만 보이고 은광의 바깥에는 시체처럼 생긴 사람의 형체가 의자에 앉아서 이리저리 날뛰는 것만이 보여서 실로 보기 드문 기이한 광경이었다.

곡주는 소상자가 희롱만 하려는 작정임을 알고 더 이상 싸운다면 번일옹이 분명히 지게 될 것 같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일옹, 너는 이 고수의 적수가 아니니 물러서라."

번일옹은 사부의 분부를 듣자 <예에 !>하고 큰소리로 대답한뒤, 강장을 들고 공격을 거두어 물러서려고 했다. 소상자가 외쳤다.

"안 돼, 안 돼 !"

하며 소상자는 몸을 의자에서 일으켜 그의 강장으로 곧장 달려들었다.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 하나가 순식간에 강장에 부서지고 장신(杖身)은 이미 소상자의 왼손에 잡혔다. 왼발을 땅에 딛고 동시에 가위를 펼치자 이미 번일옹의 턱 아래에 있는 길다란 수염에 칼끝이 닿으려고 했다. 가위에 닿기만 하면 이 아름다운 수염은 이제 끝장이 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번일옹이 이 길고 긴 수염을 남겨 놓은 것은 사실 하나의 무

시무시한 무기로 쓰기 위함이었다. 사용법은 연편,운소,연자추와 같았다. 그의 머리가 약간 흔들리는가 했더니 수염이 말려 이미 칼끝을 벗어나며 오히려 가위를 둘둘 말아서 머리를 뒤로 쳐들자, 한 줄기 거센 힘으로 가위를 빼앗았다. 소상자가 소리쳤다.

"아니, 이것 봐라 ! ...... 야 이 난장이야. 너의 수염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구나. 이 소상자도 정말 탄복하겠는걸."

길다란 수염은 가위를 감싸고 있고 왼손은 강장을 쥐고 있어서 잠시 얼크러졌다. 소상자는 하하, 크게 웃으며 외쳤다.

"재미있군, 재미있어 !"

돌연 대문의 입구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이며, 매우 날쌔게 달려들어 쌍장을 나란히 날리며 소상자의 등뒤를 밀어붙였다. 곡주가 호통을 쳤다.

"누구냐 ?"

이 습격은 빠르고도 사나와서 위세가 대단했다. 소상자는 왼손으로 강장을 돌려보내고 적에게 팔꿈치를 돌리어 즉시 그의 장력을 풀었다. 그자가 노하여 말했다.

"더러운 자식,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어디 겨루어 보자 !"

양과 등이 그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결같이 외쳤다.

"소상자 !"

방금 문으로 들어와 몰래 습격했던 사람도 소상자가 아닌가 ! 어떻게 한 사람이 둘로 변할 수 있단 말인가 ?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로 자기의 분신에게 공격을 한단 말인가 ? 사람들은 일시에 멍해져 사태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번일옹과 다투던 그 사람은 분명히 소상자로서, 옷이나 신발이 조금도 다름이 없었고 얼굴도 마찬가지로 시체와 같았지만, 생김새는 소상자의 본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나중에 대청에 들어온 사람의 얼굴은 소상자가 틀림없었지만 옷은 도리어 골

짜기의 사람들이 입는 녹삼을 입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새의 발톱 모양으로 하고, 다시 가위를 쥐고 있던 소상자의 등을 할퀴려 들며 외쳤다.

"교활한 잔꾀를 부리는 놈이 무슨 영웅 호한이냐 ?"

번일옹은 갑자기 구원자가 나타난 것을 보니, 그자가 입은 옷은 비록 골짜기의 복장이었지만 누군지를 알지 못해 이상하다고 느끼며, 강장을 들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얼굴이 시체처럼 생긴 두 사람이 평평팡팡,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양과는 이때 이미 알아차렸다. 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죽과 가면을 훔쳐서 자기의 얼굴에 쓰고, 또 소상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대청으로 섞여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 것이었다. 다만 소상자의 평소의 얼굴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여서 어느 누구도 쉽사리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양과도 비록 때로 가면을 써 봤지만 쓴 뒤의 모습이 어떤지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다. 정영이 가면을 썼을 때의 모양을 그가 감히 여러 번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에게 속았던 것이다. 그는 잠시 정신차려 보고서, 가위를 가진 사람의 무공을 알아보고는 소리쳤다.

"당신은 주백통 ! 내 가면과 가위를 어서 돌려주오."

말을 마치며 양과는 대청 가운데로 뛰어가 손을 뻗어 그의 수중에 있는 가위를 빼앗았다.

원래 이 사람은 양과가 본 대로 주백통이었다.

그는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정곡의 네 제자의 어망에 사로잡혔었다. 그러나 그는 신통광대하여 네 사람이 잠시 소홀한 틈을 타 곧장 어망을 찢고 달아났던 것이다. 그는 산의 돌 뒤에 숨어 있으면서 골짜기를 발칵 뒤집어 놓을 소란을 피우려고 하다가 양과 등의 일행 여섯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기회를 보다가 그는 몰래 습격하여 소상자의 혈도를 누르고 그를 석실로 옮겨 놓고 그의 옷을 벗겨 자기가 입었던 것이다. 다만 그의 경공이 뛰어나 오가는 것이 종적이 없었고

소상자는 그때 꿈속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금륜법왕 등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주백통은 옷을 바꿔 입은 뒤에 석실로 돌아와 양과의 곁에 누워서 살그머니 그의 등에 있는 주머니에서 가위와 가면을 훔쳐냈다. 다음날 아침 모두들 잠이 깨어난 뒤에도 끝내 발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소상자는 혈도를 눌린 뒤에서둘러 내력을 움직여 어느 정도 통하게 했지만 혈도를 누르는 주백통의 수법은 기괴망측하면서도 무시무시하여 세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 그의 몸에는 겨우 살에 닿는 단삼소의(短衫小衣)만 남아 있어서 화가 치밀었다. 골짜기에 사는 녹삼을 걸친 한 제자가 가는 것을 보고 즉시 때려 눕히고, 그의 옷과 신발,양말 등으로 갈아입고 큰 석실로 서둘러 온 것이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옷을 입고 마침 번일옹과 악투를 벌이는 것을 보고, 소상자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어 쌍장을 격출하며 사납게 그를 향하여 공격하게 된 것이었다.

주백통은 양과가 가위를 빼앗으려고 대드는 것을 보고 즉시 좌우호박(左右互搏)의 기술을 펴서 좌장을 폈다 오므렸다 하며 양과를 상대하고, 오른손의 가위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소상자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 큰 가위는 펼치고 접을 때 칼날의 사이가 자그마치 2자 정도나 되어서 만약 그 사이에 목이 낀다면 목이 즉시 잘려 나갈 정도였다. 소상자는 비록 미친 듯 화가 났지만 감히 경솔하게 대들지를 못했다.

공손 곡주는 주백통과 번일옹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당시에도 은근히 놀라고 탄복했었다. 그가 두 손으로 두 사람과 나누어 싸우는 것을 보니 완전히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변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자기가 배운 일문의 음양쌍인(陰陽雙刃)의 무공과 대략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저렇듯 한 마음을 두 곳에 쓸 수가 있단 말인가 ? 또한 소상자의 두 손톱이 강철과 같이 매섭가, 양과도 위풍이 한아(閒雅)하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자세하며 일거수 일투족이 날듯 뛰어난 것

을 보고 생각했다.

(천하가 과연 끝없이 인재를 배출하는구나. 두 노인의 무공은 실로 뛰어나고, 이 소년도 공력은 비록 얕지만 신법,권법은 오히려 그들보다 빼어나구나.)

곡주는 즉시 낭랑하게 외쳤다.

"세 분께서는 손을 멈추시지요 !"

양과와 소상자가 동시에 뒤로 뛰어 피하자 주백통은 기면을 벗어 가위까지 양과에게 던지며 말했다.

"이체 충분히 놀았으니 나는 간다 !"

하더니 두 발을 날려 질풍같이 대들보 위로 가 숨었다.

골짜기의 제자들은 그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은 자가 없었다. 공손녹악이 소리쳤다.

"아버지, 바로이 늙은이에요 !"

주백통은 대들보를 올라타고는 하하, 크게 웃었다. 대들보는 바닥에서부터 세 장이나 되는 높이여서 대청에 비록 고수가 매우 많았지만 이렇게 단번에 뛰어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번일옹은 절정곡의 장문 대제자로 나이도 곡주보다 훨씬 많았고 골짜기에서는 곡주를 제외하고는 그를 무공의 일인자로 꼽고 있었던 터였다. 그러나 오늘 연달아서 주백통에게 희롱을 당하니 어찌 화를 내지 않겠는가 ? 그는 몸이 왜소했지만 타고 오르는 데 정통하여 몸을 일으켜 이미 기둥을 안고 원숭이처럼 기어올라갔다. 주백통은 상대가 누구든지 자신과 장난하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 번일옹이 기둥을 오르는 것을 보니 마침 그의 기분을 맞추는 듯하여, 그가 대들보에 올라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이미 손을 뻗어 접근했다.

번일옹이 어떻게 그가 익살로 손을 뻗은 사실을 알겠는가 ! 그가 오른손을 뻗는 것을 보고 번일옹은 즉시 손가락을 펴 그의 팔에 있는 대릉혈(大陵穴)을 눌렀다. 주백통은 팔뚝에 이상한 감각이 약간 느껴지자 즉시 혈도를 막고 근육을 풀었다. 번일옹의 이 손가락을 금화를

꺾는 듯 급히 손을 움츠렸다. 주백통은 손바닥을 재빨리 뒤집어 그의
손등은 한번 탁 치며 목소리도 매우 맑게 말했다.

"보리 한 바구니, 보리 두 바구니, 형과 동생이 보리를 치네 !"

번일옹은 화가 치밀어 머리를 한번 움직여 긴 수염을 그의 가슴으로
재빨리 휘둘렀다. 주백통은 바람소리가 거세고 급한 것을 듣고 왼발로
차 몸을 띄우고 왼손으로 대들보를 잡고 버티며 온몸을 허공에 띄워
한동안을 이리저리 어지럽게 휘저었다.

소상자는 번일옹이 결코 그의 적수가 아님을 알았다. 만약 자기가
올라가 함께싸운다고 해도 반드시 이기리라는 승산이 없을 듯하여 니
마성과 마광좌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니형 마형, 이 늙은이가 우리 여섯 사람은 도무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깔아뭉개니, 사람을 얕잡아 봐도 너무 심한 것 같소이다."

니마성은 성질이 포악하고 조급하여 격분을 참지 못했다. 마광좌는
머리가 다소 둔하기는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우
리 여섯 뻐텝말을 듣고
정말로 이와 같은 줄로 알고 노하여 소리를 지르며 함께 대들보로 뛰
어 올라 주백통의 두 다리를 잡았다. 주백통은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모두 니 마 두 사람의 손에 잡혔다.

소상자는 윤극서에게 냉랭하게 말했다.

"윤형, 정말 수수방관만 하시기요 ?"

윤극서는 미소를 날리며 말했다.

"소상형이 먼저 올라가시지요. 이 아우는 그 뒤를 따르지요."

소상자가 일성 괴이한 휘파람을 날리자 사방에 한기가 일어나며 돌
연 몸이 솟구쳤다. 그는 무릎도 굽히지 않고 온몸이 시체처럼 뻣뻣하
게, 두 팔도 곧게 앞으로 뻗은 채 주백통의 배를 나꿔채려 했다.

주백통은 그의 두 손의 손톱이 습격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고양이처
럼 몸을 둥글게 말아 대들보를 잡았던 왼손을 오른손으로 바꾸었다.
소상자의 두 손은 허공을 친 뒤 공중에서 머물지를 못하여 땅으로 떨

어져 버렸다.

그는 온몸이 딱한 나무처럼 발이 땅에 닿자 다시 위로 솟구쳤다. 번일옹은 대들보 위에서 수염을 휘두르고 있었고, 소상자 니마성 마광좌 세 사람은 하나가 떨어지면 또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올라가면 또 하나가 떨어지면서 쉬지 않고 주백통을 향해 공격을 해 댔다.

윤극서가 웃으며 말했다.

"이 노인이야말로 과연 보통이 아니구나. 나도 함께 소란이나 피워 볼까."

손을 뻗어 품을 더듬자 돌연 대청에 주광보기(珠光寶氣)가 가득하고 금빛이 휘황찬란했다. 그의 손에는 많은 연편(軟鞭)이 쥐어져 있었다. 이 연편은 금실과 은실로 만들어졌으며 주옥과 보석을 가득 꿰어서, 이토록 호화스런 무기는 무림 전체에서도 이것 하나뿐인 듯했다. 금사주편(金絲珠鞭)이 노을빛을 번쩍이며 주백통의 다리를 감으려고 했다.

양과는 아주 재미있었다.

(이 다섯 사람이 각기 신통력을 드러내어 노완동을 포위하여 공격하는데, 내가 기묘한 꾀를 써서 제압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때를 놓치면 능력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양과는 인피가면을 얼굴에 쓰고 소상자가 하던대로 괴상한 휘파람을 날리며 번일옹이 땅에 떨어뜨린 강장을 집어들고 한 번 내려쳐 그 힘을 빌어서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강장은 본디 1장이 넘는 길이였는데 거기에다 힘껏 내려치자 그는 벌써 주백통과 머리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주노인네, 가위다 !"

양과는 큰 가위로 그의 하얀 수염을 자르려고 했다.

주백통은 크게 기뻐하며 머리를 옆으로 숙여 가위를 피하며 외쳤다.

"소형제, 너의 이 방법은 정말로 재미있구나."

양과가 말했다.

"주노인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놀리시오 ?"

주백통이 웃으며 말했다.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는 법, 너는 조금도 손해 본 것이 없다. 도리어 편한 쪽을 가지고 있지."

양과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가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단 말이오 ?"

주백통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한창 재미있으니 너하고 말할 시간이 없다."

윤극서의 금사편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주백통은 즉시 손을 뻗어 병기를 빼앗으려 했다. 윤극서는 연편을 말아서 상대방의 등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몸은 이미 떨어져 내렸다. 주백통이 말했다.

"너의 사적연사(死赤練蛇)도 울긋불긋하여 놀기가 아주 좋은데...... !"

이때 번일옹의 긴 수염이 날아왔다. 그는 두 손으로 대들보를 기어오르며 오직 수염만으로 적을 공격했다.

주백통이 웃으면서 말했다.

"긴 수염이 원래 이런 데에 쓸 데가 있는 줄은 몰랐구나. 헤헤헤......"

주백통은 턱 아래에 있는 긴 수염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의 수염은 번일옹과는 비교도 되지 못할 만큼 짧은데다가 수염에 무공을 연마한 적도 없어서 그렇게 휘두르는 짓이전혀 쓸 데가 없었다. 쇄악, 하는 소리와 함께 도리어 상대방의 수염에 얼굴을 맞았다. 즉시 몇줄기 붉은 상처가 어 Ø 굴에 생기며 화끈화끈 달아올랐지만 통증이 심하지는 않았다. 만약 그의 내력이 심후하지 않았다면 즉시 기절했을 것이다. 주백통은 한번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화를 내기는 커녕 번일옹에게 오히려 탄복하며 말했다.

"긴 수염, 나의 수염이 네게 미치지 못하니 내가 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겨룰 필요가 없겠지, 안 그렇냐 ?"

번일옹은 일초의 성공을 거두자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고 또 수염을

휘둘렀다. 주백통은 감히 다시 수염으로 그와 맞서지 않고 왼손으로 <공명권>의 권초를 날려 사뿐하게 주먹을 휘두르자 뭔풍이 번일옹의 수염을 오른쪽으로 날렸다. 마침 마광좌가 몸을 날려 공격해 와 긴 수염이 바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마광좌는 두 눈이 가리자 두 손으로 되는 대로 수염을 움켜잡았다. 번일옹의 수염은 본래 마음대로 펴고 말 수가 있었지만, 주백통의 권풍에 제지력을 잃고 오히려 마광좌의 손에 잡힌 것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힘을 다하여 끌어당겼지만 마광좌도 있는 힘껏 단단히 잡고 놓아 주지 않아 그 힘으로 그만 두 사람이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마광좌는 가죽이 거칠고 살이 두꺼워 별다른 통증이 없었다. 번일옹이 그의 몸 위에 고꾸라지자 노하여 말했다.

"어떻게 된 거야 ? 왜 남의 수염을 잡고 놓지 않는 거냐 ?"

마광좌는 떨어지면서 비록 아프지는 않았지만 이 난장이의 두 발이 배에 버티고 서자 발끈 노기가 일어 외쳤다.

"놓지 않는다면 어쩔 테냐 ?"

하며 팔뚝을 급히 돌려 그의 수염을 팔에 몇 바퀴 돌려 감았다. 번일옹이 얼굴에 일장을 날리자 마광좌는 고개를 옆으로 하여 피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 손바닥은 허초였다. 왼손이 퍽, 하면서 그의 콧대를 정통으로 맞추었다. 마광좌는 와아,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반격했다. 무공으로 말하자면 원래 번일옹이 훨씬 뛰어났지만 수염이 적의 팔에 감기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서, 마침내 마광좌의 주먹에 광대뼈를 얻어맞았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사람이 바닥에서 펑펑, 쿵쿵, 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번일옹은 비록 위에 있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 절정유곡(絶情幽谷)의 혼인날 ******

금륜법왕은 대청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자기를 여섯 명이 함께 와서 이미 다섯 명이 손을 쓰는데, 여전히 노완동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자 면목이 서지 않았다. 금륜법왕은 쩔그렁 쩔그렁, 맑은 소리를 내며 품에서 은륜(銀輪) 하나와 동륜(銅輪) 하나를 꺼냈다.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개의 반원을 그리며 주백통을 향하여 공격했다. 갑자기 쌍륜이 공중에서 쩔그렁, 소리를 내어 사람들을 놔라게 했다.

주백통은 쌍륜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말했다.

"이게 뭐야 ?"

하며 손을 뻗어 잡으려 했다. 양과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잡으면 안 돼요 !"

양과가 급히 손을 휘둘러 강장을 던지자 디잉,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굵고도 긴 강장이 동륜에 튕겨져 곧장 담모퉁이로 날아가서 돌담을 때리자 사방으로 불꽃을 튕기며 돌가루가 되어 날렸다. 동륜이 다시 날아와 법왕의 왼손에 닿는가 싶더니 급히 회전하여 대들보 위로 날아갔다.

이렇게 되자 주백통은 비로소 이 화상이 매우 좋지 않은 뜻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들이 연합해서 함께 공격해 들어오면 아무래도 당해 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몸을 날려 빙글 돌아서 바닥으로 내려와 외쳤다.

"여러분, 노완동이 실수를 했구만요. 내일 우리 다시 놀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헤어지지요."

하는 말을 마치고 대청 입구로 뛰어가자 녹삼을 입은 네 사람이 어망을 펼치고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주백통은 이 어망에 고통을 당했었기 때문에 말했다.

"그건 좋은 물건이 아니야. 쯔쯧 !"

하며 몸을 날려 동쪽 창으로 뛰어나가려고 하자, 초록색 그림자가 휙, 움직이며 또 하나의 어망이 덮쳐 왔다.

주백통이 대청 중앙으로 다시 뛰어돌아오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두 네 명의 녹삼을 입은 사람이 어망을 펼쳐서 길을 막고 있었다. 주백통

은 하는 수 없이 곧장 대들보로 뛰어올라가 충천장(沖天掌) 일초로 천장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려고 고개를 들자 위에서도 어망이 덮쳐 왔다. 달아날 길이 막히자 그는 몸을 날려 바닥으로 내려와서 곡주를 향하여 웃으며 말했다.

"얼굴이 누런 늙은이야, 네가 나를 붙잡아서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 너하고 같이 놀아 달란 말이냐 ?"

공손곡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네가 가져간 네 가지 물건을 내놓으면 즉시 골짜기를 나가도록 해주마."

주백통은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 내가 네 더러운 물건을 어디에 쓰려고 가졌단 말이냐 ? 너처럼 이렇게 고약한 성질은 정말 생전 처음 보겠구나.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다니......"

공손곡주는 천천히 걸어서 대청 중앙으로 가서 오른쪽 소매로 몸에 있는 먼지를 털고, 왼쪽 소매로 다시 먼지를 털며 말했다.

"만약 오늘이 나의 가장 즐거운 날만 아니었다면 너에게 몇 초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골짜기의 물건을 모두 제자리에 놔두고 점잖게 나가도록 해라."

주백통은 대로하여 외쳤다.

"에잇, 고얀 것 ! 내가 언제 너의 물건을 훔쳤단 말이냐 ? 히히, 이런 누추한 산골짜기에 살면서 무슨 보물이라도 숨기고 있었단 말이냐 ?"

그리고 나서 주백통은 옷을 하나하나 벗는데 손발이 아주 민첩하여, 잠깐 사이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 드러났다. 공손곡주는 그만두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옷의 안과 밖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기까지 했지만 과연아무것도 특별한 물건이 없었다. 대청에 있던 여제자들은 모두 어쩔 줄을 몰라 고개를 돌리고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 이런 일이 곡주에게는 전혀 뜻밖의 일

이었다. 그의 서방(書房),단방(丹房),지방(芝房),검방(劍房) 중에서 잃어버린 것은 모두가 매우 긴요한 것이어서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노완동이 훔쳐간 것이 아니란 말인가 ?

그가 매우 침통해지자 주백통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너는 나이도 이미 꽤 먹었는데, 어찌 이다지도 노인을 존경할 줄 무른단 말이냐 ? 하는 말도 제멋대로이고 하는 행동도 엉망이고, 이렇게 넓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추한 일을 벌이다니, 이 어찌 웃다가 이가 몽땅 달아날 일이 아니겠느냐 ?"

주백통의 이 몇 마디 말은 정말로 자기를 꾸짖는 것 같았다. 뜻밖에도 그에게 먼저 이런 말을 듣자, 공손곡주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대답할 말도 없었다. 다만 번일옹과 마광좌가 여전히 바닥에서 쉬지 않고 서로 치는 것을 보고 호통을 칠 따름이었다.

"일옹, 일어나라. 더 이상 객과 소란을 피우지 말아라."

주백통이 웃으며 말했다.

"긴 수염, 너의 이런패기는 정말 내 마음에 들어. 우리 둘이 잘 사귀어 보자구. 나 나쁜 사람 아냐 !"

사실 번일옹은 일생을 단정하고 엄중하게 살아왔었다. 오늘 마광좌와 치고 받고 한 것은 사실 부득이한 일이었다. 그도 일찍부터 몇 번이나 일어나려고 했지만 수염이 상대방의 팔에 감겨 몸을 빼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공손곡주는 눈썹을 약간 찌푸리고 주백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넓은 곳에서 부끄럽고 우스운 짓을 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아니오 ?"

"나는 발가벗은 여자의 뱃속에서 나와 지금 그 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뭐가 그리 잘못 되었단 말이야 ? 너는 이렇게 늙어 가지고 아직도 예쁜 소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다니...... 헤헤, 우습구나, 우스워 !"

이 몇 마디 말은 마치 큰 쇠몽둥이로 곡주의 가슴을 친 듯하여 노랗

던 얼굴에 한가닥 홍조가 스치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백통이 외쳤다.

"아차, 옷을 벗으면 안 좋지. 이러다가 감기 들겠다."
하며 갑자기 대청 입구로 돌진했다.

녹삼의 네 제자는 사람의 모습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급히 방위를 옮겨 사방에서 달려들어 그를 그물에 쌌다. 그가 그물 안에서 허위적거리는 것을 느끼고 네 사람은 어망의 네 귀퉁이를 꽉 묶어서 곡주의 앞으로 끌고 갔다. 그 어망은 매우 단단하고 질겼으며, 부드러운 금사철(金絲鐵)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도 보검도 자르고 찢기가 쉽지 않았다. 네 사람이 그물을 덮치는 수법도 상당히 민첩하고 뛰어나서 하늘과 땅도 가릴 듯이 펼치고 달려들어 아무리 강한 고수라고 해도 당해 내기가 어려웠다. 조금만 잘못해도 네 사람에게 잡히기가 일쑤였고 단독으로 치고 싸워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네 사람은 단번에 덮쳐 그를 사로잡자 매우 득의양양해 하다가 곡주가 어망을 쳐다보고 얼굴에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짓자 너무나 놀라 급히 고개를 낮추어 식은 땀까지 흘렸다. 허둥지둥 금사망을 풀어서 두 사람을 끄집어내니 바로 번일옹과 마광좌였다.

원래 주백통이 옷을 몽땅 벗어 버릴 때 어느 누구도 그가 끝까지 벗은 채로 맹렬히 돌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는 신법이 너무도 빨라서 바닥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번,마 두 사람을 잡아 그물 안으로 던진 것이었다. 네 제자가 급히 어망을 거두는 틈을 타서 그는 이미 빠져 달아났다. 이렇게 허허실실 동서로 치고 받는 솜씨가 너무나 신출귀몰했다.

노완동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자 공손곡주는 얼굴에 빛을 잃었고 금륜법왕까지도 부끄러운 마음이 일었다.

(스스로 무림 중의 일류 고수라고 일컫는 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도 어린애 같은 이 늙은이 하나도 제대로 사로잡지 못하다니......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단 말인가 ?)

모두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오직 양과만이 마음속으로 매우 흐뭇해 했다. 그는 주백통에게 매우 감탄하고 있어서 만약 그가 실수라도 해서 사로잡히면 반드시 구해 줄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가 스스로 도망을 쳤으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법왕은 본래 이 곡주가 어떤 내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했으나, 주백통이 한차례 소란을 피우자 다시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상자,윤극서 두 사람과 조용히 몇 미디 의논하고는 일어나 손을 모으며 말했다.

"곡주께서 인정과 후의로써 대접해 주셨으므로 마땅히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아오나 각자 신상에 일이 있어서 이제 그만 작별을 고할까 합니다."

공손곡주는본래 이 여섯 사람과 노완동은 같은 친구일 거라고 의심을 했었다. 그러나 나중에 소상자가 그와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고 법왕 윤극서 양과 니마성 마광좌가 각자 절기를 가지고 그를 공격하여 도리어 자기를 도와 주었다는 생각이 들자 손을 모으고 말했다.

"소제 한 가지 무례한 부탁이 있사온데 여섯 분께서 허락을 해주실지 두렵군요."

법왕이 말했다.

"힘이 미치는 것이라면 당연히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곡주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소제가 재혼식을 거행하오니 모두들 참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골짜기는 궁벽한 곳이라서 수백 년 동안 바깥 사람들의 출입이 드물었는데, 오늘 여섯 분 귀객께서 함께 강림해 주신다면 소제 정말로 세 번 태어난 기쁨이옵니다."

마광좌가 말했다.

"마실 술은 있습니까 ?"

공손곡주가 막 대답을 하려고 하자 양과가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대청 밖을 바라보는데, 그 표정이 괴이하기 짝이 없었다. 몹시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몹시 괴로운 것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상함을 느끼며 그의 눈빛을 따라 쳐다보았다. 하얀 옷을 입은 한 아가씨가 막 대청 밖의 긴 마루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엷은 햇빛이 그녀의 희디흰 얼굴을 비추어 맑고도 차가운 것이, 그것은 마치 햇빛이 달빛으로 변한 것 같았다. 그녀의 눈언저리에서 눈물 같은 물기가 잠시 반짝이더니 몇 걸음 걸어가자 아니나다를까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으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걸음걸이가 가볍고 예뻐서 몸이 마치 수면 위에 떠서 미끄러지듯 마루를 걸으며, 대청 안의 소람들에게눕튼±쇠 어......
錚醵農된 거예요 ?"

한참이 지나자 그 아가씨는 천천히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누구시온지요 ? 어떻게 해서 저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

양과는 너무나 놀라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눈앞의 여자는 틀림없는 소용녀였다.

"아가씨, 나는 과예요. 어......, 어쩨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 ...... 몸은 괜찮아요 ? 어디가 아프세요 ?"

그 아가씨는 다시 그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저는 당신과 안면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대청으로 들어가서 공손곡주의 곁에 앉았다. 양과는 너무도 이상한 일이어서 황망하고 대청으로 돌아와 왼손으로 의자 등을 받치고 섰다.

공손곡주는 줄곧 안색에 변화가 없다가 그녀가 가까이 오자 저도 모르게 희색이 만면하여 손을 들고 법왕 등에게 말했다.

"그녀는 저의 새 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혼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답니다."

말을 마치고는 양과를 담담하게 한번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양과가 방금 경거망동으로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그의 새 부인을 놀라게 한 것을 질책하는 것 같았다.

양과는 너무도 놀라 큰소리로 외쳤다.

"아가씨, 설마 당......, 당신이 소용녀가 아니란 말입니까 ? 설마 나의 사부가 아니란 말입니까 ?"

그 아가씨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닙니다 ! 소용녀가 누구죠 ?"

양과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

(아가씨가 나를 원망하여 아는 체하지 않는 것일까 ? 아니면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체하는 것일까 ? 그녀는 내 의부와 마친가지로 무슨 일이든 모두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 그러나 의부는 나를 여전히 알아보았는데...... 세상에 그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

"아가씨, 당...... 당신은...... ? 나......, 나는 양과예요, 양과 !"

양과는 다만 이렇게 외칠 뿐이었다.

공손곡주는 그가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보고 살며시 눈썹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그 아가씨에게 말했다.

"유매(柳妹), 오늘은 이상한 사람도 정말 많군."

그 아가씨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수를 한 잔 따라서 천천히 마시며 금륜법왕부터 차례로 훑어보면서 양과에 이르러서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옷소매가 가볍게 떨려 잔의 청수가 흘러서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양과는 마음이 혼란하여 끝없이 방황했다. 이윽고 고개를 돌려 법왕에게 물었다.

"우리 사부께서 당신과 무예를 겨룬 적이 있으니 당신은 분명히 기억할 거요. 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까 ?"

이 아가씨가 대청을 들어설 때 법왕은 이미 그녀가 분명히 소용녀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양과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이 두 남녀의 소란에 끼여들고 싶지 않았다. 금륜법왕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걸......"

소용녀와 양과는 합세하여 옥녀소심검법(玉女素心劍法)을 써서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대패를 맛보게 했었다. 그는 만약 이 두 남녀가 이를 갈며 서로 반목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도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그들을 사이좋게 만나도록 도와 줄 리가 없었다.

양과는 다시 한번 놀라며 법왕의 음흉한 저의를 알아차리고 화가 치밀었다.

(이놈의 화상은 정말 지독하구나. 네가 산꼭대기에서 상처를 치료할 때 나는 온신경을 다 써서 너를 도와 주었는데 이제 와서 도리어 네가 나를 해치려고 하다니......)

양과는㭾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다.

금륜법왕은 그가 혼백이 달아난 듯한 표정으로 두 눈에 원망하는 빛이 가득 드러나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그가 나에게 이미 마음속 깊이 원한을 품고 있으니 이 조그만 녀석을 남겨 두었다가는 계속 후환이 되겠구나. 오늘 그가 큰 소란을 피웠으니 이때야말로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다.)

금륜법왕은 두 손을 모으고 공손곡주에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곡추를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더구나 혼례를 하신다니 축하를 드려야 하는데, 저와 이 친구들이 박대하게 굴었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소이다."

공손곡주는 그가 남아서 혼례에 참석하겠다는 말을 비치자, 크게 기뻐하며 그 아가씨에게 말했다.

"이분들은 모두가 무림의 고수들이오. 한 분만 모셔 와도 그보다 더 큰 양광이 없을 텐데, 하물며 이렇게......"

그는 본디 <여섯 분>이라고 말하려고 했었으나 양과는 어리고 경박

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가 주백통과 대결하는 것을 보니 자세는 비록 아름답지만 공력은 평범하여 화려하긴 해도 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를 <무림고수>의 수자에 집어넣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를 제외하고 <다섯 분>이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지나친 실례를 면할 수 없는 일이니 잠시 주저하다가 이어서 말했다.

"......여러 분의 영웅이 오셨소."

법왕은 생각했다.

(이 곡주는 기파(氣派)가 엄연하고, 어망을 펼쳐서 노완동을 잡는 진세를 보니 무공과 지모가 모두 대단하지만 그릇은 오히려 작구나. 양과와 소용녀가 나눈 몇 마디 말을 그는 마음에 품고 있구나.)

공손곡주가 말했다.

"유매, 이분은 금륜법왕이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에 양과의 이름을 말했다. 그 아가씨는 그들의 이름과 호를 들을 때마다 단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얼굴은 목석과 같아서 일체 신경도 쓰지 않는 듯했다. 양과에 이르러서는 고개조차 끄덕거리지 않았고 시선을 멀리 대청 바깥을 향했다.

양과는 얼굴이 온통 붉어졌다. 마음은 이미 강과 바다가 뒤집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공손곡주가 무슨 말을 해도 한 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니마성 윤극서 등은 본래 그의 내력을 알지 못하여ㅕ, 단지 그가 사람을 잘못 알아 보고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공손녹악은 아버지의 등뒤에 서서 양과의 말과 행동을 조금도 빼놓지 않고 모두 지켜보았다.

(새벽에 그는 정화 가시에 손가락이 찔려 그리움의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그가 그리워하던 사람이 바로 나의 새엄마란 말인가 ? 세상에 이처럼 교ㅛ묘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 그렇다면 그가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 골짜기에 온 것은 나의 새엄마를 찾아온 것일까 ?)

고개를 기울여 <새엄마>를 살펴보니 그녀는 기대를 하거나 부끄러운

기색을 드러내는, 이제 막 시집가려는 아가씨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손녹악은 더욱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양과는 가슴이 막혀 질식할 것만 같았다. 다시 생각을 돌렸다.

(아가씨가 이미 나를 아는 척하려고 하지 않으니 반드시 그녀에게 다른 계책이 있음에 틀림없다. 아무래도 진상을 파헤칠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겠다.)

양과는 몸을 일으켜 곡주에게 읍을 한 번 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자에게 존친이 한 분 계시온데 이......, 이분 아가씨와 모습이 너무도 닮아서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실수를 저질렀으니 너무 허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손곡주는 그의 이 몇 마디 말이 부드럽고 예를 갖춘 말임을 느끼고 즉시 안색을 바꾸어 같이 읍을 하고서 말했다.

"사람을 잘못 보는 것은 항상 있는 있인데 무어 그리 괴이하다 하겠습니까 ? 다만......"

한번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천하에 과연 그녀와 얼굴이 똑같은 여인이 있다니, 참으로 묘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군요."

그의 말 뜻은 아무리 천하가 넓다 하지만 어디에 이런 미모의 여자가 또 있을까 하는 의미였다.

양과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소자도 역시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례인줄 알지만, 이분 아가씨의 성은 무엇인지요 ?"

공손곡주는 슬며시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성은 유(柳)입니다. 존친께서도 유씨인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가씨가 왜 성을 유로 바꾸었을까 ?)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아, 나의 성이 양(楊)이기 때문이구나. 같은 버드나무라는 뜻이렷다 !)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손가락이 다시 심히 아파 오기 시작했다.

공손녹악은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고 매우 애석한 생각이 들어 계속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공손곡주는 양과를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그 백의의 아가씨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썹을 내리깔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어 은근히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조금 전 그녀가 이 어린 녀석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은은하게 그녀가 <과야, 과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 네가 나를 부르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 혹시 이 여자가 정말로 이 아이의 여자가 아닐까 ? 그렇다면 왜 그를 알아보지 못할까 ?)

곡주는 즉시 말을 꺼내서 서로 따져보려고 하다가 눈앞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이 일은 혼례를 치른 뒤에 천천히 다시 물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입술에까지 나온 말을 다시 삼켰다.

양과가 다시 말했다.

"이분 유아가씨께서는 골짜기에서 살아오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곡주께서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하군요."

그 당시 여자는 본래 결코 함부로 외인을 만나지 못했으며, 결혼을 하는 길일(吉日)에는 더구나 객을 만날 수가 없었다. 금륜법왕 등은 서장의 호인(胡人)이요, 강호의 이류(異流)여서 전혀 세속의 예에 구애받지 않아서 그 백의의 아가씨가 나오는 것을 보고도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오늘 같은 길일에도 여전히 온몸에 하얀 옷을 입은 것은 불경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양과가 곡주에게 그녀와 알게 된 경과를 따지며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일까지 들추어 내려 하는 것을 듣고, 모두들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다.

공손곡주도 마침 그의 부안이 될 사람의 내력을 알아보려고 생각하

던 중이었다.

(이 어린 아이가 정말로 유매를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양형체의 생각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보름 전에 제가 산에 가서 약을 캐다가 그녀가 산등성이에서 중상을 입고 숨도 제때로 쉬지 못한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는 내공을 수련하다가 내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데리고 와 집안에 전해 오는 영약으로 그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서로 알게 된 인연을 말하자면 사실 우연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법왕이 말참견을 했다.

"이는 정말로 천재일우의 인연이군요. 유아가씨는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보답을 하려고 몸을 맡기어 당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군요. 그것은 정말로 훌륭한 여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군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의 이 말은 곡주를 받드는 것이었지만, 의도는 양과의 마음을 찔러 고통을 주려는것이었다.

양과는 이 말을 듣자 과연 안색이 크게 변하고 온몸을 떨며 돌연 울컥하더니 한 줄기 선혈을 토해 냈다.

그 백의의 아가씨는 이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당......, 당신은......"

급히 일어나 손을 뻗어 부축하려고 하다가 억지로 참자, 그녀도 그만 함께 선혈을 토해 내어 하얀 옷에 붉은 피가 낭자하게 물들었다.

이 유아가씨는 바로 소용녀가 이름을 바꾼 것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객점에서 황용이 하는 말을 듣고 만약 양과와 부부가 된다면 그에게 누를 끼쳐 세상 사람들이 평생토록 그를 경멸하고 침을 뱉으며 욕을 하리라는 생각이 들자, 자기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다. 그러나 만약 그와 함께 고묘 안에서 살 경우, 세월이 오래지나면 그는 반드시 고민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리저리 생각하며 긴 밤을 지새우다가 마침내 마음을 굳게 먹고 조용히 떠나간 것이었다. 그러나 그

녀는 양과를 너무도 깊이 사랑하여 이와 같이 모질게 마음을 돌렸지만 그를 사랑하는 깊은 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만약 고묘로 되돌아간다면 그가 반드시 찾으러 올 것이었다. 그래서 혼자 이리저리 광야궁곡(曠野窮谷)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하루는 혼자 앉아서 내공을 수련하다가 갑자기 그리웅이 물결처럼 사납게 밀려와 이겨 내기가 어려워서 내식(內息)이 돌연 경맥와 충돌하여 예전의 상처가 재발한 것이었다. 만약 공손곡주가 지나가다가 그녀를 구출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황량한 산에서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이었다.

공손곡주는 짝을 잃은 지가 이미 오래 되어 소용녀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것을 보니 실로 평생토록 상상하기도 어려운 미모의 여인이라 저도 모르게 사람을 구하는 마음에다 더욱 열 배의 정성을 들였다. 그때 소용녀는 심회(心懷)가 어두웠고 또 이후로 혼자 살 것을 생각하니 반드시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해 끝내는 전철을 다시 밟을 것만 같았다. 또한 다시 양과를 찾는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겠기에 괴로와하던 중 공손곡주가 진정으로 대하고 구혼의 뜻을 토로하길래 즉시 허락을 한 것이었다. 이후로 이미 남의 부인이 되면 양과와의 인연도 일도양단(一刀兩斷)이 되는 것이요, 게다가 이 깊은 골짜기는 외인이 들어오는 일이 드물어 여기서 산다면 그와 마주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완동이 돌연 나타나 소동을 피우더니 마침내 그를 골짜기로 끌어들일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

소용녀는 갑자기 양과와 상봉하자 속이 뒤틀리는 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로 허락을 했으니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여 마침내 그가 대로하여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나를 원망하도록 해야겠다. 그는 재주와 용모가 이토록 빼어나니 함께 짝할 숙녀 가인이 없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나는 비록 일생을 상심하고 슬프게 살아가더라도 그래야만 이후 그의 고통을 면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여, 양과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도 그녀는 줄곧 모른 체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처량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피를 토하는 것을 보자 아픈 마음에 그만 저도 모르게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던 것이다.

그녀의 안색이 창백해지자 사람들이 허둥지둥 그녀를 내당으로 모셔 들이려고 하는데, 공손곡주가 급히 말했다.

"어서 앉아서 꼼짝하지 마시오. 경맥을 진동시키지 마시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양과에게 말했다.

"너는 나가라. 이후로 여 원히 다시 나타나지 말아라."

양과는 뜨거운 눈물이 눈에 가득하여 소용녀에게 말했다.

"아가씨, 만약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나를 때리고 욕하고 단칼에 죽여도 좋아요. 그렇지만 왜 나를 아는 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

소용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꾸도 못 하고 가볍게 헉헉거렸다.

공손곡주는 그가 소용녀를 자극하여 피를 토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미 노기충천했지만, 그가 닦은 무공이 매우 뛰어난 것을 생각하고는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어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내 손에 무정하게 죽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양과의 두 눈은 소용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느라고 곡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양과가 애절하게 말했다.

"아가씨, 내가 평생토록 고묘에서 당신과 함께 지내도 결코 후회하거나 괴로와하지 않을께요. 우리 함께 가요."

소용녀가 고개를 들자 눈빛이 그와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에 다한 한없이 깊은 정이 스며들어 있었고, 수천 수만 가지 근심과 괴로움이 담겨 있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그를 따라가자 !)

그러나 즉시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그와 헤어진 것은 한때의 생각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 좋고

나쁨과 앞뒤를 이미 상세하게 생각을 한 것이다. 당장의 한때를 참지 못하면 이후 그에게 평생토록 근심을 줄 것이다.)

이리하여 고개를 돌리고 장탄식을 하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

이 몇 마디 말은 기력이 하나도 없었지만 말 가운데는 부드러운 정과 은밀한 뜻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마광좌처럼 좀 모자라는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만 대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양과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정을 품고 있으며, 이 몇 마디 말은 마음에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공손곡주는 저도 모르게 크게 질투심이 일어 생각했다.

(네가 비록 내게 혼인을 허락했자만, 나에게는 이토록 깊은 정이 담긴 말을 반 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양과를 살짝 쏘아보니 그는 미목이 빼어나고 영기가 넘쳐 소용녀와는 분명히 한쌍의 어울리는 옥 같은 소년이었다.

(이제 보니 두 사람은 확실한 연인 사이로구나. 무슨 심한 말다툼이 있어서 유매가 분한 마음으로 나에게 결혼을 허락했지만, 사실은 아직 이 소년에 대한 정을 잊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가씨> <사부>는 뭐지 ? 분명히 두 사람이 정을 나누던 때의 호칭일 것이다. 이 어린 아이가 유매보다 나이가 몇 살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녀를 <아가씨>니 <사부>니 하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공손곡주의 눈빛에 더욱 분하고 원통한 기색이 떠돌았다.

번일옹은 공손곡주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다. 그가 줄곧 외롭고 적막한 것을 보고 항상 무슨 방법으로 그의 고민을 풀어 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일전에 사부께서 미모의 소녀 하나를 구출해 오고, 그 소녀도 혼인을 승낙하자 그의 기쁨은 사부에 못지 않았었다. 그런데 돌연 양과가 나타나 새 사모님에게 피를 토하게 하는데도 사부가 다시

참는 것을 보고, 몸을 일으키며 사납게 호통을 쳤다.

"이 양가 꼬마 녀석아 ! 재미를 보았으면 이제 냉큼 사라져라. 우리 곡주께서는 너처럼 무례한 빈객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양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용녀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정말로 과를 잊으셨습니까 ?"

번일옹은 대로하여 손을 뻗어 그의 등을 잡았다. 그는 양과의 몸을 나꿔채 대청 밖으로 집어던지려고 생각했다. 양과는 온신경을 소용녀와 말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가 번일옹의 손가락이 그의 등에 닿자 비로소 놀라 급히 몸을 움츠렸다. 상대의 다섯 손가락이 허공을 집고 찌익, 하는 사리와 함께 등의 옷이 찢어져 큰 구멍이 뚫렸다.

양과는 다시 애걸을 했지만 소용녀가 계속 신경을 쓰지 않자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만약 고묘 안이나 아무도 없는 곳이라면 천천히 간절하게 애원할 것이지만, 대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서 여간 답답하지 않았는데, 번일옹이 다시 호통을 치고 욕을 하며 손을 움직이자 속이 뒤집혀 즉시 가슴이 터져 버릴 듯하여 고개를 돌려 호통을 쳤다.

"내가 내 아가씨와 말을 하는데 너 같은 난장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끼여드는 거냐 ? 이 우라질 난장이 자식아 !"

번일옹이 큰소리로 호통을 쳤다.

"곡주께서 너보고 나가서 영원토록 다시 오지 말라고 하셨다. 너는 곡주의 분부를 듣지 않았으니 나를 무정하다고 원망하지마라."

양과는 노하여 말했다.

"나는 절대로 안 나간다. 우리 아가씨가 가지 않으면 나도 여기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죽어 뼈가 가루가 된다 해도 그녀와"

이 몇 마디 말은 의당 소용녀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

공손곡주가 소용녀의 안색을 훔쳐보니, 그녀의 눈에 글썽글썽하던 눈물이 끝내 한 방울 한 방울 가슴의 선혈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질투심이 일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여 번일옹에게 손을 살짝

흔들며 눈짓을 해서 그에게 살수를 써 양과를 죽이도록 했다. 아예 소용녀의 생각을 끊어 버려서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번일옹은 사부의 이런 손짓을 보고 도리어 너무나 의외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만 양과를 골짜기 밖으로 쫓아내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부가 살인의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의아했지만 그렇다고 거역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번일옹은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이 비록 사부님의 가장 기분 좋은 날이지만, 내가 사람을 죽이지 못할 줄로 아느냐 ?"

그리고 나서 사부를 힐끗 바라보았다. 공손곡주가 다시 손을 흔들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었다.

(길일이고 양신(良辰)이고 꺼릴 것 없다. 이 어린 녀석만 죽이면 그만이다.)

번일옹이 순도 높은 강철로 만든 거대한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둔탁하게 치자 대청 전체가 떨리며 오래도록 웅웅거렸다.

"꼬마야, 너는 정말 죽음이 무섭지 않단 말이냐 ?"

양과는 막 피를 한 입 토해 냈기 때문에 지금도 가슴에 온통 뜨거운 피가 울렁거려 다시 입으로 뿜어 나오려고 했다. 고묘하의 내공은 항상 극기절욕을 내세웠다. 소용녀의 사부가 그녀에게 심법을 전수할 때 희로애락의 감정을 끊을 것을 신신 당부했지만 나중에 소용녀는 마음을 이겨 내지 못하고 몇 번이나 피를 토했었다. 양과는 소용녀의 전수를 받아서 내공도 그녀의 방법과 같았다. 지금 수족이 차가와지자 생각했다.

(내가 아가씨가 보는 앞에서 미친 듯 선혈을 뿜고 죽어도 그녀가 나를 모른 체하는가 어디 보자.)

그러나 다시 생각을 돌렸다.

(아가씨가 평소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든 안 했든 오늘 일은 중간에 반드시 다른 곡절이 있을 것이다.아마도 그녀는 이 곡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감히 나를 알아보지 맛하는 체하는 것일게다. 만약 내가 스스로 몸을 함부로 해친다면 도리어 대항하기가 어려워질 거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양과는 영웅심이 솟구쳐 목숨을 바쳐 포위망을 뚫고 소용녀를 구출하여 위험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즉시 심신(心神)이 안정되고 기가 단전으로 가라앉아 가득 고였던 뜨거운 피가 천천히 내려갔다. 양과는 미소를 흘리며 번일옹에게 말했다.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막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거늘...... !"

뭇사람들은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더니 미치려고 하는 것 같다가 돌연 정신을 안정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을 보자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

번일옹은 양과가 상심하여 피를 토하는 것을 보고 은근히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 그의 목숨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강장을 휘두르자 한 줄기 질풍이 양과의 옷깃을 요란하게 흔들었다.

"도대체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

공손곡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일옹, 어째서 이 귀찮은 놈을 어서 처치하지 못하느냐 !"

번일옹은 사부가 엄령(嚴令)을 내리자 강장을 휘둘러 양과의 다리를 쳤다.

공손녹악은 평소 대사형의 무예가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키는 비록 네 자가 채 안 되지만 신력을 타고나서 무공도 이미 부친이 전수한 것 중에서 열에 7,8 개는 체득하였고......, 이 강장이 극히 흉악한 맹수를 적지않게 때려 잡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양과가 나이가 어려서 결코 대사형의 구구 팔십 일의 발수장법(潑水杖法)을 당해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손을 쓰기 시작하면 다시 그를 구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여, 비록 아버지께서 추상 같은 안색을 하고 극히 노해 있지만 용기를 내어 일어나 양과에게 말했다.

"양공자, 여기에서 오래 있어 봐야 하나도 이익될 것이 없어요. 왜 헛되이 아까운 목숨을 버리려고 하세요 ?"

그녀의 말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게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법왕 등은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고 은근히 이상함을 느끼며 생각했다.

(양과와 우리는 함께 골짜기에 들어왔는데 언제 우리들 몰래 이 여자아이와 사귀었을까 ?)

양과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번 웃으며 말했다.

"소저의 호의는 정말 고맙습니다. 길다란 수염으로 꽃잎을 만드는 놀이를 혹시 좋아하시는지요 ?"

공손녹악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뭐라구요 ?"

"내가 이 난장이의 수염을 뽑아서 당신에게 가지고 놀도록 해 드리지요. 어떻습니까 ?"

공손녹악은 대경실색했다. 감히 이런 농담을 해 대다니 양과는 정말로 제 명에 죽지 못하겠따고 생각했다. 절정곡의 법도는 지극히 엄하여 그녀가 양과에게 이 몇 마디 한 것도 이미 아버지의 엄중한 질책을 무릅쓴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히려 그가 배짱 좋게 이런 망언을 하자 얼굴이 붉어지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 제자들의 행렬로 물러섰다.

번일옹은 몸이 왜소하여 자기의 수염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과가 경박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사납게 강장을 내던지고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좋다, 내가 먼저 네게 나의 수염 맛을 한번 보여 주마."

호통소리와 함께 긴 수염이 이미 날아오고 있었다. 양과는 웃으면서 말했다.

"노완동이 너의 수염을 깎지 않았으니 이번엔 내가 한번 시험해 보

자."
하며 양과는 등의 주머니에서 큰가위를 꺼내어 재빨리 그의 수염을 자르려고 했다. 번일옹의 수염은 곧장 날아와 사납게 그의 정수리를 때리는데, 그 위세가 실로 무시무시했다. 양과는 살짝 앉아서 피하며 가위의 날을 돌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날을 다물었다. 번일옹은 크게 놀라 급히 몸을 굴려서 나왔다. 조금만 늦었다면 무성한 수염이 모두 그에게 즐려 나갈 뻔했다. 그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듯 <오오 !> 하고 낮게 소리를 질렀다.

양과가 풍묵풍(馮默風)에게 이 가위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원래 이막수의 불진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막수가 오독신장(五毒神掌)과 한 자루의 먼지털이로 강호를 날뛰며 돌아다니자 양과는 큰가위로 그녀를 격파하려고 생각했었다. 사전에 이미 자세히 생각을 하여 그녀의 불진이 어떻게 말리면 가위를 어떻게 찌르고, 불진이 어떻게 공격하면 가위를 또 어떻게 오므리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했었다. 이막수와 아직 싸워 보지도 못했는데 이 절정곡에서 우연히 수염을 무기로 하는 이 난장이와 만나게 된 것이었다. 양과는 생각했다.

(너의 수염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결코 이막수의 먼지털이보다는 강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는 가위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번일옹은 수염에 이미 10 여 년의 공력이 있었고, 쌍장이 빈 채로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연편(軟鞭) 운소(雲掃)에 비하여 더욱 무시무시했다. 그는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어 수염을 움직이며 동시에 장력을 내어 급히 양과를 공격했다.

마침 주백통이 가위로 번일옹의 수염을 자르려 했지만 도리어 그의 수염에 가위가 감겨서 지고 말았었다. 사람들은 주백통의 무공을 보고 모두들 자기는 도저히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과가 이 큰가위를 꺼내 종횡으로 벌리고 다물며 춤추듯 움직이는 것

을 보니 노완동의 수법보다 훨씬 뛰어나, 모두들 입을 딱 벌릴 지경이었다. 기예나 공력으로 말하자면, 양과와 주백통은 당연히 큰 차이가 났다. 그러나 양과는 미리 세심하게 이막수의 운소 무공을 연구하여 가위의 초수를 만들었는데다가 번일옹의 수염도 마침 운소의 용법과 대동소이하여 그가 가위를 사용하자 과연 크게 우세를 점할 수 있었다. 주백통이 되는 대로 아무런 장법(章法)도 없이 가위를 휘두르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법왕 등은 연유를 알지 못하고 노완동이 큰가위를 직접 양과에게 주는 것을 보고, 주백통의 사람됨을 생각하여 이 괴상한 무기는 주백통이 괴이한 생각을 하여 만든 것으로 알았다. 양과가 검을 사용하는 데 일가견이 있음을 법왕은 평소에 알고 있었다.

번일옹은 여러 차례 가위에 잘릴 뻔한 위험을 당하자 즉시 그가 소년이고 무능하다고 경시하던 마음을 버리고 초법을 바꾸었다. 그는 수염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추듯 어지러이 휘둘러 사면팔방으로 공격하면서 종으로 내려치고 횡으로 휩쓸었다. 양과는 계속하여 가위를 놀렸지만 모두가 허탕이었다. 또한 적의 장풍이 매서운데다가, 때로는 수염이 허초이고 장력이 실초이며, 대로는 장법으로 적을 유혹하고 수염으로 틈을 타 공격하는 허허실실의 전법이 무림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묘한 무공이라고 생각했다. 수십 초를 교환하자 양과는 생각했다.

(이 곡주는 음험하고 잔인하니 무공이 반드시 이 난장이의 위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제자를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부를 이긴단 말인가 ?)

마음이 자꾸 초조해졌다. 그러나 번일옹의 수염은 길고도 두텁고, 이막수의 먼지털이보다도 훨씬 길고 커서 펼쳐서 공격하면 실로 흩뜨러지지가 않았다.

다시 몇 초를 겨루고 양과는 상대방을 정신을 집중하여 응시했다. 그가 머리를 어지럽게 흔들며 곡예를 하듯 하자 수염은 더욱 급하게 움직이며 둥글고 조그만 머리는 더욱 무섭게 흔들렸다. 한 가지 생각

이 떠올랐다. 이미 격파의 방법을 생각해 낸 양과는 철컥, 가위 소리를 내며 뒤로 반 장을 뛰며 외쳤다.

"천천히 하자 !"

번일옹은 추격을 하지 않고 말했다.

"소형제, 너는 이미 졌으니 빨리 골짜기를 나가라 !"

양과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고 말했다.

"이렇게 무성한 수염이 잘리면 얼마나 있어야 다시 자라나지 ?"

번일옹은 노하여 말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 나의 수염은 아직 잘린 적이 없다."

양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깝다, 아까와 !"

"무엇이 아깝단 말이냐 ?"

"내가 삼초 이내에 너의 그 긴 수염을 잘라 버리겠다."

번일옹은 생각했다.

(네가 나와 벌써 수십 초를 싸우고도 시종 평범한 수법이었는데 삼초 이내에 이긴다고 ? 후훗, 꿈에서 깨는 게 좋을 걸.)

번일옹은 노기를 띠며 호통을 쳤다.

"받아라 !"

우장을 　아 내리쳤다. 양과는 왼손으로 비스듬히 막아내고 오른손의 가위를 내려쳐 상대방의 왼 쪽 이마를 공격했다. 그의 키가 커서 적의 머리를 칠 때 가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자, 번일옹은 고개를 옆으로 하여 번개같이 피했다. 이때 양과의 좌장이 함께 떨어져 그의 오른쪽 이마를 깎아 쳤다. 이 일벽(劈)은 기세가 몹시 사나와서 번일옹은 급히 다시 고개를 왼쪽으로 하여 피했다. 적의 초수는 빠르게 다가오고 그가 피하는 것도 극히 잽싸서 긴 수염이 함께 흔들렸다. 양과의 큰가위는 이미 날을 벌리고 오른쪽을 지키고 있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수염이 두 자 이상이나 잘려 나갔다.

사람들은 아아, 하고 감탄성을 지르며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과연 단 삼초를 이용하여 번일옹의 수염을 자른 것이었다.

원래 양과는 오랫동안 싸우다가 마침내 번일옹이 수염을 왼쪽으로 휘두르면 머리는 그보다 먼저 오른쪽으로 가고, 수염이 위로 공격하면 머리가 반드시 그보다 먼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은근히 욕했다.

(그의 수염은 머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염을 휘두르려면 자연히 먼저 머리를 움직여야 한다. 나는 그 근본을 공격하지 않고 단지 그의 수염하고만 다투고 있었으니 정말 바보로구나.)

마음속으로 머리를 공격하여 수염을 자르는 계책을 정한 다음, 삼초내에 그의 수염을 자르겠다고 큰소리친 것이었다.

번일옹은 멍하니 있다가 자기가 반생의 수련을 통하여 남겨 놓은 수염이 한 가닥 한 가닥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깝기도 하고 울화가 치밀기도 하여 강장을 수중에 잡고서 소리쳤다.

"오늘 너와 사생결단을 내고야 말겠다. 골짜기를 나갈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아라."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본래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

번일옹의 강장이 가로로 휩쓸리며 양과의 허리를 공격했다.

마광좌는 막 번일옹과 한참을 싸워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득의양양하여 큰 소리로 말했다.

"난장이야, 너는 생긴 것이 본래 아름답지 못했는데 그 긴 수염이 없어지니 더욱 괴상망측하게 생겼구나."

번일옹은 이 말을 듣고 이를 갈며 손에다 더욱 힘을 주었다.

양과는 그와 많은 시간을 싸웠지만 줄곧 그의 수염의 부드러운 힘에만 맞서서 그의 어깨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다. 그가 강장을 휘둘러 오는 것을 보고 가위를 뻗어 막아내자 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팔이 시려 오고 가위는 이미 강장에 부딪쳐 휘어져서 그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이 일초에 그 큰가위는 이미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보니 양과가 이미 승리를 얻었는가 했는데, 무기가 바뀌면서 두 사람의 우열도 바뀌어, 번일옹은 손에 장대하고 무겁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었고 양과는 폐철덩이를 들고 있었다. 그러자 공손녹악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양공자, 당신은 대사형의 힘을 당하지 못하는데 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

공손곡주는 딸이 다시 외인을 옹호하고 나서자, 노기충천하여 그녀에게 무섭게 눈을 한번 흘겼다. 그녀는 얼굴에 온통 초조한 빛을 띠고 있었다. 다시 소용녀를 바라보니 그녀는 그냥 담담했다. 양과의 안위는 염두에 두지 않은 듯이 즉시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어 은근히 생각했다.

(원래 그녀는 이 소년에게 별다른 정이 없었구나. 그렇지 않다면 그가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것을 보고도 이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

그가 어찌 알겠는가 ? 소용녀는 본디 양과의 지계가 백출하고 무공도 번일옹의 위에 있으니 두 사람이 싸운다면 오진 승리만 있을 뿐이어서 전혀 마음을 졸이지 않고 있는 것을.

양과는 구부러진 큰가위를 바닥에 버리고 말했다.

"번가야, 너는 나의 적수가 아니다. 어서 강장을 버리고 항복해라."

번일옹이 노하여 말했다.

"네가 만약 내 수중의 강장을 이긴다면 내가 벽에 머리를 부딪쳐 죽어 버리겠다."

"아깝다, 아까와 !"

번일옹이 외쳤다.

"받아라 !"

태산압정(泰山壓頂) 일초로 강장이 그의 머리를 공격했다. 양과가 몸을 옆으로 하여 재빨리 피하자 왼발은 이미 지팡이 끝을 밟고 있었다. 번일옹은 두 손을 재빨리 비틀어 강장을 휘둘렀다. 양과는 지팡이

를 따라서 몸이 공중으로 뜨면서도 왼발은 여전히 살며시 지팡이 위를 밟고 서 있었다. 번일옹이 몇 번을 흘들었지만 그를 흔들어 떨어뜨리지 못하여 강장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자 오른발을 올려 지팡이 위를 걸어갔다.

이 두 가지 괴초는 다른 사람이나 번일옹의 눈으로도 믿지 못한 일이었다. 사실 이것은 고묘파 무공 중의 절정의 경공으로, 장대한 무기를 격파하는 상법이었다. 당년에 이막수가 가흥의 부서진 가마터 밖에서 무삼통과 싸울 때, 그가 병기로 삼았던 밤나무가지 위에 서서 무삼통이 계속 흔들어서 떨어뜨리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무공이었던 것이다. 번일옹이 깜짝 놀랄 때에 양과가 왼발을 다시 성큼 내디디며 오른발을 날려서 그의 코끝을 걷어찼다. 이때 번일옹은 지독한 낭패의 지경에 빠져 버렸다. 적이 강장에 몸을 붙이고 있어서 자기가 만약 뒤로 뛰어 피한다고 해도 적이 같이 따라올 것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지팡이를 지탱하고 있어서 손을 떼어 막아 낼 방법도 없었고, 수염이 잘리어 몸을 방어할 이기(利器)도 없어서 급한 나머지 강장을 버리고 뒤로 뛰어 피할 수밖에 없었다. 떵, 하는 소리와 함께 강장의 한쪽이 바닥에 닿고 다른 한쪽은 아직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양과의 수중에 잡혀 있었다.

마광좌 니마성 소상자 등은 모두 탄사(歎辭)를 보냈다. 양과는 강장으로 바닥을 한번 크게 치고 웃으며 말했다.

"어쩔 테냐 ?"

번일옹은 얼굴이 온통 붉게 상기되어 말했다.

"내가 잠시 불찰로 너의 계책에 빠졌지만, 심중으로는 불복한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 보자."

강장을 가볍게 던지자 번일옹이 손을 뻗어 받았다. 그러나 강장이 그의 앞으로 두 자 남짓 날아가자, 돌연 위로 튀어올라 번일옹은 헛손질을 하게 되고 양과가 몸을 날려 팔을 뻗어서 다시 강장을 잡았다. 마광좌 등의 탄성이 더욱 크게 울릴 때, 번일옹의 얼굴은 더욱 상기되

어 완전히 간장색으로 변했다.

금륜법왕과 윤극서는 서로 바라보고 한번 씨익 웃으며 마음속으로 양과의 총명함에 찬사를 보냈다. 어제 주백통이 부러진 창을 누구에게 던지는데, 힘을 주었다가는 즉시 거두어들여 창끝이 중간에 방향을 바꾸곤 했는데 양과는 이때 그의이 방법을 배운 것이다. 창은 4개이고 강장은 하나뿐이었고, 강장은 매우 무거워서 힘을 돌리기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양과의 이 수법은 주백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기는 했다. 그러나 공손곡주와 제자들은 이런 연유를 알지 못하니 그저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할 테냐? 이래도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거냐?"

번일옹은 수염을 잘린 일이나 강장을 빼앗긴 것이 완전히 상대방의 계략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에게 진 것을 인정하라고 해도 승복하기가 어려웠다. 번일옹이 큰 소리로 말했다.

"네가 진정한 실력으로 나를 이긴다면 당연히 너에게 승복하겠다."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무학의 도는 교(巧)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너의 사부의 머리가 좋지 못하니 가르친 제자는 자연히 더 모자라겠지. 내가 한 말씀 권해 주지. 다른 현명한 사부를 모시도록 해라. 이 난장이야!"

이 말은 자연히 공손곡주를 가리켜 욕하는 것이었다.

번일옹은 생각했다.

(내가 무예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사존이 모욕을 받게 됐으니 만약 정말 승리하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부님께 사죄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악물고 몸을 원숭이처럼 위로 날리자 양과는 강장을 가로로 들고 그의 손에 던져 주며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만약 다시 나에게 뺏기더라도 다른 사람을 원망해선 안 된다."

번일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지팡이 끝을 움켜잡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이 지팡이를 뺏긴다면 이놈의 팔도 滲樽버리겠다.)

"조심해라 !"

양과가 외치면서 몸을 앞으로 솟구치자 왼손은 이미 지팡이 끝을 받치고 오른손의 식지 중지 두 손가락으로 그의 두 눈을 찌르며 동시에 왼발을 날려 지팡이 몸체를 눌렀다. 이것은 바로 타구봉법의 절초인 오구탈장(獒口奪杖)이었다.

먼저 두 번, 양과가 지팡이를 빼앗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비록 그의 수법의 기묘함을 느끼기는 했지만 똑똑하게 볼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번일옹조차도 그 오묘함을 알지 못하여 단지 눈 깜짝할 시이에 강장은 이미 적의 수중에 가 있었다. 오직 금륜법왕만이 무학이 깊고 타구봉법을 본적이 있기 때문에 양과가 사용한 것이 바로 그 봉법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 따름이었다.

마광좌가 외쳤다.

"수염도 없는 털보야, 이번에야말로 네가 지지 않았느냐 ?"

번일옹은 크게 소리쳤다.

"그가 사용한 것은 요술이다. 진정한 무공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승복하겠느냐 ?"

"진정한 너의 실력으로 나를 쓰러뜨리면 이 늙은이가 졌다고 인정하마."

양과는 다시 강장을 그에게 돌려주고 말했다.

"좋다, 우리 몇 초를 다시 겨루어 보자."

번일옹은 그의 공수탈장의 묘술을 매우 두려워하여 생각했다.

(내가 어쩌다 우세를 차지해서 그가 견디지 못하게 되면 돌연 또 요술을 펴서 지팡이를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끝내 그를 이기기 어

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양과에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장대한 무기를 사용하고 너는 빈 손이니 내가 이기더라도 네가 승복하지 않을 것 아니냐 ?"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나의 공수입백인(空手入白刃)의 무공을 두려워하는 모양이구나. 좋다, 나도 마찬가지로 무기를 사용하면 되겠지 !"

대청을 한번 둘러보니 사방 벽에는 휑하니 아무것도 설치해 놓지 않아 사용할 만한 무기가 전혀 없었다. 마당에는 두 그루 큰 버드나무만이 가지를 늘어뜨린 채 푸른 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소용녀를 쳐다보고 말했다.

"당신의 성이 유씨라니 나도 버드나무가지로 무기를 삼겠소 !"

말을 마치고 몸을 날려 마당으로 가서 1촌(寸) 정도 되는 버들 가지를 꺾었다. 길이는 약 4자 정도 이고 울퉁불퉁한 것이 마치 개방의 타구봉과 비슷했다. 다만 잎을 제거하지 않아 아치를 더해 줄 뿐이었다.

소용녀는 마음이 한동안 어지러웠다. 이후에는 어떻게 하야 좋을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양과가 그녀의 눈앞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를 버리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는 비록 양과와 헤어져서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참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서, 그의 한 마디 말, 한 가지 행동, 한 번 울고 한 번 노하는 것을 느끼는 것마다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는 것이 없었다. 못 들은 체, 못 본 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마음은 백 번 천 번이나 칼로 찢기는 듯했다.

****** 공 손 곡 주 (公 孫 谷 主) 는 누 구 인 가 ******

번일옹은 양과가 마치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처럼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무기로 삼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었다. 양과가 자기를 무시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타구봉법을 펼치는 데 있어서 버드나무 가지가 그 유연성이나 끈질김은 비록 개방에서 대대로 전해 오는 죽봉에 뒤지지 않을다는 사실을 그가 어찌 알 수 있었으랴 !

"양형, 내 칼을 사용하시오."

마광좌가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검광(劍光)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이, 보통 예리한 칼이 아니었다. 양과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웃었다.

"고맙습니다 ! 요 난장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단지 사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무예도 변변치 않으니 이 버드나무 가지로도 충분하오."

순간 버드나무 가지가 살짝 흔들리며 쇠지팡이 위에 가볍게 실렸다.

번일옹은 그의 말 속에 사부를 모욕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이번에야말로 인전사정없이 결단을 내리라 생각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81로의 발수장법(潑水杖法)을 전개했다.

번일옹의 장법은 처음에는 소리도 우렁차고 위세당당했으나, 몇 동작을 펼친 후부터는 점하 휘두르는 방향도 어지러워지고 지팡이 머리도 아래로 기울어져 그것이 일으키는 바람소리도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원래 양과는 타구봉법 가운데 <전>자의 구결을 사용해 버드나무 가지를 쇠지팡이의 머리에 얹어서 지팡이가 동으로 가면 버드나무 가지도 동으로, 위로 오르면 버드나무 가지도 위쪽으로 따라 올랐다. 그러나 계속 옆으로 힘을 가해서 밀고 당기는 가운데 지팡이의 머리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 타구봉법의 <전>자 구결은 바로 무학의 고급 절기인 <사량발천근(四兩撥千斤)>에서 생겨난 것으로 정말 오묘해 보통의 <차력타력(借力打力)>, <순수추주(順水推舟)>의 수법을 훨씬 능가하는 기술이었다.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여, 나이 어린 양과에게 이처럼 신묘한 무공이 있음에 모두들 경악했다. 번일옹의 쇠지팡이는 계속 힘이 빠지는 데 비하여 양과의 버드나무 가지는 더욱 강해졌다.

이윽고 30여 동작이 지나가자 번일옹의 온몸은 이미 버드나무가지에

의해 완전히 제압당하고, 손에 힘이 자꾸만 빠지면서 아래위로 흔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아주 강한 회오리바람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눈앞이 아찔해지고 정신이 혼미해 방향을 알지 못했다. 공손곡주는 손을 뻗어서 오른쪽의 탁자를 내리쳤다.

"일옹은 물러나거라 !"

이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양과까지도 마음이 움찔할 정도였다.

(어림없는 소리 ! 지금 어찌 멈출 수 있으랴 !)

양과는 손을 떨며 이미 <전>자의 구결로 들어가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손목으로 급히 조그만 원을 그리며 번일옹을 마치 팽이처럼 빠르게 돌렸다. 양과의 손목이 빠르게 돌면 돌수록, 번일옹도 빨리 회전해서 그의 손에 있던 쇠지팡이가 마치 팽이의 중심에 있는 중심쇠처럼 되어 버렸다.

"네가 능히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면 영웅 호걸이라 칭해 주겠다. 단지 너의 사부가 힘이 모자라 너를 구하다 혹시 쓰러질까 봐 그것이 염려될 뿐이다."

양과는 버드나무 가지를 위로 흔들면서 뒤로 물러났다.

번일옹은 이때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도 비틀거려서 다시 몇 바퀴를 돌고는 곧 땅에 쓰러지려고 했다. 공손곡주는 돌연 공중으로 몸을 날려서 손으로 그의 쇠지팡이의 머리를 한 번 내리치고는 가볍게 내려앉았다. 이 동작은 매우 가벼웠지만 힘은 대단해서 쇠지팡이는 땅 속으로 2 척 정도 뚫고 들어가더니 돌기를 멈추었다. 번일옹은 두 손으로 간신히 쇠지팡이에 의존해 쓰러지지는 않았으나 몸은 좌우로 비틀거려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았다.

소상자, 윤극서 등은 양과를 쳐다보고 다시 공손곡주를 쳐다보면서 두 사람을 마치 자웅을 가릴 수 없는 굉장한 인물들로 생각하며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자는 생각을 하였다. 단시 마광좌만이 양과를 도우려고 했다.

"양형, 대단하오 ! 난장이 털보가 패했소 !"

번일옹은 깊은 숨을 내쉬며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돌려서는 갑자기 사부를 향해 꿇어앉아서 머리를 네 번 조아리더니 급작스럽게 돌기둥을 향해 달려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었다. 그가 패배를 한 뒤, 이처럼 급하게 자살을 기도할 줄은 미처 몰랐다.

"아아 !"

공손곡주는 비명을 지르며 급히 자리에서 뛰쳐나와 손을 뻗어서 그의 등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었고, 번일옹의 행동이 너무나 민첩하여 한손에 잡을 수가 없었다.

번일옹은 몸을 숙이고 기둥에 머리를 찧으려고 온힘을 다해서 달려들었으나 돌연 이마에 솜같이 부드러운 것이 닿는 것을 느끼고 머리를 들어 보니 양과가 두 손을 내밀고 기둥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

"번형,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뭔지 아오 ?"

그때, 양과는 번일옹이 그의 사부를 향해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는 이미 그의 비장한 결심을 알고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다행히 그와 번일옹의 거리는 매우 가까와서 그가 기둥에 달려들자 급히 손으로 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번일옹은 깜짝 놀랐다.

"그게 무엇이오 ?"

"나도 모르겠소. 다만 내 마음의 상처는 당신에 비해 열배가 넘건만 나는 자살하지 않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처럼 못난 짓을 한단 말이오 ?"

"당신은 나보다 무공이 뛰어난데 마음속에 무슨 사 처가 있겠소 ?"

"무공의 상하는 따져서 무엇하리오 ! 나는 평생 얼마나 많은 싸움에 패했는지 모른다오. 당신이 자살하려 하자 당신의 사부가 그처럼 황급히 달려왔었소. 만약 내가 그랬다면 아마 우리 사부님은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오. 이것이 바로 나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지요."

번일옹은 아직 그 뜻을 알아챌 수가 없었다.

"일옹, 이 어리석은 놈아! 스승의 명을 어기다니...... 거기 서서 내가 이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보아라."

번일옹은 사부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 없어서 마루의 한쪽으로 물러나며 두 눈을 크게 뜨고는 양과를 쳐다보았다. 그에게 원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몰랐다.

소용녀는 <만약 내가 자살한다면 아마 우리 사부님은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양과의 말을 듣고는 두 뺨이 붉어지며 몇 방울의 눈물을 흘렸다.

(만약 네가 죽는다면 나 혼자 살아남아서 무엇하야!)

공손곡주는 소용녀와 양과의 태도를 보면서 그녀가 돌연 눈물을 흘리자 질투심이 일었다. 그는 곧 손뼉을 세 번 쳤다.

"저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그는 높은 신분으로 양과와 직접 상대할 수는 없었다. 양쪽에 있던 녹의의 제자들이 일 제히 소리를 지르며 16명이 사방으로 나뉘어 각각 4명마다 1개의 그물을 들고는 동시에 펼쳐서 양과를 포위했다.

양과와 금륜법왕 등이 함께 오는 동안 법왕이 은연중에 그들의 수령격이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해서 싸우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법왕이 내려야 했으나그는 쓴웃음만 지으면서 계속 방관하고 있었다.

공손곡주는 법왕의 속뜻은 모르고 오히려 그의 웃음을 자기가 양과를 대적하지 못하리라는 비웃음으로 생각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절정곡(絶情谷)의 따끔한 맛을 보여 주고야 말겠다.)

그는 두 손을 다시 세 번 쳤다. 16명의 녹의 제자들이 서로 교차되어 자리를 바꾸며 포위망을 몇 걸음 좁혔다. 네 개의 그물은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끊임없이 계속 움직였다.

양과는 일찌기 두 번이나 이 어망진으로 주백통을 잡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망진이 대단히 변화무쌍해서 대항하기가 어렵고, 진법의 오묘함은 전진교의 천강북두진에 비길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백통의 훌륭한 무공으로도 그물에 사로잡혔는데 내가 어찌 상대할 수 있겠는가 ?)

모든 그물이 그를 둘러싸고 펼쳐 있었는데, 그물을 조정하는 사람은 그물의 뒤에 있어서 만약 진법을 깨려면 우선 그물을 들고 있는 녹의의 제자들을 먼저 공격해 쓰러뜨려야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접근하자니 먼저 그물에 걸려들 우려가 있어 양과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16 명이 포위망을 좁혀 오면 좁혀 올수록 양과는 단지고묘파의 경공을 전개해, 대청 가운데에서 분주히 치달아 급히 돌고 멈추고 하여 적으로 하여금 그의 방향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그가 사방으로 움직여도 16 명의 제자들은 그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단지 조금씩조금씩 포위망을 좁혀 왔다. 양과의 발이 빨라지는 동시에 진법의 약점은 찾았으나, 그물의 움직임이 매우 민첩하고 네 개의 망이 서로 중복되어 교차하고 있었으므로 시종조그만 틈도 없음을 알았다.

(암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처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둥그렇게 몸을 회전시키며양과는 손에 이미 몇 개의 옥봉침을 빼들었다. 서쪽의 네 명을 쳐다보는 체하며 왼손을 휘저어 7,8 개의 금침을 북쪽의 네 명을 향해서 던졌다.

네 명이 모두 침에 명중한 것으로 알았으나 뜻밖에도 팅팅팅, 하는 가벼운 소리를 내며 7,8 개의 금침이 모두 그물에 붙었다. 원래 그물의 쇠줄이 교차하는 지점에 조그만 자석이 장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큰 그물은 적의 암기가 아무리 매서워도 모두 막을 수 있었다. 옥봉침은 7 할의 금과 3 할의 철로 만들어졌는데, 이 3 할의 철 때문에 옥봉침이 그물의 자석에 달라붙은 것이다.

양과는 이 일격이 성공할 줄 알았으나 그물에 이처럼 묘한 장치가 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 양과는 황망히 공손곡주를 쳐다보고는 다시 암기를 사용해도 소용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오른손을 품속에 감추어

금침을 집어넣고 다시 탈출의 방법을 생각하려고하자, 동쪽의 그물이 급히 머리를 향해 덮쳐 왔고, 그물을 잡고있는 사람의 휘파람 소리와 함께 눈앞에 금빛이 번쩍하면서 또 한장의 그물이 오른쪽 어깨에 비스듬히 걸쳐졌다. 양과는 주저앉으며 서북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나 북쪽과 서북쪽의 그물이동시에 덮쳐 왔다.

(아아, 이첸 공손곡주의 수중에 잡혀 무슨 모욕을 받을지 모르겠구나.)

그때 갑자기 남쪽의 그물을 들고 있던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이야 !"

양과가 고개를 돌리자 공손녹악이 땅에 쓰러져 있고, 그물의 한 귀퉁이가 천천히 밑으로 처지는 것이 보였다.

어망진에 빈틈이 생긴 것이었다. 양과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급히 밀어 포위망을 빠져나왔다. 공손녹악은 여전히 아프다고 소리치며 양과를 슬쩍 쳐다보며 그에게 빨리 골짜기를 도망치라고 눈짓했다.

(그녀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면서까지 나를 구해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러나 내가 골짜기를 빠져나가면 아가씨는 공손곡주의 강요를 받아 그와 결혼하게 되지 않겠는가. 내가 오늘 그에게 잡혀서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결코 이 골짜기를 빠져나가지 않으리라 !)

양과는 대청의 구선에 서서 두 눈을 부릅뜨고 소용녀를 쳐다보며 속으로 내가 이토록 위태로운도 설마 아가씨가 나를 도와 주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용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단 한 마디의 말도 없었다.

공손곡주가 손뼉을 두 번 치자 네 개의 그물이 돌연 흩어졌다. 그는 공손녹악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냐 ?"

"제 발에 갑자기 쥐가 났는데 아파 죽겠어요."

공손곡주는 원래 자기의 딸이 양과에게 애정을 품고 있다가 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의 목숨을 살려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리에

손님들이 있었으므로 마구 나무랄 수도 없었다.

"좋다. 넌 쉬어라. ...... 녹악의 자리를 어서 보충해라."

공손녹악은 머리를 숙이고 물러났다. 녹의를 걸친 소년 한 명이 대답을 하며 뛰어나가서 그물을 잡았다. 이 소년은 겨우 14살 정도였는데 머리를 두 갈래로 땋고 있었다.

공손녹악은 양과를 아주 한스러워하는 눈길로 몰래 쳐다보았다. 양과는 속으로 그녀에게 매우 미안하게 생각했다.

(그녀의 정이 이토록 두터운데 내가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군.)

공손곡주가 다시 손뼉을 네 번 치자 16명의 제자가 돌연 빠른 걸음으로 내당으로 물러났다.

(설마 공손곡주가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겠지 !)

양과는 매우 이상하게 여겨 고개를 돌렸다. 공손녹악의 표정이 매우 당황해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눈짓으로 계속 그에게 어서 빨리 골짜기를 빠져나가라고 하였는데, 그 모양을 보니 자기가 마치 큰 화를 당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듯했다. 양과는 가볍게 웃으며 오히려 의자를 집고서 앉았다. 돌연 내당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16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손에는 여전히 그물을 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물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개의 그물은 가볍게 손질이 되어 망에다 아주 예리한 갈고리와 비수를 장치해 놓아 누구라도 어망에 걸렸다 하면 결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마광좌는 크게 놀랐다.

"고, 곡주노형 ! 설마 이 잔인한무기를 손님에게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 도대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공손곡주는 양과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몇 번 이 골짜기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너는 계속 소란을 피웠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말로 권

할 때 빨리 골짜기를 나가라."

마광좌는 스스로 담이 크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 네 개의 그물을 보고는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그 그물의 갈고리와 칼이 서로 부딪쳐 나는 금속성의 소리를 듣고는 일어서서 양과의 손을 잡았다.

"양형, 이 잔인한 무기는 그의 비결이오. 그대가 어찌 그와 함께 흥분하는 거요 ?"

양과는 소용녀를 보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소용녀는 곡주가 칼과 갈고리가 달린 그물을 내오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이미 <사(死)>자를 떠올리면서, 만약 양과가 그물에 감긴다면 자기도 그물에 뛰어들어 그를 얼싸안고 함께 죽으리라고 생각했다. 이같이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태연해졌다.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이 뭐 별것이랴, 하는 생각을 품자 어느새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의 이러한 마음을 양과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가 이같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는데도 그녀가 여전히 미소를 띄고있자 매우 가슴이 아팠다. 상심과 비분, 위기의 감정이 교차했다. 돌연 양과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곧바로 소용녀의 앞으로 다가가서 가볍게 몸을 굽혔다.

"아가씨, 과아가 오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가씨의 금방울 달린 띠와 장갑을 제가 한번 쓰게 해 주십시오."

소용녀는 단지 그와 함께 죽을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는데, 양과의 이 말을 듣고는 즉시 품속에서 한 쌍의 흰색 장갑과 흰색 주단 허리띠를 그에게 내주었다.

양과는 천천히 장갑과 띠를 받아 들고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나를 신랑으로 생각합니까 ?"

"속으로 이미 그렇게 생각했다."

양과는 정신이 아찔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면 나와 함께 가고, 이 곡주에게 시집가지 않겠지요 ?"

"나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 시집을 갈 수 있겠어 ! 과야, 나는 결국 너의 아내란다 !"

그녀의 말 가운데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말은 그와 함께 죽겠다는 뜻이었는데, 양과도 그 뜻을 몰랐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더더구나 몰랐다. 그러나 <나는 결국 너의 아내란다 !>라는 말은 모두 똑똑하게 알아들었다. 공손곡주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두 손을 힘차게 네 번 쳐서 녹의의 제자들을 재촉했다. 16 명의 제자들은 그물을 흔들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양과는 소용녀의 이 말을 듣고서 마치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용기가 백배해서 눈앞의 위험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즉시 칼로 찔러도 손상되지 않는 금실 장갑을 끼고는 오른손으로 띠를 흔들기 시작했다. 띠는 윙윙, 소리를 내며 마치 한 마리의 흰 뱀처럼 날아갔다.

허리띠의 끝에는 소리를 내는 금방울이 달려 있어, 띠를 한 번 휘두르자 금방울은 이미 남쪽에 있던 제자의 <음곡혈(陰谷穴)>을 치고 돌아 오면서 동쪽에 있는 제자의 곡택혈(曲澤穴)을 쳤다. 이 음곡혈은 무릎의 관절에 있어 그 제자는 옳게 서 있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또한 곡택혈은 팔꿈치에 있어서 결국 그물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이 두 번의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하자 어망진은 약점이 노출되어, 서쪽에서 그물을 들고 있던 네 명의 제자들은 겁을 먹고 공격을 늦추었다. 양과의 띠가 다시 날아가 딩딩딩,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두 명의 제자가 쓰러졌다. 그러나 이때 북쪽의 그물이 이미 양과의 머리를 뒤집어씌워서 망에 있는 칼과 갈고리가 양과의 머리에서 겨우 반 척의 거리로 접근해 금방울 띠로 막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양과는 왼손을 뒤집어서 그물을 붙잡고는 힘을 다해 뿌리쳤다. 그는 손에 장갑을 끼고 있어서 손으로 비록 날카로운 칼을 붙잡아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다. 어망이 그에게 잡혀서 되던져지자 돌연 서쪽에 있던 네 명의 제자가 오히려 그물에 감기려 했다.

모든 제자들이 그물의 진법을 펼칠 때 단지 적이 그물을 빠져나갈까

두려워서 포위를 엄밀히 했을 뿐 결코 이 그물이 자신들의 머리에 씌워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망에 있는 날카로운 갈고리와 칼이 그들의 머리에 닥쳐오자 원래 이 그물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던 커라 모두들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놓고 도망쳤다. 방금 공손녹악을 대신해서 들어갔던 소년은 동작이 느려서 넓적다리가 어망의 비수에 찔리고 말았다. 곧 붉은 피가 흐르며 소년은 땅에 넘어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신음했다. 양과가 말했다.

"소형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양과가 왼손으로 그물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금방울 허리띠를 흔들자 칼과 갈고리가 부딪쳐서 소리가 났고, 금방울도 짤랑짤랑 소리가 났다. 상황이 이처럼 전개되자 공손곡주의 제자들은 감히 앞으로 나와 대척하지 못하고 멀찍이 담을 기대어 섰다. 그들은 사부의 명령이 없이는 감히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 그러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그들은 이미 패배한 것과 진배없었다.

마광좌는 손뼉을 치고 큰소리를 질렀다. 사람들 가운데에 오직 그 혼자만이 갈채를 보내어 그 적막함을 깨뜨렸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법왕을 쳐다보았다.

"어때요 ? 금륜대사 ! 향형의 무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 어째서 대사는 성원을 하지 않는 거요 ?"

"매우 높지요. 그렇다고 마형처럼 요란을 떨 것까진 없지요."

"뭐라고요 ?"

법왕은 공손곡주의 두 눈썹이 치솟는 것을 보고는 천천히 대청의 가운데로 걸어가며 마광좌가 다시 무슨 말을 해도 상대하지 않았다.

공손곡주는 소용녀가 양과에게 <나는 결국 너의 아내란다 !>라는 말을 한 이후, 지난 보름 동안 품어 都針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공손곡주는 한편 실망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었다.

(내가 비록 너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너를 차지하고야 말겠다. 내가 요 조그만 녀석을 죽여 버리면 너는 어쩔 수

없이 내게 시집을 오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내게 마음을 돌리게 될 것이다.)

양과는 그의 눈썹이 점차 높아지더니 마침내 눈과 수직이 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무공인지 몰라 속으로 두려워하면서, 오른손으로 띠를 들고 왼손으로 어망을 잡고는 바짝 경계를 했다. 자기와 소용녀의 생사가 이 일전에 있다고 생각한 양과는 감히 소홀히 임할 수가 없었다.

공손곡주는 양과를 중심으로 천천히 한바퀴 돌았다. 양과도 제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서 시종 그의 눈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늦게 동작을 취하면 취할수록 그 동작이 매섭다는 것을 양과는 알고 있었다. 공손곡주가 손을 앞으로 가볍게 내밀더니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자 쨍, 하는 소리가 났는데 마치 쇠붙이가 서로 부딪치는 것 같았다. 양과가 약간 겁을 먹고 한 발 뒤로 물러나자 공손곡주는 오른팔을 뻗으며 어망의 한쪽 끝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양과는 잡아당기는 그의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곧 손가락에 통증을 느꼈다. 이내 양과의 손이 느슨해졌다. 그때 이미 공손곡주는 대청의 한쪽에 빈 손으로 있는 네명의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고 난 후였다.

"물러나라 !"

양과는 그물을 뺏긴 뒤, 다시는 그에게 선수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허리띠를 휘둘렀다. 금방울이 흔들리며 나누어 상대방 어깨의 거골(巨骨)과 목의 천정(天鼎)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갔다. 공손곡주는 앞가슴을 넓게 펼치고 두 팔을 밖으로 뻗었지만, 양과는 감히 그의앞가슴에 있는 대혈을 공격하지 못하고 우선 그의 몸에 있는 소혈을 시험삼아 공격했다. 공손곡주의 무공은 일가를 이루어 양과의 금방울이 혈도를 공격해도 아랑곳없이 오른팔을 내밀어서 순식간에 양과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딩딩, 하는 소리에 거골과 천청이 동시에 공격을 당해도 마치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손의 방향을 바꾸어서 양과의 왼쪽 젖가슴을 치고 들어왔다. 양과는 크게 놀라 급히 몸을 옆으로 피했다.

다행히 그의 경신 공부가 상당한 수준에 있었기에 상대방의 급습을 피할 수 있었다.

양과는 일찌기 구양봉 홍칠공 황약사 등 무림의 고수가 무공을 논할 때, 내공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적이 기습을 해 올 때 잠시 동안 혈도를 막아서 방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지금껏 그 정도의 사람은 만나 본 적이 없었다. 이때 그의 머리와 발을 보니, 구양봉의 이파 무공처럼 경맥을 바꾸어 온몸의 대혈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었다. 눈앞의 이 강적은 혈도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마치 온몸에 혈도가 없는 것 같았다. 이러한 무공은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었다. 양과는 속으로 기가 꺾여 매우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손을 뒤집자 손바닥이 은은하게 검은색 기운을 띠고 있었다.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을 보고 양과는 감히 그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금방울 띠를 사용해 그와 대결하며 왼손으로는 온몸의 각처의 있는 급소를 보호했다.

순식간에 10여 동작이 지나갔다. 양과는 신경을 집중해 저항하다가 돌연 상대방의 왼손이 가볍게 그의 가슴을 누르는 것을 느꼈다. 유연하면서도 강한 것이, 완안평의 철장과도 비슷했다. 공손곡주는 한손으로 허공을 저으며 손을 접지 않고 다시 두 척 정도 내뻗었다. 몸이 한번 흔들리면서 그는 이미 양과의 앞에 이르렀다. 보통 사람이 손을 뻗을 때에는 항시 팔꿈치를 먼저 뻗는데, 그의 이러한 동작은 손을 움직이지 않고서도 몸을 앞으로 이동시켜 적을 공격하고 있었다. 원래 온몸의 힘이 한 팔의 힘을 능가하긴 했지만 동작을 취할 때는 민첩하기가 힘이 든 것인데, 공손곡주의 이 동작은 위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첩했다. 양과는 옆으로 급히 몸을 피하며 왼손을 휘둘러 이 동작에 대항했다. 양손이 교차하자 양과는 세 걸음 뒤로 밀려났고, 공손곡주는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단지 상체만 약간 흔들거릴 뿐이었다.

공손곡주는 제자리를 지키고 서서 위세를 점하고 있었지만, 사실 양

과의 장력 반격도 이미 그의 옆구리에 통증을 주어서 그 또한 속으로 매우 놀랐다.

(이것은 철장 무공으로, 이미 10여 동작 이상을 펼쳤는데 이놈이 이처럼 악착같이 대적하니 죽여 버리기는 힘들겠구나. 만약 그와 무승부를 이룬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두 손을 계속해 치자 육중한 소리가 귀를 자극했다.

"양가야, 나는 너에게 정을 느끼고 있다.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만약 평소의 대결이었다면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다시 붙는다해도 양과가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결코 소용녀와 자기가 골짜기를 조용하게 빠져나가게 하지 않을 것임을 안 이상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양과는 생각했다. 이때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도 양과는 적에게 여전히 웃는 모습을 바꾸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소용녀가 이미 자기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만약 나를 죽이면 우리 아가씨가 어찌 당신에게 시집 갈 수 있겠소? 또 나를 죽이지않는다 해도 우리 아가씨가 당신에게 시집 갈 리가 없지. 이러한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호랑말코같은 정이 있겠소? 이 일은 가볍게도 신중하게도 처리하기 곤란한 일일 거요."

양과의 이 말은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꿰뚫었다. 공손곡주는 한 동작에 그를 죽여서 후환을 끊지 못했음을 후회했다. 비록 소용녀가 원망을 해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은 사실 한 번에 양과를 제압할 수 없음에 있었다. 그는 딸을 쳐다보았다.

"내 무기를 가지고 와라."

공손녹악은 머뭇거리며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내 소리가 안 들리느냐?"

공손녹악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낮게 대답을 하고는 내당으로 들어갔다.

양과는 부녀의 표정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맨손도 내가 상대하기 힘들었는데 다시 이상한 무기를 가지고 오면 영락없이 죽었다 ! 이때 도망치지 않으면 언제 도망한단 말인가 !)

양과는 소용녀의 곁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

"아가씨, 나와 함께 갑시다."

공손곡주는 두 손에 힘을 모아 소용녀가 손을 뻗어서 양과를 잡는 때를 기다려 즉시 철장으로 맹렬하게 양과의 등을 덮치려고 했다. 공손곡주는 생각했다.

(비록 유매(柳妹)가 나를 책망한다고 해도 이놈을 죽여야겠다. 유매가 만약 그와 함께 가 버리면 내 인생의 후반을 무슨 낙으로 산단 말인가 !)

소용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채 가볍게 말했다.

"나는 당연히 너와 가마 ! 그러나 이곳의 공손곡주께서 내 생명을 구해 주셨으므로 그에게 우리들의 사이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자."

양과는 다급해졌다.

(아가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에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가 양해해 줄 줄 아는 모양이지 !)

"과아야, 요즈음 어떻게 지냈느냐 ?"

소용녀의 이 말 속에는 애절한 정이 가득 흘러넘쳤다. 양과는 그녀의 가련한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그녀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가씨,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소용녀는 가볍게 웃었다.

"내가 왜 네 걱정을 하겠느냐 ? 나는 지금껏 너를 걱정해 본적이 없어. 자, 어서 몸이나 돌려라."

양과는 그녀의 말대로 몸을 돌렸으나 그녀의 심중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품속에서 조그만 바늘과 실을 꺼내더니 바늘에 실을 끼워서 그의 등에 번일옹이 잡아서 찢어 놓은 구멍을 가리켰다.

"나는 항상 너에게 새옷을 지어 주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오늘 이후 다시는 너의 새옷을 지어 주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오늘 이후 다시는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찢어진 옷을 깁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 아아, 뜻밖에도 네가 이곳까지 찾아올 줄이야......"
하고 말하는 소용녀의 처량한 안색은 기쁨으로 변했다. 그녀는 조그만 손가위를 들고 자기의 옷을 조금 잘라내어서 천천히 양과의 찢어진 옷에 갖다 대고 기웠다.

예전에 두 사람이 함께 고묘에 있을 때 양과의 옷이 찢어지면 소용녀는 이처럼 그를 옆에다 앉혀 놓고 옷을 기워 주곤 했었다. 이때 두 사람은 모두 생사를 초월해서 옆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대청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들 쳐다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고묘에서 옷을 기워 주던 때와 조금도 다름 없이 행동했다.

양과는 한없이 기뻐서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렀다. 양과는 목이 멘 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방금 아가씨가 피를 토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네가 신경쓸 일이 아니다. 너도 알다시피 그건 내 고질병이야. 얼마 동안 너를 보지 못했는데 그 동안 너의 무공이 무척 늘었더구나. 방금 내가 피를 토한 것은 별 일이 아니니까 신경쓰지 말아라."

"예, 별 것 아니지요. 내 뱃속에도 피가 가득한데요, 뭘 !"

"너는 늘 농담하기를 좋아하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비록 평이하고 별스럽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이 말을 듣고서 그들 두 사람이 서로 애절한 정을 품고 있는 관계이고 오래된 인연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법왕 등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공손곡주는 질투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요 며칠 동안에 나는 재미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가씨, 이 큰가위를 어디서 가쳐왔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지. 네가 벌써 이곳에 털보가 있음을 알고는 이 큰가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의 수염을 깎아 주려는가 보다 했어. 너는 정말 여전히 개구장이야. 남들이 고생고생하면서 수년간 수염을 길러 놓은 걸 네가 한번에 잘라 버리려니...... 어찌 아깝지 않을까 ?"

하고 말하며 입을 삐죽이고 눈을 굴리면서 밝게 웃었다.

공손곡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내밀어 양과의 가슴을 잡으려고 했다.

"요 생쥐 같은 놈아 ! 너는 안중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

양과는 대항하지 않았다.

"서鑵A楪마시오. 우리 아가씨가 옷을 다 기워 주면 다시 싸울테니......."

공손곡주의 손가락은 양과의 가슴에서 불과 수촌거리에 있었다. 그는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무학의 대종장인 신분으로 한 번에 양과를 손댈 수는 없었다. 돌연 등뒤에서 공손녹악의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는 몸을 돌리지않은 채 어깨를 흔들며 수척을 물러나서 딸이 있는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왼손에 두툼하고 날이 무딘 거치도(鉅齒刀)를 들었는데,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황금으로 만든 것 같았다. 오른손에는 가늘고 긴 흑검을 들고 가볍게 칼끝을 흔들자 칼날이 부드럽게 떨리며 푸르른 빛을 뿜었다. 눈으로 보기에도 칼끝은 무척 예리하게 보였다. 2개의 무기는 전혀 상반되어 하나는 강하고 무거우며, 하나는 극히 가볍고 부드러웠다.

양과는 그 한쌍의 신기한 무기를 쳐다보았다.

"아가씨, 얼마 전에 나는 어떤 여자를 한 사람 만났는데 그녀가 나에게 아버지의 원수가 누구인지 말해 주었어요."

소용녀는 갑자기 오싹해졌다.

"네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누구지 ?"

양과는 이를 갈았다.

"아가씨는 평생을 추측해 보아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나를 계속해서 잘 대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들 ? 그들이 너를 잘 대해 준다고 ?"

순간 윙윙,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공손곡주의 흑검과 금도가 서로 부딪쳐 내는 소리였다. 그는 손목을 흔들며 윙윙윙, 계속해서 세 번을 찔렀는데 한 번은 양과의 정수리를, 한 번은 그의 왼쪽 목을, 또 한 번은 오른쪽 목을 모두 스쳐 지나갔다. 모두 반 촌 정도의 틈이 있었다. 곡주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여 상대방이 대항하지 않자 그를 해치지는 못하고 단지 이처럼 정확 신묘하게 세 번을 찔러 댈 따름이었다.

"자, 다 기워졌다 !"

소용녀가 가볍게 양과의 등을 두드렸다. 양과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미소를 짓고는 금방울 띠를 들고서 대청의 중앙으로 나갔다.

공손곡주의 무공 가운데 폐혈(肺血), 어망진(漁網陳), 금도흑검음양쌍인(金刀黑劍陰陽雙刃)의 세 가지는 조상 대대로부터 전해 온 것으로, 깊은 계곡에 살고 있던 탓으로 수백 년간 외부인과 접촉이 없었으므로 세 가지의 무공이 비록 신기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무공에는 모두 중대한 약점이 있어서 만약 고수가 관찰한다면 몸을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화를 면할 수가 있었다. 게다가 공손씨의 조훈(祖訓)이 엄격해 강호에서 자웅을 겨루며 솜씨를 자랑한 적이 없었다. 공손곡주는 20여 년 전에 다시 철장문의 무공을 배웠다. 그에게 무예를 전수해 준 사람이 비록 대단한 고수는 아니었지만 곡주는 견식이 넓고 생각이 치밀해서 다다로 전해 오는 공손씨의

무공 가운데 있는 적지않은 결함을 고쳤으며 음양쌍인의 동작은 더욱 많이 고쳤다. 그는 일찌기 이처럼 말한 적이 있었다.

"이 도(刀)와 검(劍)을 함께 사용하는 무공이 이처럼 찬연(燦然)하게 준비되어 상대방이 아무리 총명해도 50여 동작 내에는 이 무공의 요체를 파악할 수가 없으리라. 그러니 이 두칼이 움직이면 어찌 50여 동작 이내에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겠는가!"

그는 양과가 띠를 들고 출전하는 것을 보았다.

"이 칼을보아라!"

흑검이 움직이며 가슴을 향해 찔러 왔지만 칼끝은 결코 똑바로 나가지 않고 양과의 몸 앞에서 어지럽게 원을 그렸다. 양과는 이 흑검의 방향을 몰라 몹시 놀라면서 급히 뒤로 물러났다.

공손곡주의 동작은 몹시 빨라서 양과가 뒤로 피한 만큼 흑검의 원이 다시 그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이 점차로 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흑검이 그의 앞가슴을 감싸며 원을 그렸으나, 몇 동작만에 이미 그의 아랫배도 흑검이 그리는 원에 포함되고 다시 몇 동작이 지나가자 원은 점차 커지면서 그의 머리와 목에까지 이르렀다. 양과는 목에서 배까지 모든 급소가 이미 그의 칼끝에 완전히 노출되어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금륜법왕,윤극서,소상자 등은 평생 보지 못했던, 이러한 원을 그리며 적을 몰아붙이는 검법을 보고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손곡주의 한 동작에 양과가 즉시 몸을 피하자 그도 계속해서 10여 차에 걸쳐서 칼로 원을 그렸다. 양과도 이에 10여 차 물러났으나 마침내 상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상대방의 칼이 점점 무서워지는 것을 느낀 양과는 여러 생각 할 것 없이 왼쪽으로 피하면서 금방울 띠를 움직이자 금방울이 소리를 내며 날아가 적의 왼쪽 눈을 공격했다. 공손곡주는 머리를 살짝 피하며 칼로 대적했다. 양과는 크게 기뻐하며 띠를 휘둘러 그의 오른쪽 다리를 감아서는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그때 곡주의 흑검이 허공을 가르자 금방울 띠가 그만 절단되고 말았다. 이 흑검은 이를데 없이 예리했다.

사람들은 모두 <와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휘익, 하는 바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공손곡주가 이미 거치도를 휘둘러 양과를 찔렀다. 양과는 땅에 급히 나뒹굴었다. 팅, 하는 소리가 사방에 진동했다. 그는 나뒹굴면서 번일옹의 쇠지팡이를 잡아서 상대한 것이다. 지팡이와 칼이 부딪쳐서 두 사람의 손이 모두 마비가 되었다.

(이놈이 여간내기가 아니군. 내 공격을 10여 동작이나 상대하다니......)

공손곡주는 왼손칼로 비스듬히 자르며 오른손 검으로 찔렀다. 원래 도법은 매서움이 주요 검법은 가벼움이 우선되어 두 가지 병기의 성질이 완전히 상반되므로, 한 사람이 동시에 도와 검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공손곡주는 두 손으로 이 두 가지를 점점 빠르게 사용하면서 도법과 검법이 각각 분명하게나누어져 강함과 부드러움을 서로 보완하고 음양이 어울리니, 정말로 무림 가운데 찾아보기 어려운 기술이었다.

양과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쇠지팡이를 휘둘러 타구봉법의 <봉>자 구결을 사용해서 앞가슴을 막았다. 공손곡주의 도와 검이 함께 달려들었으나 일시에 공격하기가 어려웠다. 타구봉법은 변화의 정밀함이 그 특징으로서 가벼운 죽봉으로 마음대로 휘둘러야 하는데, 손에 길고 무거운 쇠지팡이로 바꾸어 든 양과의 동작은 그리 민첩하지 못했다.

공손곡주가 돌연 이 점을 눈치채고 금도를 위로 받쳐 들고 흑검을 아래로 긋자 쇠지팡이는 두 동강이 났다.

"절묘하구나 ! 그렇찮아도 지금 너무 무거워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반 토막의 쇠지팡이는 오히려 민첩하게 움직였다. 공손곡주는 코방귀를 뀌었다.

"절묘하기는 뭐가 절묘해 ! 다시 한번 보여 주지."
하며 왼손의 금도를 내리쳤다.

이 금도는 머리를 치고 몇 동작만에 매우 느려져서 양과가 쉽게 피

할 수 있었으나, 곡주의 흑검이 그리는 원은 그를 전후좌우에서 둘러쳐서 그가 쉽사리 도망치기가 어려웠다. 양과는 반토막의 쇠지팡이를 들고서 척수경천(隻手敬天)의 동작으로 바꾸었다. 쨰앵, 하는 금속성의 소리가 들리면서 병기가 서로 부딪쳐 불꽃이 사방으로 튀면서 양과의 팔이 다시 마비되었다. 공손곡주의 계속되는 동작도 첫번째와 똑같았다. 양과의 무학이 비록 여러가지를 섭렵했고 적에 대항해서는 민첩하였지만, 이때 그의 원을 그리는 끈질긴 흑검의 동작은 깨칠 방법이 없었다. 양과는 같은 방법으로 상대하는 이외에는 조은 대책이 없었다. 두 병기가 부딪치자 양과의 두 팔은 더욱 마비되어 다시 몇 번 그가 휘두르는 칼과 부딪치게 되면 팔의 근육이 모두 손상될 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곡주가 세번째로 칼을 휘둘렀다. 다시 몇 동작을 맞서자 양과의 수중에 있는 두 동강이 난 쇠지팡이는 이미 금도에 의해 곳곳에 흠집이 생겼고 오른손 손가락 사이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공손곡주는 양과가 위급한 와중에도 여전히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있음을 보고, 왼손의 금도를 한번 내려치고 오른손의 흑검을 돌연 그의 아랫배에 찔렀다. 양과는 이때 이미 그에게 밀려서 대청의 구석으로 몰렸는데, 칼끝이 자기를 찌르려고 하자 황망히 손을 내뻗었다. 흑검은 그의 손바닥에 닿자 돌연 둥글게 휘어지면서 튕겨져 나갔다. 원래 소용녀의 장갑은 매우 견고해서 흑검이 비록 무척 날카로왔지만 결코 그것을 뚫을 수는 없었다.

양과는 장갑이 능히 흑검을 상대할 수 있음을 알고는 손을 뒤집어 돌연 손을 뻗쳐서 그의 칼자루를 틀었다. 그때 소용녀가 학대통의 장검을 절단한 일이 생각난 것이다. 공손곡주의 손목이 가볍게 흔들리자 흑검이 돌연 한바퀴 돌면서 칼끝이 양과의 팔꿈치를 정확하게 찌르자 선혈이 흘렀다. 양과는 놀라면서 급히 뒤로 물러났다. 공손곡주는 급히 추격해 오지는 않았으나 냉소를 띠면서 천천히 다가왔다. 만약 공손곡주가 손에 단지 거치금도나 흑검 중 한 개만 들고 있었다면 양과

는 능히 저항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무기가 하나는 강하고 또 하나는 부드러운 것이 서로 함께 공격하니 허둥댈 수 밖에 없었다.

금륜법왕, 윤극서, 소상자, 니마성은 옆에서 쳐다보며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

(곡주의 음양쌍인이 이처럼 매서우나 다행히 이 조그만 소년의 변화가 이토록 무쌍해서 결국 모두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공손곡주잔왼손의 금도로 내리치고 오른손의 흑검으로 찔렀다. 양과의 어깨와 소매에 피가 점점이 배었다.

"항복하지 않겠느냐 ?"

"당신은 편안하게 대결을 하면서 뻔뻔스럽게 나에게 항복하라고 묻는구나. 우후후, 공손곡주 당신은 어찌 그리도 염치가 없소 ?"

곡주는 금도와 흑검을 거두었다.

"내가 무슨 뻔뻔한 짓을 했단 말이냐 ? 말해 보아라 !"

"당신이 사용하는 무기가 그것이오. 왼손에는 괴이한 금도를 들고 오른손에는 이상한 흑검을 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세상에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무기가 아니고 무엇이오 ?"

"뭐라고 ? 그러면 너의 장갑과 금방울 띠는 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냐 ?"

양과는 반 토막의 쇠지팡이를 땅에 내던졌다.

"이것은 우리 아가씨의 것이오."

그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면서 세 곳의 상처에서 나오는 선혈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나는 빈손으로 이 골짜기에 들어왔으니 어찌 적의가 있으랴 ! 자, 나를 죽이려면 어서 죽이시오. 쓸데없는 소리일랑 그만 거두고......"

공손곡주는 그의 대담한 기상과 준수한 용모, 그리고 그가 몸의 여러 곳에 상처를 입고도 태연자약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놈은 내가 따를 수 없는 구석이 있다. 만약 계속 세상에 남겨 두면 유매의 마음이 반드시 그에게로 기울겠구나.)

공손곡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

그는 양과의 가슴을 향해서 검을 찔렀다.

양과는 이미 마음을 결정했다.

(내가 그를 이길 수 없으니 차라리 그에게 죽는 것이 편하리라.)

양과는 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돌려 소용녀를 쳐다보았다.

(아가씨를 보면서 죽는 것이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

****** 그 물 에 갇 힌 영 웅 ******

소용녀는 여전히 얼굴에 웃음을 띄고는 한발 한발 그에게 다가왔다. 네 개의 눈은 서로를 강하게 바라보며 공손곡주의 흑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공손곡주와 양과는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 ? 그가 죽음의 처지에 이르게 된 것도 모두가 소용녀를 위한 일로써, 이 때문에 검이 다가오자 자기도 모르게 소용녀를 위한 일로써, 이 때문에 검이 다가오자 자기도 모르게 소용녀를 쳐다보게 된 것이다. 공손곡주는 이것을 보고 미칠 것처럼 질투가 일었다. 그녀가 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계속해서 양과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양과를 바라보니, 그도 역시 소용녀의 표정과 조금도 다름없었다. 그때 흑검의 칼끝이 이미 양과의 가슴에 와 닿아서 만약 팔에 조금만 힘을 준다면 양과의 가슴을 뚫고 들어갈 판이었다. 그러나 소용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고 양과도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멍청하게 서로 바라보며 마음이 상통하여 일찌기 몸 밖의 모든 일을 잊어버린 듯했다. 공손곡주는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금 이놈을 죽이면 유매의 태도로 보아 즉각 따라서 죽을 것 같구

나. 내가 얼른 그녀를 재촉해서 결혼을 하고 신방을 차린 후, 이놈을 죽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유매 ! 이놈을 죽이기를 원하오, 살려 주기를 원하오 ?"

소용녀는 양과를 쳐다보느라 공손곡주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돌연 그의 큰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칼을 치우시오 ! 당신의 칼끝이 그의 가슴을 꿰뚫어서 무슨 이득이 있겠소 ?"

"그의 목숨을 살려 주는 것은 어렵지 않소. 그러나 그에게 즉시 골짜기를 나가라고 해서 그대와 나의 결혼을 방해하지 말도록 하시오."

소용녀는 양과를 보지 못했을 때는 영원히 그와 만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 었다. 그러나 지금 이처럼 만난 뒤에 어찌 곡주와 결혼할 수 있겠는가 ? 요 근래 자기가 품었던 생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느낀 소용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양과 이외의 남자에게 시집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곡주를 쳐다보았다.

"공손선생, 내 생명을 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공손곡주는 그 이유를 이미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물었다.

"왜 그렇지요 ?"

소용녀는 양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의 손을 잡고 걸으며 말했다.

"나는 그와 결혼하기로 한 결심을 지금껏 지켜 왔는데, 공손선생께서는 아직 그것을 모르시는지요 ?"

공손곡주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때 당신이 거절했었다면 내가 어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틈타서 강요하겠소 ? 그렇다면 당신이 결혼을 허락한 것이 진심으로 바란 게 아니었단 말이오 ?"

"그때는 진심이었소. 그러나 나는 그를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용녀는 양과의 손을 붙잡고 대청으로 갔다.

공손곡주는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목이 멘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골짜기를 나가겠다면 먼저 나를 죽여라."

"나는 당신에게 큰 신세를 졌는데 어찌 당신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신의 무공이 이처럼 강하니 나는 당신을 이길 수도 없답니다."

하고 말하며 한편으로는 자기의 옷깃을 찢어서 양과의 상처를 감싸 주었다.

금륜법왕이 돌연 큰소리로 외쳤다.

"공손곡주, 그들을 나가도록 놓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곡주는 흥, 하며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지더니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들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어찌 당신의 금도흑검이 감히 대적할 수 있겠소 ? 그들을 놓아 주시오."

그는 소용녀와 양과가 협공을 했던 <옥녀소심검법(玉女素心劍法)>에 패한적이 있어서 그것을 평생의 수치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후 곰곰이 생각을 했으나 그것을 격파할 수 있는 뾰족한 방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이때 곡주의 음양인법이 극히 매서움을 보고는 자기보다 한 수 위임을 깨닫고 말을 일부러 자극적으로 해 그들이 다시 싸우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첫째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이 연합했던 검법의 약점을 연구할 수 있고, 둘째는 그들이 서로 상처입기를 희망했다.

사실 법왕이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손곡주는 소용녀와 양과가 손을 잡고 골짜기를 무사히 빠져나가게 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서 화가 난 듯 법왕을 노려보았다.

(네놈이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발칙한 말을 하다니.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 봐 주겠지만 네놈에게도 언젠가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 주겠

다.)

공손곡주는 다시 고개를 돌려 이를갈면서 소용녀를 바라보았다.

(너의 마음은 결코 내게 주지 않겠지 ! 하지만 몸은 반드시 내게 주어야 할걸. 만약 살아서 나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네가 죽더라도 나는 너에게 장가들고야 말겠다.)

처음에 그는 양과의 생명을 위협해서 소용녀가 굴복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두 사람을 모두 죽여서라도 결코 그들을 놓아 주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두 눈썹이 점점 치켜 올라가면서 그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갑자기 마광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공손곡주 ! 그녀가 이미 당신에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무슨 짓을 하는 거요 ? 뻔뻔스러운 사람 같으니라고......"

소상자가 침통하게 끼여들었다.

"마형,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오. 공손곡주께서 오늘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우리들을 크게 대접했는데......"

"그래서 음식이 먹을 만했소 ? 내가 만약 그녀라 해도 결코 그에게 시집가지 않을 것이오. 그녀 정도의 미모라면 황후라도 될 수 있을 텐데 어찌 저 흉악한 늙은이의 평생 배필이 되겠소 ?"

소용녀는 고개를 돌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마형, 공손선생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 나는 마음속으로 그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답니다."

"좋소. 공손곡주 ! 당신이 만약 의로운 사람이라면 오늘 그들 두 명을 이곳에서 결혼시켜 신방을 차려 줄 것이오. 그러나 만약 소저를 구해 주고 그녀를 강제로 차지하려 생각했다면, 산 중의 강도와 무엇이 다르겠소 ?"

그의 솔직한 이 말은 구구절절이 공손곡주의 귀에 거슬렸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공손곡주는 살기가 등등해서 골짜기에 들어온 외부 사람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했다.

"이곳 절정곡은 결코 무슨 대단한 장소는 아니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서 여러분이 먼저 나를 깔보았소...... 유소저......"

"내가 성이 유라고 말한 것은 당신을 속인 것이에요. 내 성은 용이랍니다. 그의 성이 양이기 때문에 나의 성을 유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공손곡주는 질투심 때문에 그녀의 이 말을 못 들은 체했다.

"유소저......, 저......"

그가 계속 말은 잇지 못하자 마광좌가 끼여들었다.

"이 소저의 성이 확실히 용이라 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유소저라 계속 부르시오 ?"

"공손선생은 이미 습관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속인 것이 나빴으니 그가 좋을 대로 나를 불러도 괜찮습니다."

공손곡주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못 들은 체했다.

"유소저, 저 양과라는 놈이 내 수중의 음얌쌍인을 이긴다면 나는 그가 골짜기를 편안하게 나가도록 하겠소. 우리 두 사람의 사사로운 일은 우리들이 결정할 일이지 다른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일이 아니오."

공손곡주는 이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력으로 소용녀를 막았다.

"공손선생, 나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혼자서 당신을 상대할 수 없으면 내가 그를 돕겠습니다."

공손곡주는 눈썹을 치켜올려 거의 일직선이 되었다.

"당신이 방금 피를 토한 것이 두렵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오."

소용녀는 그에게 갑자기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다.

"나와 그는 둘 다 무기가 없는데, 빈손으로 당신의 금도와 흑검을 상대한다면 반드시 패할 것이오. 당신의 큰 도량으로 우리를 놓아 주십시오."

이때 금륜법왕이 뛰어들었다.

"공손곡주, 이 골짜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장검 두 자루가 없단 말이오 ? 그들 두 명이 쌍검을 들고 상대한다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것을내가 미리 알려주는 것이오."

공손곡주는 서쪽을 가리켰다.

"이쪽에서 세번째 방이 칼이 있는 방이다. 너희들이 어떤 무기를 원하든 가서 골라 가지고 와라.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의들이 고를 무기 중에 없을 것이 걱정이 될 뿐이다."

양과의 소용녀는 서로 쳐다보았다.

(우리 두 사람이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조용한 방에 잠시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죽음인들 기쁘지 않으랴.)

그들은 손을 잡고 서쪽으로 가서 옆 문을 밀고 두 개의 방을 지나서 세번째 방 앞에 이르렀다.

소용녀의 눈길은 시종 양과의 얼굴을 떠나지 않아서 방문이 닫힌 것을 느끼고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손을 내밀어 문을 밀고 막 문턱을 건너가려 했다. 양과는 갑자기 한 가지 일이 생각나서 급히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다.

"조심해요 !"

"뭘 ?"

양과는 왼발을 문턱 밖에 두고 오른발로 문턱을 지나서 바닥의 판자를 살짝 건드리고 즉시 발을 밖으로 뺐다.

"곡주가 우리를 해칠까 봐 걱정되느냐 ? 그는 좋은 사람이어서 결코 그렇지......"

소용녀가 막 이 말을 마치자 큰 소리가 나면서 눈앞에 흰 빛이 번쩍이며 여덟 자루의 날카로운 칼이 방문의 사방에서 튀어나와 서로 교차되면서 입구를 막았다. 만약 누군가 이때 문 안느로 들어갔다면 아무리 무공이 높아도 이 여덟 자루의 칼에 온몸이 난자당했을 것이었다.

소용녀는 긴 한숨을 쉬었다.

"과야, 곡주가 이처럼 교활한 줄 몰랐다. 내가 정말로 사람을 잘못 보았어. 우리는 그와 같은 비열한 사람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 자, 빨리 달아나자."

그때 갑자기 등뒤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곡주께서는 두 분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무기를 고르기를 원하십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8명의 녹의 제자가 손에 칼과 그물을 들고 뒤를 지키고 있었다. 곡주가 양,용 두 사람이 이 틈을 타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보내 길을 막을 것이었다. 소용녀의 금방울 띠는 이미 흑검에 절단되어 다시는 조금 전처럼 이 녹의 제자들의 혈도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

소용녀는 양과를 쳐다보며 말했다.

"방안에 무슨 이상한 점이 없는지...... ?"

양과는 그녀의 양손을 가볍게 잡았다.

"아가씨,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더 이상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 비록 수많은 검에 찔린다 해도 우리가 함께 죽으면 그만이지요."

소용녀도 가슴속에 기쁜 감정이 생겨났다. 두 사람은 함께 칼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닫았다.

방안에는 벽에도, 탁자 위에도, 선반 위에도, 바닥에도 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모양도 다양해서 거의가 오래 된 것이고, 혹은 길고 짧으며, 어떤 것은 녹도 슬어 있는 등 두 사람의 눈길이 어지럽게 움직여도 일시에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잠시 양과를 쳐다보다가 돌연 <아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품속에 달려들었다. 양과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입을 맞추었다. 소용녀는 그의 입맞춤에 정신이 황홀해쳐 두 팔을 내밀어 그의 목을 껴안았다.

돌연 쿵, 하는 소리에 방문이 열리며 한 명의 녹의 제자가 소리쳤

다.

"곡주의 명령입니다. 빨리 검을 골라서 방을 나오시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시답니다."

양과는 얼굴이 붉어지며 즉시 두 손을 놓았다. 소용녀는 자기가 양과를 사랑한 나머지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데 옆에서 그들이 방해를 해서 회포를 마음껏 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과야, 우리가 그 곡주를 이긴 뒤, 다시 나에게 입을 맞춰 줘야 돼!"

양과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허리를 안았다.

"내가 평생 동안 아가씨에게 입을 맞추어도 부족해요. 자, 무기를 골라요."

"이곳에 있는 무기는 보아하니 과연 이물(異物)로, 나쁜 것이 별로 없다. 우리 고묘 속에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

소용녀는 우선 벽을 한번 살펴보며 길이와 무게가 모두 같은 한쌍을 골라야 양과와 연합해서 적에게 대항할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보아도 모든 칼은 같지 않았다. 그녀는 양과를 쳐다보며 물었다.

"방금 방으로 들어올 때 이곳에 기관이 어떻게 장치되었는지 알았지?"

"곡주의 표정과 눈빛을 보고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는 원래 아가씨를 아내로 삼으려 했으나 아가씨가 나와 함께 그에게 대항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아가씨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사람 됨됨이로 보아 선심을 써서 우리들에게 무기를 고르라고 하는 데에는 반드시 흉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지요."

소용녀는 다시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우리의 옥녀소심검법으로 능히 그를 이길 수 있을까 ?"

"그가 비록 무공이 강해도 결코 법왕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어

요. 우리가 연합해서 법왕을 이겼으니 그도 마땅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러구 보니 법왕이 그를 충동질해서 우리와 싸우도록 했어. 속으로 다른 속셈이 있었구나."

"법왕의 속셈을 이제 알았지요 ?"

"나는 과의 몸이 걱정돼. 다시 피를 토하면 큰일인데......"

"아가씨도 알다시피 나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면 피를 토하는데, 지금은 매우 기쁘니 피를 토하지 않을 거예요."

"너를 보니 위험하지 않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서로 고개르 끄덕였다.

"너의 무공이 크게 진보해서 전에 법왕과 싸웠을 때도 능히 승리를 했는데 하물며 오늘도......"

양과는 이 말을 듣고는 승리를 확신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에게 물어 볼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나에게 뭘 물어 봐 ? 나는 이미 너의 사부가 아니고 아내야. 뭐라 말하든지 나는 너의 분부를 들을 거야."

"그......, 그것 참 좋은데...... !"

"그날 밤 종남산에서 너와 나는 이처럼 친해졌는데 내가 어찌 더 이상 너의 사부라 할 수 있겠어 ? 네가 비록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이미 너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어."

양과는 종남산에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처럼 감정을 토로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양과는 윤지평과 소용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날 나는 의부 구양봉과 무공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어찌 아가씨와 친해칠 수가 있었단 말인가 ?)

그러나 양과는 그녀의 이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는 얼이 빠져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소용녀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물었다.

"나에게 물어 볼 말이 뭔데 ?"

양과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우리가 곡주를 이기고 곧바로 고묘로 돌아간 뒤에 다시는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 거죠 ?"

소용녀는 고개를 들고 그의 두 눈을 쳐다보았다.

"설마 내가 다시 너를 버리고 떠나겠어 ? 너를 떠나 온 이후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어 ? 이후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다시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양과는 매우 기뻐했다. 바로 이 말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돌연 뒤에서 녹의 제자가 소리쳤다.

"무기를 골랐습니까 ?"

소용녀는 웃으면서 양과를 보았다.

"자, 이제 나가자."

몸을 돌려서 집히는 대로 두 자루의 검을 고르려 하다가 양과는 갑자기 서쪽 벽이 불에 탄 흔적을 보았다. 그리고 몇 개의 의자가 불에 타서 쓰러져 있었다.

"노완동 그 노인네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불을 질렀구나."

반쪽이 난 모퉁이의 그림 밑에 두 개의 검집이 언뜻 보였다.

(이 두 개의 검이 원래 그림에 가려져 있다가 그림이 불에 타는 바람에 칼집이 겨우 노출되었구나. 곡주가 이처럼 숨겨 놓은 것으로 보아 이 두 자루 검은 매우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다.)

양과는 손을 뻗어 벽에서 검을 끄집어내어 한 자루는 소용녀에게 주고, 다른 한 자루의 검자루를 잡고 검집에서 검을 뽑았다.

검을 검집에서 뽑으며 두 사람은 모두 서늘한 느낌을 받았는데 검은 까맣고 조금도 광택이 없어서 마치 한 토막 검은 나무와 같았다. 소용녀도 검을 뽑았다. 그 검도 양과의 것과 길이나 모양이 똑같았다. 쌍검이 나란히 허공을 가르자 방안의 공기가 더운 오싹해졌다. 그러나

두 개의 검은 모두 검끝이 없이 뭉툭했고 무디어서 한 토막 약한 나무 막대기 같았다. 양과가 검을 뒤집자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게 보였다.

<군자(君子)>

다시 소용녀의 검을 보니 거기에는 <숙녀(淑女)>라고 새겨져 있었다. 양과는 이 두 검의 모양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두 개의 조화되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소용녀의 기분은 어떤지 살펴보았다.

"이 검은 끝이 무디니 곡주와 싸우는데 아주 좋겠어. 그는 일찌기 내 생명을 구했으니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검의 이름이 군자와 숙녀인데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걸. 이 <군>자를 만약 <낭(浪)>자로 고친다면 내가 사용하기에 더욱 좋겠어요."

하고 말하며 양과는 검을 들어 허공에서 두 번 휘둘렀다. 그는 검이 손에 딱 맞고, 매우 민첩하다는 것을 느꼈다.

"좋다. 우리는 이 한쌍의 검을 사용하자."

소용녀는 검을 검집에 넣고 막 방을 나가려 하다가 탁자 위에 요염한 꽃이 꽃병에 마음대로 꽂혀서 짜임새가 없는 것을 보고는 손을 대어 보기 좋게 정리했다.

"안 돼요 ! 손대지 말아요 !"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서 소용녀의 손가락은 가시에 몇 번 찔리고 난 뒤였다.

"뭐라고 ?"

"이것은 정화(情花)라는 꽃이에요. 아가씨는 골짜기에 얼마간 있었으면서도 어째서 이 꽃을 모르지요 ?"

소용녀는 상처난 손가락을 입으로 빨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몰라. 정화 ? 이게 무슨 꽃인데 ?"

양과는 정화에 대해 설명해 주려 했으나 녹의 제자가 계속 재촉해서 아무 말도 못 해 주고 다시 대청으로 돌아와야 했다. 공손곡주는 녹의 제자들을 화난 듯이 쳐다보며 마치 양,용 두 사람이 이처럼 늦게 온

데 대해 그들을 꾸짖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겁을 먹고 모두 안색이 변했다.

공손곡주는 두 사람에게 다가섰다.

"유소저, 칼을 고르셨는지요 ?"

소용녀는 <숙녀검>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우리는 이 무딘 검을 사용해서 곡주 당신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지는 않소. 그만두었으면 싶은데 어떤지요 ?"

곡주는 갑자기 오싹해지며 소리쳤다.

"누가 너희에게 이 검을 고르라고 가르쳐 주었단 말이냐 ?"
하고 말하며 공손녹악을 쳐다보고 다시 소용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소. 이 한쌍의 검을 사용하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소 ? 그렇다면 다시 가서 바꾸어 오지요."

곡주는 화가 치밀어 양과를 노려보았다.

"검을 바慕존芮다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데 ? 바꿀 필요까진 없다. 자, 덤벼라."

"공손선생, 싸우기 전에 우리 확실히 해 둡시다. 당신과 나, 그리고 그가 각각 혼자서 싸운다면 모두 당신의 적이 되지 못하지만 지금 두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대결하니 우리가 조금 유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해 승패를 겨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를 자인하겠소."

"내 수중의 칼이 이긴다면 내 마음대로 너희들을 처리하겠다. 만약 너희들이 지게 되면 혼인의 약속을 더 이상 번복하면 안 된다."

소용녀는 차갑게 웃었다.

"우리들이 지게 되면 나와 그를 이 골짜기에 묻으면 되지요."

공손곡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왼손에 쥔 금도를 휙, 하는 소리가나도록 휘두르며 양과를 향해서 비스듬히 베어 갔다.

양과는 검을 세워서 전진파의 정종 검법인 백학량시(白鶴亮翅)로써 반격했다.

(이 동작은 법도가 엄하고 조심스럽긴 하나 다만 평범할 따름이다.)

오른손에 든 검을 되돌려 그의 어깨를 향해서 곧바로 찌르니 이것은 소용녀를 그와 벌어지게 하여 도검(刀劍)을 양과의 몸 위에 나란히 펴붓기 위함이었다. 양과는 정신을 집중하여 적을 상대하며 급소를 굳게 지키면서 세 동작을 막아냈다.

소용녀는 곡주가 세 동작의 공격을 끝내자 검을 세우고는 앞으로 나섰다. 공손곡주는 그녀의 검에 대해서는 금도의 동작으로 공격하지 않고, 다만 그녀의 공격이 위험스러울 때에만 비로소 흑검을 써서 방어했다. 그의 동작은 고의로 양보하는 듯이 보였다.

법왕이 7,8 동작을 보더니 웃었다.

"공손곡주, 그런 식으로 여인네를 사랑하다가는 크게 고생할거요."

"스님, 만약 저를 깔보신다면 나중에 시합이 끝나고 가르침을 주셔도 늦지 않소. 지금은 힘들여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며 도검에 힘을 주니 대청안에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일었다.

또 몇 동작을 나눈뒤, 양과는 전진검법의 한 동작인 횡행막북(橫行漠北)을, 소용녀는 옥녀검법의 한 동작인 채필화미(彩筆畵眉)를 펼쳤다. 쌍방이 모두 검을 눕혀 비스듬히 베어 가는 것인데, 양과의 장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몇척을 쓸어 갔고, 소용녀의 검은 약간씩 양쪽으로 흔들거렸으나 이 두 동작이 합해져서 옥녀소심검법의 한 동작인 염하소장(簾下梳裝)이 되었다. 공손곡주는 놀라서 흑검을 들어 양과의 장검을 가로막으며 금도를 뉘어 미간을 방어했다. 소용녀의 칼날이 그의 두 눈으로 그어 들어가며 도검이 서로 부딪치자 쨍, 하는 소리가 나면서 금도의 끝부분이 숙녀검에 의해 잘려 나갔다.

곁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녀의 손에 쥔 것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무딘 검인데도 이렇게 예리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것은 양과와 소용녀에게도 의외의 일이었다. 그들이 처음에 이 한쌍의 무딘 검을 고른 것은 다만 그 이름이 듣기 좋고 두 검의 모양기 같아서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우연히도 한쌍의 보검을 얻게 된 격이 되자 그들은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쌍검으로 앞다투어 공격했다.

공손곡주는 속으로 놀랐다.

(유매와 이놈의 무공은 모두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도 내 조금도 두렵지 않느나 쌍검이 합해지니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내 어찌 알았으랴 ! 보건대 저 도적놈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만약 오늘 내가 저들 두 사람에게 진다면......, 그렇다면...... ?)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좌도로는 오른쪽을, 우검으로는 왼쪽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지금 펼치는 동작이 바로 평생의 절기인 음양도란인법(陰陽倒亂刃法)이었다. 흑검은 본래 어둡고 부드러운데 이같이 돌연 굳세고 맹렬하게 베어 들어가면서 밝고 강한 도법으로 변했고, 무겁고 긴 톱니의 금도는 날카롭게 찌르면서 단검의 홀가분한 동작으로 펼치니 도(刀)는 검이 되고, 검은 도로 변하여 그 기묘함과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

금륜법왕, 소상자, 윤극서 이 세 사람은 모두 견식이 넓고 깊었으나 이같이 음양이 뒤바뀌는 도법과 검법은 지금껏 보지도 듣지도 했다.

마광좌가 소리쳤다.

"이봐, 이 불쌍한 노인네야. 그렇게 어지럽게 뭘 휘젓고 있는거냐 ? 당신......, 볼수록 꼴 같지 않아 !)

공손곡주는 불과 40 여 세로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아서, 오늘 소용녀와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이 난데없는 불청객에게서 <불쌍한 노인네가 어쩌구저쩌구......> 하는 말을 듣자 마음속으로 불같이 화가 치밀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와 다툴 겨를이 없는지라, 전력을 기울여 20 여 년 간 고생하며 익힌 무공을 펼쳐 일단 먼저 양과를 패배시키려고 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쌍검을 서로 합쳐서 이미 우세한 위치를 차지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도검을 어지럽게 써서 그 동작이 기묘해지자 자신도 모르게 허둥대느라 순식간에 연이어 위험한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양과는 흑검의 위력이 금도보다 강함을 보고는 즉시 모든 검법을 다 이용하여 흑검을 막아내며, 소용녀로 하여금 톱니로 된 금도를 막아내게 했다. 그는 그녀의 칼날이 더 훌륭하여, 금도가 감히 그녀의 숙녀검과 서로 맞부딪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위험에는 이르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이 각자 싸우게 되어 옥녀소심검법은 두 가닥으로 나뉘어져 그 위력이 줄어들었다.

공손곡주는 크게 기뻐하며 쨍쨍쨍, 소리를 내며 검을 휘둘러 세 번 그어 대면서, 왼손에 쥔 금도로는 동시에 정양침(定陽針) 허식분금(虛式分金) 형가자진(荊軻刺秦) 구품연대(九品蓮臺)의 네 동작을 펼쳤다. 이 네 가지 동작은 매우 비범하여 네 자루의 검이 세 자루의 금도 사이에 낀 것 같았다. 양과는 아직까지는 억지로 방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용녀는 검을 휘둘러 그의 칼을 다시 베려 했으나 정신이 어지럽고 금도의 세력이 너무 재빨라서 성공하지 못했다. 양과는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알고는 자신이 부상당할 것을 무릅쓰면서 전진검법 중의 한 동작인 마축락화(馬蹴落花)를 써서 윗팔과 검을 나란히 하고 검끝을 위로 치켜 들어서 상대의 도검을 한꺼번에 상대했다. 소용녀는 즉시 검을 거두어 양과의 이마를 보호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로 합해지며 또다시 옥녀소심검법으로 되돌아갔다. 이 검법의 참된 뜻은 검을 사용하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 하나가 되는 것이니, 이 한 동작으로 양과가 자신을 던져 서로를 구한 것은 바로 이 검술의 가르침이기도 했다. 소용녀는 양과가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서까지 자기를 구하는 것을 보고, 그가 다칠까 봐 황급히 검을 뻗어 그를 지켜 주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상대를 지켜 주게 되자 쌍검의 위력이 갑자기 증대되었다.

몇 동작을 겨루자 공손곡주의 이마에는 조금씩 땀이 보이면서 도검이 왼쪽을 막으면 오른쪽이 허술해져서 결국 패색이 나타났다. 소용녀와 양과는 공격하면 할수록 순조로와졌다. 양과는 왼손으로 칼날을 가볍게 쥐고는 오른손의 검을 비스듬히 해 적의 허리를 찔러 들어갔다.

소용녀는 두 손으로 칼자루를 움켜쥐고 위를 향해 베어 들어갔다. 이 동작은 거안제미(擧案齊眉)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 동작은 매우 부드러우면서 마치 깃발이 나부끼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갑자기 부드러운 정감이 몰려와서 그녀는 머리를 돌려 양과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가슴이 마치 커다란 철퇴를 맞은 것처럼 맹렬하게 아파 오면서 동시에 오른손 손가락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하마터면 칼자루조차 똑바로 움켜잡지 못할 뻔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안색이 크게 변하여 세 걸음을 물러섰다.

공손곡주는 차갑게 비웃었다.

"흥! 정화, 정화로구나."

마음속으로 기쁘면서도 한편 시기하는 마음이 일었다. 소용녀는 그 뜻을 몰랐으나, 양과는 이것이 정화의 독이 발작한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방금 방에서 정화의 조그만 가시에 손가락을 찔렸는데 갑자기 양과에 대한 연정(戀情)이 치밀어오르자 손가락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이다. 양과는 일찌기 이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 소용녀가 더욱 가엾어 보였다.

"매우 아프지요?"

공손곡주는 이 좋은 기회를 틈타 잽싸게 검을 들어 양과를 향해 급히 공격했다. 소용녀는 통증이 잠시 줄어들자 검을 세워 들었다. 양과가 마음속으로 염려하며 말했다.

"잠시 쉬도록 해요."

그가 부드러운 정을 발동하자 그 또한 손가락 위에 갑자기 통증이 일었다. 공손곡주나 이 기회를 틈타 흑검을 급히 찔러 가니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양과의 군자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공손곡주는 흑검을 곧바로 세워 양과의 가슴에 갖다 댔다. 소용녀가 깜짝 놀라 구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금도에 가로막혀 양과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이 어린 놈을 잡아라."

네 명의 녹의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급히 앞으로 나서면서 망을 펼

쳐 양과를 망 속에 가두고는 그물을 몇 바퀴 감자, 양과는 그물 숙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유매는 괜찮은가 ?"

소용녀는 그녀 혼자의 몸으로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고 숙녀검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쩽, 하는 소리가 나면서 군자검과 숙녀검은 서로 꽉 붙어 버렸다. 원래 두 검은 모두 매우 강한 자력이 있었던 것이다.

"검이 이와 같을진대, 사람이 어찌 그만 못하리오 ! 당신은 우리 두 사람을 어서 함께 죽이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공손곡주는 금륜법왕 등의 사람들에게 두 손을 맞잡으며 <실례하오> 하고는 내당으로 들어갔다. 네 명의 제자는 그물을 잡아당겨 양과를 끌고 뒤따라 들어갔다. 소용녀도 뒤따라서 내당으로 들어갔다.

"스님과 형제 여러분 ! 우리 다같이 양형제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금륜법왕은 미소를 지으면서 마광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소상자가 소리쳤다.

"시끄럽다 ! 네가 저 곡주를 이길 수 있을 줄 아느냐 ?"

마광좌는 귓볼을 만지작거리며 방법을 생각했지만 얼른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싸워야 해 !"

공손곡주는 머리를 치켜들고 앞으로 걸어가다가 조그만 석실로 들어섰다.

"정화를 몇 묶음 잘라 오너라."

양과와 소용녀는 이미 같이 죽기로 결심한지라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공손곡주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던간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석실 입구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하는 꽃향기가 흘러 들어왔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맞은편에

십여 명의 녹의 제자가 오색이 펼쳐진 듯 울긋불긋한 한 무더기 정화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정화의 가시에 찔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들 손과 팔에 쇠가죽을 두르고 있었다. 공손곡주는 오른손을 휘저으며 냉담하게 말했다.

"모두 이 어린 놈의 가슴 위에다 쌓아라."

순식간에 양과의 온몸은 마치 천만 마리나 되는 벌이 동시에 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이 밀려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소용녀는 가엾기도 하고 화가 치밀기도 하여 공손곡주를 향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

급히 앞으로 나서서 양과의 몸을 뒤덮고 있는 정화를 치우려고 했다.

공손곡주나 팔꿈치로 그녀를 막았다.

"유매, 오늘은 당신과 내가 신방을 차리는 길일(吉日)인데, 저 어린 놈이 이 계곡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좋은 날을 다 망쳐 버렸소. 내 원래 저놈과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다, 당신과 저놈이 또 오랜 교분이 있으니, 만약 저놈이 손님으로서의 예의만 지켜 준다면 나도 예의를 보일 수는 있다오. 오늘의 일이 이미 이와같이 됐지만......"

여기까지 말하고는 왼손을 휘저어서 제자들을 석실 밖으로 물린 다음에 석실의 문을 닫고는 계속 말했다.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오로지 당신 생각에 달려 있소."

양과는 정화의 조그마한 가시들에 갇혀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소용녀가 자기로 인해 가슴 아파할까 봐 이를 악물고 시종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양과는 공손곡주의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소용녀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고는 매우 마음이 아팠다. 그러자 손가락의 정화의 독이 발작해 또다시 격심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단지 정화에 가볍게 한 번 찔렸을 뿐인데도 이렇게 무섭도록

아픈데, 그는 온몸에 수백 군데를 찔렸으니 얼마나 아플까 ?)

공손곡주는 그녀의 마음속을 헤아리며 말했다.

"유매, 나는 진심으로 당신과 백년 가약을 맺고 싶소. 당신을 진실로 사랑할 뿐 절대로 나쁜 뜻은 갖고 있지 않아요. 당신도 아마 그것만큼은 아실 것이오."

소용녀는 머리를 끄덕였다.

"당신은 제게 줄곧 잘 대해 주시면서도 제 생명을 구해 준 은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순간 이전까지 제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셨고, 공손하셨으며, 저의 환심을 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셨죠 !"

그녀는 머리를 한동안 푹 숙이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공손선생, 그때 만약 당신이 황산(荒山)에서 저를 만나지만 않았던들, 만약 제 생명을 구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었던들, 지금 우리 세 사람의 사이는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당신이 억지로 결혼을 강요하시지만 제가 평생 즐거워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좋을 게 뭐 있겠어요 ?"

공손곡주의 양미간이 또다시 굳어졌다.

"나는 원래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속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성미요. 당신이 이미 나와 결혼할 것을 허락한 이상 결혼만 하면 됩니다. 즐겁고 슬픈 것에 관한 세상 일이란 예측하기 힘든 것이니, 내일의 일을 그 누가 알겠소 ? ...... 두고 봅시다 ! ...... 이 사람은 온몸이 정화에 의해 상처를 입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이 십분의 일씩 증가할 것이고, 36 일이 지나서는 전신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게 될거요. 12 시간 안에는 내가 비법으로 제조한 묘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목숨을 구하기가 힘들 것이오. 그가 죽고 사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소."

공손곡주는 천천히 석실의 문 앞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고는 고개를

돌렸다.

"만약 당신이 그가 천천히 고통을 느끼며 죽게 내버려두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소. 이곳에서 36일간 그럴 지켜 보도록 하시오. 나는 절대로 당신께 해를 끼칠 생각이 없으니 마음을 놓고 말이오. 만약 12 시간 내에 당신이 마음을 되돌린다면 단墚후, 하고 소리를 내시오. 그러면 내가 곧 해약을 갖고 와서 그의 생명을 구해 주겠소."

말을 마치고 공손곡주는 석실 밖으로 나섰다.

소용녀는 양과가 온몸을 떨면서 입술을 깨물어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두 눈은 원래 별빛같이 반짝였는데 지금은 조금도 광채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몸의 고통이 벌써 이처럼 견디기 힘든데 만약 매시간마다 조금씩 증가해 36일간 연이어서 고통이 가해진다면 지옥에도 이 같은 형벌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공손선생 ! 당신과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빨리 이 사람을 풀어 주고 해약을 갖다 주세요."

공손곡주가 줄곧 압박을 가한 이유는 바로 그녀로 하여금 이 한마디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말을 듣고 보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순간부터 이 여자는 자신에게 원한만을 품고 결코 조금도 정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하며 공손곡주는 머리를 끄덕였다.

"당신이 마음을 되돌렸으니 모두에게 잘된 일이오. 오늘밤 당신과 내가 신방을 차린 이후, 내일 아침 일찍 약을 가져와 그를 구해 주겠소."

"먼저 저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유매, 너무 나를 깔보는구료. 가까스로 당신으로 히여금 허락하게 해 놓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내가 멍청이라 할지라도 어찌 모르겠소 ? 설마 내가 먼저 저놈을 치료해 줄 줄 알았소 ?"
하는 말을 마치고는 석실을 나갔다.

소용녀와 양과는 비참한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하지 않았다.

"아가씨, 양과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죽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기쁠 겁니다. 저를 빨리 죽여 주세요 !"

(내 먼저 그를 죽이고는 뒤따라 죽어야겠다.)

이윽고 손을 들어올려 내공을 운행했다. 양과는 얼굴에 미소를 띄고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달콤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금이 바로 나와 당신이 신방을 차리는 시간이로군요."

소용녀는 양과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잘생긴 낭군을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가혹하게 대해서 오늘 비명에 죽게 한단 말인가 ?)

가슴이 쓰려 오면서 갑자기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니 또 피를 쏟을 것만 같았다. 어깨 위의 경력(勁力)이 즉시 소실되었다. 그녀는 갑자기 양과의 몸 위에 쓰러져 정화의 수많은 가시가 그녀의 몸속으로 파고들어오게 되었다.

"과아야, 우리 고통을 같이 나누도록 하자."

갑자기 등뒤에서 공손곡주의 <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당신이...... ?"

"그래, 고통이 어떻소 ? 유매의 몸에 고통을 가하면 저놈의 고통이 반으로줄어들 줄 아오 ?"

소용녀는 양과를 찬찬히 한번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가며,

"과야, 열 시간만 더 지나면 내가 곧 영약을 가져와 구해 주마. 이 열 시간 동안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정욕이 일지 않을 거다. 고통스러울지라도 꼭 참아야 한다."

말을 마치고 소용녀는 문을 잠그고 가 버렸다.

양과는 몸도 고통스러웠지만 마음도 매우 아팠다.

(전에 겪었던 모든 고초가 오늘 내가 겪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

니로구나. 곡주가 이렇게 악랄하니 내 어찌 한 몸 죽음으로써 아가씨를 그의 수중에 떨어뜨려 고통받게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내 아직 아버지의 원수도 갚지 못했지. 또한 거짓 인의(仁義)를 내세우며 나쁜 짓을 하는 곽정,황용으로 하여금 보답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피가 솟아오르며 분노가 솟구쳤다.

(죽을 수 없어. 어찌 됐건 죽을 수는 없지! 아가씨가 곡주의 아내가 된다고 해도 그녀를 구해 내야만 한다. 그리고 내 무공을 더욱 연마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지......)

그리고 이를 악물고 무릎을 가지런히 세워서 비록 그물 속에 갇혀 바른 자세를 취할 수는 없었지만 기를 단전으로 내려보내 내공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두 시간이 지나자 한 명의 녹의 제자가 접시를 받쳐 들고 들어왔다. 그 접시에는 네 개의 만두가 놓여 있었다.

"곡주께서 오늘 결혼하시는 기쁜 날이니 당신도 하나 드시오."

접시를 그물 옆에 놓는데 그의 손 위에 층층이 천이 감겨 있었다. 정화에 의해 상처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이었다. 양과는 손을 뻗어 망 밖으로 내밀어 네 개의 만두를 집어서 모두 먹었다.

(내가 이미 이 도적 같은 곡주와 끝까지서로 겨루기로 한 이상, 쓸데없이 내 몸을 축낼 필요는 없지.)

"뱃속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돌연 문 앞에서 그림자가 번쩍이며 또 한 명의 녹의 제자가 들어왔다. 먼저 들어온 제자 뒤에 살그머니 다가서더니 주먹을 내밀어 그의 등을 내리쳤다. 누가 쳤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는 기절해 버렸다.

양과가 그 사람을 쳐다보니 바로 공손녹악이었다.

"당신......, 당신이...... ?"

공손녹악은 몸을 돌려 문을 잠갔다.

"양형, 조용히 말씀하세요. 제가 구해 드리러 왔어요."

하고 말하면서 그물의 매듭을 풀고 정화의 무더기를 치우고는 양과를 풀어 주었다. 그녀의 손에도 역시 두툼한 천이 감겨 있었다.

"아버님이 만약 이 일을 아시면......"

"제가 한번 꾸지람을 더 듣지요."

공손녹악은 손을 뻗어 조그만 정화를 하나 떼어 내서 기절한 녹의 제자의 입속에 넣어서 깨어난 후에도 구원을 요청하지 못하게 끔 해 놓고는, 그를 묶어 그물 속으로 밀어넣고 몸 위에다 정화를 쌓아 놓았다.

"양형, 만약 누군가가 오면 문 뒤에 숨도록 하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 독약에 중독되었으니 제가 단방(丹房)에 가서 약을 가지고 올께요."

양과는 그녀와 알게 된 것이 불과 하루뿐인데도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부친을 배반하면서까지 자신을 구해 준것에 대해 매우 감격했다.

"소저, 나......, 나는......"

양과는 마음이 너무 격동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께요."

양과는 그녀가 사라지자 넋을 잃고 생각했다.

(그녀가 왜 나를 잘 대해 주지 ? 내 비록 불행한 때를 만나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 왔으나 세상에는 진심으로 나를 대해 주는 사람도 적지 않구나. 아가씨는 말할 필요도 없고, 손할머니, 홍방주, 의부 구양봉, 황도주와 정영, 육무쌍, 그리고 공손녹악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나를 성심 성의껏 대해 주지 않았던 사람이 없다. 내 팔자가 필시 기이하기 때문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어찌해서 나를 대해 주는 사람은 이렇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악한 사람은 또 그토록 악독하단 말인가 !)

그는 자신의 경우가 특이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극히 좋지 않

으면 극히 악한 것이 그의 천성에 따라서 그런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심성이 서로 일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역시 성심껏 상대해 주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했으니, 그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다른 사람 또한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것이었다.

한참을 기다렸으나 공손녹악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양과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걱정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방에 누군가가 있어서 약을 훔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리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비록 약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녀가 어서 와서 말이나 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길(吉)한 일보다는 흉(凶)한 일이 이미 생긴 것 같았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쓰고 갔으니 그가 어찌 구해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윽고 석실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으나 문 밖은 아주 조용한 게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즉시 그물에서 빠져나오긴 했으나 공손녹악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막 당황하고 있는 판에 갑자기 모퉁이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급히 몸을 움츠려 모퉁이 뒤에서 쳐다보니, 두 명의 제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에는 벌을 가할 때 쓰는 도구로 보이는 형장(形杖)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아가씨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으니까, 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곡주가 결국은 고문을 가해서 압박하려 드는구나 !)

즉시 발걸음을 가벼이 해 그들을 뒤따라갔다. 그들은 조금도 알아채지 못하고 굽은 긴 복도를 이리저리 돌아 한 칸의 석실 앞에 이르러서 낭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곡주님, 형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과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석실의 동편으로 창이 보여 즉시 그 창 밑으로 가서 눈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니, 소용녀는 보이지 않고 공손녹악이 그 부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공손곡주는

중간쯤에 앉아 있고 두 명의 제자는 손에 장검을 움켜쥐고 공손녹악의 좌우를 지키고 있었다.

"녹악아, 너는 나의 친생골육(親生骨肉)인데 어찌해서 나를 배반하는 거냐 ?"

공손녹악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내가 그 양가놈을 좋아하는 걸 내 어찌 모르겠느냐 ?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를 풀어 주려 했는데 넌 어쩌면 그리도 성질이 급하냐 ?
일 내가 그에게 말을 건네 보아 너와의 혼인을 허락하도록 할 작정이다. 그럼 되겠느냐 ?"

양과도 어찌 공손녹악이 자신에게 연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는가.그렇지만 사람들이 공공연히 이 말을 꺼내자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공손녹악은 머리를 숙이고 아무런 말이 없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돌연 머리를 들고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지금 당장에 아버님의 결혼을 생각하시면서 어찌 또 한 딸을 생각해 줄 틈이 있으십니까 ?"

이 말에 공손곡주는 코방귀를 뀌었다.

"좋아요 ! 제가 양공자를 흠모하는 것은 그 사람 됨됨이 올바르고 정이 있으며 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엔 오로지 소용녀 한 사람만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제가 그를 구해 준 까닭은 바로......, 바로 아버님의 행동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이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공손곡주는 얼굴이 굳어지며 조금도 화내는 기색이 없이 담담하게 딸의 말을 들었다.

"네가 말하는 것을 듣자니, 그렇다면 나는 위인됨이 올바르지 못하고 부정하다는 말이로구나 ?"

"제가 어찌 그처럼 아버님을 책망하겠습니까 ? 다만......, 다만......"

"다만 무엇이란 말이냐 ?"

"그 양공자는 온몸이 수많은 정화의 가시에 찔렸으니 어찌 그 고통을 견디어 낼 수 있겠습니까 ? 아버님, 큰 은덕을 베풀어 그를 풀어 주세요."

"내가 내일 그를 놓아 주려 마음먹고 있는데 어찌해서 이 마당에 네가 말썽을 일으킨단 말이냐 ?"

공손녹악은 머리를 숙여 낮은 소리로 한탄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는 마침내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이 딸자식을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커다란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그 양공자는 다만 처음 본 외부 사람일 뿐이니 제가 어찌 아버님을 배반하고 그를 돕겠습니까 ? 만약 아버님께서 내일 정말로 그를 치료해 주시고 석방해 주실 거라면 제가 어찌 위험을 무릅쓰고 단방에 들어왔겠습니까 ?"

"그렇다면 왜 들어온 거냐 ?"

"전 아버님께서 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시며, 용소저를 압박해서 결혼한 후에는 독계를 써서 양공자를 살해함으로써 그에 다한 용소저의 잡념을 끊으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답니다."

"흥, 정말로 호랑이 새끼를 키워 화를 불러일으킨 격이 되었구나. 너를 이만큼 키워 놓았더니 오늘에 와서 이 애비를 물어뜯을 줄은 몰랐구나. 어서 내놓아라 !"

"아버님, 무엇을 말이십니까 ?"

"아직도 모르는 체할 테냐 ? 정화의 독을 치료하는 그 절정단(絶情丹) 말이다 !"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 ?"

양과가 살펴보니 방안에는 탁자와 궤 위에 약병들이 죽 늘어서 있고, 벽 위에는 무수한 마른 약초가 걸려 있으며, 서편에는 단로(丹爐)가 세 개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이곳이 바로 소위 단방이란

곳이었다. 공손곡주의 태도를 보니 녹악은 오늘 중형을"아버님, 제가 이 단방에 몰래 들어온 것은 분명히 절정단을 꺼내
양공자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반나절이나 찾았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해서 아버님께 발각되었겠어요?"

"내가 약을 감추는 이곳은 극비의 장소이고, 몇 사람의 외부인은 줄곧 대청에서 한 발자국도 이탈하지 않았는데, 그 절정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그럼 그 약에 다리라도 생겼단 말이냐 ?"

공손녹악은 엎드려 울었다.

"아버님, 양공자를 살려 주시고 그를 이 계곡에서 내보낸 뒤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

"만약 내 생명이 위태로와진다면 네가 이처럼 땅에 엎드려 다른 사람에게 애걸하지는 않을 것이다."

녹악은 대답을 하지 않고 단지 그의 무릎을 껴안았다.

"네가 절정단을 가져갔으니 내가 어떻게 그를 구한단 말이냐 ? 좋다, 네가 시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도록 해라. 네가 비록 내 단약을 훔쳤어도 그 양가놈의 입에다가 넣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지. 열 두 시간 후에 내 너를 놓아 주마 !"

공손녹악은 이를 갈았다.

"아버님 !"

"무슨 할 말이 있느냐 ?"

옥악은 네 명의 제자를 가리켰다.

"먼저 저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우리 골짜기의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라서 서로 못할 얘기가 없다는 걸 잊었느냐?"

"좋아요. 저의 말을 믿지 않으시니 제 몸에 정말로 단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공손녹악은 윗저고리를 벗고는 치마를 풀었다. 공손곡주는 급히 손

을 저어 네 명의 제자에게 나갈 것을 명한 다음 문을 닫았다. 순식간에 녹악의 겉옷과 치마가 다 벗겨지고 몸에는 단지 조그만 옷조각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몸 어디에도 이상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양과는 창 밖에서 그녀의 수정같이 맑고 하얀 몸을 보고 가슴이 뛰었다. 그도 사내인지라 자신도 모르게 혈맥이 부풀어올랐다.

(그녀가 내 생명을 구해 주기위해 망설임 없이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었으니 내가 다시 훔쳐본다면 그것은 금수만도 못한 짓이다.)

양과는 서둘러 두 눈을 감았으나 정신이 산란해져서 그만 창틀에 이마를 부딪쳤다.

비록 그 소리가 아주 작긴 했으나 공손곡주는 이미 눈치를 채고 말았다. 곡주는 3 개의 단로 곁으로 가더니 중앙에 놓여 있는 단로를 옆으로 밀어 놓고 동편에 있던 단로를 중앙으로 옮겨 놓았다. 서편에 있는 단로는 동편으로, 중앙에 놓여 있던 단로는 서편으로 옮겼다.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네가 그 아이의 목숨을 살려 주는 것을 허락하마 !"

"아버님 !"

곡주는 벽에 기대 놓은 의자에 가서 앉았다.

"그러나 우리 골짜기의 규칙을 너도 잘 알 것이다. 멋대로 단방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지 ?"

"마땅히 죽어야만 합니다."

"네가 비록 내 딸이지만 골짜기의 규칙을 어길 수는 없으니 잘 가거라 !"

공손곡주는 소매에서 흑검을 꺼내서 공중으로 치켜들었다.

"녹악아, 만약 이 순간부터 그놈을 구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너를 용서하마. 난 다만 한 사람만 용서해 주겠다. 너를 용서할까, 그를 용서할까 ?"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좋다. 내 딸이 아비보다 훨씬 어질고 올바르구나."

공손곡주는 그녀의 정수리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잠깐만 !"

양과는 오른발로 땅을 차며 막 손을 뻗어 공손곡주의 손목을 움켜잡아 칼을 내리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발 밑이 물렁한 것이 허공을 밟은 듯이 느껴졌다. 양과는 큰일이다 싶어 즉시 진기(眞氣)를 끌어올려 몸을 위로 뽑아 냈다. 곡주는 쌍장으로 딸의 어깨를 밀어 냈다. 공손녹악의 몸이 자신도 모르게 급히 물러나면서 양과의 몸 위에 부딪치고 말았다.

양과가 펄쩍 몸을 날린 후 아래로 떨어지려는 순간에 공손녹악이 때마침 그의 몸에 부딪치게 되자, 두 사람은 즉시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발 밑은 허공인데 수십 장을 떨어져 내려가도 아직 땅에 닿지 않는 듯했다.

양과는 그 경황 중에서도 공손녹악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두 손을 뻗어 그녀의 몸을 받쳐 들었다. 눈앞이 온통 암흑 세상인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바닥이 온통 칼로 깔려 있는지 아니면 돌무더기일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을 채 마치기도 전에 풍덩, 하는 소리를 내면서 두 사람은 이미 물 속에 내동댕이쳐져서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원래 단방의 밑바닥은 심연(深淵)이었던 것이다.

양과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암석 맞은편에 시커멓게 보이는 것이 흡사 통로의 입구처럼 보였다. 그러나 너무 멀어 자세히 보기가 쉽지 않았다.

(저것이 통로라 해도 그 속에 어떤 흉칙한 동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살 길을 찾아 나서는 편이 낫겠지. 공손 소저만이라도 이곳을 빠져나가 절정단을 아가씨에게 전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

그는 비수를 녹악에게 건네 주며 말했다.

"내가 가서 보고 올 테니 악어를 막아내요."

하는 말고 함께 왼발로 암석을 찍어 담 속으로 날아갔다. 녹악이 놀라

며 그만 소리를 질렀다. 양과의 오른발이 죽은 악어의 배를 딛더니 다시 뛰어올랐다. 이어 왼발로 한 악어의 등을 다시 한번 찍었다. 그 악어가 밑으로 가라앉는 순간 양과는 이미 건너편에 닿아 몸을 암석 위에 바싹 붙였다. 손을 더듬어 보더니 소리쳤다.

"여기 정말 동굴이 있소 !"

공손녹악의 경공은 양과만큼 뛰어나지 못해 감히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다. 양과가 생각해 보니, 되돌아가 그녀를 업고 건너오자니 힘들 것 같았다. 일이 이렇게된 이상 모험을 하는 수 밖에 없었다.

"공손 소저 ! 도포에 물을 적셔서 이리로 던져요."

녹악은 그의 저의를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말대로 도포를 벗어 담 속에 담가 적신 뒤 둥그렇게 말아올렸다.

"던져요."

그녀는 도포를 힘껏 내던졌다. 양과가 받아 들고는 암벽 위의 발 디딜 곳을 찾았다. 왼손으로는 암벽 위에 돌출된 바위를 꼭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젖은 도포를 흔들어 댔다.

"이 소리를 잘 들어 봐요."

도포를 크게 흔들어 팍팍, 소리를 내서 동굴 입구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세 차례 계속 한 다음 말했다.

"입구가 어딘지 알겠어요 ?"

녹악은 소리가 나는 위치를 살펴보더니 대충 감을 잡았다.

"알겠어요."

"몸을 날려서 도포자락을 잡아요. 내가 끌어올릴 테니......"

녹악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으나 여전히 앞은 시커먼 암흑이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못하겠......"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무서워하지 말아요. 만약 도포를 잡지 못하고 담 속에 빠진다면 내가 곧 뛰어들어 구할 테니. 우리들에겐 강철도 벨 수 있는 비수가 있

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 조금도 겁내지 말아요."

획, 소리를 내며 도포자락을 흔들었다.

공손녹악은 이를 악물며 두 발에 힘을 주어 몸을 공중으로 날렸다. 도포자락이 공중에서 내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두 손을 내뻗었다. 오른손으로 도포자락을 잡았으나 왼손은 그만 놓치고 말았다. 양과는 얼른 도포를 당겨 녹악을 동굴 입구 쪽으로 보냈다. 그녀가 발을 내딛지 못할까 두려워 자신도 신속히 몸을 날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동굴 곁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공손녹악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됐어요. 당신은 정말 재주가 뛰어나요."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이 동굴 안에는 또 무슨 독충이나 야수가 있는지 모르니 각별히 조심해야 되오."

그들은 몸을 굽혀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녹악은 비수를 양과에게 건네 주고 양과에게 도포를 건네 받아 몸에 걸쳤다.

동굴 입구가 매우 좁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기어서 들어갔다. 악어담에서 습기가 올라와 동굴 안은 매우 미끄러웠을 뿐 아니라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양과는 기어가면서 말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당신과 나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새소리, 꽃향기에 취해 있었는데 불과 몇 시간만에 이곳을 기고 있으니...... 정말 당신에겐 미안하게 생각하오."

"이게 어째서 당신 잘못인가요 ?"

두 사람이 한참을 기어가자 동굴은 점차 넓어져 서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또 한참을 걸어갔다. 동굴의 끝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땅은 점점 평평해졌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더니, 우리가 그렇군. 이젠 빠져나갈 수 있을 거요."

녹악이 한숨을 내쉬었다.

"양형 ! 마음은 편치 못하면서 일부러 나를 즐겁게 해 주려고 그럴 필요 없......"

녹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돌연 왼쪽편에서 한바탕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하하하, 하하하......, 우하하하 !"

분명 웃음소리였지만 한편으로는 울음소리와도 같이 들렸다. <하하하하>하는 어투가 이상스럽게도 처량하고 비장했다. 양과와 녹악은 여태까지 이런 우는 듯 웃는 듯한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 하물며 이처럼 캄캄한 동굴 안에서 느닷없이 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자,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난 것보다 더 두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양과는 담이 크다고는 하지만 그만 깜짝 놀라 동굴 천장에 머리를 부딪쳤다. 공손녹악은 식은땀이 쫙 흐르며 모골이 송연해져 양과의 두 다리를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어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나아가자니 꺼림칙했고 물러나자니 안 될 말이었다. 녹악이 낮게 말했다.

"귀신인가 ?"

이 말의 음성은 매우 낮았으나 왼편에서 또 우는 듯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나는 귀신이다. 귀신 ! ......우하하, 하하 !"

양과는 생각했다.

(자칭 귀신이라는 것을 보니 귀신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양과는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양과와 공손 아가씨 두 사람은 어려움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남에게 악의를......"

그 사람이 돌연 말을 가로막았다.

"공손 아가씨라고 ? 공손 뭐냐 ?"

"공손곡주의 딸, 공손녹악입니다."

순간 저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마치 그가 순식간에 종적을 감춘

것 같았다.

그의 우는 듯 웃는 듯한 소리에 두 사람은 이미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돌연 아무 소리도 없자 암흑 속에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서로 바싹 몸을 의지해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참이 지나자 그가 돌연 소리쳤다.

"어떤 공손곡주냐 ? 공손지(公孫止) 말이냐 ?"

말투가 상당히 화를 내는 듯했다. 들어 보니 여자의 음성이 분명했다. 녹악이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저의 아버님의 함자는 외자로 <지(止)>자입니다. 노선배님께서는 아버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

그녀는 냉소를 띠며 말했다.

"내가 그를 아느냐고 ? 헤헤, 내가 그를 알고 있느냐고 ?"

녹악은 감히 더 이상 말을 받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조금 지나자 그녀가 다시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

"후배의 이름은 녹악이옵니다. 푸를 녹에 꽃받침 악입니다."

그녀는 흥, 하더니 또 물었다.

"너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 ?"

녹악은 이 이상한 사람이 자신의 생시를 왜 물어 올까 의심스러웠다. 무슨 요술을 피워 가해할까 두려워 양과의 귓전에 대고 살며시 말했다.

"말해도 될까요 ?"

양과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너는 금년 십팔 세로 이월 초사흗날 술시(戌時)생이다. 그렇지 ?"

녹악은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죠 ?"

갑자기 그녀의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올랐다. 그 사람이 절대로 자신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양과에

게서 떨어져 재빨리 앞으로 내달렸다. 두 번을구부러진 뒤 돌아 가자 눈앞이 돌연 밝아졌다. 반나체 상태의 머리가 벗겨진 노파가 땅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 노기를 잔뜩 띠고 있는 것이 위엄이 있어 보였다.

녹악이 <아 !>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양과는 그녀가 어찌 될까 두려워 황급히 뒤따라 들어왔다.

그 노파가 앉아 있는 곳은 천연적으로 생성된 석굴로, 끝이 보이지 않았다. 천장 위로 둥그런 구멍이 있어 햇살이 그 구멍을 통해 들어와 가느다랗게 비쳤다. 그러나 그 구멍은 땅에서 거의 1백여 장이나 떨어져 있었다. 보아하니 이 노파는 아마 조심하지 않아 구멍으로 떨어져서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았다. 이 동굴은 너무나 깊어서 굴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 보았자 바깥에서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죽지 않았는지 정말 신기했다. 동굴 안을 둘러보니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적지 않은 대추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가 나뭇가지에 걸려 어떻게 죽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양과는 그녀가 나무 잎사귀와 껍질로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옷도 이미 다 낡아 떨어져 있어 이 석굴 안에 들어온 지 상당히 오래된 듯이 보였다.

그 노파는 양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녹악을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갑자기 처량하게 웃더니 말했다.

"아가씨, 너는 참 예쁘게 자랐구나."

녹악도 웃으며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인사를 했다.

"노선배님, 안녕하십니까 ?"

노파는 웃는 듯 우는 듯한 음성으로 앙천대소를 했다.

"노선배라고 ? 하하하 그래, 그래. 우하하하하 !"

웃음을 그치자 노파는 얼굴에 노기를 띠었다. 녹악은 그녀가 왜 화를 내는지 몰라 매우 불안해져서 양과를 쳐다보며 구원을 청했다.

양과는 생각하기를, 이 노파가 석굴 안에서 오랫동안 혼자 생활을 하여 심기가 매우 불안정해졌다고 여겼다. 양과는 녹악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어 보이며 그녀에게 말대꾸하지 말라고 눈짓했다. 그는 좌우를 살펴보며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석굴 천장의 구멍이 비록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경공으로 굳이 빠져 나가려면 안 될 것도 없었다.

녹악은 노파를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머리는 거의 빠져 대머가 다 되었고 얼굴에는 온통 주름 투성이였지만, 두 눈에선 형형한 빛이 감돌았다. 노파도 눈을 잠시도 녹악에게서 떼지 않았다. 양과가 옆에 있다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노파가 한참을 보더니 물었다.

"너 왼쪽 허리 부근에 붉은 반점이 있지 ?"

녹악은 그만 깜짝 놀랐다.

(내 몸의 그 반점은 아버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 깊은 동굴에 있는 노파가 어떻게 이처럼 자세히 알 수가 있을까 ? 게다가 내 생시까지도 알고 있으니 그녀는 필히 우리 집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생각하며 녹악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당신은 분명 저의 아버님을 알고 계시며 또한 돌아가신 엄마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노파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돌아가신 엄마라고 ? 하하하...... 당연히 알고 있지."

돌연 노파의 말투가 엄해졌다.

"허리에 반점이 있느냐, 없느냐 ? 어서 내게 보여 주지 못할까 !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아라."

녹악은 양과를 쳐다보며 뺨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양과는 급히 몸을 돌려 그녀를 등지고 섰다. 녹악이 도포를 벗어 속옷을 들쳐 올리자 수정처럼 흰 살결 위에 과연 엄지 손가락 크기만한 붉은 반점이 있었다. 반점은 흰 눈 속에 피어난 홍매화처럼 매우 예쁘게 보였다.

노파는 한번 보더니 그만 전신을 부르르 떨며 눈물이 그렁그렁해졌

다. 돌연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귀여운 내 새끼야, 엄마가 얼마나 널 보고 싶어했다고......"

녹악은 그녀의 표정을 보더니 그만 격정이 일어나 그녀의 품에 달려들어 울며 외쳤다.

"엄마, 엄마 !"

양과는 등뒤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얼싸안고 울어 대자 황급히 몸을 돌려 바라다보았다. 두 사람이 꼭 끌어안고 있었다. 녹악은 엎드려 일어날 줄 몰랐고, 노파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이 노파가 공손녹악의 모친이란 말인가 ?)

순간 노파는 눈썹을 곤두세우고 마치 공손곡주가 손을 쓸 때의 모양처럼 얼굴에 살기가 감도는 것이었다. 양과는 큰일이다 싶어 급히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손을 뻗어 녹악의 어깨를 가볍게 밀더니 말했다.

"일어나거라. 물어볼 게 있다."

녹악은 그녀의 곁에서 떨어지면서 또 소리쳤다.

"엄마 !"

그 노파가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공손지가 왜 너를 내려보냈느냐 ? 네가 교묘한 말로 나를 속이려는 것이지, 그렇지 ?"

녹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아직 세상에 살아 계셨군요. 엄마 !"

녹악의 얼굴에는 기쁨을 참을 수 없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러한 모녀의 정에 어찌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겠는가 ? 그러나 노파는 여전히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죽었다고 공손지가 그러더냐 ?"

"전 엄마가 없는 줄로만 알고 십여 년 간을 외롭게 자라 왔어요. 엄마가 이렇게 살아 계시다니...... 오늘 난 너무 행복해요."

노파가 양과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냐 ? 그는 왜 데리고 왔지 ?"

"엄마,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공손녹악은 양과가 어떻게 절정곡에 들어왔으며, 어떻게 정화지독에 중독되었으며, 어떻게 두 사람이 악어담으로 빠지게 되었으며....... 등등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단지 공손곡주가 소용녀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일만은 모친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될까 봐 전연 꺼내지 않았다.

노파는 애매한 점이 있으면 다시 자세히 물어 보곤 했다. 녹악은 소용녀의 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노파는 얘기를 다 듣더니 얼굴색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양과를 바라보는 눈빛도 점차 친절한 빛을 띠었다. 양과가 어떻게 악어를 죽였으며, 어떻게 자기를 돌봐 주었는지를 듣자 그 노파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래 ! 얘야, 내 딸이 아무래도 네가 맘에 드는 모양이구나."

녹악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양과는 이러한 말들로 시간을 더 이상 끌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해 곧바로 말했다.

"공손 부인 ! 우리는 먼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지요 ?"

노파는 돌연 얼굴빛이 무거워지더니 말했다.

"공손 부인이라고 ? <공손 부인>, 이 네 자를 앞으로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너는 내가 힘이 없다고 여기는 모양긴데, 너 하나 없애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일이야."

돌연 푸우, 하고 입 속에서 무엇인가를 뱉아 냈다. 그것은 순식간에 양과가 잡고 있는 비수에 쨍, 하고 맞았다.

양과는 손목이 몹시 떨려 와 그만 비수를 땅에 떨어뜨렸다. 양과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다. 비수에 맞은 것은 대추씨였다. 대추씨는 비수를 튕긴 뒤 땅에 떨어져 데구르르 급히 돌아갔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비수를 잡고 있는 힘은 금륜법왕의 금륜, 달이파의 금저, 공손곡주의 거치금도(鋸齒金刀)로도 떨굴 수 없는 힘이다. 내가 비록 방비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노파가 입 속의 대추씨로 내 병기를 떨어뜨리다니...... ! 이 사람의 무공은 실로 예측하기가 힘들겠구나.)

녹악은 양과의 얼굴빛이 변한 것을 보자 급히 말했다.

"양형, 엄마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녹악은 얼른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모친을 쳐다보았다.

"엄마,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가 엄마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

노파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좋다. 강호에선 나를 철장연화(鐵掌蓮花) 구천척(구千尺)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야 할까 ? 으음, 아직 내게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장모님이라 부르겠느냐 ?"

녹악이 급히 말했다.

"엄마, 양형과 나는 깨끗한 관계예요. 그가......, 그가 나에게 대해 준 것은 호의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구천척이 화를 냈다.

"흥, 깨끗하다고 ? 다른 생각이 없다고 ? 그렇다면 네 옷은 ? 어째서 속옷만 입고 또 그의 도포자락을 걸치고 있는 것이지 ?"

갑자기 목청을 높이더니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양씨가 공손지처럼 몰염치하게 굴려고 한다면 그를 죽여 까마귀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양씨야, 내 딸애를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

양과가 보아하니 그녀의 말은 얼토당토 않은 황당한 말이었다. 만나서 몇 마디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일까 ? 그러나 한마디로 거절해 버리면 녹악이 얼마나 난감해 할 것인가. 게다가 이 노파의 무공이 대단하며 성질도 괴팍하여 공연히 그녀의 성질을 건드려 화를 일으키기가 싫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석굴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양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노선배님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공손 소저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저를 구해 주었는데 이를 어찌 이 양과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 이 양과는 절대로 간도 쓸개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니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교묘한 말이었다. 비록 녹악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아니었지만 구천척이 듣기엔 매우 그럴 듯하게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됐다."

공손녹악은 양과의 저의를 눈치채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윽한 원망의 빛을 띠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구천척에게 말했다.

"엄마, 어째서 여기 계시게 되었어요 ? 아버지는 또 왜 제게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 만약 제가 일찌기 이를 알았더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구하러 왔을 거예요."

그녀는 모친의 몸이 반이나 드러나 있는 것을 보자 양과의 도포를 벗어 그녀에게 입혀 주었다. 자기도 의복이 부족하자 곧 도포의 옷깃을 찢어 어깻죽지를 감쌌다.

양과는 소용녀가 지어 준 도포가 이처럼 끝장나는 것을 보게 되자 마음이 심란해져 다시 정화지독을 건드리게 되었다. 전신에 또 맹렬한 통증이 엄습해 왔다. 구천척이 보고 얼굴을 씰룩거리더니 오른손을 떨며 품안에 집어넣었다. 마치 무슨 물건을 꺼내려는 듯하다가 돌연 생각에 잠기더니 빈손만 꺼냈다.

녹악은 모친의 눈빛과 행동 속에서 어떤 실마리를 눈치채고 말했다.

"엄마, 양공자는 정화지독에 중독된 몸이에요. 그를 치료해 줄 수 없을까요 ?"

구천척이 담담히 말했다.

"내가 이곳에 빠져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단 말이냐 ?"

"엄마, 양공자를 구해 준다면 그도 엄마를 구해 줄 거예요. 비록 그를 구해 주지 않는다 해도 양공자는 전력으로 엄마를 도와 줄 거예요. 안 그래요 ?"

양과는 이 기괴망측한 구천척에 대해 조금도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녹악의 얼굴을 보아 힘껏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건 당연하지. 노선배님께서는 이곳에 오랫동안 계셨으니 이곳 지형에 대해 하나하나 알고 계시겠지요 ?"

구천척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비록 이곳이 땅 속 깊숙이 있다고 하지만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지."

구천척은 양과를 한번 쳐다보며말했다.

"빠져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는데도 왜 내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되겠지. 아아, 내 수족 근맥은 이미 절단되어 전신의 무공을 전부 잃게 되었단다."

양과는 벌써 그녀의 손과 발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녹악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위에서 떨어질 때 다쳤나요 ?"

구천척이 처연히 말했다.

"아냐 ! 그가 그런 것이야 !"

녹악은 더욱 놀라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누가 그랬어요 ? 우리가 복수할 거예요."

구천척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복수라고 ?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 내 수족 근맥을 절단시킨 자는 바로 공손지다 !"

공손녹악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고부터 마음속으로 막연하나마 이러한 예감을 하고 있었으나, 막상 그녀가 직접 말해버리는 것

을 듣자 전신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왜......, 왜요 ?"

구천척은 양과를 차갑게 쳐다보더니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젊고 예쁜 여자 한 명을 죽였기 때문이지. 흥, 말하자면 공손지가 좋아하는 계집을 죽였기 때문이지."

여기까지 말한 뒤, 구천척은 이를 부드득 갈았다. 녹악은 무서움을 느끼며 모친에게서 약간 떨어져 양과에게 다소 가깝게 다가갔다. 일순간 석굴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구천척이 갑자기 말했다.

"너희들 배고프지 ? 이 석굴 안에선 단지 대추로 배를 채우는 수밖에 없어."

하며 그녀는 엉금엉금 야수처럼 앞으로 재빨리 기어갔다. 녹악이 다가가 부축해 주려는 순간 그녀는 벌써 대추나무 아래 붙어 있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대추 한 알이 바람에 날려 이 석굴 속으로 떨어져 들어와 석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다. 열며를 맺고 점차 번창해 어느덧 50여 그루에 달하게 되었다. 만약 그때 이 대추알이 여기에 떨어져 자라나지 않았더라면 양과와 공손녹악은 이 석굴 안에서 한 이름 모를 백골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었다. 누가 이 백골이 유명한 무림기인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 또한 녹악도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구천척은 땅에서 대추 한 알을 집어들어 입 안에 넣었다. 머리를 들어 뱉아 내자 대추씨는 위로 몇 장을 날아가 한 나뭇가지에 맞았다. 나뭇가지가 요동을 치면서 대추알들이 비오듯이 수십 알이나 떨어졌다.

양과는 속으로 생각했다.

(수족 근맥이 절단되자 그녀는 이렇게 대추씨를 뱉아 내는 절기를 연성했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녹악은 대추알을 집어들어 모친과 양과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도 몇 알을 먹었다. 이런 지하 석굴에서도 녹악은 그녀의 모친을 봉양하고 객을 접대하는 행동에 절도가 있어 완연한 가정 주부 같았다.

구천척은 인생의 절정에서 참혹스러운 일을 당하여 마음속에 10여 년 간이나 원한이 쌓여 있었다. 그녀의 본래 성질이 포악하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온순하고 양순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도리에 맞지 않게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모녀의 정은 본능적인 것이었다. 자신이 주야로 그리워하던 딸애가 이처럼 어여쁘게 장성하여 올바르게 행동을 하자 점차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났다.

"공손지는 나에 대해 뭐라고 험담을 하더냐?"

"아버지는 엄마에 관한 얘기를 조금도 꺼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나는 내가 엄마를 닮았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었지요. 또 엄마가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고도 물었지요. 아버지는 돌연 벼락같이 화를 내고 내게 야단을 치며 다시는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셨지요. 몇 년이 지난 후 내가 또 물어 보자 그때도 야단만 치셨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녹악은 눈망울을 이리저리 굴리며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엄만 분명히 예쁘고 착하게 생겼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아버지는 엄마와의 애정이 깊어 엄마가 죽은 후, 남들이 이 일을 거론하면 스스로 상심하게 될까 봐 그러시는가 싶어 이후로는 다시 묻지 않았어요."

구천척은 냉소를 띠었다.

"지금 너는 매우 실망했겠구나. 이 엄마는 예쁘지도 않고 또 착하지도 않은, 흉폭하고 못생긴 할머니가 됐으니 말이야. 차라리 만나지 않은 편이 나을 뻔했구나."

녹악은 그녀의 목에 매달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엄마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대로예요."

고개를 돌려 양과를 쳐다보며 말했다.

"양형, 우리 엄마 예쁘게 생겼지요 ? 나에게도 잘해 주며 당신에게도 잘해 주잖아요 ?"

이 말 속에는 지극한 정성이 담겨져 있어 정말 어머니를 천하에서 가장 훌륭한 부인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양과가 생각했다.

(그녀가 젊었을 때 혹시 예쁘게 생겼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어디를 예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 너에게는 혹 잘 대해 주었는지 몰라도 내게 뭐 잘 대해 준 게 있지 ?)

그러나 녹악이 묻고 있으므로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응, 그래."

그러나 그의 말투는 녹악의 정성스러운 말투에 훨씬 못 미칠 수 밖에 없었다. 구천척은 그의 말을 듣고서는 금방 그것을 느꼈다.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나와 딸애를 만나게 해 주었구나. 지금 이애의 마음엔 온통 애틋한 정으로 그득하지만 영원히 이처럼 그런 마음을 간직하긴 어려운 일이다. 나의 원한 맺힌 마음을 이애에게 자세히 알려주어야만 하겠구나.)

"얘야, 내가 어째서 이곳에 갇히게 되었는지 물었지 ? ...... 왜 공손지가 내가 죽었다고 말했는지 궁금하지 ? 다 말해 줄 테니 이리 와 앉거라."

****** 공 손 지 의 과 거 ******

구천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공손지의 조상은 당대(唐代)에 벼슬을 하였는데 후에 안록산(安祿山)의 난(亂)을 피하여 가족을 이끌고 이 유곡에 살게 되었지. 그의 조상은 무관으로, 그도 가전(家傳)되어 온 무예를 익혔단다. 과연 청출어람(靑出於藍)이었지. 그러나 진정한 상승의 무공은 내가 전수해 준 것이지."

양과와 녹악은 의외라는 듯 <예 ?>하고 소리를 질렀다.

구천척은 거만스럽게 말했다.

"너희는 아직 어려서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흥, 철장방(鐵掌幇) 방주인 철장수상표(鐵掌水上飄) 구천인(구千인)은 바로 내 친오빠란다. 양과, 네가 철장방의 내력에 대해 녹악에게 설명 좀 해 주어라."

양과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철장방이요 ? 난 견문이 넓지 못해서 정말 철장방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요."

구천척이 버럭 욕을 해 댔다.

"조그만 놈이 거짓말을 하다니 ! 철장방의 위명은 강호 전체를 진동하여, 개방과 더불어 천하의 양대방으로 통하는데 어찌 모른다고 잡아뗀단 말이냐 ?"

"개방은 후배가 들어 본 적이 있지만, 철장방은......"

"헤헤. 무예를 익히고도 철장방조차도 모르다니......"

녹악은 모친이 화가 나 얼굴이 시뻘개진 것을 보고는 얼른 끼어들었다.

"엄마, 양공자는 아직 스무 살도 안 되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깊은 산 속에서 사부와 함께 무공을 연마했기 때문에 무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것이 많아요."

구천척은 그녀의 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계속 투덜거렸다.

20년 전 철장방은 강호에서 확실히 그 이름이 드높았다. 그러나 2차 화산논검 때 방주인 철장수상표 구천인은 불문에 귀의해 일등대사를 스승으로 삼게 되어 철장방은 자연 구름에 날리듯 흩어져 버렸다. 그 철장방이 흩어져 버릴 무렵 양과가 태어나 여지껏 그 이름을 듣지 못했으니 모르는 것이 당연했다.

실제로 그의 모친 진남금(秦南琴)은 철장방 본부가 있는 철장봉(鐵掌峯) 위에서 그의 부친 양강(楊康)에게 몸을 빼앗겨 임신을 하게 되

어 양과를 낳은 것이었다. 방금 구천척의 말 그대로 그는 두 눈을 버젓이 뜨고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구천척은 절정곡 인에서 이미 30년 간이나 살았기 때문에 강호에서 일어난 변동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철장방의 위명이 수백 년은 가리라 여겨 지금쯤은 더욱 흥성해졌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양과가 철장방이란 이름조차 모른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 길길이 날뛰었던 것이다.

양과는 그녀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욕을 듣게 되자 처음에는 그냥 참았다. 그러나 그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욕을 해대자 점차 화가 치밀었다. 그가 뭐라고 대꾸를 하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녹악이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도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양과는 마음이 다소 누그러져 어찌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속으로는 도리어 우쭐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너의 어머니가 내게 심하게 욕을 하면 할수록 너는 내게 더욱 잘해주게 되겠지. 늙은이의 잔소리를 귓전으로 흘려들으면 미인의 다정스러움을 얻게 된다 ? 그것도 괜찮은 일이지.)

마음을 편히 먹자 머리가 기민해지며 돌연 한 생각이 떠올랐다.

(완안평의 무공이 공손지와 서로 흡사했었지. 또 그녀의 무공이 철장 무공이라 하지 않았던가. 철장방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리자 완안평이 야율진과 대전할 때 사용한 권법과 도법 등이 7,8 할 정도 떠올랐다. 또 공손지와 격투를 벌인 장면을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라 그의 신법과 초식 등은 더욱 생생하게 기억되었다. 그제야 양과는 소리를 질렀다.

"아아, 알겠다 !"

구천척이 말했다.

"그래 ?"

"삼 년 전에 난 한 무림 기인이 열 여덟 명의 강호의 대장부와 싸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는 맨손에 혼자 몸으로 열 여덟 명을

상대했지요. 결국 상대방에서 아홉이 중상을 입고, 아홉은 죽어 버렸어요. 그 무림 기인이 철장 사람이라는 말은 들었어요."

구천척이 얼른 물었다.

"그가 어떻게 생겼더냐 ?"

양과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머리가 벗겨지고 대략 육십 세 가량 되어 보였고, 몸이 크고 녹색 의복을 입고 있었어요. 성씨가 자칭 구......"

구천척이 돌연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 ! 나의 두 분 오빠들은 대머리가 아니다. 몸도 왜소하며 녹색옷을 입은 적이 없다. 너는 내가 몸집이 크고 머리도 벗겨진 것을 보고 오빠들도 그러려니 생각한 것이구나 ?"

양과는 속으로 <제기랄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조급히 굴지 말아요. 내가 언제 그 사람이 당신 오빠라 했나요 ? 천하에 구씨 성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당신 오빠란 말이오 ?"

구천척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다시 물어 보았다.

"그러다면 그의 무공이 어떻더냐 ?"

양과는 몸을 일으켜 완안평의 권법을 몇 번 시전하다가 공손지의 신법과 장법을 섞으니 나중에 사뭇 손에 익었다. 석굴 안에는 돌연 장영이 어지러이 날리고 권풍이 불기 시작했다. 초식은 비록 비슷한 점도 있었으나 완안평의 원래의 권법과 비교할 때 얼마나 비슷한지는 몰랐다. 완안평의 권법 중 더러 부족한 점은 그가 임의로 맞추어 완전하게 격식을 갖추었다. 매 장을 휘두를 때마다 특별히 힘을 더욱 가했다.

구천척이 보더니 매우 기뻐했다.

"녹악아, 이것이 바로 우리 철장방의 무공이란다. 잘 봐 두어라."

양과가 한번 시전을 하면 구천척이 말로 자세히 그려 가며 권법중의 여러 핵심 되는 부분을 해석해 주었다. 양과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계속 하다가는 마각이 들통나겠구나.)

그래서 시전을 멈추고 말했다.

"여기까지에서 그 무림 기인은 대승을 거두었지요."

구천척은 상당히 기뻐하며 말했다.

"초식 중 많은 부분이 틀렸어. 수법도 안 맞고...... 그러나 이정도까지 해 낸 것만도 상당해. 그 무림 기인의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 ? 그와 이야기를 해 보았느냐 ?"

"그 기인은 대승을 거둔 후 표연히 자리를 떠나 버렸어요. 나중에 부상당한 아홉 명이 땅바닥에 누워 원망어린 목소리로 철장방의 구영감,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 그는 아마 오빠의 제자였을 거야."

그녀는 천성이 무공을 좋아했다. 10여 년 간이나 수족이 불편하여 무공을 사용치 못하다가 지금 양과가 그녀 자신의 무공을 시전해 내는 것을 보자 너무나 기뻤다. 이어 구구절절이 두 사람에게 철장문의 장법과 경공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 댔다.

양과는 어서 빨리 이 동굴에서 빠져나가 절정단을 소용녀에게 먹이고 싶었다.. 비록 그녀가 말하는 상승의 무공을 자세히 듣는다면 어쨌든 이익이 되겠지만, 소용녀가 받고 있을 고초를 생각하면 무공이나 연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얼른 녹악에게 눈짓을 했다.

녹악이 눈치를 채고 물었다.

"엄마, 왜 무공을 아버지께 전수해 주셨어요 ?"

구천척이 화를 버럭 냈다.

"공손지라고 불러라 !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냐 ?"

"네...... 엄마, 어서 말해 봐요 !"

구천척은 한이 맺힌 듯 <흥>하고 코방귀를 뀐 뒤, 한참 있다가 말했다.

"이십여 년 전의 일이지. 내 두 오빠가 서로 다투어 말싸움 끝에......"

녹악이 끼어들었다.

"제게 두 분 외삼촌이 있었나요 ?"

"모르고 있었느냐 ?"

목소리가 질책하는 듯 엄했다.

녹악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랴 싶어 대답했다.

"네. 지금껏 말해 준 사람이 있어야지요."

구천척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는......,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구나. 불쌍한 것 ! 에그, 불쌍한 것 같으니라구...... 쯔쯧 !"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말했다.

"네 외삼촌은 쌍동이 형제로 큰외삼촌이 구천리(구千里)이고, 둘째 외삼촌이 바로 구천인(구千인)이야. 두 사람은 신체, 걸음걸이, 목소리까지도 서로 흡사했지. 그러나 성격은 전혀 딴판이었어. 큰오빠는 모공이 평범했고, 둘째 오빤 무공이 매우 뛰어났지. 나는 둘째 오빠한테 무공을 전수받았지만 오히려 큰오빠와 더 친했어. 둘째 오빤 철장방 방주로 늘 분주했지만 스스로 무공도 매우 열심히 수련했지. 그래서 나와는 얼굴 대하기도 어려웠어. 그래서 나와는 얼굴 대하기도 어려웠어. 내게 큰오빤 아주 자상해 나와는 남매간의 정이 꽤 깊었지. 두 오빠들이 언쟁을 벌일 때 나는 큰오빠 편을 들었어."

"엄마, 두 분 외삼촌이 왜 싸웠나요 ?"

구천척은 얼굴에 돌연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 일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일이었어. 단지 둘째 오빠가 너무 고지식한 탓이야. 둘째 오빠가 방주가 되자 <철장수상표 구천인>이란 여덟 자는 강호에 진동하게 되었지만, 큰오빠 구천리란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그래서 큰오빠는 밖에 돌아다닐 때 편의상 때때로 둘째 오빠의 이름을 사용하였단다. 두 사람의 용모가 비슷하고 또 친형제간인데 이름을 빌린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냐 ? 그러나 둘째 오빠는 그것을 봐 넘기지 못하고 이 일을 갖고 큰오빠에게 따져 들었지. 큰오빠는 성격이 유해 둘째 오빠가 욕을 할 때에도 언제나

히히 웃으며 사과하곤 했단다. 어느날 둘째 오빠가 정말로 너무 심하게 인정사정없이 큰오빠를 욕해 댔단다. 마침내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어 큰오빠 편을 들게 되자 우리 남매는 크게 한바탕 다투었지. 화가 난김에 나는 그 길로 철장방을 떠나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단다...... 홀로 강호를 이리저리 떠돌틈冒姸菁 그런데 어느 날 도둑놈을 쫓아 뜻하지 않게 이 절정곡에 이르게 되었단다. 이도 무슨 전생의 업보인지 공손지 이......, 이 도둑놈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단다. 내 나이가 그보다 많고 무공도 훨씬 강해 결혼 후 나는 무공을 전부 그에게 전수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식이나 잠자리 등을 주도면밀하게 살펴 주어 그가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게 해 주었단다. 그의 집안에 가전되어 온 무공도 오묘하긴 했지만 너무 난삽해 내가 일일이 그에게 보충해 주었단다. 한번은 강적이 쳐들어와 만약 내가 목숨을 걸고 적을 격퇴시키지 않았다면 이 절정곡은 벌써 남에게 넘어갔을 거다. 그런데 이 개만도 못한 도둑놈이 날개짓 할 정도로 자라게 되자, 자신의 올챙이 적 생각은 않고, 또 위급할 때 누가 자신을 구해주었는지도 생각지 않게 되었지 뭐겠냐 ?"

구천척은 말을 하며 더욱 지저분한 표현을 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심한 욕설까지 내뱉았다.

녹악은 얼굴이 시뻘개졌다. 모친이 양과의 앞에서 이처럼 남편을 욕하자 사실은 매우 낙심했다.

"엄마, 엄마 !"

녹악은 그만 하라고 계속 외쳤다. 양과는 매우 재미있었다. 그 역시 공손지를 원망하고 있었으므로 그녀가 욕하는 것이 통쾌하게 들렸다. 마음이 꼭 맞아 옆에서 맞장구를 쳐 구천척의 흥미를 부추켜 주면 잘 어울릴 판이었다. 만약 녹악만 곁에 없었다면 그 역시 신나게 욕을 해 댔을 것이었다.

구천척은 한참 욕을 하다가 더 이상 할 욕이 없게 되자 그제서야 멈추고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갔다.

"그러다가 너를 갖게 되었지. 임신한 여자는 자연 성격이 날카로와지기 마련이 아니겠냐! 그런데 그는 면전에서는 여전히 내게 잘 대해 주었는데, 남 몰래 곡중의 한 천한 몸종과 놀아나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내가 너를 낳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 천비와 놀아났지. 난 조금도 눈치를 못 챘었단다. 그러면서 그놈은 우리들에게 어여쁜 여자아이가 생겼으니 내게 더욱 잘해 주겠다고 말했지. 난 그렇게 몇 년간을 속아 지낸 거야. 그런데 어느날 뜻하지 않게 이 연놈들이 멀리 달아나 다신 절정곡에 돌아오지 않기로 의논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지...... 그때 난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 그 도둑놈이 내 무공이 뛰어난 것을두려워해 멀리 달아날수록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 또 말하길, 내가 그를 너무 꽉 움켜쥐고 있어 조금도 자유가 없다고 하지 않겠냐! 그 천비와 함께 있기만 하면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즐거움이 있다고까지 말하더군. 나는 줄곧 그가 진심으로 나를 대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같이 말하는 것을 듣자 그만 기절할 뻔했다. 바로 달려나가 단숨에 이 연놈들을 때려 죽일까 생각했었어. 그러나 그가 비록 괘씸하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의 정을 생각하고, 또 본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천비의 얕은 꾀에 넘어가 그녀에게 반한 것이라 여겨,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며 나무 뒤에서 가만히 듣기만 했지...... 자세히 들어 보니 이틀 후 내가 무공을 연마하기 위해 정실에ㅔ 들어가 이레 동안 나오지 않을 때를 틈타 도망가자고 말하는 것이야. 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여러 날이 지난 후일 것이니 내가 쫓아올 수 없다는 것이지. 당시 난 모골이 송연해졌어. 다행히도 하늘이 가엾게 여겨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것이지. 만약 그들이 도망깐 후 일주일만에 알았다면 내가 어디에서 그 쌍것들을   을 수 있었겠느냐?"

여기까지 말을 마친 구천척은 이를 부드득 갈았다.

녹악이 말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였어요? 용모가 예뻤나요?"

구천척이 말했다.

"흥, 예뻤냐고 ? 그 계집은 말을 잘 들었지. 공손지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들었으니까. 또 그 도둑놈이 당세의 가장 훌륭한 호인이요, 재주가 비상한 대영웅이라고 달콤한 말로 추켜세웠지. 이렇게 하여 그 도둑놈이 그만 반하고 만 거야. 그 계집의 이름은 유아(柔兒)였지. 그처럼 못난 작자가 무슨 영웅이란 말인가 ? 내 큰오빠의 몸종 노릇도 하기 부족하며, 둘째 오빠와는 아예 상대도 되지 않는 위인이지."

양과는 여기까지 듣자 공손지에 대해서 약간 연민의 정이 느껴졌다.

(당신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자기 말을 듣도록 했겠지. 당신이 먼저 그를 깔보았으니 결국 그도 반역지심을 갖게 되었겠지 !)

녹악은 그녀가 또 욕을 해 댈까 두려워 얼른 물었다.

"엄마,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

"음, 당시 그 연놈들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만나 도망가기로 약속을 했단다. 이틀 동안은 더욱 조심을 하여 조금도 낌새를 보이지 않아 내가 눈치채지못하게 하자고 하더군. 이어서 그것들은 또 허다한 음탕스런 말들을 주고받았어. 그 천비는 희미한 눈빛으로 그 도둑놈을 마치 황제보다도 더 존귀하고 보살보다도 힘이 있는 양 바라보더군. 그 도둑놈은 득의양양해져 한참을 자화자찬하더니 서로 얼싸안고 뒹굴더군. 이러한 몰염치하고 추한 행동에 난 하마터면 화가 치밀어 죽을 뻔했지. 사흘째 아침 나는 짐짓 정실에 앉아 무공을 연마하는 척했지. 공손지가 창 밖에서 몇 차례 훔쳐보더군. 그 얼굴 표정이란 정말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듯 좋아하는 그런 표정이었어. 그가 떠나간 후 난 즉각 경공을 펼쳐 그들이 약속한 장소에 이르렀지. 벌써 그 천비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군. 난 다짜고짜 그녀를 잡아 정화 속으로 던져 버렸지......"

양과와 녹악은 그만 <아 !> 하고 소리를 질렀다.

구천척은 두 사람을 힐끗 보더니 계속 말했다.

얼마 있다가 공손지도 왔지. 그는 유아가 정화 꽃무덤 속에서 뒹굴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지. 나는 얼른 나무 뒤에서 뛰어나와 두 손으로 그의 맥문을 움켜쥐고 그도 정화 속으로 쓰러뜨렸다. 이 곡중에는 대대로 정화지독을 해독할 수 있는 절정단이라 불리는 단약이 전해 오고 있었어. 공손지는 서둘러 일어나더니 천비를 부축해 함께 단방으로 뛰어들어갔지. 절정단으로 치료하려고 했던 거야. 우하하하, 그가 거기서 뭘 보았는지 알겠느냐 ?"

"엄마......, 어떻게 되었어요 ?"

양과가 생각했다.

(분명 절정단을 깨끗이 없애 버렸겠지.)

구천척이 말했다.

"하하하, 그가 본 것은 바로 단방 탁자 위에 놓여진 그릇이었지. 수백 개의 절정단이 비상을 풀어 놓은 물에 고스란히 잠겨 있는 걸 보게 된 거지. 절정단을 먹자니 비상의 독에 중독될 것이고, 안먹자니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지. 절정단을 제조하는 처방은 원래 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결이었지만, 진귀한 약재를 급히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알의 단약을 조제하기 위해선 봄 이슬과 가을 서리를 삼 년간 맞아야만 되는 것이지. 그는 급히 정실로 뛰어들어와 내게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빌더군. 그는 내가 부부의 정을 생각해 절정단을 다 못 쓰게 하지않고 약간은 남겨 두었으리라는 것을 눈치챈 거지. 그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맹세를 했었어. 내가 두 사람의 목숨을 살려 주기만 하면, 그는 즉시 유아를 곡 밖으로 내쫓고 영원히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으며 이후론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하더군. 나는 그가 말끝마대 유아를 떠올리자 몹시 화가 치밀어 즉각 절정단 한 알을 탁자 위에 놓고선 말했지. <절정단은 하나만 남았으니 한 사람만 치료할 수 있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반쪽을 먹어서는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녀를 구하든 자신을 구하든 당신 맘대로 하세요.> 그는 즉시 단약을 들고 단방으로 되돌아가더군. 나는 즉각 따

라가 봤지. 그때 천비는 이미 고통에 겨워 반쯤 죽어 가고 있었어. 공손지가 말하더군. <유아, 잘 가거라. 나도 함께 죽겠다.>하고 말하면서 장검을 뽑아 들더군. 유아는 그가 이처럼 의리가 있고 정이 깊은 것을 보자 얼굴에 온통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 <네, 네. 저승에서나마 우리 부부가 돼요.> 공손지는 검을 들어 그녀를 찔러 버렸어. ...... 난 단방 창 밖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지. 그가 두번째 검을 들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줄 알았던 것이야. 그가 검을 들어올리길래 내가 막 막으려고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그는 검을 유아의 시신에 몇 차려 문질러 혈흔을 닦아 내더니 검집에다 검을 도로 집어넣었지. 고개를 돌려 창 밖을 보며 말했어. <여보, 난 진심으로 후회하여 친히 이 천비를 죽였소. 이제 나를 용서해 주구료.> 하며 그 약을 삼켰지. 이 일은 대단히 의외였으나 이왕 결과가 그렇게 났고, 그가 정말 뉘우치는 것 같아 나도 만족했지. 그는 곧 방에다 주연을 베풀고 잔을 들어 나에게 사죄를 했지. 내가 그를 한차례 꾸짖자 그는 계속 자신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후론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수백 번도 더 다짐하였지."

양과가 생각해 보았다.

(이번에는 당신이 크게 속았겠군 !)

녹악은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구천척은 화를 내며 말했다.

"왜 우는 거냐 ? 그 천비가 불쌍하냐 ?"

녹악은 고개만 저을 뿐 말이 없었다. 그녀는 부친의 악랄함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었다.

구천척이 계속 말했다.

"나는 술을 두 잔 마신 후, 냉소를 띠며 품안에서 절정단 한 알을 또 꺼내 탁자에 놓았지. <당신은 방금 너무 빨리 손을 썼어요. 난 단지 당신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몇 마디만 더 용서를 빌었더라면 나는 이 절정단 두 알을 모두 당신께 주어 두 사람 모

두 구하려고 했었지요.> 하고 말했지."

녹악이 얼른 물었다.

"엄마, 만약 그때 아버지가 진정으로 빌었다면 그 두 개의 약을 모두 그에게 주었을까요 ?"

구천척은 잠시 신음을 하더니 말했다.

"그건 나도 즐 몰라. 당시내가 생각하긴 그 천비를 구해서 그녀를 곡 밖으로 쫓아낸다면 공손지도 내게 감격을 하여 이후로는 개과전선하여 허튼 짓을 감히 못 하리라고 여겼었지.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 서둘러 사람을 해친 것이니 나를 원망할 수 만은 없는 것이 아니 겠냐 ? ...... 공손지는 그 단약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잔을 들며 말했지. <여보, 과거의 일을 얘기해서 무엇하겠소 ? 그 천한 몸종은 잘 죽은 것이오. 자, 건배합시다.> 그는 내게 계속 술을 권하더군. 나는 마음이 느긋해져 계속 마시고는 그만 대취하고 말았어. 깨어보니 이미 이 석굴 안이었고 수족근맥은 모두 그에게 절단되어 있었어. 그 도둑놈은 나를 더 이상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야. 흥, 그놈은 내가 지금쯤 백골이 되어 한 줌 재로 변했을 줄로만 알고 있을걸......"

그녀는 말을 마치자 얼굴에 흉폭한 빛을 발하며 표정이 몹시 무서워졌다. 양과와 녹악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빛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한참 동안 세 사람은 모두 말이 없었다.

녹악이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석굴 안에 부서진 돌조각과 나뭇잎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처연히 물었다.

"엄마, 여기 석굴 안에서 십여 년 동안 단지 대추만 먹고 살았나요 ?"

"그래. 그 찢어 죽일 놈이 매일 내게 음식이라도 보내 주었을성싶냐 ?"

녹악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 !"

양과가 말했다.

"공손지가 당신에게 이 석굴 안에 출구가 있는지에 대해 말한적이 있습니까 ?"

구천척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난 그와 몇 년간 부부로 지냈지만, 그는 장원의 지하에 이런 석굴이 있으며 이러한 연못이 있는지에 대해선 말한 적이 없었다. 석굴에 만약 다른 출구가 있었다면 그 도둑놈이 나를 이곳에다 가두지 않았을 것이다. 악어들도 아마 그가 후에 기른 걸 거야. 그는 끝내 내가 도망칠까 무서워 그런 것이지."

양과는 석굴 안을 한바퀴 돌았다. 들어온 입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통로가 없었다. 고개를 들어 빛이 들어오는 천장의 구멍을 바라보았다. 그 구멍은 바닥에서 적어도 1백여 장이나 떨어져 있었다. 구멍 밑에 비록 큰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지만 4,5장 높이에 지나지 않았다. 스무 그루의 대추나무를 잇는다 해도 천장에는 닿지 않을 것 같았다. 한참을 생각해 보았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살펴보지."

양과는 바로 대추나무에 뛰어올라 나무 끝으로 기어올라갔다. 높은 곳의 석벽은 울퉁불퉁하여 바닥처럼 미끄럽지 않은 것 같았다. 호흡을 가다듬고 석벽을 계속 기어올라갔다. 점점 높이 기어올라갈수록 조건이 나아졌다. 양과는 녹악에게 기쁜 마음으로 외쳤다.

"공손 소저, 내가 만약 나가게 되면 곧 밧줄을 내려 당신들을 끌어올릴께요."

어느새 그는 6,70장을 기어올랐다. 뛰어난 경공에 의지해 동굴 구멍과 7,8장 떨어진 곳까지 올라갔을 때, 돌연 석벽이 이상스럽게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손발을 놓을 곳이 없었다. 또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파리나 간신히 붙을 수 있을까, 도저히 손을 대어 볼 수 없었다.

양과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천장 구멍의 직경은 약 1여장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속으로 계산을 충분히 한 후, 그는 다시 석굴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나갈 수 있겠어요 ! 어서 긴 끈을 만들어 봅시다."

그는 비수를 꺼내어 대추나무 껍질을 벗겨 끈을 엮었다. 공손녹악은 매우 기뻐하며 옆에서 거들었다. 두 사람의 손발이 비록 매우 빨랐지만 두 시간 이상이나 지나 어둠이 깔릴 무렵에야 겨우 기다란 나무껍질 끈을 만들 수 있었다.

양과는 끈을 잡고 몇 차례 당겨 보더니 말했다.

"이만하면 끊어지지 않겠군."

그리고 다시 비수로 대추나무 줄기를 잘라 약 1장 5척 가량 길이의 줄기로 밧줄 중간을 꽉 묶었다. 또다시 위로 기어올라가 석벽의 끝까지 이르자, 두 발에 천근추무공을 시전해 단단히 석벽 위를 밟은 다음 두 팔을 휘둘러 나무줄기를 구멍 밖으로 내던졌다. 던진 힘이 딱 알맞아 나무줄기는 바로 구멍 위에 가로로 걸렸다. 양과는 몇 차례 힘껏 줄을 잡아당겨 보았다. 나무 줄기가 단단히 걸려 있음을 확인한 양과는 자신의 신체 중량을죽이며 소리쳤다.

"올라간다 !"

두 손으로 끈을 잡고 번갈아 잡아 쥐며 위로 올라갔다. 머리를 숙여 아래를 보니 녹악 모녀가 황혼 속에 이미 2개의 조그만 점으로 보였다.

양과는 두 팔에 힘을 가해 더욱 빨리 위로 올라갔다. 순식간에 구멍에 걸린 나무줄기까지 닿았다. 팔을 구부려 후, 하는 소리를 내며 구멍 밖으로 뛰어올라 땅에 내려앉았다.

양과는 길게 숨을 내쉬고 나서 몸을 일으켰다. 둥근 달이 동녘 산 뒤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깜깜한 악어담과 석굴 속에 반나절이나 갇혀 있다가 이제 다시 자유를 얻게 되자, 가슴속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상쾌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가씨와 함께 고묘에 있었을 때는 어째서 조금도 답답함은 느끼지 못했을까 ?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나갈 생각이 없는데 나가게 되면 유쾌하지 않은 것이지.)

그는 곧 긴 끈을 밑으로 내려보냈다.

구천척은 양과가 석굴 밖으로 나가 버리자 딸애를 야단쳤다.

"이 멍청아. 어째서 그를 혼자 올라가게 했느냐 ? 그가 나가 버리고 난 후, 우리들 생각을 할 것 같으냐 ?"

"엄마, 안심해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구천척이 화를 냈다.

"세상 남자들이란 모두 똑같아. 어디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냐 ?"

돌연 고개를 돌려 그녀의 전신을 자세히 훑어보더니 말했다.

"이 바보야. 너 그에게 당했지, 그렇지 ?"

녹악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말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 도대체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어요."

구천척이 더욱 화를 냈다.

"모른다고 ? 그런데 왜 얼굴이 빨개지냐 ? 무릇 남자에 대해선 조금도 방심해선 안 되며, 조금도 만만하게 대해선 안 되는 거야. 넌 엄마의 경우를 자세히 듣지 않았느냐 ?"

계속 중얼거리려는 순간 녹악이 몸을 일으켜 양과가 내려보낸 긴 끈을 잡았다. 그녀는 몇 차례 잡아당겨 이미 다 묶었다고 신호를 했다.

구천척은 흥, 하며 말했다.

"에미가 네게 말하겔는데, 석굴을 나간 후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해. 촌보도 떨어지지 말고. 남편 ? 남편은 단지 일 장 안에 있어야지, 일 장만 벗어나도 이미 남편이 아닌 게야. 알겠느냐 ? 네 할아버지가 이 엄마에게 천척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천척은 바로 백장(百丈)이야. 후훗, 백 장 밖에 무슨 놈의 남편이 있겠느냐 !"

녹악은 우습기도 하고 또한 슬프기도 했다.

(엄마는 정말 날 생각해 주는구나.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조금이라

도 걱정해 준 이가 있었던가 !)

녹악은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다. 구천척이 막 말을 하려는 순간, 허리가 당겨지며 몸이 서서히 위로 올라갔다. 녹악은 모친을 쳐다보았다. 비록 양과가 곧 끈을 내려보내 자신을 구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지하 석굴 안에 자신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몸이 떨리며 무서워졌다.

양과는 구천척을 굴 밖으로 끌어올린 뒤 허리의 긴 끈을 풀어 다시 굴 속으로 내려보냈다. 녹악은 나무껍질 끈을 허리에다 묶고서야 안심을 했다. 끈을 잡고 몇 차례 흔드는 것으로 신호를 했다. 끈이 당겨지며 머리 위의 별들이 점점 분명히 보였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석굴을 벗어날 판이었다. 돌연 머리 위에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끈이 느슨해지며, 몸이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1백여 장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린다면 누구라도 몸이 가루가 될 판이었다. 녹악은 비명을 지르며 기절할 뻔했다. 몸이 계속 아래로 미끄러져 조금도 멈추지를 않았다.

양과가 두 손으로 끈을 잡아당겨 녹악을 거의 다 끌어올리려는 순간, 몸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뛰어들며 공격을 해온 것이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몸을 돌려 적을 막을 수도 없었다. 양과는 끈을 미친 듯이 끌어당겼다. 한 사람이 외쳤다.

"여기 숨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

이어 바람 소리를 내며 기다랗고 무거운 병기가 그의 등뒤를 찔러 들어왔다.

양과는 병기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난장이 번일옹임을 알았다. 급한 김에 왼손만을 휘둘러 철장을 옆으로 밀어 버려 첫 번 공격을 와해시켰다. 번일옹은 깜깜하여 양과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상대방의 무공이 만만치 않음을 알았다. 철장을 거두어 그의 허리를 쓸어 버렸다. 이번에는 전력을 다해 허리를 절단시켜 버리려 한 것이었다. 이때 양과는 오른손으로 녹악의 몸무게를 지탱해 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철장이 다시 다가와 얼른 왼손을 뻗었다. 뜻하지 않게 번일옹의 이번 공격은 기세가 대단했다. 양과의 좌장이 그의 지팡이에 닿는 순간 전신이 크게 떨려 그만 오른손을 놓쳐 버려 녹악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었다.

석굴 속에서 녹악이 비명을 질렀다. 석굴 꼭대기에서는 구천척과 양과가 동시에 고함을 질렀다. 양과는 번일옹의 철장 공격을 묵살한 채 왼손을 급히 뻗어 끈을 잡아 쥐었다. 그러나 녹악이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대단했다. 1백여 근의 중량에 가속도가 붙으니 천 근의 힘 못지않았다. 양과는 끈을 잡아 쥐고 잠시 기우뚱거리다 몸을 멈추지 못하고 동굴 속으로 처박혔다. 그의 무공이 비록 대단했지만 조금도 손쓸 틈이 없었다.

구천척은 수족의 경락이 이미 끊겨 무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단지 초조하게 곁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보아하니, 동굴 구멍 옆에 말려 있던 1백여 장 길이의 긴 끈이 점점 짧아져 가고 있었다. 끈이 다 내려가면 양과와 녹악의 몸은 끝장이 나는 것이었다. 끈은 두 사람의 체중이 실리자 더욱 빨리 석굴 안으로 휘르륵 빨려 들어갔다.

구천척이 생각했다.

(이 나쁜 녀석, 너도 같이 동귀어진하거라.)

구천척은 끈을 들고 가볍게 내던졌다. 별반 힘은 없었으나 끈은 순식각에 번일옹의 허리를 몇 차례 감아 버렸다.

번일옹은 허리가 당겨지는 것을 느끼자 천근추무공을 사용해 몸을 고정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양과와 녹악 두 사람의 체중이 함께 실려 있는데다가 가속도까지 붙자 그도 한발 한발 구멍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번일옹이 보건대 몇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구멍에 빠져 떨어질 판이었다. 깜짝 놀라 왼손으로 끈을 움켜잡고 오른팔로 구멍 입구의 암석을 감싸안았다. 이렇게 버티자 끈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추게 되었다.

이때 녹악은 땅에서 불과 수십 장 거리에까지 떨어져 정말 위험천만한 지경이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렇게 떨어져내리는 가속도였다. 조그마한 돌멩이라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내린다면 그 힘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번일옹은 신력을 다해 떨어지는 것을 막기는 했지만 그의 손에는 2 백여 근의 무게가 실려져 견뎌 내기 매우 힘든 지경이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끈을 잡고 왼손을 뻗어 허리의 끈을 풀어 적들을 도로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때 등뒤로 통증이 느껴지며 한 뾰죽한 물체가 그의 여섯번째 척추 부근의 영대혈(靈臺穴)을 누르고 있었다. 어떤 노파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서 끌어올려라 ! 영대에 손상이 가면 백맥(百脈)이 다 막히는 것이다 !"

번일옹은 깜짝 놀랐다. 영대에 손상을 입으면 백맥이 다 막히게 된다는 소리는 바로 사부가 점혈무공을 전수할 때 누누이 일러주었던 말이다. 번일옹은 감히 항거할 수가 없어 두 손에 힘을 가해 양과와 녹악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는 아까 떨어지는 힘을 막아내느라고 힘을 너무 많이 써, 이때는 가슴이 답답해 오며 목이 타는 것이 마치 피를 토해 낼 것 같았다. 자신의 내장에 이미 내상을 받은 것 같아 힘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급소를 적에게 잡혔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힘을 내야만 했다.

양과가 곧 밖으로 나왔다. 번일옹은 마음속이 좀 느긋해지는 것 같더니 이내 사지에 맥이 쭉 빠져 으윽, 하고 선혈을 쏟으며 땅에 주저앉았다.

그가 주저앉으며 또 손을 놓자 끈은 다시 밑으로 미끄러졌다. 구천척이 소리쳤다.

"어서 붙잡아라 !"

양과가 어찌 그녀의 분부를 기다리고 서 있었겠는가 ! 얼른 밧줄을 잡아 결국 녹악을 끌어내었다. 녹악은 수차 오르락내리락거리며 끌어올려지자 곧 기절해 버렸다. 양과는 먼저 번일옹의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게 복토(伏兎), 거골(巨骨) 양 혈도를 찍었다. 그리고 나서 녹악의 인중을 눌러 그녀를 깨웠다.

녹악은 서서히 깨어나며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다. 달빛 이래 양과가 씩 웃으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으로 뛰어들며 말했다.

"양형, 우린 모두 죽었나요 ? 여기가 어디죠 ? 이승인가요, 저승인가요 ?"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우린 모두 죽었어요."

녹악이 들어 보니 그의 말투에 다분히 장난기가 있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일으켰다. 어머니가 웃는 듯 그렇지 않은 듯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부끄러워 그만 <엄마 !>하며 벌떡 일어섰다.

양과는 구천척이 비록 무공을 잃었으나 번일옹을 눌러 자기의 생명을 구해 준 데 대해 마음속으로 매우 감탄했다.

"당신은 무슨 방법으로 그 난장이가 힘을 쓰게 했나요 ?"

구천척은 가볍게 미소를 짓더니 손에 들고 있던 뾰족한 돌멩이를 들어 보였다. 공손지의 점혈무공은 그녀가 전수해 준 것이고 번일옹은 또 공손지에게서 배웠으니, 세 사람은 일맥상통하여 구결에서도 서로 틀림이 없었다. 그녀는 뾰족한 돌로 번일옹의 영대혈을 누른 뒤, <영대에 손상을 입으면 백맥이 막히게 된다>고 외치자 번일옹이 그만 꼼짝도 못 하게 된 것이었다. 사실 이때 구천척의 손 힘으로는 이 조그만 돌멩이만 갖고 백맥을 막히게까지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이때 양과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소용녀의 안위만이 걱정될 뿐이었다. 녹악과 구천척도 이미 위험을 벗어났고, 번일옹도 이미 제압되었으니 큰 걱정은 사라진 것이다.

"두 분은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지요. 나는 절정단을 갖고 어떤 사람을 빨리 구해야 합니다."

구천척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뭐라고 ? 절정단이라고 ? 너도 절정단을 갖고 있단 말이냐 ?"

"네 한번 봐 주세요. 진짜 단약인지 ?"

하며 양과는 품에서 작은 병을 꺼내 정사각형 모양의 단약 하나를 손바닥에 꺼내 놓았다. 구천척은 받아 들고서 냄새를 맡아 보더니 말했다.

"좋은데. 이 단약이 어떻게 해서 네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 또 넌 이미 정화의 독에 중독된 몸이면서 어째서 이 단약을 복용치 않는 것이냐 ?"

"그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기니 이 단약을 전해 주고 난 후에 자세히 얘기해 드리지요."

그는 단약을 받아 들고 이내 떠나려 했다.

녹악은 상심에 젖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양형, 반드시 우리 아버지를 피해 가세요."

구천척이 꾸짖었다.

"또 아버지 소리 ! 만약 또다시 그를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후론 내게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가 이 단약으로 아가씨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면 공손곡주도 절대로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오."

녹악이 말했다.

"만약 그가 또 독계를 사용해 덤비면 ?"

양과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요, 뭘 !"

구천척이 물었다.

"너 지금 공손지를 찾아가는 게지, 그렇지 ?"

"그래요."

"좋다 ! 그럼 나도 함께 가자. 네게 힘이 되어 주겠다."

양과는 오로지 소용녀에게 해약을 주어 그녀를 구할 생각만 하고 있

었지 다른 일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지금 구천척이 이처럼 말하는 것을 듣자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다.

(그 곡주의 전처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가 어찌 아가씨와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

기뻐하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절정단은 오직 한 개뿐, 비록 아가씨를 구한다고 해도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우울해졌다.

녹악은 양과의 얼굴빛이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보며 부모들이 만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어떤 야단법석이 일어날지 몰라 정말 마음이 초조한 게, 입이 바싹바싹 탔다. 구천척은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녹악아. 어서 나를 업어라 !"

"엄마. 먼저 세수부터 하고, 옷도 갈아입어요."

그녀는 정말 부모들이 맞닥뜨리는 장면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었으면 했다.

구천척이 대로하며 말했다.

"내 옷이 다 떨어지고 몸이 지저분하게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인데 ? 설마하니......"

갑자기 당시 큰오빠 구천리가 둘째 오빠 구천인의 흉내를 내고 다녔던 일들이 생각났다. 큰오빠는 강호를 유람하면서 수많은 영웅 호걸들을 둘째 오빠 흉내를 내며 혼내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수족근맥이 이미 절단되어, 그와 만난다 해도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으니 복수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둘째 오빠 흉내를 내어 이 도둑놈을 꼿짝못하게 기선을 잡은 후,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곡주는 둘째 오빠를 만나 본 적이 없었으며, 또 자기 자신은 이미 석굴 안에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을 테니 의심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불길한 생각도 들었다.

(그와 나는 수년간 부부로 지냈는데 어찌 그가 내 얼굴을 못 알아본단 말인가 ?)

양과는 그녀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것을 보자 이내 그 의중을 알아챘다.

"선배님은 공손지가 혹시 알아볼까 걱정돼잔거죠 ? 걱정 마세요 ! 내가 아주 좋은 물건을 하나 갖고 있어요."

양과는 인피면구를 꺼내 얼굴에 썼다. 순간 인상이 완전히 바뀌어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변했다.

구천척은 매우 기뻐하며 인피면구를 받아 들고 말했다.

"녹악아. 우리는 먼저 장원 뒤쪽의 숲속에 숨어 있을 테니, 네가 가서 옷 한 벌과 부들부채 하나를 갖고 오너라. 알겠느냐 ?"

녹악이 대답을 하고 몸을 굽혀 모친을 업었다.

양과가 사방을 둘러보니 자신들이 있는 위치는 산의 정상으로 사방 밑으로는 나무가 울창하고, 멀리 석장(石莊)이 보였다.

구천척이 탄식을 하며 말했다.

"이 산봉우리는 여귀봉(여鬼峯)이라고 부르지. 곡중에서 전해져 내려오기로는 산봉우리에 악령이 있어 누구를 막론하고 올라가선 안 된다고들 했지. 내가 다시 살아 나온 곳이 바로 이 여귀봉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구나."

양과는 번일옹에게 꾸짖었다.

"당신은 왜 여기까지 왔소 ?"

번일옹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다.

"어서 이 늙은이를 죽여다오. 여러 말 하지 말고......"

"공손곡주가 보내서 왔는가 ?"

번일옹은 화를 내며 말했다.

"제법이군. 사부께서는 내게 명하기를 산 주위를 경계하라고 했지. 이 늙은이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과연 이곳에 모여서 몰래 흉계를 꾸미고 있었구나."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천척을 살피고 있었다. 이 노파가 누구일까? 어째서 공손 아가씨가 그녀에게 엄마라 부르는지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번일옹의 나이는 공손지 부부보다 많았다. 공손지가 그를 제자로 삼았을 때 구천척은 이미 석굴에 갇힌 후였다. 때문에 그는 구천척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 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들이 사부에게 해를 가하려는 것임을 알았다.

구천척은 그의 말끝마다 공손지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한 것을 보자 몹시 화를 내며 양과에게 말했다.

"저 난장이놈을 빨리 없애 버려 후환을 제거하자."

양과가 힐끗 번일옹을 바라다보았다. 그는 늠름히 고개를 들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양과는 그가 대장부임을 존경해 그의 목숨을 살려 주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구천척의 도움이 필요하니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공손 소저 ! 먼저 엄마를 업고 내려가요. 난 이 녀석을 처치하고 곧 갈 테니......"

공손녹악은 평소 대사형의 사람 됨됨이가 올바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비명에 즉기를 원치 않았다.

"양형! 대사형은 다른 사람과 달리......"

구천척이 힐책했다.

"가자 ! 어서 가자 ! 내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으니 너 같은 딸자식을 도대체 어디에 쓸까 ?"

녹악은 더 이상 말을 못 하고 어머니를 들쳐 업고 산을 내려갔다.

양과는 번일옹의 곁으로 다가가 속삭였다.

"번형, 수족의 혈도가 찍혔으니 여섯 시간 후면 저절로 풀릴 것이오. 당신과는 아무런 은원(恩怨) 관계도 없으니 당신을 해칠 수는 없소."

하고 말한 뒤, 경공을 시전해 급히 녹악을 쫓아갔다. 번일옹은 죽기만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있다가 뜻밖에도양과가 자신을 이처럼 대해

주자 순간 멍하니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바라만 볼 뿐이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암벽에 가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양과는 소용녀를 만날 마음에 급히 걸었지만, 녹악은 너무 느리게 갔다.

"노선배님. 제가 한번 업지요."

녹악은 모친과 양과 사이에 약간 꺼리는 것이 있어 걱정이 되던 차였는데 그가 업겠다고 말하자 흡족해 하며 말했다.

"그럼, 수고하세요."

구천척이 말했다.

"나는 열 달이나 몸 안에 너를 품어 이렇게 옥처럼, 예쁜 꽃처럼 너를 낳았는데 너는 나를 업는 것이 싫단 말이냐 ?"

양과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녀를 등뒤에 들쳐업고서는 기를 끌어올려 화살처럼 산 밑으로 내달았다.

구천인의 별호는 철장수상표(鐵掌水上飄)로, 그의 경공은 거의 독보적인 경지였다. 당시 주백통과 겨루다가 중원에서 서장까지 만리나 내달려 노완동 같은 고강한 무공을 지닌 자도 결국 그를 쫓지 못했었다. 구천척의 무공은 친오빠에게 전수받은 것으로 경락이 막히기 전에는 그녀도 상당한 경공이 있었다. 지금 양과의 등뒤에 엎드려 그가 땅도 밟지 않는 듯 빠르고 안전하게 내달리자 자신도 모르게 탄복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젊은이의 경공은 우리 집안의 것과는 완연히 다른 것인데, 철장문 무공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 친구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녀는 딸애를 양과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꼈었다. 그러나 딸애가 이미 마음으로 정했기에 어쩔 도리가 억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점점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사위가 아무래도 아직 딸애를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새 양과는 구천척을 업고 산 아래에 다다랐다. 고개를 돌려 보

니 녹악은 아직도 산허리에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자 그녀도 산 밑까지 내려왔다. 그녀는 가느다란 숨을 내쉬었는데,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였다.

세 사람은 몰래 장원 뒤로 돌아갔다. 녹악은 장원 안느로 들어가지 않고, 이웃집에서 자신의 옷과 모친에게 필요한 갈삼(葛衫)과 부채를 빌렸다. 또 남자의 도포를 빌려 양과에게 주었다. 구천척은 인피면구를 쓰고 갈삼을 입고 부채를 들었다. 구천척은 양과와 녹악의 부축을 받으며 장원 정문으로 다가갔다.

문에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은 모두 감회가 새로왔다. 구천척은 떠난 지 10여 년 만에 옛집으로 돌아온 것이니 더욱 감개가 무량했다. 장문 입구에는 커다란 홍사 초롱이 밝혀져 있었으며, 대청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흥겹게 들려왔다. 집안 사람들은 구천척과 양과를 보더니 모두들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녹악이 왼쪽에서 그들과 대동하고 있었으므로 감히 말을 건네지 못했다.

세 사람은 곧바로 대청으로 들어갔다. 대청 안에는 축하하러 온 절정곡의 손님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공손지는 예복을 입고 왼쪽 끝에 서 있었다. 오른쪽 편에는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호리호리한 몸매가 틀림없이 소용녀였다.

천장에서 폭죽이 펑펑펑, 잇달아 세 번 퍼졌다. 모두들 소리쳤다.

"길일이 택해졌다. 신혼 부부는 맞절을 하시라 !"

구천척이 한바탕 크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고 기왓장이 들썩거렸다. 이어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혼 부부라 ? 그러면 구혼 부부는 어찌 되는가 ?"

그녀는 비록 수족근맥이 잘렸지만 내공은 조금도 잃지 않고 있었다. 방해받는 것 없는 석굴 안에서 주야로 연마했으니 14년 간의 수련은 다른 사람의 28년간과 맞먹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내뱉자 모두들 귀에서 위잉 소리가 나며 눈앞이 일순 깜깜해졌다. 대청 위의 홍촉도 이미 10여 개나 꺼져 버렸다.

모두들 깜짝 놀라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공손지는 고함 소리에도 놀랐지만 양과와 딸애가 아무 탈 없이 멀쩡히 그 이상한 사람곁에 서 있는 것을 보자 더욱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귀하는 뉘시오 ?"

구천척은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난 당신과 친척 관계에 있는데, 어찌 당신은 나를 모른 체하십니까 ?"

그녀의 이 말은 단전에 운기를 시켰기 때문에 비록목소리가 울리지는 않았지만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절정곡의 주위는 모두 산봉우리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방에서 메아리가 울려왔다.

<모른 척하십니까 ?>

<모른 척하십니까 ?>

금륜법왕, 소상자, 윤극서 등이 곁에 있다가 구천척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가 대뜸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공손지는 이 사람이 갈삼을 입고 손에는 부들부채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전처가 말했던 처남인 구천인의 모양과 흡사하다고 느꼈다. 내공도 이처럼 대단하지 않은가 ? 그러나 용모가 괴이한 것이 일전에 주백통이 소상자로 분장한 것과 흡사하여 이상하다고 느끼고 속으로 경계를 풀지 않았다.

"난 귀하와 친척 관계가 없는데 억지를 부리니 어찌 가소롭다하지 않으리오 ?"

윤극서는 무림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구천척의 갈삼과 부들부채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귀하께서는 혹 철장수상표 구노선배님이 아니신지요 ?"

구천척은 껄껄 웃더니 부들부채를 몇 차례 흔들며 말했다.

"세상에 이 노구를 알아보는 사람이 모두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여기 한 분이 남아 계셨구만......"

공손지는 음색도 변하지 않고 말했다.

"귀하께서는 정말 구천인이십니까 ? 남의 이름을 빌리는 염치없는 무리는 아니겠지요 ?"

구천척은 깜짝 놀랐다.

(이 도둑놈이 무슨 낌새를 챘나 ! 어떻게 내가 그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지 ?)

그가 어디에서 실마리를 잡았는지 알 수가 없어 차갑게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과는 그들 부부가 어떻게 놀아나든지 상관억이 소용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오른손으로는 단약을 잡고, 왼손으로는 얼굴을 감싸고 있던 홍포를 젖혔다.

"아가씨, 어서 입을 벌려요."

소용녀는 양과를 보자 가슴이 쿵쿵 뛰었다.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괜찮구나."

이때 그녀는 이미 공손지의 사람됨이 악독하고 행동이 음흉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와 결혼한다고 한 것은 오로지 양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이때 양과가 돌연 나타나자 공손지가 약속을 지켜 양과를 치료해 준 것으로 알았다. 양과는 손을 뻗어 절정단을 그녀의 입 안에다 넣어 주며 말했다.

"어서 삼켜요 !"

소용녀는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고 그의 말대로 삼켜 버렸다. 순간 시원한 기운이 곧바로 단전을 통과했다.

이때 대청 위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공손지는 양과가 또 나타나 일을 그르치게 될까 봐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 낯선 손님이 무섭기도 하고 진짜 전처의 처남인 철장수상표 구천인인지도 몰라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양과는 소용녀의 머리에 씌워졌던 봉관(鳳冠)을 박살내 버리고 그녀의 손목을 잡고 옆으로 물러섰다.

"아가씨. 이 도둑놈의 곡주가 당하는 꼴을 잘 봐 둡시다."

소용녀는 마음이 어지러워 양과의 몸에 기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광좌는 양과가 돌연나타난 것을 보자 말할 수 없이 기뻐, 다가가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다. 양과와 소용녀는 남들이 와서 귀찮게 구는 것을 싫어했다.

윤극서는 구천인이 20년 전에 강호 전체에 이름이 드높았던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웃음소리와 말소리에 산곡이 이렇게 울리니 그의 내공이 얼마나 심후한지 알 만했다. 얼른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며 말했다.

"금일은 바로 공손곡주의 결혼식날입니다. 구노선배님도 이리 오셔서 축하주를 한잔 하시렵니까 ?"

구천척이 공손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귀하는 그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아는가 ?"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직접 말하는 것을 들어 보자."

공손지가 또 물었다.

"귀하가 정말 철장수상표라고 ? 그것 참 이상하군 !"

공손지는 손뼉을 탁 치며 녹의 제자에게 말했다.

"서방(書房)에 가서 동쪽 책꽂이에 있는 단지를 갖고 오너라."

녹악은 정신없이 의자를 끌고 와 모친을 앉혔다. 공손지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그녀와 양과놈을 악어담에 빠뜨렸는데 어떻게 죽지 않았을까 ?)

잠시 후 그 제자가 단지를 갖고 왔다.공손지가 뚜껑을 열어 편지 한 통을 꺼내 들며 차갑게 말했다.

"수년 전에 나는 구천인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만약 귀하가 진짜 구천인이라면 이 편지가 가짜겠지 ?"

구천척은 깜짝 놀랐다.

(둘째 오빠와 난 반목한 이후 서로 소식이 없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편지를 보내 온 것일까 ?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구나.)

구천척은 큰소리로 시치미를 뗐다.

"내가 언제 네게 편지를 했단 말이냐 ? 정말 엉터리 같은 소리말아라."

공손지는 그녀의 말투 속에서 돌연 어떤 사람이 떠올랐다. 순간 등 뒤에 식은 땀이 쫙 흘렀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아냐, 아냐 ! 그녀는 지하 석굴에서 죽었어. 지금쯤은 이미 백골이 다 되었을 거야. 그렇다면 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

공손지는 머리를 저으며 낭랑하게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누이동생 보아라. 네 오빠가 철장봉에서 곽정,황용의 손에 돌아가신 후......>

구천척은 첫마디를 듣자마자 비통한 심정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뭐라고 ? 큰오빠가 죽었다고 ?"

그녀는 일생 동안 구천리와는 남매의 정이 두터웠다. 그런데 돌연 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자 전신이 떨리며 목소리도 변했다. 그녀는 평소에 단전에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로는 남녀 구분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때 감정이 노출되자 그녀 본래의 여자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공소지는 눈앞의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또 그녀가 <큰오빠>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내심 놀라움과 두려움이 더해 갔지만, 이 사람이 절대로 구천척은 아니라고 단정했다. 그는 계속 편지를 읽어 갔다.

<......, 못난 오빠는 수십 년간의 형제우의를 깨고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을 심히 부끄럽게 여기며,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는 것도 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녀도 큰형님과 누이동생에게 범한 죄를 어찌 따를 수 있겠느냐 ? 화산 2차논검 때 못난 오빠는 일등대사에게 감화되어 칼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단다. 아직 수련이 모자라 속세의 인연을 끊기가 어려워 청등고불(靑燈古佛) 옆에서 늘 우리 남매와의 즐거웠던 옛날 일을 생각하곤 한다. ...... 복 많이 받기를 바

란다......>

공손지가 읽어 내려가는 동안 구천척은 남몰래 흐느껴 울었다. 편지를 다 읽자 끝내는 참지 못하고 방성대곡을 했다.

"큰오빠, 둘째 오빠 ! 오빠들은 내가 얼마나 고초를 받았는지 아세요 ?"

돌연 인피면구를 벗어 버리고 말았다.

"공손지 ! 아직까지 나를 기억하고 있겠지 ?"

이 한마디 말은 너무나 애절해 내공이 그대로 실려 대청 위의 7,8 개의 촛불이 꺼져 버렸고, 남은 것도 마구 흔들렸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사람들은 돌연 구천인의 진면목을 보게 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사람들은 멍하여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대청 안에는 적막만이 감돌고, 사람들의 가슴이 모두 쿵쿵 뛰었다.

별안간 귀퉁이에 서 있던 한 노복이 앞으로 달려나오며 말했다.

"주모(主母) ! 죽지 않았군요."

구천척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이숙(張二叔), 용케도 나를 기억하는군요."

그 노복은 주모가 무사한 것을 보자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 계속 절을 해 대며 말했다.

"주모, 이거야말로 경사이옵니다."

대청 안의 하객 들 중에 금륜법왕 등 몇 명의 외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곡중의 이웃들이었다. 3,40 세 이상 되는 자들은 모두 구천척을 알아보고는 와르르 몰려들어 다투어 안부를 물었다.

돌연 공손지가 외쳤다.

"모두 물러들 가라 !"

모두들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다. 그는 구천척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말했다.

"천한 것 ! 어째서 다시 돌아 왔느냐 ? 무슨 낯짝으로 나를 보러

왔느냐 ?"

녹악은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엄마와 다시 잘 지내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가 이렇듯 거칠게 모친을 대하자 격동한 나머지 부친의 앞으로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말했다.

"아버지, 엄마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어서 용서를 비세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세요 !"

공손지가 차갑게 말했다.

"용서를 빌라고 ? 내가 뭘 잘못했는데 ?"

"아버지는 엄마를 지하 석굴에 가둬 놓고 엄마가 살든지 죽든지 그냥 십여 년이나 긴 세월을 고생하게 했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조금도 미안하지 않나요 ?"

공손지가 냉담하게 말했다.

"그건 그녀가 먼저 나를 죽이려 해서 그랬던 것이다. 네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 ? 그녀는 나를 정화 무더기 속으로 밀어넣어 고통을 주었고, 또 해약을 비상수 속에 넣어 버려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게 했었다. 그뿐이냐 ? 그녀는 또 내가 좋아했던 여자를 내 손으로 죽이게 했다. 그런 모든 것을 네가 어찌 안단 말이냐 ?"

녹악이 울면서 대답했다.

"알아요. 난 다 알아요. 그녀는 유아라는 몸종이었지요 ?"

공손지는 이미 10여 년 동안이나 들어 보지 못했던 이름을 듣게 되자 얼굴빛이 확 변했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그래 맞아 ! 유아......유아 !"

공손지는 손가락으로 구천척을 가리키며 한이 맺힌 듯 소리쳤다.

"이......, 이 악랄하고 천한 것이 내가 유아를 죽이도록 했단 말이다 !"

그의 얼굴빛이 점점 처연해지더니 가볍게 중얼거렸다.

"유아......, 아아, 유아...... !"

양과는 이 기막힌 전생의 업보를 지닌 부부가 둘 다 좋지 않은 사람

들이라 생각되었다. 자기 자신도 중독이 심하여 이 세상에 며칠 살지 못할 판이었다. 이 며칠만이라도 인적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서 소용녀와 단 둘이 조용하게 보내고 싶었다. 양과는 공손지 부부의 시시비비를 보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양과는 소용녀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가요."

소용녀가 말했다.

"저 여자가 진짜 그의 아내냐 ? 그녀가 정말 남편에 의해 십여 년간이나 갇혀 지냈어 ?"

그녀는 세상에 이처럼 악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 힘들었다.

"그들 부부는 서로 똑같아요."

소용녀는 얼마 동안 고개를 기울이고 있다가 물었다.

"그런데 이 점을 잘 모르겠어. 혹시 저 여자도 억지로 그와 결혼하게 된 것일까 ?"

그녀는 생각했다.

(두 사람이 억지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지 어찌 이처럼 서로를 해치지 못해 안달을 한단 말일까 ?)

양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세상엔 호인은 적고 악인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 남들이 예측하기가 어렵......"

돌연 공손지의 고함 소리가 터졌다.

"꺼져라 !"

오른쪽 다리가 들리며 녹악의 몸이 붕 떠서 밖으로 나가떨어졌다. 부친에게 걷어채인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몸은 바로 구천척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다. 구천척은 수족에 힘을 줄 수가 없어 단지 고개를 숙여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녹악의 몸이 날아와 쿵, 하며 모친의 어깨에 부딪쳤다. 구천척은 의자와 함께 뒤로 나가떨어졌다. 반짝거리는 대머리가 돌기둥에 부딪

혀 선혈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녹악은 부친에게 한번 걷어채이자 땅에 고꾸라져 기절해 버렸다.

****** 약 속 ******

양과는 본래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에 끼여들고 싶지 않았었다. 그러나 공손지가 이토록 흉폭한 것을 보고 노기가 끓어오름을 참을 수 없었다. 당장 나서서 그와 시시비비를 따져 보려고 했는데 소용녀가 이미 나서서 구천척을 부축해 일으키고 그녀의 머리 뒤에 있는 옥침혈(玉枕穴)을 몇 번 쥐고 밀어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한 뒤, 옷깃을 찢어서 그녀의 상처를 감싸 주고 공손지에게 말했다.

"공손 선생, 그녀는 당신의 원래 부인인데 어찌 그녀를 이렇게 대한단 말이오 ? 그리고 당신은 부인이 있으면서 어찌하여 또 나를 맞아들이려고 한 거요 ? 내가 만약 당신에게 시집을 갔더라면 이후 단신이 나를 대할 때도 그녀에게 하듯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소 ?"

이 물음은 통쾌하고 시원하기 짝이 없었다. 공손지는 입만 딱 벌릴 뿐 대답할 말이 없었다. 마광좌는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 댔다. 소상자가 차갑게 말했다.

"이 아가씨의 말이 옳습니다."

공손지는 소용녀에게 실로 한 조각 깊은 사랑을 품고 있어서 비록 그녀에게 말문이 막히기는 했지만,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누그러뜨려 말했다.

"유매, 당신을 어찌 이런 추악한 여자와 비교할 수 있겠소 ?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있소. 내가 당신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악의를 품고 있다면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릴 거요."

소용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세상에서 나는 오직 양과 한 사람만이 나를 사랑하길 바래요. 당신이 나를 백 배 더 좋아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오직 그 한 사람뿐이랍니

다."
하며 그녀는 양과의 손을 잡았다.
  양과는 몹시 분개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가씨가 나에게 이토록 잘 대해 주는데 나는 이제 며칠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으니 모두가 너 이 개 같은 놈 때문이다.)
  공손지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너는 우리 아가씨에게 조금도 나쁜 마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를 사지(死地)에 빠뜨리고 그녀와 결혼하려고 한 것이 좋은 마음이란 말이냐 ? 그녀의 몸은 정화의 독에 중독이 되었고, 너는 구제할 약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몸을 탐했던 것도 그럼 좋은 마음이란 말이냐 ?"
  소용녀는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정말이냐 ?"
  양과가 말했다.
  "서두를 것 없어요. 아가씨는 이미 해약을 먹었어요."
하고 말하며 양과는 빙그레 웃었다. 이 미소는 처량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표정이었다. 양과는 생각했다.
  (나는 당신에게 약을 먹였으니, 이제 당신을 위해 죽기를 진심으로 원한답니다.)
  공손지는 구천척을 바라보고 다시 소용녀와 양과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쓸어 가면서 심중에는 질투와 정욕, 분노와 후회, 그리고 실망과 수치 등의 감정이 마구 뒤엉켰다. 그는 비록 평소에 고도의 수양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미칠 지경에 빠져서 돌연 몸을 굽혀 홍전(紅전 : 붉은 양탄자) 밑에서 음양쌍인(陰陽雙刃)을 꺼내어 챙강, 하고 부딪쳐 소리를 내며 외쳤다.
  "좋다, 좋아 ! 오늘 우리가 함께 사생결단을 내자 !"
  사람들은 그가 신혼 배례를 올리는 데 쓰는 신성한 물품 밑에 흉기를 숨겨 놓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가 이를 보고 모두 <아

니 ?>하고 소리를 질렀다.

소용녀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과야, 이런 악인하고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쨍그렁, 소리를 내며 소용녀 역시 신부의 대홍희복(大紅喜服) 밑에서 한쌍의 검을 꺼냈다. 바로 군자검(君子劍)과 숙녀검(淑女劍)이었다. 그녀는 비록 세상의 일은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지마 심중으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을 쓸 때 조금도 사정을 보지 않았었다. 당시에 손노파를 위해 원수를 갚을 때에도 중양궁의 전진 도사들을 죽여 싸움을 두려워하게 하였으며, 광녕자 학대통도 거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뻔했다. 이늘 공손지가 그녀와 양과가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해치려고 하자, 그녀는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서로 다툴 작정을 했다. 그리하여 희복 밑에 몰래 쌍검을 감추어 두고 공손지가 양과를 치료하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기회를 보아 찌르려고 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스스로 목을 베어 결코 이 절정곡에서 정결(貞潔)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것이다.

하객들은 한쌍의 신혼 부부가 원래 각각 도검을 숨겨 놓은 것을 보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직 금륜법왕 등 소수의 노련한 무사들만이 이 기쁜 일은 반드시 흉살(兇殺)로 결말이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구천척이 일격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녀가 잠시 전에 보여 주었던 심후한 내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어서 이상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양과는 소용녀의 수중에서 군자검을 받아 들고 말했다.

"아가씨, 우리 오늘 이 필부를 죽여서 나의 원수를 갚읍시다."

소용녀의 숙녀검이 흠칫 떨리며 이상한 듯 물었다.

"너의 원수를 갚는다고 ?"

양과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처했지만 이 일만은 그녀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단지 한마디만 했다.

"이놈은 수도 없이 사람을 해쳤어요."

하며 장검을 휘둘러 공손지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찔렀다. 그는 이 순간의 싸움이 실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용녀 신상의 정화지독은 비록 풀렸지만 자기는 극심하게 중독이 되었으므로 만약에 쌍검이 합하여 옥녀소심검법을 사용한다면, 결투 중에 소용녀에 대한 생각을 품기만 하면 즉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하여, 그는 전진검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일초 일식을 근엄하기 짝이 없게 펼쳐나갔다. 이 일로(一路)의 검법이 만약 마옥,구처기 등의 전진 도인의 손에서 나왔다면 단온응지(端穩凝持) 후중고박(厚重古樸)으로 검법의 극치를 발휘했을 것이지만 양과가 사용을 하니 아무래도 소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약간 어색함이 보였다.

공손지는 두 사람이 쌍검을 연합하여 공격하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알고 한 수에 음양도란(陰陽倒亂)의 인법(刃法)을 펼쳐, 오른손에는 흑검(黑劍)을 왼손에는 금도(金刀)를 쥐고 이전에 없었던 무서운 초수를 보여 주었다. 양과의 전진검법은 당년 왕중양이 창시한 것으로 비록 적처럼 사납지는 않았지만 변화가 정미하여 양과는 수비만 하며 그의 3초를 받아 냈다. 소용녀가 한차례 소리를 지르며 숙녀검을 들어 공손지의 뒤를 공격했다.

(이 꽃 같은 소녀는 원래 나의 새 부인이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다른 사람과 검을 합해 나를 공격하는구나.)

한편 다른 생각도 들었다.

(돌연 못된 여편네가 나타나서 일을 다 그르쳐서 나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됐다. 다시는 유매에게 결혼을 조르기는 커녕 이 절정곡의 기반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그는 무공의 정련함을 믿고 있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의 모든 무력에 의지하여 양과를 없애 버리고 소용녀를 옆에 끼고 머 리 달아나려고 했다. 그는 소용녀가 이미 절정단을 복용한 것을 모르고서 그녀는 이미 36일의 목숨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 36일이나마 그녀에게 자기의 부인이 되어 달라고 하려했다.

그의 심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악해져서 도란인법은 갈수록 흉악해지기만 했다.

소용녀는 옥녀검법을 사용하면서 양과와 서로 마음으로 통하여 소심검법의 위력을 발휘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시종 눈빛을 돌리지 않고 오직 자기 혼자서 검을 휘두르며 적과 맞서고 있었다. 소용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과야, 왜 나를 쳐다보지 않니 ?"

그녀의 마음속으로부터 부드러운 감정이 서서히 일기 시작할 때 홀연 검광이 길게 펴졌다. 양과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떨려 즉시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의 검초가 점차 느슨해지더니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옷깃이 이미 흑검에 찢겨 나갔다. 소용녀는 크게 놀라 연이어 세 번을 공격하여 공손지의 진격을 저지했다. 양과가 말했다.

"나는 아가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말도 들어서는 안 돼요."

소용녀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씨로 물었다.

"왜 ?"

양과는 다시 정화지독의 통증을 겪을 까 봐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를죽게 하고 싶거든 나한테 말을 건네세요."

노기가 일어나자 비로소 그의 통증이 멈췄다. 그는 공손지의 흑검의 초수를 모두 받아넘겼다.

소용녀는 미안한 듯 말했다.

"화내지 마 ! 내가 말 안 걸 테니......"

돌연 소용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 내가 고통 겪던 독은 이미 풀렸는데 그는 아직 약을 복용하지 않았구나 ! 그는 해약을 구한 뒤, 자기가 복용하지 않고 나의 독을 풀어 주었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뿌듯한 감동과 그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감정으로 마음이 타는 듯 아팠다. 그 즉시 강한 힘이 솟아나와 옥녀소심검법의 위력이 더욱 왕성해져서, 차례로 초수를 내며 양과의 전신의 요해처를 모두 보호해 줄 수 있었다. 그녀가 양과를 보호하자 양과는 이미 그녀를 대신하여 적의 초수를 막았다. 그러나 그는 감히 옆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니, 그녀의 온몸은 방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 곳곳에 적초를 받을 위험이 있었다.

공손지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예리하여 수초 사이에 그 허점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소용녀를 해치고 싶은 마습肝없어서 일도 일검을 모두 양과를 향하여 맹렬하게 가르고 찔렀다. 그러나 공격의 위세가 성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듯 강도를 더할수록 방어는 단단한 바위가 우뚝 서듯 더욱 굳건해졌다. 게다가 소용녀가 전력으로 보호하니 수십 초를 교환해도 공손지는 조금도 적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

이때 녹악은 이미 정신이 들어 어머니 곁에 서서 싸움을 지켜 보고 있었다. 소용녀가 있는 힘을 다해 양과를 보호하고 자신의 안위는 전혀 돌보지 않는 것을 보고 저도 모루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나라면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를 보호할 수 있을까 ?)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나도 분명히 저 여자처럼 나 자신보다 그를 보호해 줄 수 있을거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때 구천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가도비도(假刀非刀), 가검비검(假劍非劍) !"

양과와 소용녀는 이 말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다. 그녀의 이 두 마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구천척이 다시 외쳤다.

"도즉시도(刀卽是刀), 검즉시검(劍卽是劍) !"

양과는 공손지와 두 차례를 싸우면서 줄곧 음양도란인법(陰陽倒亂刀法)의 비법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바람에 나부끼듯 가벼이 흑검으로 공격해 오고, 한 자루의 심후중실(沈厚重實)한 거치금도(鋸齒金刀)가 신들린 듯 비상하듯 단검의 공격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보니, 초수와 손놀림이 무학의 이치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종 도(刀)를 검(劍)으로 삼고 검을 도로 삼는 것도 아니었고, 별안간 검법 중에서 도법이 나타나고 도초 중에도 은은히 검초가 숨겨져 있어 변화가 무궁한 것이 있어 변화가 무궁한 것이 일정하게 헤아리기가 힘이 들었는데 지금 문득 구천척이 그 16 자를 외치는 것을 듣고 생각했다.

(혹시 그의 도(刀)에서 나오는 검초와 검에서 나오는 도초가 모두 거짓이 아닐까 ?)

흑검이 어깨를 가로질러 쳐내려오는 것을 보니 분명히 단도의 초수였지만 그가 장검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여 군자검을 들어 막았다. 두 검이 교차하여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각자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야 비로소 흑검은 과연 어디까지나 검이어서 사용하는 도초는 이목을 현혹시키는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상대방의 무공에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어서 알맞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위력은 도초로도 능히 사람을 해칠 수 있을 정도였다.

양과는 한번 시험하여 성공하자 크게 기뻐하며 즉시 정신을 집중해 상대방 도검 중의 허점을 찾았다. 그의 초술이 어지러워 비록 기묘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고르지가 못하다고 생각했다. 수초를 겨루고 있는데 홀연 구천척이 말했다.

"그의 오른쪽 다리를 공격해라, 그의 오른쪽 다리를...... !"

양과는 공손지가 금도를 어지러이 휘두르는 것을 보니 하체에도 전혀 틈이 없었다. 그러나 구천척이 수족의 힘은 비록 잃었지만 이미 지니고 있던 무학은 조금도 없어지지 않았고, 공손지의 무공도 그녀가 전수한 것이어서 당연히 그 허실을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즉시 그

녀의 말대로 초수를 내어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를 찔렀다. 공손지가 금도로 가로막자 오른쪽 다리 쪽으로는 들어갈 만한 틈이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도를 옆으로 세우자 왼쪽 어깨와 겨드랑이가 동시에 드러났다. 양과는 구천척의 다음 지시를 기다릴 새도 없이 번개처럼 장검을 휘둘러 이미 그의 겨드랑이 근처의 옷깃을 찢어 놓았다.공손지는 거칠게 욕을 하며, 뒤로 훌쩍 뛰어 피하고는 성난 눈으로 구천척을 바라보며 호통쳤다.

"거지 같은 계집, 내가 너를 그냥 놔 둘 줄 아느냐 ?"

하고 말한 뒤, 다시 도검을 들어 양과를 공격했다.

양과가 검을 들어 막는데 구천척이 다시 외쳤다.

"그의 등을 차라 !"

두 사람은 이때 정면으로 상대하고 있어서 그의 등을 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양과는 구천척에 대하여 자못 믿음이 생겨 그녀의 말에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이 적의 등으로 대들었다. 공손지는 금도를 돌려 뒤로 휘둘렀다. 구천척이 다시 소리쳤다.

"그의 눈썹을 찔러라."

양과는 생각했다.

(내가 마악 그의 등뒤로 돌아섰는데 어떻게 그의 눈썹을 찌른단 말인가 ?)

긴박한 상황이라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다시 적의 앞으로 돌아와 마악 그의 눈썹을 찌르려고 하는데, 구천척이 다시 외쳤다.

"그의 엉덩이를 베어라 !"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녹악의 두 손에는 온통 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엄마가 이렇게 어지러이 외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

그러나 그녀는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광좌가 오히려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양형, 이 노파의 말은 상관하지 말라구. 그녀는 너를 지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양과는 앞뒤로 몇 번 돌자, 어느덧 구천척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녀가 앞으로 가라고 소리치면 즉시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고 소리치면 즉시 뒤로 달려들며 몇 번을 돌고 나니 공손지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허점이 드러났다. 양과가 장검을 휘두르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솟자락이 찢기고 검끝이 살에 1촌(寸) 이상 박혀 공손지의 겨드랑이에서는 즉시 선혈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야아 !> 하는 소리와 함께 일제히 일어났다. 법왕 등은 모두 알게 되었다. 구천척은 원래 양과에게 어떻게 하면 적을 이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없는 가운데서 이길 기미를 찾을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양과가 허점이 없는 적의 초수 가운데서 허점을 노출시키도록 이끌어 준 것이었다. 그녀가 계속하여 여러 번을 지적하자 양과는 이 상승 무학의 정의를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감탄해 마지않았다.

(적이 만약 고수라면 초수중에서 어찌 허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 이 구선배의 가르침은 참으로 일생 동안 기억할 만한 무엇이로구나.)

그러나 공손지에게 허점을 드러내도록 하려면 무공이 뛰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초수를 익숙하게 알아서 10여 초 이전에 그가 이후로 대응할 모든 변화를 분명하게 파악하여 점차로 그가 실수를 하도록 이끌어야만 했다. 이것은 오직 구천척만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양과는 그 이치는 알게 되었지만 스스로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었다. 즉시 그녀가 가르치는 대로 검광을 날리며 공손지를 향해 전후좌우로 급히 공격하자 10여 초 후에 공손지는 오른쪽 다리에 다시 검을 맞았다.

이 일격은 비록 살에 깊숙이 박히지는 않았지만 길게 찢겨져 5,6촌이나 상처가 났다. 공손지는 생각했다.

(이들 남녀가 있는 힘을 다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다가 이 양가 자식을 다치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싸운다면 저 거지 같은 계집이 옆에서 계속 가르쳐 줄 것이니 내가 이 소적(小賊)의 검에 오늘 쓰러지나 보다.)

당년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사랑하는 애인까지도 찔러 죽였었다. 이제 위급한 지경에 빠지자 그는소용녀로 더 이상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흑검을 휘두르고 금도로 가르며, 소용녀의 어깨를 급히 내리쳤다.

양과는 깜짝 놀라 그녀를 보호하려 하는데 갑자기 구천척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허리를 찔러라."

양과는 흠짓 하며 생각했다.

(아가씨가 지금 공격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는단 말이냐! 하지만 구선배가 매번 가르쳐 주는 것에 깊은 뜻이 있었으니 이것도 혹시 위위구조(圍魏救趙)의 묘법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장검은 이미 원을 그리며 질풍같이 공손지의 오른쪽 허리를 찔렀다. 이때 소용녀가 <아!>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오른쪽 팔에 상처를 입고, 챙그랑 소리와 함께 숙녀검은 땅에 떨어졌다. 공손지는 흑검을 비껴 들어 양과의 공격을 막았다.

양과는 너무나 놀라 급히 외쳤다.

"어서 물러나세요. 내가 혼자 상대하겠어요."

그에게 사랑의 감정이 일자 가슴 언저리에 다시 극심한 진통이 한차례 밀려왔다. 소용녀는 상처가 가볍지 않아 뒤로 물러선 뒤,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맸다. 양과는 있는 힘을 다하여 맞서면서 구천척이 잘못 가르쳐 준 데에 화가 치밀어 성난 눈으로 그녀를 한 번 쏘아보았다.

구천척이 냉소하며 말했다.

"뭐가 그리 못마땅하냐? 나는 오직 네가 적을 죽이는 것을 도울 뿐 사람을 구하는 것을 언제 상관했다더냐? 흥, 이 아가씨가 죽고

사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 그녀가 죽으면 오히려 더 좋은걸."

"당신들 부부는 정말로 한통속이로군요. 도대체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

구천척은 냉소를 날리며 화를 내지도 않고 태연자약하게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조용히 지켜 보았다.

양과는 소용녀가 의자에 기대어 옷깃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장애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정신을 차려서 검초를 갑자기 전진검법에서 옥녀검법으로 변화시켰다. 공손지는 그의 검법이 본래는 무게 있고 단엄하였는데, 돌연 가벼이 바람에 나부끼는 듯 찬란한 자세로 변하여 금방 다른 사람으로 바뀐 殷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놈은 잔꾀가 수없이 많은데 또 어떤 귀신을 끌어왔단 말인가 ?)

그러나 맞붙어 대결하자 상대방의 검법이 완전히 명가의 풍모를 지니고 있어 소용녀가 방금 사용한 것과 같은 검법임을 알고 즉시 의심은 사라졌다.

10여 초 후에 다시 전세가 기울어 양과는 공손지에게 계속 밀리고 있었다. 구천척이 여러 번 지시를 해 주었지만 양과는 그녀가 일부러 소용녀를 다치게 한 것에 화가 나서, 그녀가 소리치는 것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너보고 이래라 저래라 떠들라고 했느냐 ?)

사사사삭, 검을 네 번 휘두르며 양과는 길게 소리를 내어 읊조렸다.

"양마기한(良馬旣閒), 여복유휘(麗服有暉). 좌람번약(左攬繁弱), 우접망귀(右接忘歸) !"

양과는 입으로 길게 읊조리며 검초를 시귀(詩句)에 배합해 춤을 추듯 운치 있게 공격했다. 공손지는 멈칫하며 말했다.

"뭐라구 ?"

양과는 다시 시를 읊었다.

"풍치전서(風馳電逝), 섭경추비(攝景追飛). 능려중원(凌慮中原), 고반생자(顧盼生姿) !"

시귀는 네 글자가 한 구(句)를 이루어 검초도 역시 4초가 한 조를 이루었다. <풍치전서 섭경추비>를 읊을 때는 검이 극히 빠르다가 <능려중원 고반생자>, 이 구에서는 맹렬하고 신속한 것에 이어서 가벼이 바람에 나부끼듯 공격했다. 공손지는 일찌기 이런 검법을 본 적이 없었다. 양과의 공세가 늦추어져서 정신을 집중하여 시의 뜻을 새겨 본 곤지는 그의 검초는 시의 뜻과 서로 합해져 시의 뜻만 이해한다면 그 검법을 격파할 수가 있음을 알았다.

양과가 다시 읊조렸다.

"식도란보(息徒蘭圃), 말마화산(말馬華山). 유반평고(流磻平皐), 수륜장천(垂綸長川). 목송귀홍(目送歸鴻), 수휘오현(手揮五絃) !"

이 몇 구의 시를 담담하게 읊는데 검법은 도리어 위세 있게 빼어나고 웅장한데다가, 더우기 최종 두 구에서 검초는 나늘 듯 그 극치를 다하고 있었다. 동으로 간 듯하면 서로 가고 위로 올려쳤다가 아래로 내리치며 일초에 두 검을 쓰는 듯, 실로 그 허실을 분별하기가 어려웠다.

소용녀는 이때 상처를 다 싸매고 양과의 검법이 매우 뛰어난 것을 보고, 아직 그에게 그런 검법을 들은 적이 없어서 물었다.

"과야, 이건 무슨 검법이니 ? 누가 가르쳐 준거야 ?"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스스로 연마한 거예요. 아가씨, 어때요, 괜찮아요 ? 며칠 전에 누워서 상처를 치료하는데 침상 곁에 시집이 한 권 있기에 그 시가 아주 좇아서 　어요. 주자류(朱子柳) 선배가 영웅연에서 서법(書法)을 변화시켜 무공에 도입했는데, 나는 이 시를 무공에 도입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했지요."

"아주 좋구나...... !"

갑자기 금륜법왕이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다.

"양형제, 그토록 총명한 지혜는 참으로 이 노인네를 탄복하게 하는구료 ! 다음의 시귀는 물론 <부앙자득(俯仰自得), 유심태현(游心太玄), 가피조수(嘉彼釣수), 득어망전(得魚忘筌)>이겠지요 ?"

공손지가 문득 생각했다.

(이 화상이 나를 가르쳐 주고 있구나.)

공손지는 자세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앙자득>은 반드시 검을 위로 한번 올린 다음에 이어서 아래로 내려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흑검을 휘둘러 먼저 상반부를 방어하고 금도는 중반부에서 질풍같이 내질렀다.

금륜법왕은 문무의 재주를 겸비하여 비록 서장의 외딴 곳에 있었지만 한인(漢人)의 경사백가(經史百家)의 여러 학문을 살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양과가 읊는 시를 듣고 벌써 다음 구를 알아채고, 공손지의 손을 빌어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단 한 번에 공손지는 과연 선착을 하여 양과의 검초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에게 검초를 모두 차단당하고 거치금도는 또한 중로의 요해처를 가르려 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양과는 법왕이 시를 외는 것을 듣고 이미 이에 방비하여 다시는 그가 창안한 사언시검법(四言詩劍法)을 사용하지 않고, 장검을 중반부로 하여 가로로 세우고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쨍, 하며 금도의 등을 튕겼다.

공손지는 팔이 약간 떨리는가 싶더니 손가락 마디가 저려 오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어린 놈은 참으로 괴이한 무공을 많이도 지녔구나.)

양과가 이렇게 손가락을 튕긴 것은 바로 황약사가 전수한 탄지(彈指)의 신통한 무공이었다. 그는 공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적을 이기고 승기를 잡을 수는 없었지만, 이 일격을 만약 황약사가 튕겼다면 공손지의 금도는 벌써 손에서 벗어났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튕기는 것만으로도 양과는 이미 순식간에 열세에서 우세로 올랐다. 그는 장검을 춤추듯 휘두르며 황약사가 전수해

준 옥소검법(玉簫劍法)을 다시 사용했다. 이 옥소검법과 탄지(彈指) 무공은 모두가 적의 혈도를 공격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서, 검과 손가락이 서로 짝하여 정미하고 오묘했다. 그의 수련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한차례 급히 공격을 해 나가자 공손지는 막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이때 구천척이 다시 옆에서 소리쳤다.

"그의 검이 오른쪽 허리를 찌르고, 도가 목을 베려 한다 !"

"......"

"그의 검이 오른쪽 어깨를 가르고 도는 왼쪽 겨드랑이를 방어할 것이다."

구천척은 공손지의 모든 한 초 한 초를 미리 얘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양과는 자연 우세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다시 시를 읊지 않자 법왕은 그의 검법의 의미를 알 방법이 없었다. 공손지의 음양쌍인은 비록 대대로 전해 온 무학이기는 했지만, 구천척이 잡다한 것을 제거하고 빠진 것을 보충하여 대규모로 정돈을 했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초수는 자연히 모두가 구천척의 의중에 있어서 어떤 귀신 같은 변화라도 모두 그녀에 의하여 먼저 격파되었다. 지칠 정도까지 싸우자 구천척이 다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도검이 나란히 상반부를 공격한다."

이 외침에는 심한 독기가 서려 있었다. 마침 공손지의 도검은 이미 내뻗고 있는 상태여서 중도에 변화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양과는 오히려 여유 있게 막아냈다. 양과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달려들어 검을 가로로 세워 등을 보호하면서 왼손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아랫배 1촌 반 되는 곳에 있는 기해혈(氣海穴)을 찔렀다. 양과는 단번에 성공을 거두자 크게 기뻐하며 적이 반드시 중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공손지는 다리를 날려 그의 턱 아래를 걷어찼다.

양과는 깜짝 놀라 급히 옆으로 몇 자 피했다. 그제서야 이자의 몸에 있는 혈도가 극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전에도 금령색(金鈴索)으로

그의 혈도를 쳐서 분명하게 적중했는데 이자는 도리어 전혀 감각이 없었다. 잠시 생각하는 사이에 공손지의 도검은 이미 다시 공격해 왔다. 구천척이 외치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는 도검을 교차하여 우검으로왼쪽을 공격하고, 좌도로 오른쪽을 공격할 것이다."

양과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방어했다.

두 사람의 공력만으로 따지면 양과는 애초에 대적이 되지 않았다. 오로지 구천척이 일러주는 것에 의지하여 공손지가 지는 무시무시한 초수를 격파하는 것이었다. 이때 두 사람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미 7,8 백 초를 겨루었다. 곡중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두려워 벌벌 떨었으며 소상자 등의 고수들도 눈앞이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서 이 격전에서 도대체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 칼빛과 검 그림자 가운데서 공손지는 숨을 씩씩거리고 양과는 땀이 속옷까지 배어서, 두 사람이 나아가고 물러서고 뛰어 피하는 것이 모두 이전처럼 민첩하지가 못했다.

공손녹악은 더 이상 싸운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다치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본래 양과가 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몸을 다치는 것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낮추어 구천척에게 말했다.

"엄마, 그들 보고 싸우지 말라고 해요. 앞뒤를 따져서 누가 옳고 그른지 말로 하라고 하세요."

"흥 !"

구천척은 코방귀를 뀌고 말했다.

"차를 두 잔 가지고 와라."

녹악은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말대로 차 두 잔을 따라서 어머니 앞으로 가지고 왔다. 구천척은 두 손을들어 머리를 싸맸던 피수건을 풀어 내렸다. 그녀가 뇌문을 맞아 피를 흘릴 때, 소용녀가 옷자락을 찢어 그녀를 감싸 주었는데 이제 그것을 내리자 머리에서 다시 선혈이 흘러

나왔다.

"엄마 !"

녹악이 놀라 외쳤다.

"죽지는 않는다 !"

하며 구천척은 피수건을 무릎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각각 찻잔 하나씩을 받았다. 양손의 네 손가락으로는 잔을 감싸 쥐고 엄지손가락을 찻물 속에 담그자 손가락에 가득 고였던 선혈이 모두 차 속에 섞여 들어갔다. 그녀가 손을 가볍게 흔들자 순식간에 선혈이 풀어져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구천척이 외쳤다.

"모두들 싸우느라 피로할 테니 차를 한 잔씩 마시고 다시 싸우지 !"

녹악에게 말했다.

"가지고 가서 갈증을 풀도록 해 주어라. 한 사람이 한 잔씩 !"

녹악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극심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호의가 이상스러웠다. 그에게 차를 보내어 갈증을 풀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아버지에게 불리한 무엇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두 잔의 차는 자기가 따른 것이니 그 안에는 절대로 독약이 없었고 보통 차와 전혀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또 어머니가 양과를 아끼려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만약 차가 없으면 결코 손을 멈추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양과도 이 차를 마실 수가 없을 것이었다. 녹악은 두 사람이 매우 피로한 것을 보고 곧장 대청 중앙으로 가서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를 드시지요 !"

공손지와 양과는 일찍부터 몹시 목이 말라서 녹악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일제히 손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 있었다. 녹악은 차쟁반을 먼저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갔다. 공손지는 이 차가 구천척이 보낸 것이어서 그 안에는 반드시 무슨 이상한 것이 있거나 독약을 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손을 내저으며 양과에게 말했다.

"먼저 마셔라."

양과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잔 하나를 되는 대로 들고 입가로 가져가 한 모금을 마셨다. 공손지가 말했다.

"좋다, 그 잔을 나에게 줘라 !"

하며 공손지가 손을 뻗어 그의 수중에 있는 찻잔을 받았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너의 딸이 따른 차인데 설마 독약이 있겠느냐 ?"

그리고는 찻잔을 바꾸어 단숨에 마셔 버렸다.

공손지가 딸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니 그녀는 아주 화평한 표정을하고 있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악이는 이 소년을 무척 사랑하니 차 속에는 자연히 독이 억을 것이고, 내가 이미 그와 잔을 바꾸었으니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지.)

당장에 그도 차를 한모금에 다 마셔 버리고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도검을 나란히 들고 말했다.

"숨 돌릴 필요도 없다. 다시 싸우자. 흥, 이 계집이 가르쳐 주지만 않았다면 너는 목숨이 열 개라도 이미 모두 나의 금도흑검에 요절났을 것이다."

구천척은 찢긴 수건으로 다시 머리의 상처를 감싸고 음험하게 말했다.

"그의 혈도를 막는 내공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 이제 그의 혈도를 마음대로 공격해도 된다."

공손지는 멍하게 서 있는데 혀에서 은은하게 피냄새가 났다. 이때 공손지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원래 그가 수련한 가전의 폐혈(閉穴) 무공에는 하나의 중대한 금기가 있어서 육류를 조금이라도 마시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무공이 즉시 파괴되는 것이었다. 상대(上代)의 조종(祖宗)은 무의식 중에 육식에 접하게 될까 봐 조훈(祖訓)으로 엄한 영(令)을 내려 골짜기의 사람들은 육식을 먹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비록 이 상승의 내공을 수련하지는 않았지만 채소를 먹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주

도면밀하게 이 금기를 지켜왔건만 구천척이 이 독계를 사용하여 자기의 피를 차 속에 섞을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양과는 피를 섞은 차를 한잔 마시는 것은 전혀 손해가 없는 일이었지만 공손지는 평생토록 각고 수련한 폐혈의 내공이 이로써 물에 씻기듯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가 미칠 정도로 노하여 고개를 돌리니 구천척은 무릎에 하객을 대접하는 대추조림을 한 그릇 올려놓고 맛있게 먹으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이십 년 전에 이미 말한 적이 있었지. 공손가(公孫家)의 무공은 수련하기는 어렵지만 깨지기는 쉬우니 수련하지 말라고."

공손지는 눈에서 불을 뿜을 듯하더니 도검을 들어 그녀를 향해 질풍같이 달려들었다. 녹악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막아 서는데 돌연 귓가에 휘익, 바람소리가 울리더니 암기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공손지가 길게 비명을 지르더니 오른쪽 눈에서 선혈이 흘러내리고 몸을 돌려 재빨리 뛰어나갔다. 손에는 여전히 도검을 꽉 쥔 채였다. 한 방울 한 방울 선혈이 바닥에 떨어져 한줄기 핏자국이 대청 문까지 계속 이어졌다. 처참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갈수록 멀어지더니 이윽고 산 속으로 점차 사라졌다. 대청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구천척이 무슨 수법을 써서 그를 다치게 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오직 양과와 녹악만이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다. 구천척이 사용한 것은 대추씨를 내뿜는 무공이었던 것이다.

양과와 공손지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때부터 그녀는 이미 대추를 씹고 있어서 입에는 7,8개의 대추씨가 있었다. 공손지의 무공이 크게 진보한 것을 보고 자기가 대추씨를 섣불리 내뿜었다가는 그도 반드시 재빨리 피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만약 일격에 맞추지 못하면 그에게 방비를 하게 하는 격이어서 이후로 다시는 해치기가 어려울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한창 싸운 뒤에 피를 섞은 차로 그의 폐혈 무공을 깨뜨리고 나서 그가 노기충천한 틈을 타 돌연 대추씨를 내뿜은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10여 년 동안 온 정성을 기울여 각고수련한 유일한 무공으로, 힘의 강함과 조준의 정확함은 천하의 어떤 무시무시한

암기에도 뒤지지 않았다. 만약 녹악이 갑자기 나서서 앞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공손지는 두 눈은 물론 눈썹 가운데의 혈도에 맞아 목숨까지 잃었을 것이었다.

녹악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이 !"

녹악은 쫓아가려고 했다. 그러자 구천척이 사납게 말했다.

"아버지가 필요하거든 그와 함께 가서 영원히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말아라."

녹악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일은 분명히 아버지가 옳지 않았던 것이고, 어머니가 받은 고통의 참담함은 그보다도 훨씬 더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멀리 가 버렸으니 그를 쫓아가기도 힘들었다. 즉시 문각에서 천천히 돌아와 머리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천척은 어엿하게 의자에 앉아서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고는 냉소를 날리며 말했다.

"좋소, 오늘은 모두 기쁨의 술을 마십시다 ! 오늘 같은 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찌 흥이 나리오 ?"

사람들은 그녀의 소름끼치도록 차가운 눈빛과 금방이라도 괴이한 암기가 뿜어 나올 것만 같은 그녀의 입을 보았다. 곡중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었고 법왕과 윤극서 등은 각자 몰래 대비를 하고 있었다.

소용녀와 양과는 공손지가 이토록 처참하게 패한 것을 보고, 그들 역시 전혀 뜻밖이어서 자기들도 모르게 길게 한숨을 토해 내고 서로 손을 뻗어 단단히 잡았다. 두 사람은 마음이 서로 통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곧장 대청 밖으로 걸어갔다. 막 입구에 이르렀을 때 구천척이 돌연 큰소리로 외쳤다.

"양과, 어딜 가는 거냐 ?"

양과는 몸을 돌려 땅에 닿도록 읍을 하고 말했다.

"구노선배, 녹악 소저 ! 저희는 이제 떠날까 합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만날 날이 있겠지요>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녹악은 답례를 하고는 묵묵히 아무 말이 없었다. 구천척은 얼굴에 노기가 가득하여 호통을 쳤다.

"내 외동딸을 너에게 짝해 주기로 했는데 어째서 장모라고 호칭을 바꾸지 않느냐 ?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겠다는 거냐 ?"

양과는 깜짝 놀라 생각했다.

(당신이 딸을 내게 줄 것을 허락했다고 해도 나는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소.)

구천척이 말했다.

"여기 혼례상도 차려져 있고, 등촉도 모두 갖추어졌으며, 하맥들도 이렇게 많이 왔으니, 우리 무학의 무사들은 어머니 아버지도 필요없느니라. 너희들 두 사람은 오늘 혼례를 올리도록 해라."

금륜법왕 등은 양과가 소용녀를 위하여 공손지와 몇 번이나 목숨을 걸고 악전고투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구천척의 이 말을 듣고 반드시 또 한차례 풍파가 일 것임을 알았다. 각자 서로 몇 번씩 마주보며 혹은 미소를 짓고 혹은 가벼이 고개를 흔들었다.

양과는 왼손으로 소용녀의 팔을 당기고 오른손으로는 군자검의 자루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구노선배의 훌륭하신 뜻에 후배는 실로 감격해 마지않습니다. 하지만 후배의 생각으로는 저는 훌륭하신 따님의 좋은 배필이 될 자격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천척은 화가 난 눈초리로 소용녀를 한번 쏘아보고는 차디차게 말했다.

"흥, 이 조그만 여우 같은 것이 과연 절세의 미인이니 늙은 것이 폭 빠질 만도 하군. 게다가 어린 것까지 그녀 때문에 목숨까지 돌보지 않다니......"

녹악이 말했다.

"엄마, 양형은 이분 용아가씨와 이미 혼약을 맺었어요. 상세한 사정은 제가 천천히 엄마에게 말씀드릴께요."

구천척은 그녀에게 한마디 내쏘고는 여전히 노기를 띠고 말했다.

"흥,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하는 소리냐? 내가 한 말을 다시 고칠 수 있을 줄 아느냐? ......양과야, 나의 딸이 비록 용모가 뛰어나지 못하다 하더라도 조금도 너의 짝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애가 천하의 추녀라고 해도 오늘 네가 그애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마광좌는 그녀가 멋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저도 모르게 우하하, 하고 크게 웃으며 큰소리로 말했다.

"이 곡중의 부부는 정말로 웃기는 한쌍이로군! 남편은 남의 집 규녀와 결혼하자고 윽박지르고, 마누라도 남의 집 공자에게 딸을 맞아들이라고 윽박지르니 말이야. 다른 사람이면 안 된다는 말인가?"

구천척은 차갑게 말했다.

"안 돼!"

마광좌는 찢어질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돌연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대추씨 하나가 그의 눈썹 중간으로 날아갔다. 그야말로 번개처럼 빨라서 피할 방법이 없었다. 마광좌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따닥, 하는 소리와 함께 대추씨가 그의 앞니 세 개를 때렸다. 마광좌는 대로하여 호랑이처럼 울부짖으며 대들었다. 그러나 퍽퍽, 하는 두 마디 소리와 함께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환도(環跳)와 왼발에 있는 양관(陽關)의 두 혈도가 동시에 대추씨에 맞아 두 발이 스르르 풀리더니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했다.

이 세 개의 대추씨는 실로 너무나 빨라서 번갯불도 그만큼 빠르지는 못할 정도였다. 양과는 마광좌가 크게 웃을 때에 이미 구천척이 독수를 씨리라는 것을 알고 장검을 뽑아 구출하려 했지만, 이미 한 발 늦었다. 서둘러 손을 뻗어 그를 부축해 일으키고 그의 혈도를 풀어 주었다. 마광좌는 대패를 인정했다. 이 대머리 노파가 손도 움직이지 않고

발도 들지 않고 입을 한번 벌려서 자기를 쓰러뜨리자 심중으로 탄복해 마지않으며어금니 세 개를 토해 내고 입가에 선혈이 낭자한 채로 말했다.

"노부인, 당신의 무공은 저보다 뛰어납니다. 이 마가는 감히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구천척은 마광좌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양과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끝내 내 딸을 맞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냐 ?"

공손녹악은 대청의 이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허리춤에서 비수를 뽑아 칼끝을 자기의 가슴으로 향한 채 큰소리로 말했다.

"엄마, 다시 한번만 더 물어 본다면 이 딸은 여기서 당장 죽어버리고 말겠어요."

구천척이 입술을 벌리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대추씨 한 알이 날아가 비수 자루를 비스듬히 맞췄다. 이 공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비수는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가 나무 기둥에 수촌(寸)이나 깊이 박혔다. 촛불 아래 칼자루가 약하게 소리를 내며 떨고 있었다.

양과는 이곳에서 머물다 보면 헛되이 입씨름만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손가락으로 칼날을 한번 튕겨 칼날이 위이잉, 하며 떠는 소리와 함께 낭랑한 목소리로 시를 읊조렸다.

"외로운 흰 토끼는, 동쪽으로 가며 서쪽을 돌아보네. 옷은 새것만 못하고, 사람은 옛 사람만 못하네."

그리고는 소용녀의 손을 이끌고 돌아섰다.

녹악은 <옷은 새것만 못하고, 사람은 옛 사람만 못하네>의 두 귀절을 듣고 더욱 상심하여, 양과가 새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벗었던 떨어진 옷을 가져다가 두 손으로 받들어 그의 앞으로 다가가서는 조용히 말했다.

"양형 ! 옷도 옛것이 더 좋아요."

"고맙습니다."

양과는 인사를 하고 받았다. 그와 소용녀는 그녀가 일부러 그들 앞으로 와서 구천척이 대추씨를 내뿜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용녀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여 고마움을 표시했다. 녹악은 입술을 바깥쪽으로 약간 찌푸리며 두 사람에게 빨리 나가라는 시늉을 했다.

구천척은 <사람은 옛 사람만 못하네, 사람은 옛 사람만 못하네.> 이 말을 중얼줄얼 되뇌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다.

"양과, 너는 내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거지 ?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단 말이로군 !"

양과는 처참하게 한번 웃고는 다시 한걸음 물러서서 대청 문간을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소용녀는 마음이 섬 하여 말했다.

"잠깐만 !"

그리고는 낭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구노선배, 정화의 독을 치료할 수 있는 단약(丹藥)을 가지고 있습니까 ?"

녹악은 마음속으로 줄곧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수중에 오직 하나 남아 있던 절정단은 양과가 이미 소용녀에게 복용하도록 주었으며, 그 자신의 몸에 중독된 정화지독은 아직 풀어지지 않았으니 유일한 희망은 어머니가 혹시 치료의 방법을 알고 있지나 않은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반드시 이것으로 양과를 위협하여 양과에게 녹악을 처로 맞아들이도록 윽박지를 것이 뻔했기 때문에 감히 그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이다. 일이 위급하게 되자 녹악은 어머니에 대한 예의범절이고 체면이고 돌아볼 것도 없이 몸을 돌려 말했다.

"엄마 ! 만약 양공자가 도와 주지 않으셨다면 엄마의 몸은 아직도 석굴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양공자는 또 털끝만큼도 엄마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을 해야잖아요. 그의 몸에 있는 독을 풀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구천척은 후훗, 하고 냉소를 날리며 말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보답한다구 ? 원한이 있으면 원한으로 보답한단 말이렷다 ! 세상에 은혜와 원한이 이토록 분명할 수가 있단 말이냐 ? 그 공손지라는 작자도 내게 은혜로 보답한 것이란 말이냐 ?"

녹악이 큰소리로 말했다.

"엄마의 딸은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고, 새 여자를 좋아하고 옛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를 가장 미워해요. 여기 서 있는 양형이 만약 옛 애인을 버리고 저를 맞아들이려고 한다면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겠어요."

이 몇 마디 말을 듣자 구천척도 충분히 공감이 갔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는 곧 딸의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양과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어 그가 만약 맞아들이기를 원한다면 그녀도 천 번 만 번 허락할 것이었지만, 지금은 우선 양과의 목숨부터 구하려는 것을.

금륜법왕과 윤극서 등은 두 번이나 결혼을 강요하는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되자 서로 한 번씩 쳐다보고 미소를 띄었다. 법왕은 지금에 이르러서야 양과의 몸이 극심한 독에 중독된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흐뭇하여, 그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 공손녹악에게 장가갈 것을 허락하지 않기를 바랐다. 이 어린 녀석은 잔꾀가 많아서 거짓으로 허락해서 먼저 해약을 손에 넣고 다시 번복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기가 이곳에 있는 이상, 이 어린 놈이 만약 간사한 계략을 꾸민다면 얼른 지적해 구천척이 당하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구천척의 눈빛이 동에서 서로 모든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훑더니 말했다.

"양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네가 죽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네가 살기를 원한다. 너 자신은 죽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살기를 원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양과는 손을 뻗어 소용녀의 허리를 감싸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가 만약 제게 돌아올 수 없다면, 제가 만약 아가씨에게 돌아

갈 수 없다면 저희 둘은 차라리 함께 죽겠습니다."

소용녀는 황홀한 듯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

그녀와 양과는 서로 마음이 깊이 통하고 뜨겁게 사랑하여, 살고 죽는 큰일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구천척은 그녀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없어 호통을 쳤다.

"내가 만약 도와 주지 않으면 이 녀석의 목숨도 끝장이란 말이다, 알겠느냐 ? 그는 36 일 동안밖에 살지 못해. 그걸 알고 있느냐 ?"

"당신이 만약 도와 주신다면 저희 둘은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으니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도와 주지 않으면 저희 둘은 36 일밖에 같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좋아요 ! 그가 죽으면 저도 살지 않을 테니까요."

이 몇 마디 말을 할 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차갑게 굳어있었다.

구천척이 그녀를 바라보고 다시 양과를 바라보니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하고 있는데, 그 정의 뜨거움과 정성은 일생 동안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었다. 원래 세상의 남녀의 정이 이와 같은 것이리라 하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자기와 공손지와의 사이가 이렇게 허물어진 것을 생각하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니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녹악은 그녀의 품에 뛰어들며 울면서 말했다.

"엄마, 그의 독을 치료해 주고 우리 함께 외삼촌을 찾아가요. 외삼촌은 엄마에게 잘 대해 주시잖아요 ?"

구천척은 한차례 눈물을 흘리자 부드러운 감정이 일어났다. 그러나 곧 둘째 오빠 구천인이 편지에서 하던 말이 떠올랐다.

<큰형이 철장봉에서 곽정,황용의 손에 목숨을 잃고......>

(나의 수족은 다 망가지고 둘째 오빠는 이미 출가하여 중이 되어 <살륙의 칼을 버리고 삼보(三寶)에 귀의한다> 어쩌구 했으니, 그렇다면 큰오빠의 원수를 영원히 갚을 수 없단 말이 아닌가 ! 이 어린 소

년의 무공이 결코 약하지 않고 그가 군이 나의 딸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 그렇다면 그에게 나 대신에 원수를 갚도록 명한다면 그것 또한 나쁜 일이 아닐 성싶군.)

그녀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화의 독을 치료하는 절정단은 본래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세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가 비상(砒霜)에 넣어서 부수어 버렸지. 이 세 개의 단약은 공손지, 그 간적이 이미 하나를 먹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술에 취해 쓰러진 뒤에 그에게 가지도록 했는데 나중에 너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어 너는 이미 이 여자에게 먹였다. 세간에는 이제 오직 하나만이 남아 있다. 이 절정단은 내 몸에 지니고 이미 이십여 년을 보관해 왔다. 절정곡에 살면서 절정단을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목숨을 자기 것 라고 할 수 없겠지. 이제 나도 목숨이 그다지 길지 않을 테고 나의 딸도 이후로 다시는 이 골짜기에 머물지 않을 것 같으니......"

하고 말하면서 구천척은 천천히 손을 뻗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하나 남아 있는 절정단을 품에서 꺼내어 손톱으로 반으로 나눈 뒤, 한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했다.

"단약을 이제 너에게 주마. 너는 나의 사위가 되려고 하지 않으니 하는 수 없다. 하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한 가지 일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야만 한다."

양과와 소용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갑자기 호의를 베풀 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두 사람이 비록 생사를 치지도외(置之度外)하고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 살 길이 있게 되자 기뻐하며 나란히 말했다.

"노선배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든 저희는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구천척은 천천히 말했다.

"너는 두 사람의 목을 가져다 내 손에 건네 줘야 한다."

양과와 소용녀는 이 말을 듣자 즉시 그가 죽이기를 요구하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공손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양과는 공손지에 대하여 절대로 호감도 원한도 없었고, 그자는 이미 한쪽 눈을 잃고 폐혈의 내공도 깨졌으니 비록 다른 무공을 아직 잃지 않았다고 해도 그를 쫓아가 죽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공손녹악의 아버지이며, 이 아가씨는 자기에게 일편단심 깊은 정을 지니고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다면 그녀가 얼마나 상심할까 생각되어 잠시 주저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소용녀도 심중으로 공손지가 악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에게는 목숨을 구해 준 은인이었다. 그러나 구천척의 표정을 보니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의 단약을 양과에게 주지 않을 것 같았다.

구천척은 두 사람의 얼굴에 당혹한 표정이 깃드는 것을 보고 차갑게 말했다.

"나는 이들 두 사람이 너희들과 무슨 깊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며 반 조각의 단약을 손에서 가볍게 흔들었다. 양과는 그녀의 말투를 듣고 공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물었다.

"구노선배께서는 어떤 사람과 원수를 지셨습니까 ? 후배는 어떤 사람의 목을 가져와야 합니까 ?"

"너는 그 악적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느냐 ? 나의 큰오빠를 죽인 곽정,황용인가 뭔가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이다."

양과는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히야 ! 그것 정말 잘됐군요. 그 두 사람은 바로 후배의 부친을 죽인 원수입니다. 구 노선배께서 이 부탁을 하시지 않아도 후배는 그 두 사람을 찾아서 원수를 갚을 작정이었습니다."

구천척은 깜짝 놀라 말했다.

"그 말이 정말이냐 ?"

양과는 금륜법왕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 대사와 이 두 사람도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후배의 일을 그와 함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천척은 법왕을 바라보았다. 법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 양형제는 그때 분명히 곽정,황용을 도와서 소승을 곤경에 빠뜨렸지요."

소용녀와 녹악은 이 화상이 때때로 중간에서 훼방을 놓는 것이 몹시 미워서 성난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다. 법왕은 못 본 체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양형제, 그런 일이 있었잖소 ?"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면 대사께 몇 초 배워야겠군요."

법왕은 두 손을 합장하고 말했다.

"묘하군요, 묘해요 !"

구천척은 왼손을 내저으며 양과에게 말했다.

"나는 너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약을 갖다 먹어라."

양과는 앞으로 나아가 단약을 받아서 반쪽밖에 없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의 목을 가지고 와야 나머지 반쪽을 주시는 겁니까 ?"

구천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정말로 총명하구나. 한번 보기만 하면 알아채니...... 다른 사람이 여러 말 할 필요가 없겠다."

양과는 생각했다.

(우선 이 반쪽을 먹고 다시 얘기하자. 어쨌든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

양과는 곧장 반 조각을 입에 넣고 침을 섞어서 뱃속으로 삼켰다.

구천척이 말했다.

"이 절정단은 세상에 오직 하나만 남았었는데 네가 반 조각을 먹었

으니 나머지 반 조각은 내가 아주 은밀한 곳에 감추어 놓겠다. 18일 후에 네가 만약 두 사람의 목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면 나는 당연히 너에게 주마.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 몸을 칼로 천만 번을 찌르는 고통을 주고 다시 나를 석굴 속에 던져 넣더라도 나는 절대로 단약을 네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 구천척은 한번 말한 것은 철석같이 지켜서 다시 번복한 적이 없다. ...... 귀객 여러분께서는 편의대로 하십시오. 양대야(楊大爺), 용아가씨, 이제 18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

하는 말을 마치고 나서 구천척은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소용녀가 물었다.

"왜 18일로 한정하는 거죠 ?"

구천척은 눈을 감고 말했다.

"그의 몸에 있는 정화의 독은 원래 36일 뒤에 발작한다. 이제 만약 반 조각을 먹어서 독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다시 발작을 하게 되면 그 속도가 배로 빨라진디. 18일 후에 다시 반 조각을 먹어야 곧장 독이 풀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후훗 !"

여기까지 말하고는 손을 휘둘러 모두에게 어서 가라는 시늉을 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구천척은 더 이상 회유할 수가 없음을 알고 즉시 공손녹악과 작별하고 걸음을 재촉하여 수선장(水仙莊)을 나갔다. 양과는 왔던 길을 따라 배를 타고 골짜기를 나가는 번거로움을 다시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소용녀와 함께 경공을 펼쳐서 높은 산을 뛰어넘었다.